



활천 성당

효과적인 신영세자 교육(엠마오 교육)





효과적인 신영세자 교육(엠마오 교육)



효과적인 신영세자 교육(엠마오 교육)

교육과정

1. 예비자 교리반 (성직자, 수도자, 교리교사) - 6개월
2. 피정, 성지순례 후 세례
3. 엠마오교리 1 (심화과정1; 여정봉사자가 진행)
 - 22주간 교재에 따라서.
 - * 신심단체와 레지오, 구역에 포함시키지 않고 오직 미사참례와 엠마오교리만 수강한다.
4. 엠마오교리 2 (심화과정2; 성서공부 봉사자가 진행)
 - 3개월-공관복음과 사도행전 통독
 - * 신심단체 가입, 소공동체에 편입시킴. 교리반 졸업식을 한다.
5. 그룹성경공부반에 편입

'엠마오교리 2' 의 운영

- * 엠마오 교리1을 마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신약성서 중 공관복음과 사도행전을 3개월 동안 통독하며, 이때 봉사자는 성경공부 봉사자들이 맡아서 한다.

진행과정

1. 시작성가
2. 시작기도 - 성경읽기 전 기도 혹은 자유기도
3. 성경봉독 - 45분간 돌아가면서 읽는다.
4. 나눔 - 각자가 읽은 대목 중에서 가장 가슴에 와닿은 구절을 나눈다. (15분)
5. 마침기도 - 자유기도
6. 마침성가.

엠마오 교리 준비

- * 2008년 봄, 신영세자의 신앙생활 탈락이 예상되어 신비교육을 계획하고 우선 봉사자를 양성하기로 하였다.
- * 우선 교구에서 실시하는 ‘함께하는 여정’ 교육에 봉사자를 10명 수료하게 하였다.
- * 수료한 봉사자를 대상으로 기본 교육을 실시하였다.
- * 교과 과정을 신영세자를 위한 교리책을 선정하고, 보충으로 함께하는 여정 책자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 * 봉사자를 대상으로 몇 개월간 교리를 직접 실습하는 시간을 가진 후 7월 세례자부터 22주간에 걸친 교육을 시작하였다.
- * 봉사자가 각자의 시간에 따라, 요일과 시간을 정하고, 보충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신영세자, 냉담 후 돌아온 신자)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다.

→ 아쉬운 점, 좀 더 조직적인 기초를 갖추고 시작하여 많은 사람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가 부족했다. 예를 들면, 전체신자 교육을 이 방식으로 하고, 그 중에서 봉사자를 더 보충하는 대대적인 홍보가 부족했다.

- * **1차로 교육을 실시한 결과, 신영세자들의 교회적응이 좋아졌고, 교육을 마친 후에도 월모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 여러 가지 단점을 보완하여, 두 번째 반을 신설하였다.
반출석부를 게시판에 공개하여 관리하여 효과를 얻었다.
(교리반 출석, 대부모 연락처, 주일미사 참석여부)
- * 봉사자들도 첫 번째 하는 교육보다 더 실질적인 것을 깨닫게 되어 보람을 느끼고 있다.
-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영세자들의 본당 공동체 적응에 도움이 되었다.**
많은 신자들이 이 교육을 이수하도록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
봉사자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양성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한다.

엠마오 교리 실시 평가

▶ 1차 교육

대상을 신영세자로 정했으나, 지난 3년간 세례받은 모든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하여 모집하였다.

장 점

봉사자의 경험이 없고 부담을 덜기 위해서 한반에 봉사자를 2명씩 배정하였다. 부재중 일 때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서 좋았으나, 지속적인 관리와 지도, 봉사자간의 의견 조율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

3년 동안 세례받은 신자들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단 점

신영세자와 대화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

세례 후 공백기간이 있었던 관계로 이미 냉담교우가 된 경우에 연락조차 잘 되지 않았다.

보완해야 할 점.

봉사자 인원이 적어서 운영이 어려웠다.

▶ 2차 교육

장 점

한반에 봉사자 한사람씩 배정하였다. 봉사자와 신영세자가 서로 신뢰하고 정도 쌓으면 서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의 어려움이나 모르는 부분에 대한 교육의 기회가 더 생겨났다.

말씀 나누기로 소공동에 모임에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었다.

신앙문제의 어려움을 봉사자와 함께 진솔하게 나눌 수 있는 대화의 시간을 충분히 가졌 으며 이로써 신영세자의 의문이 많이 해소되고 봉사자와 더 친밀하게 되었다.

아주 초보적인 질문이라도 서로 이해하고 받아 줄 수 있어서 부담스럽지 않았다.

신앙생활의 맛을 느낄 수 있어 지속적인 모임에 대한 갈망을 더 가지게 되었다.

참사회(신영세자 동기모임)를 통해서 세례동기 간에 동지의식을 가지고 친근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단 점

봉사자 인원도 적고 신영세자 인원도 적어서 나눔에서 오는 기쁨이 덜 했다.

보완해야 할 점

봉사자가 결원 될 경우를 대비하여, 언제라도 투입가능한 예비 인력이 필요하다.
청년층 신영세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청년 봉사자 양성이 시급하다.
신영세자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엠마오 교리 이후 지속적인 관리 교육프로그램이 시급하다.

총 평

두 차례 실시한 엠마오교리는 대체로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신영세자들이 냉담하지 않고 제대로 적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봉사자의 수급이 어려웠다. 지속적인 봉사자의 배출을 위해서 성경공부를 잘 하도록 독려하고, 성경공부 봉사자를 많이 양성해야 한다. 성경공부 봉사자는 모두 엠마오 교리 봉사자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피정과 성지순례를 할 때 비용이 많이 든다. 재원을 준비해야 한다.
반을 맡지 않은 봉사자의 관리와 운영체제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신영세자 위한 신앙생활 길잡이 목차

	제 목	성 경	함께하는 여정	준비물
제 1과	신앙생활의 시작	1티모 6, 11-12	제1과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제 2과	성사생활의 시작 -고해성사	루카 15, 11-32	제21과 고해성사: 용서와 화해	
제 3과	성사생활의 시작 -성체성사	탈출 12,1-14	제20과 성체성사: 희생과 사랑	빵, 포도주
제 4과	본당과 신자생활	1코린토 12,12-27	제17과 하느님의백성, 교회	
제 5과	신자와 교회 살림	레위기 27,30-34	제28과 사قم, 섬김, 나눔	
제 6과	성모님	요한 19,25-27	제18과 믿음의 여인, 성모마리아	
제 7과	묵주기도	루카 1,26-38	제18과 믿음의 여인, 성모마리아	묵주
제 8과	가정과 성사생활	집회 7,23-28	제27과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제 9과	혼인성사	에페소 5,21-33	제23과 혼인성사: 사랑과 신의	
제10과	병자성사	마르코 2,1-12	제25과 병자성사: 치유와 희망	

	제 목	성 경	함께하는 여정	준비물
제11과	연도	야고 5,15-16	제25과 병자성사: 치유와 희망	연도책
제12과	교회 내 여러 단체들	마르코 1,9-11	제16과 사랑과 일치의 삼위일체	
제13과	선교활동	1코린 2,1-5		
제14과	전례생활	1티모 2,8-15	제26과 이렇게 기도하여라.	
제15과	순교성인	필리 1,27-30	제29과 위대한 신앙의 증거자	
제16과	103위 한국 순교성인	사도 7,54-60	제29과 위대한 신앙의 증거자	
제17과	성지순례			
제18과	성직자와 수도자	2베드 1,3-11	제24과 성품성사: 겸손과 봉사	
제19과	신학교, 수도원 방문			방문
제20과	피정 (신앙생활 재충전)			
제21과	신앙의 발전과 유지	에페 5,6-20	제30과 영원한 삶.	장소

1

제 1과 신앙생활의 시작

▣ 진행자 ◎ 함께

- ☞ 분위기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 기도 상을 차려놓고 초를 켜놓는다.
- ☞ 사람들이 모이면 성호경으로 시작을 한다.
- ☞ 준비물- 책: 이기정 지음, 「새 영세자를 위한 신앙생활 길잡이」, 2006년, 성바오로 기도상, 초, 십자가, 성경 (1티모 6, 11-12)
- ☞ 도입은 10분으로 한다.

도입

▣ 성호경

- ▣ 주님, 저희를 부르시는 당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한 분씩 주님을 초대해 주십시오.

- ☞ 각 사람이 돌아가면서 초대의 기도를 드린다. 기도의 화답은 아멘으로 한다.
처음에는 진행자가 먼저 모범을 보이는 것도 좋을 것 같음.

예) 오소서 성령님!..... 오늘 모든 일정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 아멘.

주님! _____ ◎ 아멘.

예수님! _____ ◎ 아멘.

- ☞ 기도가 끝나면 성경을 읽는다. 진행자는 성경구절을 미리 찾아놓는다.

- ▣ 오늘의 말씀은 1티모 6,11-12의 말씀입니다.

- ☞ 진행자는 성경을 3번 천천히 읽는다.

- ▣ “하느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러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그 대신에 의로움과 신심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십시오.

그대는 많은 증인 앞에서 훌륭히 싸워 영원한 생명을 차지하십시오.

그대는 많은 증인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을 때에

영원한 생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1티모 6,11-12)

☞ 진행자는 여운을 가지고 (1분 동안) 침묵을 한 후에 다음과 같이 말문을 연다.

▣ 찬미 예수님!

이렇게 모여 하느님의 말씀과 신앙에 대해

나눔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6개월간 여러분과 주님께 나아갈 여정에 함께 할 _____ 입니다.

☞ 돌아가면서 각자 자기소개를 하게 한다.

☞ 자기소개가 끝나면 진행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신자생활이란 일반 사회생활에 성사(聖事)를 더해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삶의 가치를 거룩하게 하고 생애를 거룩하게 가꾸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아 주님의 자녀로 영적인 가족이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시작 때 읽은 성경 말씀처럼 영원한 생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의로움과 신심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고 재촉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신앙 안에서의 만남을 엮어가고 계시는

교우들과 대부모님의 관계 안에서

오늘은 각자가 예수님의 인격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 진행자는 책 22쪽을 펴게 한 후 다음과 같은 질문1. 질문2를 한다.

전 개

☞ 전개는 30분

각 질문에 대해 한 사람당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질문 1 세례받을 때의 느낌, 세례 후의 느낌, 신앙생활에 대한 각오를 이야기 합시다.

☞ 진행자는 돌아가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만약 서먹한 관계여서 침묵이 오랫동안 흐르게 되면 진행자는 자신이 세례를 받은 후 부터의 교우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여 분위기를 바꾼다.

☞ 진행자는 질문1에 대해 이야기를 끝나면 질문2를 한다.

진행시 시간이 10분을 추가하게 되면 그룹원들의 이야기가 끝날 때 시간에 대한 언급을 조심스러우면서도 부드럽게 말한다.

▣ 질문 2 세례를 받은 후 대부 대모님과 관계는 어떠합니까?...

종합 심화

☞ 진행자는 질문2가 끝나면 관계에 대한 마무리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종합 심화는 5분

▣ 진솔한 나눔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본받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보이기 시작 할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처음에는 나의 신앙 전체를 흔들 때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 온 것**이지

사람을 믿기 위해, 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의 신앙을 지켜가도록 매순간 노력해야 합니다.

대부. 대모님은 영적인 부모님이시기에

영명축일이나 생일 때에 영적인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의 여정에 함께하면 더 좋을 듯 싶습니다.

나보다 더 먼저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며,

신앙인으로서 다양한 경험을 겪으셨기에

형제. 자매님들께 많은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되도록 자주 찾아뵙고, 하느님께 나아가는 여정 길에 함께하면서,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귀한 만남 안에서

서로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 기도하는 관계가 되었으면 합니다.

▣ 신앙인의 인품은 예수님의 인품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덕을 닦고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데서부터 길러집니다.

본당 안에는 여러 활동단체들이 있습니다.

세례 후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한 가지 단체에 들어가 활동을** 하기를 권장합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과 자주 만나면서

어느 순간 나의 눈과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기도 하고, 나누고 있는 나 자신을 볼 것입니다.

의로움과 신심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면서

오늘 만나는 모든 이들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의 뜻을 찾으면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오늘도 영원한 생명으로 부르시고 계시는
 예수님과 자주 만나는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하는 매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마무리 및 실천사항

☞ 진행자는 다음 주까지 제 2과 성사 생활의 시작 부분을 읽어오도록 안내한다.

☞ 1주일 동안 실천 할 것들을 함께 상의를 해서 실천사항을 정한다.

☞ 실천사항을 정하기가 어려울 때는 진행자가 제시를 해준다.

예) 대부. 대모님께 안부 전화하기.

대부. 대모님을 위해 기도드리기.

성당에서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미소짓기 등등....

☞ 마침기도로 (1티모 6, 11-12)를 읽을 수도 있으며, 돌아가면서 간단하게 기도를 드려도 좋겠다.

진행자는 마무리 때 _____ :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하고 말한다.

▣ 자유기도를 바치면서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도가 끝나면 “아멘.” 하고 응답합니다.

주님! _____ ◎ 아멘.

예수님! _____ ◎ 아멘.

진행자는 모든 기도가 끝나면....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 진행자는 자유기도가 끝나면 성가를 부른다.

▣ 마침 성가는 _____ 번입니다.

2

제 2과 성사생활의 시작

▣ 진행자 ◎ 함께

- ☞ 진행자는 제 2과부터 복음 7단계 나눔이 자연스럽게 몸에 익히도록 진행한다.
처음에는 참석자들의 나눔이 잘 안되더라도 강요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넘어 가도록 유도한다.
- ☞ 분위기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 기도 상을 차려놓고 초를 켜놓는다.
- ☞ 사람들이 모이면 따뜻한 환대와 인사한 후 성호경으로 시작을 한다.
- ☞ 준비물- 책: 이기정 지음, 「새 영세자를 위한 신앙생활 길잡이」, 2006년, 성바오로
기도상, 초, 십자가, 성경 (루카 15, 11-32),
- ☞ 도입은 10분으로 한다.
- ☞ 참고서적: 가톨릭 교리 신학원, 「초대받은 당신」, 가톨릭 출판사
김용태 신부, 「현대 성인 구도자들을 위한 가톨릭 교리」, 도서출판 만남
함께하는 여정, 통합사목연구소

도입

▣ 성호경

- ▣ 주님, 저희를 부르시는 당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한 분씩 주님을 초대해 주십시오.

- ☞ 각 사람이 돌아가면서 초대와 기도를 드린다. 기도의 화답은 아멘으로 한다.
처음에는 진행자가 먼저 모범을 보이는 것도 좋을 것 같음.

예) 오소서 성령님!..... 오늘 모든 일정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 아멘.

주님! _____ ◎ 아멘.

예수님! _____ ◎ 아멘.

- ☞ 기도가 끝나면 성경을 읽는다. 진행자는 성경구절을 미리 찾아놓는다.
- ☞ 함께하는 여정 제 21과 참조

- ▣ 어느 분이 **루카복음 15,11-32(되찾은 아들의 비유)**를 큰 소리로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 ▣ 성경 말씀 중에서 단어나 짧은 구절을 선택하여 기도하듯이 세 번씩 읽어 주십시오. 읽는 사이사이(약5초 간격)에 묵상을 위해 잠시 **침묵**을 지켜 주십시오.
 - ☞ 같은 구절을 세 번 외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침묵을 지킨다.

- ▣ 어느 분이 성경 본문을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 ☞ 참석자 모두가 함께 성경 본문을 읽을 수도 있다.

- ▣ 2분 동안 침묵을 지키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 ☞ 진행자는 시계를 보면서 시간을 잰다. 침묵 시간이 너무 짧거나 길지 않도록 주의 한다.

- ▣ 개인적으로 마음에 와 닿은 단어나 짧은 구절을 통해 자신의 마음속에 들려온 말씀을 자신의 생활과 연결시켜 함께 나눕시다.
 - ☞ 진행자는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이 어떻게 자신에게 와 닿았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느낌을 서로 나누도록 제안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본문을 해설하더라도 토론하지 않도록 한다.
 - ☞ 한 사람의 이야기가 끝나면 “잘 들었습니다.” 혹은 “감사합니다.” 등 공동체가 화답을 해준다.

전 개

- ☞ 전개는 30분.
- ▣ 진솔한 나눔을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눔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삶과 다른 사람의 삶에 살아 움직이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주님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 ☞ 진행자는 책 28쪽을 펴게 한 후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
- ▣ **세례 후 고해성사는 해보셨습니까? 고해성사 후의 느낌은 어떠하였습니까?**
 - ☞ 진행자는 자연스럽게 돌아가면서 말하도록 한다. 각 질문에 대해 한 사람당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혹시 말을 하지 않고 침묵이 길어지면 진행자의 체험을 말하도록 한다.

- ▣ **세례를 받은 후 성사생활을 열심히 하고 계심이 느껴져 기쁩니다.**
 지난주에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만나게 되는 대부모님과 교우들과의 관계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었다면 오늘은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성사생활의 시작인 고해성사를 보면서 나의 영혼을 맑게 보존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 ▣ **‘되찾은 아들의 비유’** 에서 진정한 회개와 형제적 사랑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묵상하는 성경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회개와 형제적 사랑은 윤리 질서의 토대가 됩니다.

⑤ 요한복음 20, 23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서는 평화의 축복과 함께 사죄권을 선포하셨다.

2. 고해성사에 대해 맞는 답을 모두 고르시오. ()

- ① 죄악으로 인해 손상된 자아와 본성을 회복시켜 주는 치유의 성사이다.
- ② 하느님의 자녀들이 영세 후에 범한 죄를 참회, 고백하여 하느님께 용서받는 성사이다.
- ③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을 죄의 파멸로부터 구하기 위해 이 성사를 세우시고 성직자들에게 사죄권을 주셨다.
- ④ 신앙인은 죄악으로 단절된 하느님과 이웃과 교회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화해의 성사이다.
- ⑤ 하느님의 위로를 받아 평화와 행복을 되찾게 되는 위로의 성사, 평화의 성사, 새 창조의 성사라고도 한다.

3. 고해성사의 다섯 가지 요소에 관한 설명입니다. 맞는 답에 ○표 하시오.

- ① 성찰(省察)은 자신의 양심을 살피며 무엇을 잘못했으며 어떻게 하느님의 사랑을 거절했는지 알아내는 것이다. ()
- ② 고해성사의 다섯 가지 요소는 성찰, 통회, 결심, 고백, 보속이다.()
- ③ 통회(痛悔)는 죄인들을 위해 고통 받으신 예수님과 죄로 인해 상처받은 나 자신과 이웃을 생각하며 죄를 뉘우치는 것이다.()
- ④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고 하느님과 교회를 떠나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을 정개(定改)라 한다. ()
- ⑤ 고백을 들은 사제의 충고와 명하는 기도나 선행을 실천하는 것을 보속이라 한다.()

4. 대사란 무엇입니까? 맞는 답을 모두 고르시오. ()

- ① 죄에 따른 잠벌(暫罰)을 면제해 주는 것이다.
- ② 대사는 완전한 대사와 불완전한 대사로 나누어 진다.
- ③ 잠벌(暫罰)은 죄를 지은 사람이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면, 고해성사를 통해 그 죄를 사면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죄에 따른 벌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는 것을 말한다.

- ④ 잠벌(暫罰)은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보속을 통해 사면받을 수 있다.
대사(大赦)는 바로 이 잠벌을 면제시켜 주는 것을 말한다.
- ⑤ 완전한 대사는 죄인이 받아야 할 벌을 전부 없애는 것을 말하고,
불완전한 대사는 그 벌의 일부를 없애는 것을 말한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교구 활천성당

종합 심화

☞ 종합 심화는 5분

- ▣ 고해성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하는 시간에 진지하게 임하시는 모습이 보기에 좋습니다. **답은 모두 옳은 답입니다.**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다른 이를 용서하는 사람일 뿐 아니라 우선 자기자신이 용서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기 위해 용서하는 힘과 하느님, 그리고 사람들 앞에 저지른 잘못과 허물을 자백하는 용기를 키워가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잘 알아야 합니다. 나를 아는 만큼 남을 용서해 주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 들이게 됩니다. 주님의 기도에서 보면 ‘**저희에게 잘못된 모든 이를 저희도 용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루카 11,4) 라고 예수님은 친히 알려주십니다. 상대방을 용서한 만큼만 용서해 달라고 하는이 주님의 기도가 많은 부담감으로 느껴져 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 ▣ 십계명에 비추어 매일 저녁 기도 때 나를 성찰하는 시간을 만들어 가기를 권장합니다. 성찰에 관한 내용은 교재 38쪽-39쪽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성찰을 자주 할수록 죄에 민감해 집니다. 자주 사용하는 근육은 부드럽고 근력이 있지만 자주 사용하지 않은 근육은 딱딱하고 굳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양심 또한 자주 성찰을 해서 깨끗하게 만들면 조그마한 잘 못에도 민감해 지고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어 고해성사를 자주 보게 될 것입니다.

☞ 진행자는 교재 32쪽을 펴서 고해소에서 지켜야 할 4가지와 고해할 때 주의 할 점에 대해 함께 읽는다.

▣ 교재 32쪽을 보시면 **고해소에서 지킬 사항 4가지**가 있습니다.

1. 첫 고해인지 도는 지난번 고해로부터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말한다.
2. 죄의 고백은 결론만 간단히 한다.
3. 고백이 끝났음을 알린다.
4. 사제가 주는 보속을 귀담아 듣는다.

▣ **고해할 때 주의할 점**

1. 말소리는 너무 적거나 크지 않게 한다.
- 듣는 사람은 사제 한 명이면 됨.
2. 성찰한 모든 죄에 대해 그 결과만 말한다.
- 원인을 해명하거나 진행 과정을 보고하거나 심적 상태를 표현하는 것은 고해성사의 내용에 들지 않는다.
3. 상담을 요하는 질문을 삼가라
- “기도가 잘 안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요?” 등의 질문은 고해소에서 하지 않도록 한다.

마무리 및 실천사항

☞ 진행자는 3가지 실천사항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실천하도록 과제를 내준다.

▣ **이번 주간의 실천사항:**

1. 교재 38쪽-39쪽에 있는 고해성사를 위한 성찰을 읽고 직접 성찰을 하기.
2. 고해성사 보기
3. 용서해 주기- 나 자신과 이웃, 가족 등등

▣ **자유기도를 바치면서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도가 끝나면 “아멘.” 하고 응답합니다.

주님! _____ ◎ 아멘.

예수님! _____ ◎ 아멘.

진행자는 모든 기도가 끝나면....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 진행자는 자유기도가 끝나면 성가를 부른다.

▣ **마침 성가는 _____ 번입니다.**

3

제 3과 성사생활의 시작

▣ 진행자 ◎ 함께

- ☞ 분위기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 기도 상을 차려놓고 초를 켜놓는다.
- ☞ 사람들이 모이면 따뜻한 환대와 인사한 후 성호경으로 시작을 한다.
- ☞ 준비물- 책: 이기정 지음, 「새 영세자를 위한 신앙생활 길잡이」, 2006년, 성바오로 기도상, 초, 십자가, 성경 (탈출 12,1-14), 누룩없는 빵, 포도주, 손씻는 그릇과 수건
- ☞ 도입은 10분으로 한다.
- ☞ 진행자는 집에서 누룩 없는 빵을 미리 만들어 온다.
- ☞ 참고서적: 가톨릭 교리 신학원, 「초대받은 당신」, 가톨릭 출판사
김웅태 신부, 「현대 성인 구도자들을 위한 가톨릭 교리」, 도서출판 만남
함께하는 여정, 통합사목연구소

도입

▣ 성호경

▣ 주님, 저희를 부르시는 당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한 분씩 주님을 초대해 주십시오.

- ☞ 각 사람이 돌아가면서 초대의 기도를 드린다. 기도의 화답은 아멘으로 한다.
처음에는 진행자가 먼저 모범을 보이는 것도 좋을 것 같음.

예) 오소서 성령님!..... 오늘 모든 일정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 아멘.

주님! _____ ◎ 아멘.

예수님! _____ ◎ 아멘.

- ☞ 기도가 끝나면 성경을 읽는다. 진행자는 성경구절을 미리 찾아놓는다.
- ☞ 함께하는 여정 제 21과 참조

▣ 어느 분이 **탈출**12,1-14(파스카 축제)를 큰 소리로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 성경 말씀 중에서 단어나 짧은 구절을 선택하여 기도하듯이 세 번씩 읽어 주십시오. 읽는 사이사이(약5초 간격)에 묵상을 위해 잠시 **침묵**을 지켜 주십시오.

☞ 같은 구절을 세 번 외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침묵을 지킨다.

▣ 어느 분이 성경 본문을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 참석자 모두가 함께 성경 본문을 읽을 수도 있다.

▣ 2분 동안 침묵을 지키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 진행자는 시계를 보면서 시간을 쟀다. 침묵 시간이 너무 짧거나 길지 않도록 주의 한다.

▣ 개인적으로 마음에 와 닿은 단어나 짧은 구절을 통해 자신의 마음속에 들려온 말씀을 자신의 생활과 연결시켜 함께 나눕시다.

☞ 진행자는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이 어떻게 자신에게 와 닿았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느낌을 서로 나누도록 제안 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본문을 해설하더라도 토론하지 않도록 한다.

☞ 한 사람의 이야기가 끝나면 “잘 들었습니다.” 혹은 “감사합니다.” 등 공동체가 화답을 해준다.

전 개

☞ 전개는 30분.

▣ 오늘 말씀을 통해서 파스카 축제 예식을 잘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들도 유대인들이 안식일이면 지금도 하고 있는 파스카 예식 중 중요한 부분만 함께 할 것입니다. 축제 예식순서는 개회식 - 본 만찬식 (핫가다 예식) - 폐회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파스카 축제 예식을 다는 못하지만 간략하게 여러분과 함께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탈출기 낭독 부분은 이미 나눔을 통해서 하였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자는 나이 어린 아이 역할을 할 사람을 뽑아서 예식 때 읽도록 안내하고 먼저 연습을 시킨다.

☞ 식탁준비는 진행자의 말이 끝나면 미리 준비되어 있는 (누룩 없는 빵, 식탁보, 초, 포도주, 포도주잔, 손 씻는 그릇, 수건) 재료를 가지고 함께 준비한다.

☞ 파스카 만찬례 예식용 유인물을 미리 나누어 준다.

☞ 주례자 역할은 진행자가 한다.

☞ 진행자는 준비가 되는 대로 파스카 만찬례 예식을 시작한다.

☞ 전개는 30분

Pascha 만찬례

식탁 준비 : 빵, 포도주, 손씻는 그릇과 수건

개회식

1.첫째잔 축복 : 주례자를 중심으로 모두 식탁에 앉으면 잔에 포도주를 붓고 자기 앞에 놓는다.

(주례자는 다음과 같이 잔의 축복기도를 한다.)

주례자 : 온 누리의 왕이시며 포도나무 열매의 창조주이신 우리 주 야훼는 찬미 받으소서.

일 동 : 아 멘.

주례자 : 우리를 못 백성 가운데에서 선택하시고 모든 민족들 위에 들어 높여주시며 당신의 계명으로 거룩하게 하신 온 누리의 왕이신 주 야훼는 찬미 받으소서.

일 동 : 아 멘.

주례자 : 우리에게 에집트에서의 탈출을 기념하며 누룩없는 빵의 축제를 지내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성장을 허락하시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보살펴주시는 온 누리의 왕이신 우리 주 야훼는 찬미 받으소서.

일 동 : 아 멘

(기도가 끝나면 잔을 마신다)

2.손씻음 : 각자가 아무런 말없이 손을 씻는다.

본 만찬식

1.빵을 쪼갬 : 주례자는 빵을 둘로 쪼갬다.

2.햇가다 예식

주례자 : “이것은 우리의 조상들이 에집트 땅에서 먹었던 고통의 빵입니다.

주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와서 함께 먹게 합시다.

가난한 사람은 누구든지 와서

우리와 함께 빠스카 축제를 지내게 합시다.

지금은 우리가 여기 있지만

곧 우리는 약속의 땅에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종살이를 하지만
곧 우리는 자유로와질 것입니다.”

네가지 질문 : 가장 어린 아들이나 최연소 남자 어린이가 주례자에게
연속적으로 질문한다.

최연소 남자아이:

- * 오늘밤은 왜 다른 모든 밤과는 다릅니까?
- * 다른 모든 밤에는 누룩이 든 빵이든 안든 빵이든 다 먹는데
오늘밤엔 왜 누룩 안든 빵만 먹습니까?
- * 다른 모든 날에는 고기를 굽거나 익히거나 삶아서 먹는데
오늘밤엔 왜 빠스카 양고기를 구어서만 먹습니까?
- * 다른 모든 밤에는 아무 채소나 먹는데
오늘 밤엔 왜 쓴 나물만 먹습니까?
그리고 왜 두번씩 소금물에 찍어서 먹습니까?

가장의 대답 : (주례자는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 * 오늘밤은 야훼께서 에집트 사람들을 재앙으로 치실 때에
우리 조상들의 집을 지나가셨음을 기념하는 밤이다.
- * (빵을 가리키면서)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에집트에서 급히 나오느라고
미처 양식을 장만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 * (고기를 가리키면서)
이것은 오늘밤에 야훼께서 빠스카 양의 희생을 보시고
우리조상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 * (쓴나물을 가리키면서)
이것은 에집트인들이 우리 조상들을
고생시킨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이다.
기록되기를 “그들은 힘든 노동으로 고생시켰으니
벽돌을 만드는 일과 밭에서 온갖 힘겨운 일로
조상들의 생활을 쓰라리게 만들었다” 고 하였다

3. 1부 알렐루야 : (모두 일어서서 주례자는 잔을 들고서 이렇게 말한다.)

“ 그러므로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기적을 행하신 그분께 감사를 드리고
 노래와 기도로써 찬미하는 영광을 드리며
 높이 받드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그분은 우리를 노예생활에서 자유로,
 근심에서 기쁨으로 슬픔에서 즐거움으로
 어둠에서 큰 빛으로 인도해 주셨다.
 그러므로 그분께 새로운 노래를 불러 드리자.
 영원하신 분을 찬미하자.”
 (권고가 끝나면 잔을 놓고서 시편 113-114을 낭독한다)

주례자: 시편 113편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주님의 종들아. 찬양하여라,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은 찬미받으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까지 주님의 이름은 찬양받으소서.
 주님께서는 모든 민족들 위에 높으시고
 그분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다.
 누가 우리 하느님이신 주님과 같으랴?
 드높은 그 곳에 좌정하신 분
 하늘과 땅을 굽어보시는 분
 억눌린 이를 먼지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불쌍한 이를 거름에서 들어 올리시는 분.
 그를 귀족들과,
 당신 백성의 귀족들과 한자리에 앉히시기 위함이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도 집 안에서 살며
 여러 아들 두고 기뻐하는 어머니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시편 114편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야곱 집안이 이상한 말을 하는 민족을 떠나올 때
유다는 그분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분의 왕국이 되었네.
바다가 보고 달아났으며 요르단이 뒤로 돌아섰네.
산들은 숫양들처럼,
언덕들은 어린양들처럼 꺾충꺾충 뛰었네.
바다야, 어찌 도망치느냐?
요르단아, 어찌 뒤로 돌아서느냐?
산들아, 너희가 숫양들처럼,
언덕들아, 너희가 어린양들처럼 꺾충꺾충 뛰다니?
땅아, 주님 앞에서 떨어라, 야곱의 하느님 앞에서.
그분께서는 바위를 못으로,
차돌을 물 솟는 샘으로 바꾸시네.

4. 손 씻음 : (다시 본 식사를 위한 준비예식으로 손을 씻으며 기도한다.)

주례자: “온 누리의 왕이신 우리 주 야훼는 찬미 받으소서.
주는 당신 계명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손을 씻도록 명하셨나이다.”

5. 빵과 고기와 쓴나물의 축복 : (주례자는 빵을 들고 축복기도를 한다.)

주례자 : “온 누리의 왕이신 우리 주 야훼는 찬미 받으소서.
주는 우리를 당신 계명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누룩없는 빵과 어린 양과 쓴 나물을 먹으라 명하셨나이다.”

일 동 : 아 멘

6. 성대한 식사 : (일상 식사 때와 같이 식사한다. 특별 예식은 없다.)

7. 식사 후 감사기도 : (먼저 순례자의 노래를 한다. 성체성가를 해도 된다.)
(노래가 끝나면 주례자와 일동 사이에 감사기도 앞의 대화를 나누는데
다음과 같다.)

☞ 주례자는 노래는 생략하고 감사기도로 바로 들어간다.

주례자 : 야훼께 감사합니다.

일 동 : 영원하신 분의 이름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찬미 받으소서.

주례자 : 우리에게 음식을 주시어 먹게 하신 하느님을 찬양합니다.

일 동 : 우리에게 음식을 주시어 먹게 하시고 당신 자비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아멘.

(이것이 끝나면 긴 찬미와 감사의 기도를 바치는데 우리는 이를 생략하거나 미사의 감사송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주례자는 너무 길어질 경우 아멘으로 마친다. 폐회식은 생략한다.

폐회식

8. 2부 알렐루야 : 성가 _____ 번입니다.

파스카 축제 양식

니산달 14일에 어린양을 죽여서 먹는다.

개회식 - 본 만찬실 (핫가다 예식) - 폐회식

1. 개회식

- * 첫번째 잔을 마시고 손을 씻는다.
- * 전식 (쓴 나물과 누룩없는 빵을 먹는다)
- * 어린양의 고기를 구워서 먹고 두번째로 술잔을 돌려 마신다.

2. 본 만찬식

- * 최연소자가 축제의 뜻을 물음
- * 주례자인 가장이 출애굽의 의미를 설명함.
- * 찬미가 (시편 112-113,8) 낭독
- * 가장이 빵과 고기, 쓴나물에 대한 축복
- * 어린양을 나누어 먹는 본식사
- * 세번째 술잔을 돌려 마시고 축복과 감사의 기도를 바침

3. 폐회식

- * 시편 (시편 29,113-117,135)를 찬미가로 바친다.

종합 심화

☞ 종합 심화는 5분

- ▣ 우리는 오늘 유대인들의 파스카 축제기간 동안에 특별한 의식을 갖춘 식사를 함께 재현하였습니다.
- ▣ 에집트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하느님의 위대한 업적을 기념하고, 구원을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백성이 되기 위하여 해마다 파스카 축제기간 동안에 특별한 의식을 갖춘 식사를 매 안식일마다 간략하게 거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후로는 그들의 회당에 모여 파스카 축제를 거행했고, 이 유대인의 전통은 오늘날까지도 지켜오고 있습니다.

☞ 파스카의 뜻에 대해 설명을 할 경우 탈출기 12, 13절을 참조한다.

“너희가 있는 집에 발린 피는 너희를 위한 표지가 될 것이다. 내가 이집트를 칠 때, 그 피를 보고 너희만은 거르고 지나가겠다. 그러면 어떤 재앙도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 ▣ 유대인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조상들이 모세에 의해 에집트의 노예상태에서 해방되어 광야를 걸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된 역사가 신앙의 원점이 됩니다. 그들은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선택하셔서 특별히 지켜주셨다는 것을 자손 대대로 전함으로써, 그 추억이 또한 지금의 고통을 견디어 낼 수 있는 힘을 주어 하느님이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희망을 가지게 했던 것입니다.

신약의 파스카-성체성사 건립

- ▣ 예수님은 공생활 3년을 마칠 무렵 그 당신의 관습대로 예루살렘에서 파스카 축제를 지내려고 하셨습니다. 루카 (22, 14-20)에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예견하시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성체성사를 세우시고 새로운 계약을 이스라엘과 맺으십니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최후의 만찬은 유대인들의 파스카 기념식사와 같은 형식의 것이지만, 예수님은 이 거룩한 식사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 하십니다.

- ▣ 예수님은 신약에서 자신의 몸과 피를 제물로 바쳐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희생되시고 모든 사람들의 죄 사함을 위해 자신의 몸과 피를 제물로 바쳐 영적 양식으로 우리에게 남겨 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신약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의 혈제를 피 흐르지 않는 제사 즉 빵과 포도주의 형태 안에 스스로 제물로 바친 것이 바로 미사성제(성체성사)입니다.

- ▣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당신의 구원사업을 기념하며 당신의 부활로 가져다 주실 새 생명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언제까지나 함께 모여 식사를 나누기를 원하신 것이고, 바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파스카 잔치이자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제사인 미사입니다.

☞ 진행자는 교재 40쪽을 펴게 한 후 성체성사 부분을 읽고 마무리 한다.

- ▣ 교재 40쪽을 보면 성체성사에 대해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생활 속에서 점차 자라나는 영혼은
하느님의 사랑을 깊이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체성사에 자주 참여하는 것은 그만큼 천상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체를 자주 모시는 사람의 영혼은 부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를 통해 활동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비워
드릴 때, 우리는 구세주의 사랑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마무리 및 실천사항

☞ 진행자는 3가지 실천사항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실천하도록 과제를 내준다.

- ▣ 이번 주간의 실천사항:

1. 평일 미사 참석하기

- ▣ 자유기도를 바치면서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도가 끝나면 “아멘.” 하고 응답합니다.

주님! _____ ◎ 아멘.

예수님! _____ ◎ 아멘.

진행자는 모든 기도가 끝나면....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 진행자는 자유기도가 끝나면 성가를 부른다.

- ▣ 마침 성가는 _____ 번입니다.

<Pascha 만찬례>

식탁 준비 : 빵, 포도주, 손씻는 그릇과 수건

개회식

1. 첫째잔 축복 : 주례자를 중심으로 모두 식탁에 앉으면 잔에 포도주를 붓고 자기 앞에 놓는다.

(주례자는 다음과 같이 잔의 축복기도를 한다.)

주례자 : 온 누리의 왕이시며 포도나무 열매의 창조주이신 우리 주 야훼는 찬미 받으소서.

일 동 : 아 멘.

주례자 : 우리를 못 백성 가운데에서 선택하시고 모든 민족들 위에 들어 높여주시며 당신의 계명으로 거룩하게 하신 온 누리의 왕이신 주 야훼는 찬미 받으소서.

일 동 : 아 멘.

주례자 : 우리에게 에집트에서의 탈출을 기념하며 누룩없는 빵의 축제를 지내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성장을 허락하시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보살펴주시는 온 누리의 왕이신 우리 주 야훼는 찬미 받으소서.

일 동 : 아 멘

(기도가 끝나면 잔을 마신다)

2. 손씻음 : 각자가 아무런 말없이 손을 씻는다.

3. 채소먹음 : 각자가 채소를 소금물에 찍으면 주례자는 다음의 채소 축복기도를 한다.

주례자 : 온 누리의 왕이시며 땅의 과일의 창조주이신 우리의 하느님이신 야훼는 찬미 받으소서.

일 동 : 아 멘

(기도가 끝나면 채소를 먹는다)

본 만찬식

1. 빵을 쪼갬 : 주례자는 빵을 둘로 쪼갬다. (두번째 잔을 준비한다.)

2. 핫가다 예식

주례자 : “이것은 우리의 조상들이 에집트 땅에서 먹었던 고통의 빵입니다. 주리

는 사람은 누구든지 와서 함께 먹게 합시다. 가난한 사람은 누구든지 와서 우리와 함께 빠스카 축제를 지내게 합시다. 지금은 우리가 여기 있지만 곧 우리는 약속의 땅에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종살이를 하지만 곧 우리는 자유로와질 것입니다.”

네가지 질문 : 가장 어린 아들이나 최연소 남자 어린이가 주례자에게 연속적으로 질문한다.

- * 오늘밤은 왜 다른 모든 밤과는 다릅니까?
- * 다른 모든 밤에는 누룩이 든 빵이든 안든 빵이든 다 먹는데 오늘밤엔 왜 누룩 안든 빵만 먹습니까?
- * 다른 모든 날에는 고기를 굽거나 익히거나 삶아서 먹는데 오늘밤엔 왜 빠스카 양고기를 구어서만 먹습니까?
- * 다른 모든 밤에는 아무 채소나 먹는데 오늘 밤엔 왜 쓴 나물만 먹습니까? 그리고 왜 두번씩 소금물에 찍어서 먹습니까?

탈출기사낭독 : 주례자는 대답에 앞서 에집트 탈출기사를 낭독하고 기도를 한다.
탈출 12,1 - 14

가장의 대답 : 주례자는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 * 오늘밤은 야훼께서 에집트 사람들을 재앙으로 치실 때에 우리 조상들의 집을 지나가셨음을 기념하는 밤이다.
- * (빵을 가리키면서)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에집트에서 급히 나오느라고 미처 양식을 장만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 * (고기를 가리키면서) 이것은 오늘밤에 야훼께서 빠스카 양의 희생을 보시고 우리조상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 * (쓴나물을 가리키면서) 이것은 에집트인들이 우리 조상들을 고생시킨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이다. 기록되기를 “그들은 힘든 노동으로 고생시켰으니 벽돌을 만드는 일과 밭에서 온갖 힘겨운 일로 조상들의 생활을 쓰라리게 만들었다” 고 하였다

3. 1부 알렐루야 : 모두 일어서서 주례자는 잔을 들고서 이렇게 말한다.

“ 그러므로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기적을 행하신 그분께 감사를 드리고 노래와 기도로써 찬미하는 영광을 드리며 높이 받드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

다. 그분은 우리를 노예생활에서 자유로, 근심에서 기쁨으로 슬픔에서 즐거움으로 어둠에서 큰 빛으로 인도해 주셨다. 그러므로 그분께 새로운 노래를 불러 드리자. 영원하신 분을 찬미하자.”

(권고가 끝나면 잔을 놓고서 시편 113-114을 노래한다)

4. 둘째잔 축복 : 주례자는 둘째잔 축복기도를 첫째잔 기도와 같은 내용으로 한다.
(기도가 끝나면 둘째잔을 마신다)

5. 손씻음 : 다시 본 식사를 위한 준비예식으로 손을 씻으며 기도한다.
“온 누리의 왕이신 우리 주 야훼는 찬미 받으소서. 주는 당신 계명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손을 씻도록 명하셨나이다.”

6. 빵과 고기와 쓴나물의 축복 : 주례자는 빵을 들고 축복기도를 한다.
주례자 : “온 누리의 왕이신 우리 주 야훼는 찬미 받으소서.
주는 우리를 당신 계명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누룩 없는 빵과 어린 양과 쓴 나물을 먹으라 명하셨나이다.”

일 동 : 아 멘

7. 성대한 식사 : 일상 식사 때와 같이 식사한다. 특별 예식은 없다.
(식사가 끝나면 세째잔을 채운다)

8. 식사 후 감사기도 : 먼저 순례자의 노래를 한다. (성체성가를 해도 된다)
(노래가 끝나면 주례자와 일동 사이에 감사기도 앞의 대화를 나눈데 다음과 같다.)

주례자 : 야훼께 감사합니다.

일 동 : 영원하신 분의 이름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찬미 받으소서

주례자 : 우리에게 음식을 주시어 먹게 하신 하느님을 찬양합니다.

일 동 : 우리에게 음식을 주시어 먹게 하시고

당신 자비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이것이 끝나면 긴 찬미와 감사의 기도를 바치는데 우리는 이를 생략하거나 미사의 감사송으로 대치할 수 있다.)

9. 세째잔의 축복 : 식사 후 감사기도가 끝나면 셋째 잔을 바른손으로 높이 들고 축복기도를 한다.

* 온 누리의 왕이시며 포도나무 열매의 창조주이신 우리 주 야훼는 찬미 받으소서
(기도가 끝나면 셋째 잔을 마신다)

폐회식

1. 2부 알렐루야 : 모두 일어서서 시편 113,9 -117 : 135을 노래한다.
(길 경우에 발췌해서 하거나 알맞는 성가로 대치한다.)

이스라엘 백성의 누룩 없는 빵

그들은 누룩 없는 과자를 구웠다.(탈출 12,39)
이스라엘 백성은 빵을 부풀릴 시간도 없이 이집트를 떠났다.

준비물

- * 밀가루 2컵(가능하면 두릅밀로)
- * 찬물 3/4컵
- * 올리브 기름 2큰술
- * 소금 1작은술
- * 우슬초, 양파, 마늘, 깨, 수막등 성경에 나오는 향신료를 넣을 수 있다.

만드는 방법

1. 밀가루 2컵과 올리브 기름 2큰술과 소금을 섞어
찬물 3/4컵을 부어 3분간 반죽한 후 향신료를 넣는다.
2. 반죽을 8등분을 하여 둥글넓적하게 빚고 포크로 찍어 자국을 낸다.
3. 뜨거운 스토브에 튀김용 팬을 거꾸로 놓고 굽거나
쿠키판에 250도 오븐에서 10분간 굽는다.

Pascha 만찬례

식탁 준비 : 빵, 포도주, 손씻는 그릇과 수건

개회식

1.첫째잔 축복 : 주례자를 중심으로 모두 식탁에 앉으면 잔에 포도주를 붓고 자기 앞에 놓는다.

(주례자는 다음과 같이 잔의 축복기도를 한다.)

주례자 : 온 누리의 왕이시며 포도나무 열매의 창조주이신 우리 주 야훼는 찬미 받으소서.

일 동 : 아 멘.

주례자 : 우리를 못 백성 가운데에서 선택하시고 모든 민족들 위에 들어 높여주시며 당신의 계명으로 거룩하게 하신 온 누리의 왕이신 주 야훼는 찬미 받으소서.

일 동 : 아 멘.

주례자 : 우리에게 에집트에서의 탈출을 기념하며 누룩없는 빵의 축제를 지내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성장을 허락하시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보살펴주시는 온 누리의 왕이신 우리 주 야훼는 찬미 받으소서.

일 동 : 아 멘

(기도가 끝나면 잔을 마신다)

2.손씻음 : 각자가 아무런 말없이 손을 씻는다.

본 만찬식

1.빵을 쪼갬 : 주례자는 빵을 둘로 쪼갬다.

2.햇가다 예식

주례자 : “이것은 우리의 조상들이 에집트 땅에서 먹었던 고통의 빵입니다.

주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와서 함께 먹게 합시다.

가난한 사람은 누구든지 와서

우리와 함께 빠스카 축제를 지내게 합시다.

지금은 우리가 여기 있지만
 곧 우리는 약속의 땅에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종살이를 하지만
 곧 우리는 자유로와질 것입니다.”

네가지 질문 : 가장 어린 아들이나 최연소 남자 어린이가 주례자에게
 연속적으로 질문한다.

최연소 남자아이:

- * 오늘밤은 왜 다른 모든 밤과는 다릅니까?
- * 다른 모든 밤에는 누룩이 든 빵이든 안든 빵이든 다 먹는데
 오늘밤엔 왜 누룩 안든 빵만 먹습니까?
- * 다른 모든 날에는 고기를 굽거나 익히거나 삶아서 먹는데
 오늘밤엔 왜 빠스카 양고기를 구어서만 먹습니까?
- * 다른 모든 밤에는 아무 채소나 먹는데
 오늘 밤엔 왜 쓴 나물만 먹습니까?
 그리고 왜 두번씩 소금물에 찍어서 먹습니까?

가장의 대답 : (주례자는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 * 오늘밤은 야훼께서 에집트 사람들을 재앙으로 치실 때에
 우리 조상들의 집을 지나가셨음을 기념하는 밤이다.
- * (빵을 가리키면서)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에집트에서 굶히 나오느라고
 미처 양식을 장만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 * (고기를 가리키면서)
 이것은 오늘밤에 야훼께서 빠스카 양의 희생을 보시고
 우리조상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 * (쓴나물을 가리키면서)
 이것은 에집트인들이 우리 조상들을
 고생시킨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이다.
 기록되기를 “그들은 힘든 노동으로 고생시켰으니
 벽돌을 만드는 일과 밭에서 온갖 힘겨운 일로
 조상들의 생활을 쓰라리게 만들었다” 고 하였다

3. 1부 알렐루야 : (모두 일어서서 주례자는 잔을 들고서 이렇게 말한다.)

“ 그러므로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기적을 행하신 그분께 감사를 드리고
노래와 기도로써 찬미하는 영광을 드리며
높이 받드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그분은 우리를 노예생활에서 자유로,
근심에서 기쁨으로 슬픔에서 즐거움으로
어둠에서 큰 빛으로 인도해 주셨다.
그러므로 그분께 새로운 노래를 불러 드리자.
영원하신 분을 찬미하자.”

(권고가 끝나면 잔을 놓고서 시편 113-114을 낭독한다)

주례자: 시편 113편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주님의 종들아. 찬양하여라,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은 찬미받으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까지 주님의 이름은 찬양받으소서.

주님께서서는 모든 민족들 위에 높으시고

그분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다.

누가 우리 하느님이신 주님과 같으랴?

드높은 그 곳에 좌정하신 분

하늘과 땅을 굽어보시는 분

억눌린 이를 먼지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불쌍한 이를 거름에서 들어 올리시는 분.

그를 귀족들과,

당신 백성의 귀족들과 한자리에 앉히시기 위함이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도 집 안에서 살며

여러 아들 두고 기뻐하는 어머니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시편 114편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야곱 집안이 이상한 말을 하는 민족을 떠나올 때
 유다는 그분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분의 왕국이 되었네.
 바다가 보고 달아났으며 요르단이 뒤로 돌아섰네.
 산들은 숫양들처럼,
 언덕들은 어린양들처럼 경충경충 뛰었네.
 바다야, 어찌 도망치느냐?
 요르단야, 어찌 뒤로 돌아서느냐?
 산들아, 너희가 숫양들처럼,
 언덕들아, 너희가 어린양들처럼 경충경충 뛰다니?
 땅아, 주님 앞에서 떨어라, 야곱의 하느님 앞에서.
 그분께서는 바위를 못으로,
 차돌을 물 솟는 샘으로 바꾸시네.

4. 손 씻음 : (다시 본 식사를 위한 준비예식으로 손을 씻으며 기도한다.)

주례자: “온 누리의 왕이신 우리 주 야훼는 찬미 받으소서.
 주는 당신 계명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손을 씻도록 명하셨나이다.”

5. 빵과 고기와 쓴나물의 축복 : (주례자는 빵을 들고 축복기도를 한다.)

주례자 : “온 누리의 왕이신 우리 주 야훼는 찬미 받으소서.
 주는 우리를 당신 계명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누룩없는 빵과 어린 양과 쓴 나물을 먹으라 명하셨나이다.”

일 동 : 아 멘

6. 성대한 식사 : (일상 식사 때와 같이 식사한다. 특별 예식은 없다.)

7. 식사 후 감사기도 : (먼저 순례자의 노래를 한다. 성체성가를 해도 된다.)
 (노래가 끝나면 주례자와 일동 사이에 감사기도 앞의 대화를 나누는데
 다음과 같다.)

☞ 주례자는 노래는 생략하고 감사기도로 바로 들어간다.

주례자 : 야훼께 감사합니다.

일 동 : 영원하신 분의 이름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찬미 받으소서.

주례자 : 우리에게 음식을 주시어 먹게 하신 하느님을 찬양합니다.

일 동 : 우리에게 음식을 주시어 먹게 하시고 당신 자비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아멘.

(이것이 끝나면 긴 찬미와 감사의 기도를 바치는데 우리는 이를 생략하거나 미사의 감사송으로 대처할 수 있다.)

☞ 주례자는 너무 길어질 경우 아멘으로 마친다. 폐회식은 생략한다.

폐회식

8. 2부 알렐루야 : 성가 _____ 번입니다.

파스카 축제 양식

니산달 14일에 어린양을 죽여서 먹는다.

개회식 - 본 만찬식 (핫가다 예식) - 폐회식

1. 개회식

- * 첫번째 잔을 마시고 손을 씻는다.
- * 전식 (쓴 나물과 누룩없는 빵을 먹는다)
- * 어린양의 고기를 구워서 먹고 두번째로 술잔을 돌려 마신다.

2. 본 만찬식

- * 최연소자가 축제의 뜻을 물음
- * 주례자인 가장이 출애굽의 의의를 설명함.
- * 찬미가 (시편 112-113,8) 낭독
- * 가장이 빵과 고기, 쓴나물에 대한 축복
- * 어린양을 나누어 먹는 본식사
- * 세번째 술잔을 돌려 마시고 축복과 감사의 기도를 바침

3. 폐회식

- * 시편 (시편 29,113-117,135)를 찬미가로 바친다.

4

교회의 조직과 운영

▣ 진행자 ◎ 함께

- ☞ 분위기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 기도 상을 차려놓고 초를 켜놓는다.
- ☞ 사람들이 모이면 따뜻한 환대와 인사한 후 성호경으로 시작을 한다.
- ☞ 준비물- 책: 이기정 지음, 「새 영세자를 위한 신앙생활 길잡이」, 2006년, 성바오로
기도상, 초, 십자가, 성경 (1코린토 12,12-27)
- ☞ 도입은 10분으로 한다.
- ☞ 참고서적: 가톨릭 교리 신학원, 「초대받은 당신」, 가톨릭 출판사
김웅태 신부, 「현대 성인 구도자들을 위한 가톨릭 교리」, 도서출판 만남
함께하는 여정, 통합사목연구소

도입

▣ 성호경

- ▣ 주님, 저희를 부르시는 당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한 분씩 주님을 초대해 주십시오.

- ☞ 각 사람이 돌아가면서 초대의 기도를 드린다. 기도의 화답은 아멘으로 한다.
처음에는 진행자가 먼저 모범을 보이는 것도 좋을 것 같음.

예) 오소서 성령님!..... 오늘 모든 일정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 아멘.

주님! _____ ◎ 아멘.

예수님! _____ ◎ 아멘.

- ☞ 기도가 끝나면 성경을 읽는다. 진행자는 성경구절을 미리 찾아놓는다.
- ☞ 함께하는 여정 제 21과 참조

- ▣ 어느 분이 1코린토 12,12-27 를 큰 소리로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 ▣ 성경 말씀 중에서 단어나 짧은 구절을 선택하여 기도하듯이 세 번씩 읽어
주십시오. 읽는 사이사이(약5초 간격)에 묵상을 위해 잠시 침묵을 지켜 주십시오.

- ☞ 같은 구절을 세 번 외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침묵을 지킨다.
- ▣ 어느 분이 성경 본문을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 ☞ 참석자 모두가 함께 성경 본문을 읽을 수도 있다.
- ▣ 2분 동안 침묵을 지키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 ☞ 진행자는 시계를 보면서 시간을 잔다. 침묵 시간이 너무 짧거나 길지 않도록 주의 한다.
- ▣ 개인적으로 마음에 와 닿은 단어나 짧은 구절을 통해 자신의 마음속에 들려온 말씀을 자신의 생활과 연결시켜 함께 나눕시다.
- ☞ 진행자는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이 어떻게 자신에게 와 닿았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느낌을 서로 나누도록 제안 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본문을 해설하더라도 토론하지 않도록 한다.
- ☞ 한 사람의 이야기가 끝나면 “잘 들었습니다.” 혹은 “감사합니다.” 등 공동체가 화답을 해준다.

전 개

- ☞ 전개는 30분.

교회의 조직과 구조

- ▣ 교회를 세우신 분은 그리스도이시며,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세상에 선포하며 증거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구원사업의 도구입니다. 당신의 말씀이 세상이 마칠 때까지 선포 되기를 원하셨고, 그 일을 위해 사도들을 파견하셨습니다.
- ▣ 몇 몇 분들은 교회를 멋진 교회건물이나 행정적인 절차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교회는 하느님의 백성들이 주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는 공동체인 영적이며 불가시적인 것과 인간의 오감을 통해 체험되는 구조와 조직이 필요한 가시적인면도 함께 있습니다. 이 조직과 구조는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한 것이며, 신자들의 영적 유익을 위해 존재하며, 성품권에 의한 교계로 이루어 집니다.**
 - ☞ 진행자는 유인물을 나누어 준다. 유인물을 보면서 질문을 풀어가면서 보충설명을 해주어도 좋다.
- ▣ 지금 나누어 드린 교계제도와 교회운영에 관한 유인물을 보시고 빈칸을 채우십시오.
 - ☞ 2분간 시간을 준 후 어느 정도 빈칸을 다 채워갈 때 유인물을 보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 ▣ **하느님의 백성이란** 하느님을 믿고 따르면서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며, 하느님의 부르심과 교회 내에서의 고유한 신분에 따라 크게는 성직자와 평신도로 구분합니다.
- ▣ **교계란** 하느님의 백성을 가르치고 성화하고 통치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목자들의 조직을 말합니다. 넓은 의미로는 성직자와 평신도를 포함하는

교회조직 전체를 의미하며, 가톨릭교회의 기본 체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계제도는 교회 내에서 신분질서나 지위의 고하를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 베드로 사도는 로마에 건너가서 그 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로마교회의 초대 주교로 활동하시다가, 그 곳에서 네로 황제 박해 때인 64년에 순교를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 사도의 뒤를 이은 로마의 주교는 사도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전체 교회의 으뜸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로마 주교의 으뜸으로서의 권위를 수위권이라고 하며 로마주교는 교황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 교황의 특별한 사명은 사도 베드로의 사명과 같이 전체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신앙으로 인도하고, 그 신앙에 따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자들을 가르치고 보호하는 것이며, 교황은 교회의 최고의 목자이자 국제 정치상으로 바티칸 시국의 국가원수이기도 합니다. 교황의 권한은 전 세계 교회에 보편적인 것인데 교황의 권한 중에서도 특히, 신앙의 내용이나 도덕적인 가르침을 내리는 경우에는 절대 오류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교황의 무류지권은 중요합니다. 현재 교황은 2005년 4월에 265대 교황으로 선출된 독일 출신인 베네딕도 16세입니다. 본명은 요세프 알로이스 라칭거(독일어: Joseph alois ratzinger)이십니다.

▣ 교황은 추기경 가운데서 선출합니다. 새 교황을 선출하기 위해 전 세계의 추기경들은 로마교황청으로 모입니다. 교황청은 투표할 때마다 굴뚝의 연기를 통해 그 결과를 외부에 알리는데, 선거에 참여한 추기경 전체의 2/3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새로운 교황으로 선임됩니다.

▣ 추기경은 교황 다음가는 성직자의 지위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여러 임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교황을 보필합니다. 특별히 사도좌가 공석일 때 새로운 교황을 선출하는 직무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김수환 추기경의 서거 이후 서울 교구 정진석 추기경 한 분 계십니다.

▣ 주교는 사도들의 후계자입니다.

예수그리스도에 의해 파견된 사도들은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 곳에서 신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설립하고 그 신자들을 가르치고 관리하면서 봉사 할 대리자들이 바로 주교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주교들은 각 지역 교회에서 사도들의 권위를 이어받아 교회를 사목했으며, 그 지역교회의 영신적인 아버지로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 주교의 직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교도직과 사제직, 사목직입니다.

☞ 주교교령을 다 설명하지 않고 진행할 때 참고자료로 사용하면 됩니다.

1. 교도직: 만민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성령의 힘으로 신앙인으로 불러들이거나 그들의 신앙을 굳세게 하며,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는 모든 진리를 가르치고, 하느님을 현양하고 그로써 영원한 행복을 얻도록 하느님께서 제시한 길을 가르친다.(주교교령, 12)

2. **사제직:** 담당 지역 교회를 성화시켜서 그 안에 그리스도 전체 교회의 의의가 드러나도록 한다. 성품성사의 충만을 지니며 하느님 신비의 으뜸 관리자이자 전례 생활의 감독자요 수호자이다.(주교교령, 15)

3. **사목직:** 자기 양들을 알고, 양들도 목자를 알도록 하며, 참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떼를 보살핀다. 이러한 사목적인 노력에 있어서 신자들도 적절히 교회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의 권리와 의무를 깨우치고 이끌어 준다. (주교교령, 16)

▣ **그러므로 주교**는 성품성사의 충만함 속에서 고유한 사제로서의 기능을 수행 할 뿐 아니라 다른 이를 사제로 축성함으로써 사제직을 영속시키며, 성품성사에 의해 축성되는 성품권에 의한 교계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몬시뇰**은 가톨릭 고위성직자에 대한 호칭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주교품을 받지 않은 원로사제로서, 교황청으로부터 몬시뇰 명예 호칭을 받은 분을 가리킵니다.

▣ **사제와 부제**

지역교회의 사목은 주교의 책임이지만 주교 혼자서 전체 교회를 사목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초대교회 때부터 주교들은 **사목에 협조할 사람들**을 임명하였는데 그들이 **사제와 부제**입니다. 사제와 부제는 성품권에 의한 교계의 일부로서 성품성사에 의해 축성되며, **주교와 사제와 부제를 성직자**라고 합니다.

▣ **사제는 주교의 협력자로서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주교와 함께 참여하고, 주교의 사목 직무에 참여**합니다. 사제는 자기가 **관할하는 지역에서 주교를 대리**하며, **주교로부터 위임받은 권한과 책임으로 신자들을 사목**합니다. 즉 주교와 협력하여 복음을 선포하고 성사를 집전하며 신자들을 사목하는 것입니다.

▣ **부제는 주교와 사제의 협력자들**입니다. **교회의 물품을 관리**하고 **성사집전**을 도우며, **전도사로 활동하는 이들을** 말합니다. 전례거행에서 **주교와 사제를 보좌**하고, **세례성사를 집전**하며, **성체를 보관**하고 **분배**하며, **혼인식과 장례식**을 주례하고, **강론을 통해 복음을 해설**합니다. 그러나 부제는 **미사집전과 고백성사**는 할 수 없습니다.

본래 부제는 교계상 고유한 직무를 수행하는 직책이었지만 역사적 변천 속에서 사제직에 나오기 위한 전단계로 축소되었지만 최근에는 부제의 고유한 직무를 수행하는 **종신부제직**이 교회 안에 부활이 되었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습니다.

☞ 진행자는 사목현장은 참조하거나 그룹원들이 더 자세하게 알고자 할 때는 읽어준다.

▣ **평신도(평신자)**

교회의 구성원인 하느님의 백성들 중에서 성직자가 아닌 사람들을 평신도라고 한다. 평신도는 세례로서 그리스도와 합체된 자로서, 하느님의 백성에 들고 그들대로의 양식으로 그리스도의 백성 전체의 사명을 자기 분수에 따라 이행하는 그리스도 신자를 말한다. (사목헌장 31)

- ▣ **평신도는 세속에서 살아가지만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교회의 구성원입니다.** 교회건설에 있어서 성직자에게 협조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평신도 중에서 신학교에 들어가 성직자가 되는 교육을 받습니다.
- ▣ **수도자는** 하느님 백성 중에서 특별한 방법으로 이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데 청빈, 정결, 순명의 세 가지 서원을 통해서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하여 복음적 권고를 실천하면서 교회의 성성의 표시가 되고 완성된 교회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하느님 백성의 일부입니다. 교회 내에는 많은 남녀 수도회가 있으며 고유한 정신에 따라 교회와 세상에 봉사합니다. 수도자의 신분은 성직자와 평신도의 중간상태가 아니라 그 양편에서 각기 하느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운영

- ▣ 교회의 조직과 구조는 주로 성품권에 의한 교계로 이루어졌다면 **교회의 운영은 재치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 ▣ **교구는 교회 운영의 기본 단위입니다.** 교회는 사목활동은 기본적으로 교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에 의해 파견된 사도들은 각 지역에 교회를 설립했는데 이 지역 교회가 바로 교구입니다. 교구의 사목 책임자는 교구장이며 대개의 경우 교구장은 주교이기 때문에 교구장 주교라고 합니다. **교구청**은 교구장을 보필하여 **교구 전체의 행정과 사목을 담당하는 기구**입니다. 교구청 기구는 **총대리**(교구장 주교 대리, 교구행정 전반 담당)와 **사무처**(교구의 문서 및, 사무담당), **관리국**(교구의 재산 및 재정 관리), **선교사목국**(실제적인 사목행정 기획), **청소년사목국**, **사회사목국**, **홍보전산실**과 **교구법원**(교구내의 여러 가지 사법문제 특히 혼인문제를 담당) 등이 있습니다.
- ▣ **교구(敎區)**는 일정한 지역에 교황으로부터 임명된 주교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루는 하느님 백성의 교회를 뜻하며, 행정상 한 구역이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남한에 14개, 북한에 3개의 교구**가 있습니다. 군부대를 별도로 관할하는 **군종교구**가 있습니다. 활천본당은 부산교구에 속합니다. 각 교구는 다시 구역별로 나뉘어 본당이 관할합니다. 따라서 본당별로 관할 구역이 정해져 있으며, 각 본당 신부는 그 구역을 맡아 활동합니다.
- ▣ **본당은 교회 공동체의 최소의 단위**입니다. 주교에게 임명받은 권한을 가지고 일

정한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교회공동체를 본당(사목구)이라고 합니다. 신자들의 실제적인 신자생활을 거의 대부분은 본당에서 이루어집니다.

본당에는 본당 신부라고 불리는 본당 사목구 주임이 상주합니다. 본당 사제는 주교의 명에 의하여 파견되어 주교의 위임으로 그 지역의 사목을 책임진 사목책임자입니다. 본당사제의 주요활동은 성사의 집행입니다. **‘성당’ 이 거룩한 집을 뜻하는 일반적인 단어라면 ‘본당’ 은 행정적 의미에서 소속 또는 조직의 개념을 나타냅니다.**

- ▣ 본당에서는 성사생활을 하는 하느님의 자녀가 많아지도록 선교활동을 펴야 합니다. 본당구역과 소속신자라는 형태의 체계적 조직을 이루어 사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당 사제는 사제관에서 숙식하면서 사무실을 두어 교회 업무를 처리합니다. 각종 신자단체들을 조직해 수녀 및 평신도들과 더불어 단체를 지도하고 교리반을 운영하며 전례를 준비하는 등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위해 노력합니다. **이상의 모든 사제의 활동을 사목(司牧)이라고 합니다.**
- ▣ **보좌신부는 본당에** 신자가 많아서 본당신부 혼자서 사목을 하기가 어려울 때 주교의 파견을 받은 보좌신부가 상주를 하기도 합니다. **본당에서 주임신부를 도와 신자들의 영신적 이익을 위해 일하는 본당 신부의 협조자입니다.**
- ▣ **수녀**는 본당의 요청에 따라 수도회 모원(母院)으로부터 수녀가 파견되어 나오며, 일반적으로 2명의 수녀들이 공동생활을 합니다. 본당의 수녀들이 거처 하는 곳을 그 수도회의 분원(分院)이라고 합니다. 본당수녀는 수도회의 모원과 본당의 주임신부의 지시를 따릅니다. 활천본당에는 사랑의 씨튼 수녀회에서 파견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 ▣ **본당의 사제관이나 수녀원**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은 교구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본당에서 부담합니다.
- ▣ **사목협의회**는 주임신부의 원활한 본당 행정과 사목을 위해 신자들 가운데서 적임자들을 선임해서 평의회를 구성합니다. **이들을 사목위원이라고 하며 사제의 사목에 조언과 협조를 합니다.** 활천성당의 평신도사도직회장님은 안성균 바오로 형제님이십니다.
- ▣ **본당은 관할지역을 구역으로 나누고,** 다시 그 구역을 반으로 나누어 구역장 및 반장을 두고 신자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 ▣ **공소**는 신자들이 소수이거나 너무 외진 곳에 있어서 사제가 상주할 수 없는 곳에 있는 신자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러하기에 매일미사를 드리거나 사제를 만나기가 어렵기도 합니다. 공소는 어느 특정 본당에 소속되어 있으며, 소속 본당의 사제에게서 사목적인 가르침을 받습니다. 공소가 발전하여 신자수가 늘어나 사제가 상주하게 되면 본당으로 승격을 하게 됩니다.

- ▣ ▣ **사제평의회는 사제들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교가 전체 사제들을 만나서 사목 문제를 상의하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교구 안에서 일선사목에 종사하고 있는 사제들 중에서 각 지역이나 직능을 대표하는 사제들로 구성되며, 정기적인 회합을 통해 주교와 함께 교구의 운영과 사목적 선의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합니다.
- ▣ **관구**는 인접한 몇 개의 교구를 묶어서 관구라고 합니다. 그 관구의 중심교구를 **대교구**라고 하며, 교구장은 대주교라고 불립니다. 교회의 기본단위는 교구이므로 대주교라고 하여 인접 교구의 행정이나 사목에 간여할 수는 없습니다. 교구의 고유성은 엄격히 존중됩니다.
- ▣ **주교회**의는 같은 문화권에 속해 있는 지역, 즉 각 교구의 교구장들이 모여서 공동의 사목적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는 기구를 말합니다.

종합 심화

☞ 종합 심화는 5분

- ▣ **오늘 우리는** 교회의 조직과 운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교회의 조직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설립된 교회의 가시성에서 비롯됩니다. 가시적인 교회는 신적 설정의 기원을 갖는 교계제도에 의해서 조직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수위권을 계승하여 보편교회에 대한 사목적 책임을 지고 있는 교황을 중심으로,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들이 각 지역교회를 사목하면서 교황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교는 자신의 사목적 협조자로서 사제와 부제를 축성하여 그들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사제와 부제는 성품 성사에 의해서 주어진 권한과 주교의 위임을 받아, 고유한 자신의 직책을 수행하면서 신자들을 사목합니다. 평신자들도 세속에 살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교회의 구성원으로 교회생활에 참여합니다. 수도자는 복음삼덕을 실천하면서 자신을 특수한 방법으로 하느님께 봉헌합니다.
- ▣ **교회의 조직**은 엄격한 위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상부구조와 하부구조를 이루는 것보다는 고유한 목자를 중심으로 그 구성원이 하나로 모여서, 목자는 양떼에게 사랑과 관심을 주고, 양떼는 목자에게 존경과 순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함께 모여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 ▣ **교회**는 구성원들과 상호협력하면서 공동의 선의와 구원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느님 백성의 공동체입니다. 교회 구성원 모두가 하느님의 백성이며, 하느님의 백성은 모두 구원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일반 신자들은 교회생활과 사목자의 가르침에 따라 구원에 나아가며, 사목자는 성실하고 복음적인 사목활동을 통해 구원에 나아갑니다. 하느님의 백성은 교회를 통해 하느님 나라의 모습을 체험하게

되고, 하느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해 이 세상에 구현되는 것입니다.

- ▣ **교회의 운영과 조직을 배우는 것은** 우리 자신이 교회 생활에 적극 참여해야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다양한 역할로서 하느님 백성으로 불리움을 받은 우리는 사랑과 친교의 공동체를 이루며 하느님 나라를 향한 순례의 여정을 계속해야 합니다.
- ▣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여러 지체들을 가지고 있는데, 하느님께서서는 이 모든 지체들이 조화를 이루어 서로 돕고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게 아니라 열심한 본당생활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납니다. 그러므로 본당 안에 있는 여러 단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공동체를 통해서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주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그분의 뜻을 발견하고 그분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무리 및 실천사항

☞ 진행자는 실천사항을 실천하도록 과제를 내준다.

▣ 이번 주간의 실천사항:

1. 사제를 위한 기도드리기.

▣ 자유기도를 바치면서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도가 끝나면 “아멘.” 하고 응답합니다.

주님! _____ ◎ 아멘.

예수님! _____ ◎ 아멘.

진행자는 모든 기도가 끝나면....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 진행자는 자유기도가 끝나면 성가를 부른다.

▣ 마침 성가는 _____ 번입니다.

유인물

성명 _____

※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1. 교회를 세우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2. 현 교황님은 몇 대 교황님이시며 이름은 무엇입니까?....
3. 사도들의 후계자는 누구이십니까?....
4. 우리나라의 추기경님 이름을 쓰십시오.
5. 교구(敎區)는 일정한 지역에 교황으로부터 임명된 주교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루는 하느님 백성의 교회를 뜻하며, 행정상 한 구역이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남한에 몇 개, 북한에 몇 개의 교구가 있습니까?....

남한: _____ 북한: _____
6. 신자들이 소수이거나 너무 외진 곳에 있어서 사제가 상주할 수 없는 곳에 있는 신자공동체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7. 부산교구의 주교님의 성함과 세례명은 무엇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교구 활천성당

5

신자와 교회살림

▣ 진행자 ◎ 함께

- ☞ 분위기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 기도 상을 차려놓고 초를 켜놓는다.
- ☞ 사람들이 모이면 따뜻한 환대와 인사한 후 성호경으로 시작을 한다.
- ☞ 준비물- 책: 이기정 지음, 「새 영세자를 위한 신앙생활 길잡이」, 2006년, 성바오로 기도상, 초, 십자가, 성경 (레위 27,30-34), (신명기 14, 22-29)
- ☞ 도입은 10분으로 한다.
- ☞ 참고서적: 가톨릭 교리 신학원, 「초대받은 당신」, 가톨릭 출판사
김웅태 신부, 「현대 성인 구도자들을 위한 가톨릭 교리」, 도서출판 만남
함께하는 여정, 통합사목연구소

도입

▣ 성호경

- ▣ 주님, 저희를 부르시는 당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한 분씩 주님을 초대해 주십시오.

- ☞ 각 사람이 돌아가면서 초대의 기도를 드린다. 기도의 화답은 아멘으로 한다.
처음에는 진행자가 먼저 모범을 보이는 것도 좋을 것 같음.

예) 오소서 성령님!..... 오늘 모든 일정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 아멘.

주님! _____ ◎ 아멘.

예수님! _____ ◎ 아멘.

- ☞ 기도가 끝나면 성경을 읽는다. 진행자는 성경구절을 미리 찾아놓는다.
- ☞ 함께하는 여정 제 21과 참조

- ▣ 어느 분이 레위기 27,30-34 를 큰 소리로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 ▣ 성경 말씀 중에서 단어나 짧은 구절을 선택하여 기도하듯이 세 번씩 읽어 주십시오. 읽는 사이사이(약5초 간격)에 묵상을 위해 잠시 침묵을 지켜 주십시오.

- ☞ 같은 구절을 세 번 외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침묵을 지킨다.
- ▣ 어느 분이 성경 본문을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 ☞ 참석자 모두가 함께 성경 본문을 읽을 수도 있다.
- ▣ 2분 동안 침묵을 지키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 ☞ 진행자는 시계를 보면서 시간을 잴다. 침묵 시간이 너무 짧거나 길지 않도록 주의 한다.
- ▣ 개인적으로 마음에 와 닿은 단어나 짧은 구절을 통해 자신의 마음속에 들려온 말씀을 자신의 생활과 연결시켜 함께 나눈다.
- ☞ 진행자는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이 어떻게 자신에게 와 닿았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느낌을 서로 나누도록 제안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본문을 해설하더라도 토론하지 않도록 한다.
- ☞ 한 사람의 이야기가 끝나면 **“잘 들었습니다.”** 혹은 **“감사합니다.”** 등 공동체가 화답을 해준다.

전 개

- ☞ 전개는 30분.
- ▣ 예비자 교리 때 배웠던 신자들이 지켜야 할 6가지 의무는 무엇입니까?...
- ☞ 질문을 한 후 모르면 6가지 의무에 대해 진행자가 말해 준 다음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다.
- 첫째: 모든 주일과 대축일에 미사에 참여한다.**
 의무대축일: 예수 성탄, 천주의 모친 성모 마리아(1월 1일)
 예수 부활, 성모 몽소 승천 대축일(8월 15일)
- 둘째: 정한 날에 금육과 단식을 한다.**
 단식: 사랑과 희생의 마음(만 18세-60세),
 재의 수요일-사순절 시작일, 예수 수난 성금요일
 금육: 금육과 함께 좋아하는 음식이나 기호품을 금하면서 그리스도의 수난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참된 의미가 있다.
 매 금요일(만 14세부터-죽을 때까지)
- 셋째: 적어도 일 년에 한 번 고백성사를 받는다.** 우리나라는 부활, 성탄절에 성사를 보도록 정했다.
 사순시기, 대림시기(판공성사표-본당에 제출)
- 넷째: 적어도 일 년에 한 번 부활 때 영성체를 한다.**
- 다섯째: 교회의 유지비(교무금)를 부담한다.**
- 여섯째: 혼인성사에 관한 법을 지킨다.**
- ▣ 신자들이 지켜야 할 6가지 의무 중 다섯 번째에 ‘교회의 유지비를 부담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는 모든 신자들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자신의 힘으로 교회를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신자들의 이 책임을 교회법으로 규정함으로써 자발적으로 교회의 운영과 사업, 그리고 성직자의 생활을 위해 힘닿는 대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교무금과 헌금을 바침으로서 이 의무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개선해야 할 점이 아직도 많은 것 같습니다.

- ▣ 개신교에서는 십일조에 대해 강조를 많이 하는 반면 천주교회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지만 십일조의 정신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레위기 27, 30-34절에 보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께 드리는 재물은 흠 없고 티 없는 만배를 봉헌했으며 또한 자기소득의 십분의 일을 하느님께 바쳤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14, 22-29절에도 십일조에 대해 잘 나와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 구약성경 신명기 14, 22-29절을 함께 읽는다.

- ▣ 신명기 14, 28-29절을 보면 “너희는 세 해마다 끝에, 그해에 난 소출의 십분의 일을 모두 가져다가 너희 성안에 저장해 두어라. 그러면 너희 성안에서, 너희와 함께 받을 몫도 상속 재산도 없는 레위인과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가 와서 배불리 먹게 될 것이다. 그러면 주 너희 하느님께서서는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실 것이다.”
- ▣ 하느님께 무상으로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가난한 이를 도와주고 구체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구약의 십일조의 정신을 본받아 우리들도 하느님께 드리는 십일조와 교무금을 자신의 생활에서 최우선의 항목으로 잡아야 하겠습니다. 구걸하는 사람에게 주듯이 그렇게 봉헌금과 교무금을 내는게 아니라 먼저 하느님의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마음이 담겨 있고 정성이 들어 있는 봉헌을 했으면 합니다.

* 봉헌금

- ▣ 그리스도인들이 창조주이신 하느님 아버지께 드리는 찬미와 흠숭과 감사의 제사가 곧 미사입니다. 그리고 이 때 제물로 바치는 것이 바로 봉헌금입니다.
- ▣ 어떤 할머니께서는 매주일 마다 돈을 다리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분은 헌돈을 어떻게 하느님께 드리느냐면서 꾸깃꾸깃한 돈을 열심히 정성스럽게 다려서 성전에 나오십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는 많지 않은 돈이지만 마음으로 내는 봉헌이었기에 하느님께서서는 기쁘게 받으셨을 것입니다.
- ▣ 집에 귀한 손님이 오시면 잘 대접하고자 음식을 장만하듯, 주일과 대축일에 성전에 다 같이 모여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 바치는 제물인 봉헌금은 속된일을 위해 사용할 수 없으며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일에 쓰이게 됩니다.
- ▣ **봉헌금과 교무금은 본당 살림을 위한 재원**이 됩니다. 성당 건물을 유지하고 교회를 운영하는 경비가 모두 여기서 충당이 됩니다.

* 교무금

- ▣ **교무금**은 교회 운영에 동참하는 것이므로 봉헌금과는 전혀 다릅니다. 교무금은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날에 납부함으로써 본당의 월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교무금에는 교회 생활과 자신의 생활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묶어 자신의 수입에서 지출을 분배해 본당에 낸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당에 교적을 두고 내는 교무금은 곧 본당에 속해 있는 자신의 신앙생활과 교회가 합당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 ▣ 봉헌금과 교무금 외에 본당의 재원으로서는 특별헌금과 기부금, 제반 예금이자, 잡수입 정도가 있습니다.

* 재정관리

- ▣ 이렇게 모인 돈을 책임자는 본당의 살림의 모든 재정 결과를 교구청에 매월 보고를 하며, 연말에는 종합적인 보고를 합니다.
- ▣ 본당의 모든 돈은 신자들이 내는 것이므로 재정 관리의 결과를 주보나 기타 유인물을 통해 모든 신자들에게 공개합니다. 연말에는 1년 회계 결산과 사목평가를 내리고, 교구의 사목 방침에 따라 다음 해의 회계 예산과 사목 방향을 설정하며 그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사목회 회장님과 사목회원들이 본당 사제를 도와 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교구 납부금

- ▣ 작은 본당이나 특수 사목 분야는 교구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지만, 그 밖의 본당은 **본당별로 교구가 책정한 금액을 납부할 의무**를 가집니다. 본당이 내는 교구 납부금은 교회 전체를 위해 필요하며, 본당의 재정을 감안해 책정이 됩니다.

* 영적재원

- ▣ **교회는 신자들에게 물질적 재원만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와 봉사활동 등 시간과 **영적 재원**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가난하거나 처지가 곤란한 신자로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는 오히려 본당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담을 느끼기 보다는 **기도나 봉사 등 영적 재원**을 통해 되돌려 바칠 수 있습니다.

* 미사예물

- ▣ **미사예물**은 미사를 청할 때 내는 예물, 곧 어떤 지향을 갖고 미사를 봉헌해 줄 것을 청하는 예물입니다.
- ▣ 미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제사를 바칠 사제가 있어야 하고 참여하는 신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제관이 혼자서 제사를 올리는 것은 제사의 본뜻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제들에게 가능하면 혼자 미사를 드리지 말고 신자들과 함께 봉헌하라고 권고합니다. 그래서 미사의 기도문 자체가 신자들과 함께 바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 ▣ 사제는 제사를 올리는 제관입니다. 미사는 신자들이 올리는 제사입니다. 미사를 청하는 사람과 그 청을 받아들여 미사를 봉헌하는 사제 사이에는 계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바치는 예물을 **미사예물**이라고 합니다. 미사예물은 미사 봉헌 하루 전까지 본당수녀님께 신청하도록 합니다. 그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 기도중의 기도이자 가장 거룩한 제사로서 무한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미사를 청해 누군가를 위해 바친다면 그 사람에게 큰 영적 선물이 됩니다.
- ▣ **미사예물은** 교구청에서 공동으로 모아 관리하고 모든 사제들의 생활을 위해 적절히 분배하며, 교회법에 따라 관할 주교가 정한 규칙에 따릅니다. **본당에 들어오는 미사예물이 없으면** 그 본당 사제는 교구청에 올라온 미사예물을 쓰기도 합니다.

☞ 미사예물 봉투를 미리 준비한다. 미사지향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봉투를 보여주면서 말한다.

* 미사지향

- ▣ **미사예물 봉투를 보면** 위하는 분과 바치는 분이 있습니다. 위하는 분란에는 위령, 기일, 감사, 기원, 가정, 혼인, 장례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곳에 해당하는 곳에 동그라미를 하시고 미사 시간은 정확한 날짜를 기록합니다. **미사 지향은** 천상교회와 지상교회 모두를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즉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 미사를 바칠 수 있으며, 죽은 이들을 위해 신자가 되기 전에 올리던 차례나 제사 대신 미사를 바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봉헌사유란에는 위하는 분에 대한 사유를 간단하게 기록하시면 사제나 수도자가 지향을 보면서 미사드릴 때나 평소에도 기도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신 분들은 메모를 해서 구체적으로 기도드리기도 합니다.

- ▣ 사무실이나 성전 뒤에 미사지향 봉투가 있습니다. 그 곳에 자세히 기록해 주시고 바치는 금액을 적으시고, 바친 분란에는 반드시 **전화번호**를 적어 주시면 좋습니다. 갑자기 미사시간이 변경이 되거나 말씀의 전례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미사지향을 다른 날로 옮겨야 하는데 그때마다 바치시는 분에게 전화를 해서 변경에 대한 사유를 알려 주기 위해서입니다.

종합 심화

☞ 종합 심화는 5분

- 오늘 우리는 성당 건물을 유지하고 교회 운영을 위한 필요한 본당 살림의 재원이 되는 하느님께 드리는 봉헌금과 교무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약에서의 십일조 정신을 본받아 자신의 생활에서 최우선 항목으로 삼아 하느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드러나는 성의가 담겨있는 봉헌금과 교무금이 되어야 합니다.
- 우리들의 정성이 담긴 봉헌금과 교무금으로 교회는 성직자의 양성을 위한 신학생들의 교육비와, 사제와 수도자들의 생활비, 전교사, 교리교사, 사무장들의 생활비에 충당되며, 교회 운영과 관리를 위한 비용에 쓰입니다. 또한 포교사업과 구제사업을 위해서도 사용됩니다.
- 새해에 새배 돈을 주기위해서는 신권으로 바뀌서 자녀들에게 복 돈을 줍니다. 자녀에게 1년 동안 복을 빌어주기 위해 이렇게 정성을 드리는데, 하물며 매순간 하느님께서 우리들을 보살펴 주시고 사랑해 주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데에는 더 많은 정성과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드러나는 행동들은 보이지 않은 나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 과부의 동전 한 닢에서 보면 남들에게는 보잘 것 없는 동전 한 닢이 그 과부에게는 오늘 먹을 것을 포기해야 하는 자신의 전 재산이었을 것입니다. 희생과 극기와 사랑이 담긴 봉헌이었습니다. 우리들 또한 그러한 마음을 담아 하느님께 봉헌하는 신앙인이 되도록 합시다.
- 신앙인으로서 한 달 동안 무사하게 지켜주시고 매순간 함께 하신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는 마음으로 몸을 움직여서 받은 돈의 십분의 일이나 이십분의 일을 먼저 하느님의 것으로 떼어 놓고서 나머지를 사용하는 습관을 길러야 하겠습니다.
- 십일조가 꼭 재물만이 아니라 본당에서 여러 단체에 들어가 활동과 기도와 봉사활동을 하는 것에도 해당이 됩니다. 시간과 마음의 십일조, 나의 재능을 나누거나 하느님을 아는 지식에 투자하는 십일조, 등등 하느님을 알고 그분께 봉사하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오신 주님께 사랑과 기도를 드리는 영적재물에 대한 십일조에 대한 봉헌에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신앙인이었으면 합니다. 특별한 날에 물질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신앙인이나 비 신앙인 모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하느님과 공동체의 축복을 빌어 줄 수 있는 미사봉헌은 아주 훌륭한 영적인 선물이라 생각합니다.
- 활천성당에서는 현금대신에 **봉헌금 상품권**을 판매합니다. 이 상품권을 사용하면 연말정산 때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매주일 미사 전이나 사무실에서 판매하고 있으므로 봉헌금 상품권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마무리 및 실천사항

☞ 진행자는 실천사항을 실천하도록 과제를 내준다.

▣ 이번 주간의 실천사항:

1. 매월 교무금을 성실히 내기,
2. 봉헌금을 마음으로 준비해서 바치기

▣ 자유기도를 바치면서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도가 끝나면 “아멘.” 하고 응답합니다.

주님! _____ ◎ 아멘.

예수님! _____ ◎ 아멘.

진행자는 모든 기도가 끝나면....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 진행자는 자유기도가 끝나면 성가를 부른다.

▣ 마침 성가는 _____ 번입니다.

6

성모님

▣ 진행자 ◎ 함께

- ☞ 분위기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 기도 상을 차려놓고 초를 켜놓는다.
- ☞ 사람들이 모이면 따뜻한 환대와 인사한 후 성호경으로 시작을 한다.
- ☞ 준비물- 책: 이기정 지음, 「새 영세자를 위한 신앙생활 길잡이」, 2006년, 성바오로
기도상, 초, 십자가, 성경 (루카 1, 26-38), 유인물복사(인원수대로), 녹음기, 성모님관련 테이프
- ☞ 도입은 10분으로 한다.
- ☞ 참고서적: 가톨릭 교리 신학원, 「초대받은 당신」, 가톨릭 출판사
김웅태 신부, 「현대 성인 구도자들을 위한 가톨릭 교리」, 도서출판 만남
김웅태 신부, 「성인 예비자 교리」, 가톨릭 출판사
함께하는 여정, 통합사목연구소

도입

▣ 성호경

- ▣ 주님, 저희를 부르시는 당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한 분씩 주님을 초대해 주십시오.

- ☞ 각 사람이 돌아가면서 초대의 기도를 드린다. 기도의 화답은 아멘으로 한다.
처음에는 진행자가 먼저 모범을 보이는 것도 좋을 것 같음.

예) 오소서 성령님!..... 오늘 모든 일정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 아멘.

주님! _____ ◎ 아멘.

예수님! _____ ◎ 아멘.

- ☞ 기도가 끝나면 성경을 읽는다. 진행자는 성경구절을 미리 찾아놓는다.
- ☞ 함께하는 여정 제 21과 참조

- ▣ 어느 분이 루카 1, 26-38 를 큰 소리로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 ▣ 성경 말씀 중에서 단어나 짧은 구절을 선택하여 기도하듯이 세 번씩 읽어 주십시오. 읽는 사이사이(약5초 간격)에 묵상을 위해 잠시 침묵을 지켜 주십시오.

- ☞ 같은 구절을 세 번 외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침묵을 지킨다.
- ▣ 어느 분이 성경 본문을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 ☞ 참석자 모두가 함께 성경 본문을 읽을 수도 있다.
- ▣ 2분 동안 침묵을 지키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 ☞ 진행자는 시계를 보면서 시간을 잔다. 침묵 시간이 너무 짧거나 길지 않도록 주의 한다.
- ▣ 개인적으로 마음에 와 닿은 단어나 짧은 구절을 통해 자신의 마음속에 들려온 말씀을 자신의 생활과 연결시켜 함께 나눕시다.
- ☞ 진행자는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이 어떻게 자신에게 와 닿았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느낌을 서로 나누도록 제안 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본문을 해설하더라도 토론하지 않도록 한다.
- ☞ 한 사람의 이야기가 끝나면 “잘 들었습니다.” 혹은 “감사합니다.” 등 공동체가 화답을 해준다.

전 개

- ☞ 전개는 30분.
- ☞ 진행자는 아래와 같이 말하면서 마리아에 대해 준비한 유인물을 나누어 준다. 인원수대로 미리 복사 한다
- ▣ **성모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비자 교리 때 배운 교리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성모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보시고 가로 안에 답하십시오. 시간은 10분입니다. 성경을 참조하셔도 되겠습니다.
- ☞ 진행자는 유인물을 푸는 동안 성모님과 관련된 음악을 방해되지 않게 틀어준다.

성모님

※ 괄호 안에 답하십시오.

* **성모님은 신앙인의 모범.**

1.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신 분(루카 1,26-38)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래아)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을 가득히 받은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네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지 (여섯)달이 되었다. “하느님께서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2. 성모님은 예수님의 삶을 온전히 받아들이심.(루카 2,8-52)

성모님은 예수님 탄생 때 목자들이 전해 준 말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꿈꿈이 되새기셨고,
 잃어버린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았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사셨습니다. 이처럼 성모님은 예수님께 일어나는 모든 일을 마음깊이 되새기며 예수님을 지켜보았고, 예수님의 삶 전체를 온전히 받아들이며 사셨습니다.

3. 성모님은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심.(요한 2, 1-12)

-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에 참여하심.

사흘째 되는 날, (갈릴래아) 카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혼인 잔치에 초대받으셨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하였다.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4. 성모님은 예수님을 낳으신 분이시면서 동시에 하느님의 뜻을 실천 하신분. (마태 12,46-50)

....그러자 예수님께서 당신께 말하는 사람에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셨다.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을 가르키시며 이르셨다. “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5. 성모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분 곁에서 계심.(요한 19, 25-27)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6. 성모님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계셨음. (사도 1,12-14)

.....성안에 들어간 그들은 자기들이 묵고 있던 위층 방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아), 필립보와 토마스, 바르톨로메오와 (마태오),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혈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그들은 모두, 여러 여자와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

* 성모님에 관한 중요교리 4가지

1. (원죄 없이 잉태되신) 분.

성모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하느님의 은총의 특전으로, 잉태된 첫 순간부터 원죄에 물들지 않으셨고, 돌아가실 때까지 죄에 떨어지지 않는 은총을 받으셨습니다. 1854년 12월 8일 교황 비오 9세는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는 잉태된 첫 순간부터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전능하신 하느님의 유일무이한 은총의 특전으로 말미암아 원죄에 물들지 않고 순수하게 보전되었다.” 라는 것을 믿을 교리로 선포하였습니다.

이 교리가 선포된 지 4년 후에 성모님께서는 프랑스의 루르드에서 발현하시어 이를 다시 알려 주셨습니다.

마리아의 무염시태(無染始胎): 마리아가 영원한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미리 구원 사업에 참가하도록 선택된 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일체의 죄의 세력에서 구원받고 계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830년 7월 18일 프랑스 파리의 카리타스 수녀원에서 성모님이 발현하시어 당신이 원죄 없이 잉태되었음을 알려 주셨습니다.

2. (평생 동정이신) 분.

성모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낳기 전에도, 낳을 때에도, 낳은 후에도 항상 동정을 지키신 평생 동정녀이십니다. 이는 성모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출산하였다는 교의에 기초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 안에 하느님의 구원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 7,14) 라는 구약성경의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당시에는 처녀가 임신하면 돌로 쳐 죽이는 율법이 있었는데도, 성모님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하느님의 구원역사에 전적으로 협력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정녀 마리아의 잉태를 신앙 안에서 믿습니다.

3. (승천하신)분.

1950년 11월 1일 교황 비오 12세는 “원죄에 물들지 않고 평생 동정 이신 하느님의 모친 마리아가 지상의 생애를 마치신 뒤 영혼과 육신이 함께 천상의 영광으로 들어 올림을 받았음” 을 믿을 교리로서 선포하셨습니다. 성모님은 우리 신앙여정에 위대한 모범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하느님께서 성모님을 들어 올리신 것처럼 우리도 새 삶으로 들어 올리실 것입니다. 성모님은 우리의 기쁨이요 희망입니다. 성모님께 일어나 일은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모 몽소 승천(蒙召 昇天): 성모 마리아가 하늘로 들어 올림을 받은 것, 즉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약속된 영원한 생명의 영광에 맨 먼저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승천에 참여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스스로 하늘에 오르신 것이지만 마리아는 스스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별을 하기 위하여 몽소(蒙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몽소 승천은 마리아의 육신과 영혼, 즉 마리아의 인격이 전적으로 부활한 그리스도와 일치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4.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분.

인간이시며 하느님이신 예수님을 낳으신 성모님은, 인간이신 예수님의 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하느님이신 예수님의 어머니도 되시므로, 하느님의

어머니입니다. 이렇듯 마리아가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것은, 인간으로 오셨으나 참 하느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神性)에 근거한 것입니다.

*** 천주교에서는 왜 성모님을 공경합니까?...**

(예수님을 낳으신 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신앙인의 모범이기 때문입니다.)

*** 공경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1. 흠송지례(欽崇之禮): 오직 하느님께만 드리는 공경
2. 상경지례(上敬之禮): 성모 마리아에 대한 특별한 공경
3. 공경지례(恭敬之禮): 모든 성인들에게 드리는 공경

종합 심화

☞ 종합 심화는 5분

- ▣ 성모님은 인간으로서 가장 가깝게 예수님의 뒤를 따르신 분입니다. 마리아는 하느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고 따르고 그 말씀을 지켰으며, 초대교회에서는 어머니를 중심으로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신앙인은 최초의 신앙을 가진 마리아를 우리의 어머니며, 교회의 어머니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 ▣ 성모님은 하느님의 인류구원 계획에 자유롭게 동의하시어 구원사업의 협조자가 되시고 동시에 예수의 어머니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시는 순간부터 하느님께 온전히 순명하셨으며, 완전한 믿음으로 성자를 낳아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생활에 최대 협조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키워주시고 보살펴주심에 희생을 다하셨습니다.
- ▣ 성모님은 우리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 하느님께 기도해 주시고 간구해 주십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마리아의 기도는 계속 되어 지고 있으며, 악의 만연과 불신의 죄악 속에서 가슴 아파 하시며 우리의 잘못된 양심을 일깨워 주시려고 힘쓰시고 계십니다.
- ▣ 우리들이 매일 바치는 삼종 기도에서 하느님의 구원사업에 있어서 성모 마리아의 고유한 역할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와 당신 어머니를 자녀와 어머니의 관계로 맺어주심으로 인해 마리아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어머니요 교회의 어머니가 되셨습니다.

- ▣ 또한 성모님은 성령의 힘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여 낳아 주심으로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 안에 끊임없이 새 생명을 출산하는 교회의 전형이 되셨습니다. 이러한 성모 마리아께 하느님은 몇 가지 특전을 주셨는데 곧 평생동정 이시며, 무염시태, 몽소승천, 하느님의 어머니님 등입니다.
- ▣ 구세주의 모친이 가신 길, 즉 자신의 봉헌과 사랑, 봉사와 희생, 고통과 즐거움 등 인생의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면서 살아간 마리아의 모습이 곧 우리가 배우야 할 신앙인의 모델이며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마무리 및 실천사항

☞ 진행자는 실천사항을 실천하도록 과제를 내준다.

▣ 이번 주간의 실천사항:

1. 삼종기도 드리기. (아침, 점심, 저녁)

▣ 자유기도를 바치면서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도가 끝나면 “아멘.” 하고 응답합니다.

주님! _____ ◎ 아멘.

예수님! _____ ◎ 아멘.

진행자는 모든 기도가 끝나면....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 진행자는 자유기도가 끝나면 성가를 부른다.

▣ 마침 성가는 _____ 번입니다.

성모님

※ 괄호 안에 답하십시오.

* **성모님은 신앙인의 모범.**

1.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신 분(루카 1,26-38)**

() 천사를 ()지방 ()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집안의 ()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을 가득히 받은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네 친척 ()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지 ()달이 되었다. “하느님께서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2. **성모님은 예수님의 삶을 온전히 받아들입니다.(루카 2,8-52)**

성모님은 예수님 탄생 때 목자들이 전해 준 말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곰곰이 되새기셨고, 잃어버린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았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사셨습니다. 이처럼 성모님은 예수님께 일어나는 모든 일을 마음깊이 되새기며 예수님을 지켜보았고, 예수님의 삶 전체를 온전히 받아들이며 사셨습니다.

3. **성모님은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심.(요한 2, 1-12)**

-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에 참여하심.**

사흘째 되는 날, () 카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혼인 잔치에 초대받으셨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가 없구나.” 하였다.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 하고 말하였다.

4. 성모님은 예수님을 낳으신 분이시면서 동시에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신 분. (마태 12,46-50)

....그러자 예수님께서 당신께 말하는 사람에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셨다.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을 가르키시며 이르셨다. “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5. 성모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분 곁에서 계심. (요한 19, 25-27)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와()가 서 있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네 ()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6. 성모님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계셨음. (사도 1,12-14)

.....성안에 들어간 그들은 자기들이 묵고 있던 위층 방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와 ()과 ()와 (), 필립보와 토마스, 바르톨로메오와 (), 알패오의 아들 ()와 열혈당원 ()과 야고보의 아들 ()였다. 그들은 모두, 여러 여자와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

*** 성모님에 관한 중요교리 4가지**

1. () 분.

성모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하느님의 은총의 특전으로, 잉태된 첫 순간부터 원죄에 물들지 않으셨고, 돌아가실 때까지 죄에 떨어지지 않는 은총을 받으셨습니다. 1854년 12월 8일 교황 비오 9세는 “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는 잉태된 첫 순간부터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전능하신 하느님의 유일무이한 은총의 특전으로 말미암아 원죄에

물들지 않고 순수하게 보전되었다.” 라는 것을 믿을 교리로 선포하였습니다.

이 교리가 선포된 지 4년 후에 성모님께서서는 프랑스의 루르드에서 발현하시어 이를 다시 알려 주셨습니다.

마리아의 무염시태(無染始胎): 마리아가 영원한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미리 구원사업에 참가하도록 선택된 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일체의 죄의 세력에서 구원받고 계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830년 7월 18일 프랑스 파리의 카리타스 수녀원에서 성모님이 발현하셔서 당신이 원죄 없이 잉태되었음을 알려 주셨습니다.

2. ()분.

성모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낳기 전에도, 낳을 때에도, 낳은 후에도 항상 동정을 지키신 평생 동정녀이십니다. 이는 성모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출산하였다는 교의에 기초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 안에 하느님의 구원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 7,14) 라는 구약성경의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당시에는 처녀가 임신하면 돌로 쳐 죽이는 율법이 있었는데도, 성모님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하느님의 구원역사에 전적으로 협력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정녀 마리아의 잉태를 신앙 안에서 믿습니다.

3. ()분.

1950년 11월 1일 교황 비오 12세는 “원죄에 물들지 않고 평생 동정 이신 하느님의 모친 마리아가 지상의 생애를 마치신 뒤 영혼과 육신이 함께 천상의 영광에 들어 올림을 받았음” 을 믿을 교리로서 선포하셨습니다. 성모님은 우리 신앙여정에 위대한 모범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하느님께서 성모님을 들어 올리신 것처럼 우리도 새 삶으로 들어 올리실 것입니다. 성모님은 우리의 기쁨이요 희망입니다. 성모님께 일어나 일은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모 몽소 승천(蒙召 昇天): 성모 마리아가 하늘로 들어 올림을 받은 것, 즉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약속된 영원한 생명의 영광에 맨

먼저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승천에 참여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스스로 하늘에 오르신 것이지만 마리아는 스스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별을 하기 위하여 몽소(蒙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몽소 승천은 마리아의 육신과 영혼, 즉 마리아의 인격이 전적으로 부활한 그리스도와 일치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4. () 분.

인간이시며 하느님이신 예수님을 낳으신 성모님은, 인간이신 예수님의 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하느님이신 예수님의 어머니도 되시므로, 하느님의 어머니이십니다. 이렇듯 마리아가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것은, 인간으로 오셨으나 참 하느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神性)에 근거한 것입니다.

*** 천주교에서는 왜 성모님을 공경합니까?...**

()

*** 공경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1. 흠숭지례(欽崇之禮): 오직 ()만 드리는 공경
2. 상경지례(上敬之禮): ()에 대한 특별한 공경
3. 공경지례(恭敬之禮): ()들에게 드리는 공경

수고하셨습니다. 김해 활천성당

7

묵주기도

■ 진행자 ◎ 함께

- ☞ 분위기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 기도 상을 차려놓고 초를 켜놓는다.
- ☞ 사람들이 모이면 따뜻한 환대와 인사한 후 성호경으로 시작을 한다.
- ☞ 준비물- 책: 이기정 지음, 「새 영세자를 위한 신앙생활 길잡이」, 2006년, 성바오로
기도상, 초, 십자가, 성경 (루카 1,46-56)
- ☞ 도입은 10분으로 한다.
- ☞ 참고서적: 가톨릭 교리 신학원, 「초대받은 당신」, 가톨릭 출판사
김웅태 신부, 「현대 성인 구도자들을 위한 가톨릭 교리」, 도서출판 만남
함께하는 여정, 통합사목연구소

도입

■ 성호경

- 주님, 저희를 부르시는 당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한 분씩 주님을 초대해 주십시오.

- ☞ 각 사람이 돌아가면서 초대의 기도를 드린다. 기도의 화답은 아멘으로 한다.
처음에는 진행자가 먼저 모범을 보이는 것도 좋을 것 같음.

예) 오소서 성령님!..... 오늘 모든 일정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 아멘.

주님! _____ ◎ 아멘.

예수님! _____ ◎ 아멘.

- ☞ 기도가 끝나면 성경을 읽는다. 진행자는 성경구절을 미리 찾아놓는다.
- ☞ 함께하는 여정 제 21과 참조

- 어느 분이 루카 1,46-56 를 큰 소리로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 성경 말씀 중에서 단어나 짧은 구절을 선택하여 기도하듯이 세 번씩 읽어 주십시오. 읽는 사이사이(약5초 간격)에 묵상을 위해 잠시 침묵을 지켜 주십시오.

- ☞ 같은 구절을 세 번 외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침묵을 지킨다.
- ▣ 어느 분이 성경 본문을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 ☞ 참석자 모두가 함께 성경 본문을 읽을 수도 있다.
- ▣ 2분 동안 침묵을 지키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 ☞ 진행자는 시계를 보면서 시간을 쟀다. 침묵 시간이 너무 짧거나 길지 않도록 주의 한다.
- ▣ 개인적으로 마음에 와 닿은 단어나 짧은 구절을 통해 자신의 마음속에 들려온 말씀을 자신의 생활과 연결시켜 함께 나눕시다.
- ☞ 진행자는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이 어떻게 자신에게 와 닿았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느낌을 서로 나누도록 제안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본문을 해설하더라도 토론하지 않도록 한다.
- ☞ 한 사람의 이야기가 끝나면 “잘 들었습니다.” 혹은 “감사합니다.” 등 공동체가 화답을 해준다.

전 개

- ☞ 전개는 30분.
- ▣ 교회에서 성모님께 기도하는 것은 완전한 신앙의 모델이신 마리아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하느님께, 당신의 아드님께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당신 어머니의 청원을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예를 들면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첫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당신의 때가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간절한 청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들어주십니다. 따라서 부족한 우리의 기도를 어머니께 드리면서 우리의 뜻을 아드님께 전구해 주시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묵주기도는 예수님과 성모님의 전 생애를 묵상하기에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 ☞ 묵주기도에 관한 유인물을 나누어 준다.
- ☞ 복습하는 의미에서 문제를 푸는 것이므로 5분의 시간을 주어 풀게 하고 못 푸는 부분은 진행자가 함께 풀면서 보충을 해준다.

묵주기도

성명(세례명) _____

※ 맞는 답에 답하십시오.

1. 묵주기도의 유래를 쓰십시오.
성모님께 드리는 장미 꽃다발을 뜻하는 라틴어 로사리움(Rosarium)에서 유래했습니다.

2. 환희의 신비를 쓰십시오.
제 1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니다.

- 제 2단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찾아보심을 묵상합니다.
- 제 3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낳으심을 묵상합니다.
- 제 4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성전에 바치심을 묵상합니다.
- 제 5단 마리아께서 잃으셨던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으심을 묵상합니다.

3. 빛의 신비를 쓰십시오.

- 제 1단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을 묵상합니다.
- 제 2단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첫 기적을 행하심을 묵상합니다.
- 제 3단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심을 묵상합니다.
- 제 4단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심을 묵상합니다.
- 제 5단 예수님께서 성체성사를 세우심을 묵상합니다.

4. 고통의 신비를 쓰십시오.

- 제 1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땀 흘리심을 묵상합니다.
- 제 2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매 맞으심을 묵상합니다.
- 제 3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 쓰심을 묵상합니다.
- 제 4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니다.
- 제 5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묵상합니다.

5. 영광의 신비를 쓰십시오.

- 제 1단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니다.
- 제 2단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을 묵상합니다.
- 제 3단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을 묵상합니다.
- 제 4단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하늘에 불러올리심을 묵상합니다.
- 제 5단 예수님께서 마리아께 천상 모후의 관을 씌우심을 묵상합니다.

6. 파티마에서 발현하신 성모님이 바치라고 권고하신 기도문을 쓰십시오.

구원송: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 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되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7. 2002년 10월 16일에 반포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교서 「동정 마리아의

묵주기도」에 의해 전통적인 신비 외에 어떤 신비가 추가 되었습니까?

빛의 신비

묵주기도의 유래

- ▣ 묵주기도는 가톨릭교회에서 바치는 전례 밖의 기도 중 가장 널리 보급되고 가장 많이 바치는 기도입니다. 묵주라는 말은 장미 꽃다발을 뜻하는 라틴어로사리움(Rosarium)에서 유래했습니다.
- ▣ 묵주기도는 성모 마리아를 통해 우리가 하느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살도록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가르치고 이루신 구원의 신비를 묵상하며 우리를 성화의 길로 이끌어 줍니다. 성모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하느님께 청해 주십니다. 우리는 세계 평화는 물론, 조국의 안녕과 발전, 자기 자신의 영육간의 풍요와 가정의 성화를 위해 끊임없이 묵주기도를 바쳐야 합니다.

묵주기도의 역사

- ▣ 묵주기도의 기원은 옛날 니네베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신자들은 같은 내용의 기도를 반복해서 바치면서 기도의 횟수를 세기 위해 구슬이나 마른 씨, 조약돌을 사용했습니다. 불교나 다른 종교들에서도 이런 기도방법을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 ▣ 묵주기도는 **도미니코 수도회**에서 **시편 150편**을 매일 외운 데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수도자들은 시편 150편으로 기도하며 묵상했으며, 평신도들도 이 기도를 따라서 바치고 싶었으나 너무 길고 어려워 ‘주님의 기도’ 만 150번 염송했습니다. 그래서 묵주기도를 ‘주님의 기도’ 라고 불렀으며 지금도 그렇게 부르는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 ▣ 12세기 중엽, 성모송이 일반화 되면서 묵주기도에 활용되었습니다. 15세기에 이르러서는 예수님의 구세사를 성모님과 관련지어 묵상하는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16-17세기에 성모송을 많이 바치게 되면서, 150번의 묵상이 세가지 신비 즉 환희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의 15개 묵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 ▣ 그리고 2002년 10월 16일에 반포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교서 「동정 마리아의 묵주기도」에 의해 전통적인 환희, 고통, 영광의 신비 외에 **빛의 신비**가 추가됨으로서 묵주기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전 생애를 온전하게 묵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묵주기도의 구성

- ▣ 묵주기도는 예수님의 일생을 마음속으로 묵상하면서 사도신경, 주님의 기도와 성모송, 영광송, 구원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사도신경: 열두 개의 믿음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이 기도는 ‘주님의 기도’와 함께 초대 교회 때부터 있었던 기도문이고 특히 예비신자가 세례를 받을 때,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인다는 표시로써 세례예절 중에 공식적으로 바칩니다.

1)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하느님께서 우주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으며, 그분은 유일하시고 전능하시며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으로 창조된 이 세상은 원초적으로 선에 바탕하고 있기에 그 자체가 참으로 선하고 아름다우며, 그 가운데서도 인간은 하느님의 모습을 닮고 하느님의 숨결을 받은 고귀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2)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예수님은 하느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이러한 호칭은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의 깊은 친교와 완전한 사랑의 일치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말씀과 행적으로 아버지 하느님께서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분이심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이고” (요한 10,30),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으면 곧 하느님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3)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녀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 7,14)고 예언한 구약성서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특별한 방식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4)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본시오 빌라도는 당시 로마제국으로부터 파견된 그 지방 총독의 이름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던 예수님은 유다 종교지도자들의 미움을 사게 되었는데, 그들은 로마총독에게 예수님을 고발하고 죽이려 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수난과 죽음을 자유로이 받아들이셨습니다.

5)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예수께서는 인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기꺼이 죽음을 택하셨지만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죽음의 세력에서 그분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선으로써 악을 이긴 승리의 표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하느님의 평화를 전하면서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6)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 승천하셨습니다.(사도 1,3-11) 예수님의 승천은

당신께서 이 세상에 오시어 사명을 완성하셨다는 것과 하느님의 사랑받는 아드님으로서 ‘아버지의 완전한 영광’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것, 그리고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인간을 구원하는 모든 주권이 하느님 아버지와 함께 그분께도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7)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개별심판(사심판)과 최후심판(공심판)이 있습니다. **개별심판**이란 인간이 죽은 후 하느님 앞에 섬으로써 자신이 세상에서 자유로이 선택하며 살아온 결과에 따라 벌이나 상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사심판의 판결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첫째, 은총지위에 있어 받아야 할 벌이 없는 영혼은 즉시 **천국**으로 올라가고, 둘째, 대죄 중에 있는 영혼은 즉시 **지옥**으로 내려가며, 셋째, 소죄나 보속할 죄벌이 있는 영혼은 **연옥**으로 보내집니다.

최후심판이란 세상 종말에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심판을 말합니다. 최후의 심판의 뜻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업이 완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공심판의 대상은 모든 인간 즉, 선한자, 악한자, 생존자나 사망한 자들 모두입니다. 이 시기는 하느님이신 성부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심판의 기준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알려 주신 사랑의 법을 어떻게 실천했는가에 의합니다. 세상에서 사랑에 대한 수업을 마치고 이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 주님의 심판이기에 국가의 재판처럼 절차를 밟아가는 그런 형식이 아니기에 절망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희망적으로 바꾸어 보는 것이 참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8) 성령을 믿으며

성령께서는 하느님과 이루는 친교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느님의 진리와 사랑을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심어주시어 참다운 삶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성령을 믿습니다.

9)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천주교회는 거룩하신 하느님이 세우셨기에 거룩하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으므로 보편적입니다. 모든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산자와 죽은 자가 기도와 희생, 미사성제 안에서 서로 일치하고 도와줍니다. 그래서 교회공동체 안에 속한 신자들이 서로 다른 이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성인들에게 우리를 위해 하느님께 기도해 달라고 청할 수 있습니다.

10)죄의 용서와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 주면 그들의 죄는 용서 받을 것이고, 용서해 주시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채 남아 있을 것이다.” (요한 20,23)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언제라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임을 신앙인들은 믿습니다.

11)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죽음이 끈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서 다시 부활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부활신앙을 전하면서 초대교회 사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는 용감한 신앙인으로 거듭났습니다.

12)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신앙인들은 지상 생애를 마친 다음 하느님의 얼굴을 뵈옵는 것을 가장 행복한 일로 여깁니다.

▣ 묵주기도를 시작할 때 교회의 신앙 조목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기 위해 이 사도신경을 를 바칩니다.(1번)

2. 주님의 기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기애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하느님을 향한 세 가지 청원과 우리를 향한 네 가지 청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호칭)

하느님과 대화하기 위해 먼저 그분을 부릅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듯이, 예수께서는 하느님을 매우 친밀한 관계 안에서 “아빠, 아버지” 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 아버지” 라고 하느님을 부를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2)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청원1)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신적인 영역을 우리는 ‘거룩하시다’ 고 표현합니다. 하느님의 거룩하심이 모든 이에게 나타나도록 청원합니다.

3)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청원2)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께서 몸소 이루시는 구원의 총체로서 우리가 사는 세상 안에 하느님의 사랑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청원합니다.

4)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청원3)

하느님의 뜻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청원합니다.

5)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청원4)

그날 그날 살아가는데 필요한 음식을 주시길 간청하면서 탐욕이나 물욕에 물들지 않도록 스스로를 경계시킵니다.

6) 저희에게 잘못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청원5)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기심 때문에 하느님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함으로써 하느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청합니다.

7)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청원6)

악의 세력 앞에서 유혹에 굴복하지 말게 해 달라고 청원합니다.

8) 악에서 구하소서. (청원7)

악은 항상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주의와 태만으로 이런 악에 떨어졌을 때 하느님께서 도와 주시도록 청원합니다.

- ▣ 이렇게 깊은 교리를 담고 있는 주님의 기도는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지어낼 수 없는 완전무결한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묵주기도를 바칠 때에도 각 단을 시작할 때 1번씩 바칩니다.

3. 성모송: 예수님을 낳으신 어머니 마리아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성모송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전반부는 성모님을 찬미하는 내용인 가브리엘 대천사가 마리아께 (루카 1,28)

“은총이 가득히 받은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신 인사를 건넨 다음, 성령으로 아기 예수를 잉태하리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임신한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은(루카 1,42)** “모든 여자들 가운데 가장 복되시며 태종의 아드님 또한 복되십니다.” 라며 칭송하였습니다. 이 인사말들은 마리아가 하느님과 가장 가까이 결합된 여인이며 가장 복된 여인임을 드러내기에 마리아를 찬미하는 기도문입니다.

후반부는 우리가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는 내용(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이 담겨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느님과 같은 분이시기에 예수님을 낳으신 마리아는 ‘하느님의 어머니’ 이십니다. 우리는 기도드릴 때 어머니의 도움을 빌어 하느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성모님의 도움을 청원합니다.

각 단마다 10번씩 바칩니다.

4. 영광송: 하느님의 말씀을 찬미하는 기도이며,

성모송을 10번 바친 후 1번 바칩니다.

5. 구원송: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 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되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파티마에서 발현하신 성모님이 바치라고 권고하신 기도문입니다.

우리와 다른 이들. 특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의 구원을 청하는 기도로, 오늘날 묵주기도를 바치는 대부분의 신자들은 각 신비 1단을 마칠 때 마다 이 기도를 바칩니다.

종합 심화

☞ 종합 심화는 5분

- ▣ 장미 꽃다발을 뜻하는 묵주기도는 성모 마리아를 통해 우리가 하느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살도록 늘 인도해 주고 성화 시켜주는 좋은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바칠 때의 신비묵상을 하루에 할 수도 있지만 5단씩 나누어서 할 때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환희의 신비: 월요일, 토요일

빛의 신비: 목요일

고통의 신비: 화요일, 금요일

영광의 신비: 수요일, 일요일

- ▣ 파티마의 루시아 수녀님(포르투갈, 코임브라 가르멜 수녀, 1917년 파티마 모 발현 때 10세 였음)은 기도를 ‘하느님과 만나는 장소’ 라고 했습니다. 숨을 쉬듯이 늘 기도를 해야 하지만 인간의 나약함으로 인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 ▣ 일정한 시간을 정해 놓고 매일 주님을 만나면서 그리스도를 맛보고 닮아가는 신앙인이 될 때 예수님을 친구처럼 편한 상태에서 대화할 수 있게 되며 그 때 비로소 기도가 형식적이 되지 않고 마음으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의 희.노.애.락 뿐만 아니라 이웃과 인류와 세상의 구원을 위해 도드러질 수 있는 마음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묵상기도를 매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새 영세자들에게는 이러한 기도가 힘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적이면서 기도를 드렸다는 보여 지는 결과의 방법을 통해서 서서히 주님과 만남을 지속 할 수 있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 ▣ 예수님의 탄생과 공생활, 수난, 부활, 승천 등을 묵상 할 수 있는 환희, 빛, 고통, 영광의 4가지 신비 묵상을 비롯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꼭 알아야 할 12가지 믿음의 고백인 사도신경과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 성모님의 겸손과 믿음을 알 수 있는 성모송,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이신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는 영광송을 자주 바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묵주기도를 드리면서 예수님과 성모님의 겸손과 사랑의 덕을 닮아 가는 참다운 신앙인으로 자라날 수 있는 기도가 묵주기도입니다.
- ▣ 그러므로 늘 나의 눈과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묵주를 두면서 시간이 나는 대로 자주 묵주기도를 드리는 습관을 기르면서 나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아멘.

마무리 및 실천사항

☞ 진행자는 실천사항을 실천하도록 과제를 내준다.

▣ 이번 주간의 실천사항:

1. 묵주기도 5단 바치기-지향: 세계평화와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해

▣ 자유기도를 바치면서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도가 끝나면 “아멘.” 하고 응답합니다.

주님! _____ ◎ 아멘.

예수님! _____ ◎ 아멘.

진행자는 모든 기도가 끝나면....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 진행자는 자유기도가 끝나면 성가를 부른다.

▣ 마침 성가는 _____ 번입니다.

묵주기도

성명(세례명) _____

※ 맞는 답에 답하시오.

1. 묵주기도의 유래를 쓰십시오.

2. 환희의 신비를 쓰십시오.

제 1단

제 2단

제 3단

제 4단

제 5단

3. 빛의 신비를 쓰십시오.

제 1단

제 2단

제 3단

제 4단

제 5단

4. 고통의 신비를 쓰십시오.

제 1단

제 2단

제 3단

제 4단

제 5단

5. 영광의 신비를 쓰십시오.

제 1단

제 2단

제 3단

제 4단

제 5단

6. 파티마에서 발현하신 성모님이 바치라고 권고하신 기도문을 쓰십시오.

7. 2002년 10월 16일에 반포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교서 「동정 마리아의 묵주기도」에 의해 전통적인 신비 외에 어떤 신비가 추가 되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교구 활천성당

8

가정과 성사생활

▣ 진행자 ◎ 함께

- ☞ 분위기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 기도 상을 차려놓고 초를 켜놓는다.
- ☞ 사람들이 모이면 따뜻한 환대와 인사한 후 성호경으로 시작을 한다.
- ☞ 준비물- 책: 이기정 지음, 「새 영세자를 위한 신앙생활 길잡이」, 2006년, 성바오로
기도상, 초, 십자가, 성경 (1테살 4,1-12)
- ☞ 도입은 10분으로 한다.
- ☞ 참고서적: 가톨릭 교리 신학원, 「초대받은 당신」, 가톨릭 출판사
김웅태 신부, 「현대 성인 구도자들을 위한 가톨릭 교리」, 도서출판 만남
함께하는 여정, 통합사목연구소
아버지와 가정 강의록

도입

▣ 성호경

- ▣ 주님, 저희를 부르시는 당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한 분씩 주님을 초대해 주십시오.

- ☞ 각 사람이 돌아가면서 초대의 기도를 드린다. 기도의 화답은 아멘으로 한다.
처음에는 진행자가 먼저 모범을 보이는 것도 좋을 것 같음.

예) 오소서 성령님!..... 오늘 모든 일정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 아멘.

주님! _____ ◎ 아멘.

예수님! _____ ◎ 아멘.

- ☞ 기도가 끝나면 성경을 읽는다. 진행자는 성경구절을 미리 찾아놓는다.
- ☞ 함께하는 여정 제 21과 참조

- ▣ 어느 분이 1테살 4,1-12 를 큰 소리로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 ▣ 성경 말씀 중에서 단어나 짧은 구절을 선택하여 기도하듯이 세 번씩 읽어 주십시오. 읽는 사이사이(약5초 간격)에 묵상을 위해 잠시 침묵을 지켜 주십시오.

- ☞ 같은 구절을 세 번 외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침묵을 지킨다.
- ▣ 어느 분이 성경 본문을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 ☞ 참석자 모두가 함께 성경 본문을 읽을 수도 있다.
- ▣ 2분 동안 침묵을 지키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 ☞ 진행자는 시계를 보면서 시간을 쟀다. 침묵 시간이 너무 짧거나 길지 않도록 주의 한다.
- ▣ 개인적으로 마음에 와 닿은 단어나 짧은 구절을 통해 자신의 마음속에 들려온 말씀을 자신의 생활과 연결시켜 함께 나눕시다.
- ☞ 진행자는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이 어떻게 자신에게 와 닿았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느낌을 서로 나누도록 제안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본문을 해설하더라도 토론하지 않도록 한다.
- ☞ 한 사람의 이야기가 끝나면 “잘 들었습니다.” 혹은 “감사합니다.” 등 공동체가 화답을 해준다.

전 개

- ☞ 전개는 30분.
- ☞ 진행자는 이야기 하듯이 실감나게 말한다.
- ▣ 우리들이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부르신 하느님의 뜻을 성경 나눔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한 가정을 소개 하고자 합니다.
- ▣ 부부와 아들 1명, 딸 2명 이렇게 다섯 가족입니다. 아들은 어렸을 때 참으로 착하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공부도 반에서 1,2등을 다룰 정도로 잘했으며, 칭찬을 자주 듣는 모범생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중학생이 되면서 전혀 다른 아이로 변해갔는데, 공부는 안하고 게임만 하면서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머리를 길어 뒤로 묶고, 그 긴 머리를 아버지가 강압적으로 잘랐을 때 집을 나가기도 하고 몇 달 동안 냉전 상태가 되어 찬바람이 쐤쐤 부는 날도 있었습니다. 방학 동안에는 노랗게 염색을 해서 나타나 아버지에게 매를 맞으면서도 노란염색을 고집하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친구들과 함께 학원으로 춤을 배우러 다니기도 하는 등 공부와는 점점 벽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들과 아주 힘들어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어느 날 성가정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는 주보를 보고 아들을 이해하고 싶어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매 주마다 과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자녀에게 **아침저녁으로 하느님의 축복을 빌어주는 숙제**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딸과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으면서 하느님의 축복을 빌어 줄 때 어색했지만 숙제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매일 아침저녁으로 하느님의 축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갈 무렵 딸들은 많이 변화 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중학생인 아들은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속은 잘 모를 정도로 아무 변화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는 어느날 평소와 같이 기도 하려고 딸에게 머리에 손을 얹으려고 하는 순간 “잠깐! 아빠! 오늘은 제가 아빠를 위해 기도 할래요.” 라고 말하면서 아빠

의 머리에 손을 얹고 평소에 아빠가 늘 자녀들에게 했던 그 기도를 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난 후에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면서 온 아파트가 떠나갈 정도로 큰 목소리로 말하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다고 합니다. 딸의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고 하느님의 축복을 빌어주는 기도에 대한 체험을 하면서 1년을 보냈는데 아들이 중3 방학 때 아버지에게 느닷없이 이제부터 공부를 하겠으니 학원비를 대주라고 하였습니다. 공부도 안하던 아이가 공부를 한다고 하기에 못미더워서 한 달만 끊어 주었는데 잠시도 앉아 있기를 싫어하던 아이가 11시가 넘도록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모습이 대견스럽고 이렇게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느님께 감사의 기도가 절로 나왔다고 합니다. 가족 서로서로 대화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아이들의 기도소리와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져가는 가정으로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 이렇게 하느님의 축복을 빌어주는 기도를 매일 바치게 될 때 가정 구성원들이 서서히 하느님의 축복의 기운이 감도는 가정으로 거룩하게 변화되는 가정을 소개했습니다.

▣ **가족은** 하느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가족구성원들도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만남을 허락하셨기에 가족구성원들 서로의 말을 듣고 대화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나누는 연습을 자주 할 때 하느님을 우리 가정에 모시면서 기도와 사랑이 넘치는 거룩한 성가정이 될 것입니다.

▣ **하느님을 모시고 그 분이 나의 가정의 주인임을** 매일 고백하면서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이 거룩한 사람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부모**는 가정을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 진행자는 각자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

▣ 그렇다면 세례를 받은 후의 나의 가정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집의 분위기는 어떠하다고 생각합니까?...

▣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기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나눔이 끝나면 집안의 장식과 분위기에 대해 요약해서 말해준다.

종합 심화

☞ 종합 심화는 5분

집안의 거룩한 장식

▣ 저 또한 어떤 교우집을 방문할 기회가 있을 때 보면 방 한가운데에 십자가상이 모셔져 있고 양 옆으로는 성화(聖畵)가 걸려 있으며, 그 밑에는 작은 테이블이나 상위

에는 흰 보가 덮여 있으며 그 위에는 성상(聖像)이 모셔져 있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현관 벽에는 성수그릇을 놓는 집도 있고, 때로는 십자가와 촛대로 작은 제대를 꾸며 놓은 집도 있습니다. 집안에 거룩한 장식으로 꾸미는 것은 온가족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진행자는 자신의 집 분위기를 말한다.

신자 가정 분위기의 구상

- ▣ 이렇게 가정이나 방을 각종 성화나 성물로 꾸미는 것은 교회가 예로부터 권장하는 일입니다. 잘 정돈되어 있지 않다든지 이해하기 어렵게 꾸며 놓으면 남에게 거부감을 주고 같은 신자 입장에서 보아도 어색해 안쓰러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 하나에 십자가가 여러 개가 있다든지 큰 성모상 옆에 작은 예수님 상을 놓음으로써 예수님이 성모님의 보조 역할을 하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점 등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각 방마다 다양한 십자가나 성상 또는 성화를 예술적으로 적절히 모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물이나 성화, 특히 십자가를 바라보며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하느님을 향한 마음이 조금씩 자라남을 알기에 우리의 기도 및 신앙생활도 성물에 대한 친근감이나 관심의 유발과 함께 깊어 갈 것입니다.

가정의 기도실

- ▣ 집에 남는 방이 있다면 기도실을 따로 차리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큰방의 한 면이나 구속에 작은 제대를 차려 놓은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십자가, 촛대, 성수, 꽃병, 기도서, 성경 등으로 아담하게 꾸며 놓고, 그 앞에서 아침기도나 저녁기도를 드려 보십시오, 때로 이웃과 함께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 ▣ 기도 방에서 영적묵상을 하거나 가족이 돌아가면서 기도를 주관하기도 하고, 성경을 봉독하고 성가를 부르는 등 기도 하는 것을 매주 혹은 매월 새롭게 바꾸어 진행하는 방법도 가정의 영적인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TV를 보지 않고 가족이 함께 기도한다면 내적으로 더욱 일치 할 것이며 하느님께 대한 믿음도 커질 것입니다.
- ▣ 외적인 분위기도 중요하지만 가족 구성원 서로의 성장을 위해 하느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라는 생각으로 서로를 존중해 주고 감사하는 마음과 사랑으로서로에게 하느님의 축복을 빌어주는 가정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거룩한 가정으로 만들어 가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집안 곳곳에 하느님의 기운이 넘쳐나고 그 안에 살아가는 가족들 또한 몸과 마음이 건강할 것이며, 그 곳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느님의 기운들을 느끼게 해 줄 것입니다. 교회는 믿는 이들의 모임입니다. 가정공동체 또한 작은 교회입니다. 나의 가정 안에 하느님이 머무는 거룩한 분위기를 만들어 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일상의 삶 안에서 더 자주 주님을 뵈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마무리 및 실천사항

☞ 진행자는 실천사항을 실천하도록 과제를 내준다.

▣ 이번 주간의 실천사항:

1. 가정안에 거룩한 기도의 분위기를 만들기
2. 가족 구성원들에게 하느님의 축복을 빌어주는 기도드리기.

▣ 르네바르트코프스키의 저희 가정을 축복하소서 기도 바치면서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 진행자는 유인물을 나누어 주고서 함께 다음의 기도를 바친다.

▣ 저희 가정을 축복하소서

주님, 저희 가정을 축복하시어
당신 사랑과 현존으로 충만케 하소서.
저희와 함께 머무시어 서로를 돌보게 하시교
성장할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사랑하올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시어
이 가정을 따뜻하고 힘을 얻는 곳,
생기를 되찾는 안식처가 되게 하소서.
근심을 잊고 웃음을 나눌 수 있는 곳,
너그럽고 자유로우며 사랑이 넘치는
보금자리로 만들어 가게 하소서.

누구에게나 문이 열려 있어
친구들과 친지들,
외로운 이들과 가난한 이들에게
우정과 위로와 기쁨을 줄 수 있게 하소서.

저희를 찾아오는 이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손을 내밀어 주며
감싸안아 주는 곳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 가정이 언제나 당신의 현존을 느끼며
당신의 사랑을 받는 곳이 되게 하소서.
아멘.

- 르네바르트코프스키 -

유인물

저희 가정을 축복하소서

주님, 저희 가정을 축복하시어
당신 사랑과 현존으로 충만케 하소서.
저희와 함께 머무시어 서로를 돌보게 하시고
성장할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사랑하옵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시어
이 가정을 따뜻하고 힘을 얻는 곳,
생기를 되찾는 안식처가 되게 하소서.
근심을 잊고 웃음을 나눌 수 있는 곳,
너그럽고 자유로우며 사랑이 넘치는
보금자리로 만들어 가게 하소서.

누구에게나 문이 열려 있어
친구들과 친지들,
외로운 이들과 가난한 이들에게
우정과 위로와 기쁨을 줄 수 있게 하소서.

저희를 찾아오는 이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손을 내밀어 주며
감싸안아 주는 곳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 가정이 언제나 당신의 현존을 느끼며
당신의 사랑을 받는 곳이 되게 하소서.

아멘.

- 르네바르트코프스키 -

9

혼인성사

▣ 진행자 ◎ 함께

- ☞ 분위기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 기도 상을 차려놓고 초를 켜놓는다.
- ☞ 사람들이 모이면 따뜻한 환대와 인사한 후 성호경으로 시작을 한다.
- ☞ 준비물- 책: 이기정 지음, 「새 영세자를 위한 신앙생활 길잡이」, 2006년, 성바오로 기도상, 초, 십자가, 성경 (에페소 5, 21-33), A4용지, 볼펜
- ☞ 도입은 10분으로 한다.
- ☞ 참고서적: 가톨릭 교리 신학원, 「초대받은 당신」, 가톨릭 출판사
김웅태 신부, 「현대 성인 구도자들을 위한 가톨릭 교리」, 도서출판 만남
함께하는 여정, 통합사목연구소
김길만 신부, 「결혼하고싶은데요」, 성바오로

도입

▣ 성호경

- ▣ 주님, 저희를 부르시는 당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한 분씩 주님을 초대해 주십시오.

- ☞ 각 사람이 돌아가면서 초대의 기도를 드린다. 기도의 화답은 아멘으로 한다.
처음에는 진행자가 먼저 모범을 보이는 것도 좋을 것 같음.

예) 오소서 성령님!..... 오늘 모든 일정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 아멘.

주님! _____ ◎ 아멘.

예수님! _____ ◎ 아멘.

- ☞ 기도가 끝나면 성경을 읽는다. 진행자는 성경구절을 미리 찾아놓는다.
- ☞ 함께하는 여정 제 21과 참조

- ▣ 어느 분이 에페소 5, 21-33 를 큰 소리로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 ▣ 성경 말씀 중에서 단어나 짧은 구절을 선택하여 기도하듯이 세 번씩 읽어 주십시오. 읽는 사이사이(약5초 간격)에 묵상을 위해 잠시 침묵을 지켜 주십시오.

- ☞ 같은 구절을 세 번 외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침묵을 지킨다.
- ▣ 어느 분이 성경 본문을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 ☞ 참석자 모두가 함께 성경 본문을 읽을 수도 있다.
- ▣ 2분 동안 침묵을 지키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 ☞ 진행자는 시계를 보면서 시간을 쟀다. 침묵 시간이 너무 짧거나 길지 않도록 주의 한다.
- ▣ 개인적으로 마음에 와 닿은 단어나 짧은 구절을 통해 자신의 마음속에 들려온 말씀을 자신의 생활과 연결시켜 함께 나눕시다.
- ☞ 진행자는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이 어떻게 자신에게 와 닿았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느낌을 서로 나누도록 제안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본문을 해설하더라도 토론하지 않도록 한다.
- ☞ 한 사람의 이야기가 끝나면 “잘 들었습니다.” 혹은 “감사합니다.” 등 공동체가 화답을 해준다.

전 개

- ☞ 전개는 30분.
- ▣ 칠성사는 세례성사, 견진성사, 고해성사, 혼인성사, 성품성사, 병자성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혼인성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 혼인이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자유롭게 돌아가면서 말씀해 주십시오.
- ☞ 진행자는 서기를 한명 정한 후 그룹원들이 말한 것을 즉시 틀리더라도 번호를 메겨가면서 그대로 기록하게 한다.
- ☞ 진행자는 혼인성사에 관한 유인물을 나누어 준다.
- ▣ 혼인성사를 하는 이유는 한 가정을 이루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느님의 강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에게는 사랑을 받고 싶다는 본능과 사랑하고 싶다는 본능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이러한 인간 사랑의 이중성을 부부애로 이루어 주시고자 성(性)을 주셨습니다. 혼인은 자녀의 출산과 양육, 부부간의 사랑과 협력을 위해 남녀가 맺는 친밀한 일치입니다. 부부 서로간의 사랑은 혼인성사의 표지입니다.
- ☞ 진행자는 유인물을 보면서 혼인성사의 본질 목적, 혼인의 특성에 대해 설명을 한다.
- ☞ 진행자는 혼인의 성사성과 혼인의 준비와 거행, 장소, 혼인조당과 관면혼배에 대해 함께 읽으면서 설명한다.

혼인성사(婚姻聖事)

1. 혼인성사란?...교회헌장 11항, 교회법 1055조

혼인성사란 한 쌍의 남녀가 하느님과 교회공동체 앞에서 자유로이 계약을 맺고 결합하여 사랑과 봉사의 삶을 살아가게 한 성사로서, 이는 한 쌍의 남녀가 서로 평생공동운명체를 이루고 그 본성상 배우자들의 선익, 자녀의 출산과 교육을 지향하게 되는 혼인당사자들 사이의 ‘혼인 은약’을 말한다.

2. 혼인의 본질-창세기

혼인의 본질은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이며 이는 곧 창조주이신 하느님의 뜻이다. 이는 성서상에서 3번 나타난다.

(창세 2,24; 마태 19,5; 에페소 5,31)

1)떠나다: ‘떠남’은 결혼을 성립시키려는 공적이고도 합법적인 행동을 표시하며, 이는 혼인 당사자들이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권리와 책임이 뒤따르는 자기들의 세계를 자유롭게 구축해 가는 것을 말한다.

2)합하다: 사랑의 일치를 이룬다는 뜻으로서, 이는 부부의 불가해소적인 관계를 말하며 만일에 떠나려고 하면 둘 다 찢어지고 깊은 상처를 입는다. 즉 부부는 이 세상 어떤 사이보다도 가장 가까운 사이이다.

3)한몸을 이루다: 혼인의 육체적, 정신적인 일치로서의 신비적 차원을 말한다. 즉 두 사람의 몸과 마음이 완전히 하나(일심동체)가 되면서도 계속 다른 두 사람으로 남아 있게 되는 것이다.

3. 혼인의 목적(사목헌장 50항)

혼인의 목적은 ‘사랑의 나눔’과 ‘생명전달’ 그리고 ‘상부상조’에 있다. 즉 ‘혼인’의 목적은 한쌍의 남녀가 사랑을 성취함으로써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며 서로의 역할 안에서 서로 도와주는 데 있는 것이다. 일부의 사람들은 이러한 혼인목적 혹은 정신과는 달리 ‘성’을 성취하려는 동기에서 혼인을 하는 그릇된 풍조를 보이고 있다. 하느님의 창조와 구

원 계획의 입장에서 볼 때 동시에 ‘혼인성사’ 는 한 개인을 위한 것만 이 아닌 사회와 교회공동체 전체를 위한 것이기에 ‘봉사의 성사’ 라고도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때 혼인은 ‘성’ 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 이 혼인과 가정을 위한 것임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4. 혼인의 특성(사목헌장 49항; 교회법 1056조)

1) 유일성(單一性):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을 뜻함.

2) 불가해소성(不可解消性): 혼인성사로 맺어진 부부는 갈라 설수 없다.
 - ‘단일성’ 과 ‘불가해소성’ 은 부부의 혼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에 맺어진 일치와 사랑을 상징한다는 데에 근거한다. 따라서 부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서로 사랑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듯이 서로에게 성화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 혼인성사는 예수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관계를 상징하는 영원한 표지이기 때문이다.

- 성경 참조(창세기 1,21-24; 마태 19,4-6; 루가 16,18; 마태 24,35; 1고린 7,10-11, 39; 로마 7,2-3)

3)혼인의 신성성: 혼인은 신성한 것이다.

- 혼인은 개인과 인류 사회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세말까지 존속되는 제도이다. 의존관계나 공존관계가 아닌 부모와의 관계보다 더 강한 사랑의 일치를 이루는 것이다. 따라서 부부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로운 일치에 참여하고 자녀를 낳게 해 주시는 사랑의 신비에 참여하게 된다.

4)혼인의 신비성: 혼인은 신비로운 것이다.

- 사랑은 하느님이 주시는 선물로써 부부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힘이기도 한다. 하느님께서 혼인하는 부부에게 사랑을 선물로 주시지만 부부는 이 선물을 길러 가야 할 책임을 지니고 있다. 사랑은 키우지 않고 방치해 두면 시들어 버리고 말지만 기르면 기를수록 무한히 성장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사랑은 인격과 인격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인격이 성장하는 비례대로 사랑도 성장한다. 더 나은 인간 , 즉 지성, 품위, 학식, 건강, 명예, 아름다움, 성실, 양순함, 선함들을 풍부히 소유한 인간이 될수록 더 사랑받기 쉽고 더 사랑하기 쉬워진다. 배우자를 길러주는 동시에 자신을 성장시킬 때 사랑은 성장하고

부부는 더 큰 일치를 이루며 행복을 누리게 된다.

5. 혼인의 성사성(교회법 1057조)

‘혼인’은 하느님이 친히 제정하신 것이므로 사람이 임의로 갈라놓을 수 없는 ‘사효적 표징’이다. 더욱이 ‘혼인’은 의무로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동의’**의 표현으로 맺어지는 계약이므로 눈으로 볼 수 있는 표지로서의 구조를 지니며 이로써 “혼인의 성사성”, 즉 ‘성소’이므로 “성사로서의 혼인”인 것이다. 이렇듯 혼인의 성사성이 남녀 당사자들의 동의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그 **집전자**는 사제가 아닌 **혼인 당사자**이고 **사제는 주례자 혹은 공적인 증인**일 따름이다.

6. 혼인 준비와 거행

1) 혼인식이 이루어지는 곳(장소)

- 성당, 경당, 예식장인가 하는 등의 건물적인 의미
- 교적이 있는 본당인가 그렇지 않은 본당인가에 관한 관할권의 의미로서의 혼인을 주례할 사람의 권한과도 관련이 있다.

○ 혼인장소(건물적인 의미) 제 1118조

- ① 영세를 받은 사람끼리의 혼인장소- 본당 사목구 성당
ex) 가톨릭 신자 + 가톨릭 신자
※ 그러나 교구직원자나 본당 사목구 주임의 허가를 얻어 다른 성당이나 경당에서 거행될 수 있음.
- ② 관면혼인 장소 - 성당, 다른 적당한 곳
ex)가톨릭 신자 + 비영세자
- ③ 교구직원자는 다른 적당한 장소에서 혼인이 거행되도록 허가할 수 있다.

○ 혼인장소(관할권의 의미) 제 1115조

혼인 당사자들 중 한편이 주소지나 준주소지나 1개월간 체재한 곳의 본당 사목구에서 또는 주소 부정자의 경우에는 현재 체재하는 곳의 본당 사목구에서 거행되어야 한다. 소속 직원자나 소속 본당 사목구 주임의 허가가 있으면 다른 곳에서 거행 될 수 있다.

ex) 남자의 본당, 여자의 본당, 두 사람이 속하지 않은 제3의 본당에서의 혼인식 거행 가능 -제3의 본당일 경우 소속본당 주임(한국 교회에서는 교적이 있는 본당 주임)의 허가가 필요함.

- 혼인이 거행되는 곳의 본당 신부는 혼인할 사람들이 소속된 본당 주임 신부가 허가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미리 확인을 하여야 하며, 이 허가에 대한 공적인 문서는 별도로 준비되어 있지 않고, 혼인 봉투의 오른쪽 위에 있는(주례권 위임)란을 사용하고 있음.

2) 혼인식 날짜

- 전례지침과 본당 상황 고려해서 날짜를 정한다.

3) 혼인 문서 준비 장소

- 신자는 각자가 소속된 즉 각자 교적이 있는 본당에서 준비

- 비신자는 신자인 배우자의 본당에서 준비

- 각자 준비한 서류를 혼인식을 할 본당으로 제출

※ 혼인식을 한 본당에서는 혼인 문서를 보관하며 혼인 사실을 필요한 곳에 통지할 책임을 진다. 그래서 제 3의 장소(성당을 빌린 경우)에서의 혼인식을 하는 경우에는 는 각자 자신이 속한 본당에서 서류를 준비하여 혼인식을 할 본당으로 보내야 한다.

7. 가톨릭 교회의 혼인법(혼인 조당)

교회는 혼인 성사의 단일성, 영속성, 신성성, 신비성과 혼인하는 당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우에 따라 혼인을 금지하고도 혼인을 했을 경우 이를 무효로 간주한다. 이를 혼인의 무표 장애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다.

① 연령장애 (교회법 1083조)

- 남자는 만 16세, 여자는 만 14세 이전의 혼인은 무효. 우리나라 민법상의 혼인 적령은 남자는 18세, 여자는 16세부터이므로 이를 따라야 한다.

② 성 불능 장애 (교회법 1084조)

- 결혼 전에 발생한 성 불능이 상대적이든 절대적이든, 남자의 경우든 여자의 경우든, 성 기관의 불능이든 성 기능의 불능이든 간에 그 장애가 영구적일 경우의 혼인은 무효. 이 장애는 관면을 받지 못한다.

③ 혼인 유대 존속 장애 (교회법 1085조)

- 신자든 비신자든 합법적으로 결혼을 했을 경우 이 혼인 유대가 존속하는 한, 다른 사람과 혼인을 할 수 없다. 바오로 특전인 경우가 아니면 관면되지 않는다.

④ 타종교 장애 (교회법 1086조)

-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 혹은 가톨릭 교회에 받아들여진 사람(개종자)이 비신자와 혼인을 하면 무효임. 단 본인의 신앙과 자녀의 종교 교육이 보장될 경우 관면을 받을 수 있다.

⑤ 서품 장애 (교회법 1087조)

- 거룩한 서품을 받은 사람(부제, 사제, 주교)은 휴효한 혼인을 할 수 없다.

⑥ 수도 서원 장애 (교회법 1088조)

- 수도회에서 정결, 종신 서원을 한 사람은 혼인을 할 수 없다. 수도 생활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교황청의 관면을 받을 수 있다.

⑦ 유괴 장애 (교회법 1089조)

- 유괴한 남자와 유괴한 여자 사이, 또는 결혼할 마음으로 여자를 유괴시키고 있는 동안에는 혼인을 할 수 없다. 유괴 상태에서 풀려나 안전하고 자유로운 장소에 되돌아간 다음 여자가 자진하여 결혼을 원할 때에는 혼인 할 수 있다.

⑧ 범죄 장애 (교회법 1090조)

- 혼인 할 목적으로 상대방의 배우자를 죽였거나 자기 배우자를 죽였을 경우 그 사람과는 혼인할 수 없고, 물리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협력하여 배우자를 죽인 사람들도 서로 혼인 할 수 없다.

⑨ 친족 장애 (교회법 1091조)

- 적출이건 비적출이건 피를 나눈 직계 친족간의 혼인은 무효이다. 또한 친족의 방계 4촌, 즉 부계든 모계든 8촌까지는 서로 혼인할 수 없다.

⑩ 인척 장애 (교회법 1092조)

- 인척이란 결혼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으로 배우자의 직계와는 어떤 경우에서든지 결혼할 수 없다. 예컨대 죽은 아내의 딸이나 장모와 결혼할 수 없다.

⑪ 내연 관계 장애 (교회법 1093조)

- 유효한 혼인은 아니지만 동거 생활을 한 사람, 또는 축첩 관계를 맺

은 사람은 상대방의 직계 혈족과 혼인할 수 없다.

⑫ 법정 친족 관계 (교회법 1094조)

- 양자 결혼에 의해 법적으로 친족 관계가 성립되었을 경우 직계내에서는 친족에 관계 없이 혼인할 수 없고, 방계에 있어서는 2촌(법정 4촌)간에 혼인 할 수 없다. 단 양자 결혼이 파기되었을 경우에는 장애가 풀린다.

⑬ 착오 장애 (교회법 1097조)

- 1항: 혼인을하기로 약속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과의 혼인은 무효이다.
- 2항: 사람의 품성에 대한 착오는 그것이 혼인 계약의 이유가 되었을 지라도 이 품성이 직접적이고 주목적이 아니었을 경우 무효가 되지 않는다.

⑭ 협박 장애 (교회법 1103조)

- 신랑이나 신부가 부모나 타인에 의해 부당하게 협박을 당하여 억지로 혼인하였으면 무효이다.

⑮ 혼인 형식 장애 (교회법 1108조 이하)

- 가톨릭 신자간의 혼인이라도 본당 신부와 두 증인 앞에서 교회법이 요구하는 형식대로 하지 않는 혼인은 무효이다.

⑯ 그 밖에 혼인이 무효가 되는 경우 (교회법 1095조 이하)

- 이성(理性)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
- 부부가 서로 주고받는 혼인의 본질적인 권리와 의무에 관해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
- 심리적 백치(白痴)기 때문에 혼인의 본질적 의무를 책임질 수 없는 사람.
- 상대방의 재물을 탐하여 혼인하려는 사람.

※이와 같이 좀 복잡해 보이는 교회의 혼인법은 항상 약자를 보호하여 그들의 불행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혼인 당사자가 미처 모르는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에는 누구든지 반드시 본당 신부에게 알릴 중대한 의무가 있다.

8. 혼인 조당과 관면 혼배

- **혼인조당**이란, 혼인을 완벽하게 하기 위하여 교회법 상으로 결혼할 수 없는 조건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혼인 조당에 걸린 신자는 성사 생활을 할 수 없으므로, 본인이나 가까운 이웃, 자녀들의 결혼을 할 때에는 본당 신부님과 잘 상의해서 결정해야 한다.

- **관면혼배**란, 이 세상을 끄나는 혼인보다 신앙이 더욱 중대하므로 결혼 생활이 신앙 생활에 피해를 주어서는 결코 안된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신앙인끼리의 혼인을 권장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가톨릭이 소수이므로 비신앙인(개신교 포함)과 결혼을 할 때에는 특별한 조건을 갖추고 다음의 두 가지 사항에 서명 날인한 다음에 혼인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개신교 등과 같이 타교파와 혼인을 할 경우를 혼종혼이라고 말한다.

○서약1 : 신자는 결혼을 하여도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자녀를 입교시키겠다.

○서약2 : 비신자는 배우자의 신앙을 방해하지 않고 자녀들을 입교시키겠다.

이때 양편 모두 증인이 있어야 하며 증인의 진술을 받는다. 만일 결혼 예식장에서 결혼을 한다면 사전에 혼배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조당에 해당된다.

9. 혼인성사의 준비

-**서류준비**: 호적등본 1통: 6개월 이내의 것

세례 증명서 1통: 세례를 받은 본당에서 발급

-**장소결정**: 관례적으로 여자 쪽 본당이 우선인데 남자 쪽 본당이나 그 외 다른 본당도 가능함. 본당 신부님의 양해를 얻도록 해야 함. 장소 예약을 미리 알아보아야 한다.

-**주례신부**: 여자쪽 본당의 주임 신부님이 혼인 주례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다른 신부님에게 주례를 부탁할 때는 먼저 본당 신부님께 알려 다른 신부님에게 위임하도록 해야 한다.

-**서류작성**: 결혼할 사람은 한 달 전에 여자쪽 본당(경우에 따라서는 남자 쪽 본당으로 정해도 됨)이 주임 신부님과 면담을 약속(시간은 사무실에서 정해 줌)을 하고 준비한 호적 등본과 세례 증명서를 가지고 만난다. 그때 혼인 신청서, 혼인 전 진술서 등 필요한 서류를 꾸민다. 이

때 도장(서명도 가능함)을 지참한다. 때로는 남녀 각각 자기 본당에서 서류를 작성해 갖고 오게 하기도 한다.

-**증인선정**: 남, 여 각1명씩을 증인으로 세우되 가능하면 신자로 택한다. 증인은 혼인의식 때 신랑 신부 옆에 꼭 참관해야 하며, 예식 후 혼인 서약의 증인으로서 서명을 한다.

-**약식혼인**: 손님초대(또는 미사)없이 혼인 할 당사자와 증인 등이 참석해 혼인 서약만 하는 간략한 혼인을 가리키며, 사목상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 가능하다.

-**기타사항**: 결혼 전에 종합 진단을 받는다. 서로 의학적으로 건강을 확인하는 것은 양가에 드리는 예의이다. 적성검사도 함께 받아 행복한 삶을 위해 도움을 받도록 한다.

부산교구 활천성당

종합 심화

☞ 종합 심화는 5분

- ▣ 교회안에서의 신자들간의 혼인은 자연혼을 넘어서 성사혼이 됩니다. 우리들은 혼인 성사를 받음으로써 특별한 은총을 받습니다. 즉 가정의 성화와 자녀 출산과 그 양육을 통한 부부 서로간의 성화에 필요한 은총을 받게 되는 것 입니다. 특히 부부가 나누는 사랑의 일치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당신 교회에 바치신 지고한 사랑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 ▣ 혼인이란 남편과 아내가 하느님의 뜻에 따라 서로에게 사랑으로 봉사하고 자녀교육에 책임을 분담하며 사회에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을 전하기에 결혼은 당사자들의 일인 동시에 사회와 교회공동체에의 봉사라는 소명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교회안에서의 혼인이란 ‘성소로서의 혼인’ 이요 ‘성사로서의 혼인’ 인 것입니다. 따라서 부부는 서로의 십자가를 지고 죽기 까지 서로 사랑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바치신 그 사랑에 참여하게 될 뿐 아니라, 그토록 위대한 사랑을 온 세상에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 오늘날 성윤리가 퇴폐되어 건전한 가정생활과 자녀교육에 악영향을 주고 있음을 신

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봅니다. 가정공동체의 사랑의 결핍은 사회적인 탈선풍조와 비행을 증가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이럴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혼인성사를 통한 하느님의 은총에 힘입어 참다운 사랑이 무엇인지 또 참다운 성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부부들에게 요구하신 사명입니다.

- ▣ 그러하기에 혼인을 하기 전에 예비신랑과 신부는 가정을 꾸미기 위한 외적, 내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교구에서 운영하는 혼인과 가정에 관한 교리를 받아야 하며, 혼인성사를 받기 1개월 전에 본당신부님과 의논하면서 혼인에 필요한 외적 준비뿐만 아니라 고해성사와 같은 내적인 준비도 필요 합니다.
- ▣ 하느님과 두 증인과 교회공동체 앞에서 자유로운 동의로 하느님께서 맺어준 사람들이기에 이혼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혼인 무효 장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교회법원에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여 혼인자체를 무효화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및 실천사항

☞ 진행자는 실천사항을 실천하도록 과제를 내준다.

▣ 이번 주간의 실천사항:

1. 나의 자녀들은 하느님의 아들. 딸이므로 잘 교육 시키고 특히 교리 교육을 충실히 시키도록 하기
2. 가족구성원들에게 사랑의 표현을 하루 1회 이상씩 하기
3. 가정을 위한 기도와 부부의 기도 바치기(가톨릭 기도서 참조)

▣ 자유기도를 바치면서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도가 끝나면 “아멘.” 하고 응답합니다.

주님! _____ ◎ 아멘.

예수님! _____ ◎ 아멘.

진행자는 모든 기도가 끝나면....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 진행자는 자유기도가 끝나면 성가를 부른다.

▣ 마침 성가는 _____ 번입니다.

혼인성사(婚姻聖事)

1. 혼인성사란?...교회헌장 11항, 교회법 1055조

혼인성사란 한 쌍의 남녀가 하느님과 교회공동체 앞에서 자유로이 계약을 맺고 결합하여 사랑과 봉사의 삶을 살아가게 한 성사로서, 이는 한 쌍의 남녀가 서로 평생공동운명체를 이루고 그 본성상 배우자들의 선익, 자녀의 출산과 교육을 지향하게 되는 혼인당사자들 사이의 ‘혼인 은약’을 말한다.

2. 혼인의 본질-창세기

혼인의 본질은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이며 이는 곧 창조주이신 하느님의 뜻이다. 이는 성서상에서 3번 나타난다.

(창세 2,24; 마태 19,5; 에페소 5,31)

1)떠나다: ‘떠남’은 결혼을 성립시키려는 공적이고도 합법적인 행동을 표시하며, 이는 혼인 당사자들이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권리와 책임이 뒤따르는 자기들의 세계를 자유롭게 구축해 가는 것을 말한다.

2)합하다: 사랑의 일치로 이룬다는 뜻으로서, 이는 부부의 불가해소적인 관계를 말하며 만일에 떠나려고 하면 둘 다 찢어지고 깊은 상처를 입는다. 즉 부부는 이 세상 어떤 사이보다도 가장 가까운 사이이다.

3)한몸을 이루다: 혼인의 육체적, 정신적인 일치로서의 신비적 차원을 말한다. 즉 두 사람의 몸과 마음이 완전히 하나(일심동체)가 되면서도 계속 다른 두 사람으로 남아 있게 되는 것이다.

3. 혼인의 목적(사목헌장 50항)

혼인의 목적은 ‘사랑의 나눔’과 ‘생명전달’ 그리고 ‘상부상조’에 있다. 즉 ‘혼인’의 목적은 한쌍의 남녀가 사랑을 성취함으로써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며 서로의 역할 안에서 서로 도와주는 데 있는 것이다. 일부의 사람들은 이러한 혼인목적 혹은 정신과는 달리 ‘성’을 성취하려는 동기에서 혼인을 하는 그릇된 풍조를 보이고 있다. 하느님의 창조와 구

원 계획의 입장에서 볼 때 동시에 ‘혼인성사’ 는 한 개인을 위한 것만 이 아닌 사회와 교회공동체 전체를 위한 것이기에 ‘봉사의 성사’ 라고도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때 혼인은 ‘성’ 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 이 혼인과 가정을 위한 것임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4. 혼인의 특성(사목헌장 49항; 교회법 1056조)

1) 유일성(單一性):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을 뜻함.

2) 불가해소성(不可解消性): 혼인성사로 맺어진 부부는 갈라 설수 없다.
- ‘단일성’ 과 ‘불가해소성’ 은 부부의 혼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에 맺어진 일치와 사랑을 상징한다는 데에 근거한다. 따라서 부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서로 사랑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듯이 서로에게 성화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 혼인성사는 예수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관계를 상징하는 영원한 표지이기 때문이다.

- 성경 참조(창세기 1,21-24; 마태 19,4-6; 루가 16,18; 마태 24,35; 1고린 7,10-11, 39; 로마 7,2-3)

3)혼인의 신성성: 혼인은 신성한 것이다.

- 혼인은 개인과 인류 사회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세말까지 존속되는 제도이다. 의존관계나 공존관계가 아닌 부모와의 관계보다 더 강한 사랑의 일치를 이루는 것이다. 따라서 부부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로운 일치에 참여하고 자녀를 낳게 해 주시는 사랑의 신비에 참여하게 된다.

4)혼인의 신비성: 혼인은 신비로운 것이다.

- 사랑은 하느님이 주시는 선물로써 부부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힘이기도 한다. 하느님께서 혼인하는 부부에게 사랑을 선물로 주시지만 부부는 이 선물을 길러 가야 할 책임을 지니고 있다. 사랑은 키우지 않고 방치해 두면 시들어 버리고 말지만 기르면 기를수록 무한히 성장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사랑은 인격과 인격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인격이 성장하는 비례대로 사랑도 성장한다. 더 나은 인간 , 즉 지성, 품위, 학식, 건강, 명예, 아름다움, 성실, 양순함, 선함들을 풍부히 소유한 인간이 될수록 더 사랑받기 쉽고 더 사랑하기 쉬워진다. 배우자를 길러주는 동시에 자신을 성장시킬 때 사랑은 성장하고

부부는 더 큰 일치를 이루며 행복을 누리게 된다.

5. 혼인의 성사성(교회법 1057조)

‘혼인’은 하느님이 친히 제정하신 것이므로 사람이 임의로 갈라놓을 수 없는 ‘사효적 표징’이다. 더욱이 ‘혼인’은 의무로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동의’**의 표현으로 맺어지는 계약이므로 눈으로 볼 수 있는 표지로서의 구조를 지니며 이로써 “혼인의 성사성”, 즉 ‘성소’이므로 “성사로서의 혼인”인 것이다. 이렇듯 혼인의 성사성이 남녀 당사자들의 동의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그 **집전자**는 사제가 아닌 **혼인 당사자**이고 **사제는 주례자 혹은 공적인 증인**일 따름이다.

6. 혼인 준비와 거행

1) 혼인식이 이루어지는 곳(장소)

- 성당, 경당, 예식장인가 하는 등의 건물적인 의미
- 교적이 있는 본당인가 그렇지 않은 본당인가에 관한 관할권의 의미로서의 혼인을 주례할 사람의 권한과도 관련이 있다.

○ 혼인장소(건물적인 의미) 제 1118조

- ① 영세를 받은 사람끼리의 혼인장소- 본당 사목구 성당
ex) 가톨릭 신자 + 가톨릭 신자
※ 그러나 교구직원자나 본당 사목구 주임의 허가를 얻어 다른 성당이나 경당에서 거행될 수 있음.
- ② 관면혼인 장소 - 성당, 다른 적당한 곳
ex)가톨릭 신자 + 비영세자
- ③ 교구직원자는 다른 적당한 장소에서 혼인이 거행되도록 허가할 수 있다.

○ 혼인장소(관할권의 의미) 제 1115조

혼인 당사자들 중 한편이 주소지나 준주소지나 1개월간 체재한 곳의 본당 사목구에서 또는 주소 부정자의 경우에는 현재 체재하는 곳의 본당 사목구에서 거행되어야 한다. 소속 직원자나 소속 본당 사목구 주임의 허가가 있으면 다른 곳에서 거행 될 수 있다.

ex) 남자의 본당, 여자의 본당, 두 사람이 속하지 않은 제3의 본당에서의 혼인식 거행 가능 -제3의 본당일 경우 소속본당 주임(한국 교회에서는 교적이 있는 본당 주임)의 허가가 필요함.

- 혼인이 거행되는 곳의 본당 신부는 혼인할 사람들이 소속된 본당 주임 신부가 허가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미리 확인을 하여야 하며, 이 허가에 대한 공적인 문서는 별도로 준비되어 있지 않고, 혼인 봉투의 오른쪽 위에 있는(주례권 위임)란을 사용하고 있음.

2) 혼인식 날짜

- 전례지침과 본당 상황 고려해서 날짜를 정한다.

3) 혼인 문서 준비 장소

- 신자는 각자가 소속된 즉 각자 교적이 있는 본당에서 준비

- 비신자는 신자인 배우자의 본당에서 준비

- 각자 준비한 서류를 혼인식을 할 본당으로 제출

※ 혼인식을 한 본당에서는 혼인 문서를 보관하며 혼인 사실을 필요한 곳에 통지할 책임을 진다. 그래서 제 3의 장소(성당을 빌린 경우)에서의 혼인식을 하는 경우에는 각자 자신이 속한 본당에서 서류를 준비하여 혼인식을 할 본당으로 보내야 한다.

7. 가톨릭 교회의 혼인법(혼인 조당)

교회는 혼인 성사의 단일성, 영속성, 신성성, 신비성과 혼인하는 당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우에 따라 혼인을 금지하고도 혼인을 했을 경우 이를 무효로 간주한다. 이를 혼인의 무효 장애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다.

① 연령장애 (교회법 1083조)

- 남자는 만 16세, 여자는 만 14세 이전의 혼인은 무효. 우리나라 민법상의 혼인 적령은 남자는 18세, 여자는 16세부터이므로 이를 따라야 한다.

② 성 불능 장애 (교회법 1084조)

- 결혼 전에 발생한 성 불능이 상대적이든 절대적이든, 남자의 경우든 여자의 경우든, 성 기관의 불능이든 성 기능의 불능이든 간에 그 장애가 영구적일 경우의 혼인은 무효. 이 장애는 관면을 받지 못한다.

③ 혼인 유대 존속 장애 (교회법 1085조)

- 신자든 비신자든 합법적으로 결혼을 했을 경우 이 혼인 유대가 존속하는 한, 다른 사람과 혼인을 할 수 없다. 바오로 특전인 경우가 아니면 관면되지 않는다.

④ 타종교 장애 (교회법 1086조)

-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 혹은 가톨릭 교회에 받아들여진 사람(개종자)이 비신자와 혼인을 하면 무효임. 단 본인의 신앙과 자녀의 종교 교육이 보장될 경우 관면을 받을 수 있다.

⑤ 서품 장애 (교회법 1087조)

- 거룩한 서품을 받은 사람(부제, 사제, 주교)은 휴효한 혼인을 할 수 없다.

⑥ 수도 서원 장애 (교회법 1088조)

- 수도회에서 정결, 종신 서원을 한 사람은 혼인을 할 수 없다. 수도 생활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교황청의 관면을 받을 수 있다.

⑦ 유괴 장애 (교회법 1089조)

- 유괴한 남자와 유괴한 여자 사이, 또는 결혼할 마음으로 여자를 유괴시키고 있는 동안에는 혼인을 할 수 없다. 유괴 상태에서 풀려나 안전하고 자유로운 장소에 되돌아간 다음 여자가 자진하여 결혼을 원할 때에는 혼인 할 수 있다.

⑧ 범죄 장애 (교회법 1090조)

- 혼인 할 목적으로 상대방의 배우자를 죽였거나 자기 배우자를 죽였을 경우 그 사람과는 혼인할 수 없고, 물리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협력하여 배우자를 죽인 사람들도 서로 혼인 할 수 없다.

⑨ 친족 장애 (교회법 1091조)

- 적출이건 비적출이건 피를 나눈 직계 친족간의 혼인은 무효이다. 또한 친족의 방계 4촌, 즉 부계든 모계든 8촌까지는 서로 혼인할 수 없다.

⑩ 인척 장애 (교회법 1092조)

- 인척이란 결혼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으로 배우자의 직계와는 어떤 경우에서든지 결혼할 수 없다. 예컨대 죽은 아내의 딸이나 장모와 결혼할 수 없다.

⑪ 내연 관계 장애 (교회법 1093조)

- 유효한 혼인은 아니지만 동거 생활을 한 사람, 또는 축첩 관계를 맺

은 사람은 상대방의 직계 혈족과 혼인할 수 없다.

⑫ **법정 친족 관계 (교회법 1094조)**

- 양자 결혼에 의해 법적으로 친족 관계가 성립되었을 경우 직계내에서는 친족에 관계 없이 혼인할 수 없고, 방계에 있어서는 2촌(법정 4촌)간에 혼인 할 수 없다. 단 양자 결혼이 파기되었을 경우에는 장애가 풀린다.

⑬ **착오 장애 (교회법 1097조)**

- 1항: 혼인을하기로 약속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과의 혼인은 무효이다.
- 2항: 사람의 품성에 대한 착오는 그것이 혼인 계약의 이유가 되었을 지라도 이 품성이 직접적이고 주목적이 아니었을 경우 무효가 되지 않는다.

⑭ **협박 장애 (교회법 1103조)**

- 신랑이나 신부가 부모나 타인에 의해 부당하게 협박을 당하여 억지로 혼인하였으면 무효이다.

⑮ **혼인 형식 장애 (교회법 1108조 이하)**

- 가톨릭 신자간의 혼인이라도 본당 신부와 두 증인 앞에서 교회법이 요구하는 형식대로 하지 않는 혼인은 무효이다.

⑯ **그 밖에 혼인이 무효가 되는 경우 (교회법 1095조 이하)**

- 이성(理性)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
- 부부가 서로 주고받는 혼인의 본질적인 권리와 의무에 관해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
- 심리적 백치(白痴)기 때문에 혼인의 본질적 의무를 책임질 수 없는 사람.
- 상대방의 재물을 탐하여 혼인하려는 사람.

※ 이와 같이 좀 복잡해 보이는 교회의 혼인법은 항상 약자를 보호하여 그들의 불행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혼인 당사자가 미처 모르는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에는 누구든지 반드시 본당 신부에게 알릴 중대한 의무가 있다.

8. 혼인 조당과 관면 혼배

- **혼인조당**이란, 혼인을 완벽하게 하기 위하여 교회법 상으로 결혼할 수 없는 조건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혼인 조당에 걸린 신자는 성사 생활을 할 수 없으므로, 본인이나 가까운 이웃, 자녀들의 결혼을 할 때에는 본당 신부님과 잘 상의해서 결정해야 한다.

- **관면혼배**란, 이 세상을 끄나는 혼인보다 신앙이 더욱 중대하므로 결혼 생활이 신앙 생활에 피해를 주어서는 결코 안된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신앙인끼리의 혼인을 권장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가톨릭이 소수이므로 비신앙인(개신교 포함)과 결혼을 할 때에는 특별한 조건을 갖추고 다음의 두 가지 사항에 서명 날인한 다음에 혼인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개신교 등과 같이 타교파와 혼인을 할 경우를 혼종혼이라고 말한다.

○서약1 : 신자는 결혼을 하여도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자녀를 입교시키겠다.

○서약2 : 비신자는 배우자의 신앙을 방해하지 않고 자녀들을 입교시키겠다.

이때 양편 모두 증인이 있어야 하며 증인의 진술을 받는다. 만일 결혼 예식장에서 결혼을 한다면 사전에 혼배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조당에 해당된다.

9. 혼인성사의 준비

-**서류준비**: 호적등본 1통: 6개월 이내의 것

세례 증명서 1통: 세례를 받은 본당에서 발급

-**장소결정**: 관례적으로 여자 쪽 본당이 우선인데 남자 쪽 본당이나 그 외 다른 본당도 가능함. 본당 신부님의 양해를 얻도록 해야 함. 장소 예약을 미리 알아보아야 한다.

-**주례신부**: 여자쪽 본당의 주임 신부님이 혼인 주례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다른 신부님에게 주례를 부탁할 때는 먼저 본당 신부님께 알려 다른 신부님에게 위임하도록 해야 한다.

-**서류작성**: 결혼할 사람은 한 달 전에 여자쪽 본당(경우에 따라서는 남자 쪽 본당으로 정해도 됨)이 주임 신부님과 면담을 약속(시간은 사무실에서 정해 줌)을 하고 준비한 호적 등본과 세례 증명서를 가지고 만난다. 그때 혼인 신청서, 혼인 전 진술서 등 필요한 서류를 꾸민다. 이

때 도장(서명도 가능함)을 지참한다. 때로는 남녀 각각 자기 본당에서 서류를 작성해 갖고 오게 하기도 한다.

-**증인선정**: 남, 여 각1명씩을 증인으로 세우되 가능하면 신자로 택한다. 증인은 혼인의식 때 신랑 신부 옆에 꼭 참관해야 하며, 예식 후 혼인 서약의 증인으로서 서명을 한다.

-**약식혼인**: 손님초대(또는 미사)없이 혼인 할 당사자와 증인 등이 참석해 혼인 서약만 하는 간략한 혼인을 가리키며, 사목상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 가능하다.

-**기타사항**: 결혼 전에 종합 진단을 받는다. 서로 의학적으로 건강을 확인하는 것은 양가에 드리는 예의이다. 적성검사도 함께 받아 행복한 삶을 위해 도움을 받도록 한다.

부산교구 활천성당

10

병자성사

▣ 진행자 ◎ 함께

- ☞ 분위기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 기도 상을 차려놓고 초를 켜놓는다.
- ☞ 사람들이 모이면 따뜻한 환대와 인사한 후 성호경으로 시작을 한다.
- ☞ 준비물- 책: 이기정 지음, 「새 영세자를 위한 신앙생활 길잡이」, 2006년, 성바오로
기도상, 초, 십자가, 성경 (마르코 2,1-12), 유인물(창틀 채우기, 병자성사), 불펜,
- ☞ 도입은 10분으로 한다.
- ☞ 참고서적: 가톨릭 교리 신학원, 「초대받은 당신」, 가톨릭 출판사
김웅태 신부, 「현대 성인 구도자들을 위한 가톨릭 교리」, 도서출판 만남
함께하는 여정, 통합사목연구소

도입

▣ 성호경

- ▣ 주님, 저희를 부르시는 당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한 분씩 주님을 초대해 주십시오.

- ☞ 각 사람이 돌아가면서 초대의 기도를 드린다. 기도의 화답은 아멘으로 한다.
처음에는 진행자가 먼저 모범을 보이는 것도 좋을 것 같음.

예) 오소서 성령님!..... 오늘 모든 일정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 아멘.

주님! _____ ◎ 아멘.

예수님! _____ ◎ 아멘.

- ☞ 기도가 끝나면 성경을 읽는다. 진행자는 성경구절을 미리 찾아놓는다.
- ☞ 함께하는 여정 제 21과 참조

- ▣ 어느 분이 **마르코 2,1-12** 를 큰 소리로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 ▣ 성경 말씀 중에서 단어나 짧은 구절을 선택하여 기도하듯이 세 번씩 읽어 주십시오. 읽는 사이사이(약5초 간격)에 묵상을 위해 잠시 **침묵**을 지켜 주십시오.

- ☞ 같은 구절을 세 번 외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침묵을 지킨다.
- ▣ 어느 분이 성경 본문을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 ☞ 참석자 모두가 함께 성경 본문을 읽을 수도 있다.
- ▣ 2분 동안 침묵을 지키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 ☞ 진행자는 시계를 보면서 시간을 잰다. 침묵 시간이 너무 짧거나 길지 않도록 주의 한다.
- ▣ 개인적으로 마음에 와 닿은 단어나 짧은 구절을 통해 자신의 마음속에 들려온 말씀을 자신의 생활과 연결시켜 함께 나눕시다.
- ☞ 진행자는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이 어떻게 자신에게 와 닿았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느낌을 서로 나누도록 제안 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본문을 해설하더라도 토론하지 않도록 한다.
- ☞ 한 사람의 이야기가 끝나면 “잘 들었습니다.” 혹은 “감사합니다.” 등 공동체가 화답을 해준다.

전 개

- ☞ 전개는 30분.
- ▣ 인간은 누구나 늙고 병에 걸립니다. 병을 앓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그 환자를 돌보는 것 역시 아주 힘든 일입니다. 우리는 병고를 통해 인간의 나약함과 유한성을 경험하고, 동시에 무한하신 하느님께 의지하고 신뢰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치유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 주는 병자성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창틀 채우기 (Window Paning)

- ▣ 병자성사하면 생각나는 단어들을 적어보십시오.
- ☞ 유인물(창틀 채우기)을 나누어 준 후 각자가 적어보게 한다.

ex)

대세	연도	죽음
노자성체	종부성사	위로의 성사
예수그리스도	치유의 성사	병자

- ☞ 전개는 30분.
- ▣ 9가지 창틀에 적은 내용이 지금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있는지 1분 동안 잠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 진행자는 1분이 되면 다시 진행을 한다.
- ▣ 지금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서 내가 적었던 단어들에 표시를 하면서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 ☞ 진행자는 유인물을 돌아가면서 함께 읽는다.

병자성사

1. 병자성사의 설정

-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세우신 성사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겪는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인간을 성화시킵니다. 우리가 병에 걸려 고통을 당할 때 일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병고를 이겨 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것을 계기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병자들의 구원을 위해 병자 성사를 세우셨습니다. (마르 6,12-13)
- 특히 야고보서에서는, 초대 교회 안에서 병자성사가 어떻게 일어 졌는지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앓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의 원로들을 청하십시오. 원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는 병자를 낫게 할 것이며,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지은 죄가 있다면 그 죄는 용서받을 것입니다.” (야고 5. 14-15)

2. 병자성사의 필요성

- 병자성사는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성사는 아니다. 그러나 병으로 생명이 위독한 신자에게는 병자 성사가 매우 중요하다. 그 이유는 환자는 병자 성사로써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고, 병고와 죄악으로부터 오는 나약함과 죽음의 공포를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특별한 위로와 용기를 얻기 때문이다. 환자에게 죄가 있다면 환자는 그 죄를 용서받음으로써 내적인 기쁨과 안도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하느님께 합당하도록 정화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3. 병자성사의 대상

- 선악을 판단 할 수 있는 죽음에 임박한 신자
- 병자가 이 성사를 받은 후에 건강을 회복하였다가 다시 병들었을 경우든지, 동일한 증세가 계속되다가 중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병자성사를 반복해서 받을 수 있다.**
- 대 수술을 앞두고 있는 병자
- 노환으로 기력이 많이 쇠진한 노인들
- 과거에는 병자성사라는 용어 대신에 ‘종부성사’ 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기에 꼭 죽을 사람만이 받는 성사라는 잘못된 인식이 있어왔지만 현재에는 필요에 따라 여러 번 받을 수 있는 성사이므로 주변에서 병자성사를 받아야 할 병자들이 있다면 본당 사무실 이나 수녀원, 사제관에 연락을 드리면 된다.

4. 병자 성사를 받는 자세

- 항상 ‘마지막 은혜’ 라고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죽음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 하다.

5. 병자 성사의 효과

- 병자에게 성령의 은총을 받게 해줌으로서 죄 중에 있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며,
- 하느님께 대한 신뢰로써 자신의 고통을 이겨내게 하고,
- 악마의 유혹과 죽음의 번민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며,
- 영신적인 구원에 도움이 될 만한 건강을 회복시켜 주며,
- 필요한 경우에는 죄의 용서와 그리스도인적인 참회의 완성으로 이끌어준다.
(병자성사 예식서 17면)

6. 병자성사 청할 때

- 환자의 상태를 신부님께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 성체를 모실 수 있는지...
- 고해성사를 받을 수 있는지...
- 병자성사를 받을 교우의 의식 상태와 마음 상태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기.
- 준비사항은 병자 영성체와 같음.

7. 병자 영성체(전에는 ‘봉성체’ 라고 함)

- 공동 미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신자들, 특히 거동이 불편한 환자라도 집에서 성체를 모시도록 하는 것을 말함.
- 본당에서는 병자 영성체 날을 정해 놓고 사제가 환자들을 직접 방문해 고해 성사를 베풀고 성체를 영해 준다. 활천 성당에서는 매월 첫째 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있음. 그러므로 병자 영성체 대상자의 명단을 사무실에 알려 주시면 됩니다.

※ 병자 영성체 위한 준비

- 환자의 방을 깨끗이 청소하기.
- 작은 상에 흰 보나 종이를 씌운 뒤, 그 위에 십자고상, 초와 촛대, 작은 종지와 손가락(환자의 입안이 말랐을 때 성체를 모시기 쉬게 하기 위함)
- 사제가 도착해 고해 성사를 줄 때는 모두 방에서 나가 있다가 끝나면 들어가 예절에 참석한다.

8. 대세(라틴어 ‘Baptismus simplex’): 단순한 세례

- 세례 성사의 정식 집전자인 사제나 부제를 대신해서 평신도가 주는 세례로서, 죽음 등의 긴박한 상황 속에서만 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예식은 생략한 채 세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물로 씻기는 예식’ 만을 거행한다.

※ 대세를 베푸는 방법

- 대세를 베푸는 이는 대세를 받는 이의 이마에 세 번 물을 부으면서
 “ 나는 성부와 (첫 번째 물을 붓고) 성자와 (두 번째 물을 붓고)
 성령의 이름으로(세 번째 물을 붓고) (아무)에게 세례를 줍니다.”
- 조건부 대세: 병자가 의식을 잃어서 세례를 받겠다는 원의가 분명치 않을 때나 생사가 의심스러운 경우에 주는 세례일 경우
- 대세를 베푸는 이는 대세를 받는 이의 이마에 세 번 물을 부으면서
 “만일 당신이 세례를 받을 만하면
 나는 성부와 (첫 번째 물을 붓고) 성자와 (두 번째 물을 붓고)
 성령의 이름으로(세 번째 물을 붓고) (아무)에게 세례를 줍니다.”

- **대세 때 사용하는 물**은 깨끗한 물이면 어느 것이나 가능함.
- **세례명**은 가능하면 대세 받을 본인이 원하는 것이 좋겠지만,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
- **대세를 준 후 반드시 본당 주임 신부님께 알려야 한다.** 그 이유는 대세를 준 후 건강이 다시 회복하게 되었을 때 그가 대세를 보충하는 교육을 받고 **보례(대세를 보충 한다는 의미)**를 받는 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나중에 고해성사와 성체성사, 견진성사, 병자성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대세받은 이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대세의 사실을 알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대세를 받은 이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에도 장례 절차상 대세 사실의 확인은 꼭 필요하다.

종합 심화

☞ 종합 심화는 5분

- ▣ 위로와 희망의 성사인 병자성사가 비록 인간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성사는 아니지만, 나약해진 병자에게 그리스도의 고통과 부활에 참여케 함으로서 위로와 희망을 주며 임종을 잘 준비하게 하는 성사의 은총을 생각하게 하는 대단히 유익한 성사입니다.
- ▣ 우리가 병자들을 돌볼 때 신비체의 고통 받는 지체들 안에서 고통 받고 계시는 그리스도 자신을 섬겨 드리는 것이며, 또한 두루 다니시며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 ▣ 임종 때 교우라면 그 어느 때보다도 이웃이 상(喪)을 당했을 때 꼭 찾아가기도해 주고 유가족을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초상을 당한 집을 방문하는 것은 자신의 영적 생활에도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전교의 효과도 매우 큼니다. 그리고 자기 집안에서 상을 당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를 미리 배우는 기회도 될 것입니다.
- ▣ 환자의 병세가 심각해지면 소속 구역의 반장에게 우선 연락해 도움을 청합니다. 반장은 다른 교우나 본당에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많은 교우들이 도와주고 함께 기도해 줄 것입니다. 만일 반장이 부재중일 경우 사무실이나 연도회 회장님께 알려서 연락을 취하도록 합니다.

▣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상을 당할 지 아무도 모르기에 본당과 긴밀한 연관 속에, 또 교우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야 하며, 연도회장님과 사무실 전화번호는 잘 메모해 두는 것도 좋겠습니다. 교적을 먼 곳에 두고 혼자 주일에 이 성당 저 성당을 옮겨 다니며 미사에만 참례하는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정에 우환이 닥칠 때 도움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톨릭교회는 본당 중심의 공동체 생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독하게 신자생활을 하지않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마무리 및 실천사항

☞ 진행자는 실천사항을 실천하도록 과제를 내준다.

▣ 이번 주간의 실천사항:

1. 병자들을 위한 기도드리기.
2. 대세 주는 방법을 실습해 보기.

▣ 자유기도를 바치면서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도가 끝나면 “아멘.” 하고 응답합니다.

주님! _____ ◎ 아멘.

예수님! _____ ◎ 아멘.

진행자는 모든 기도가 끝나면....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 진행자는 자유기도가 끝나면 성가를 부른다.

▣ 마침 성가는 _____ 번입니다.

유인물 1

유인물 1

병자성사

1. 병자성사의 설정

-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세우신 성사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겪는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인간을 성화시킵니다. 우리가 병에 걸려 고통을 당할 때 일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병고를 이겨 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것을 계기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병자들의 구원을 위해 병자 성사를 세우셨습니다. (마르 6,12-13)
- 특히 야고보서에서는, 초대 교회 안에서 병자성사가 어떻게 일어 졌는지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앓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의 원로들을 청하십시오. 원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는 병자를 낫게 할 것이며,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지은 죄가 있다면 그 죄는 용서받을 것입니다.” (야고 5, 14-15)

2. 병자성사의 필요성

- 병자성사는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성사는 아니다. 그러나 병으로 생명이 위독한 신자에게는 병자 성사가 매우 중요하다. 그 이유는 환자는 병자 성사로써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고, 병고와 죄악으로부터 오는 나약함과 죽음의 공포를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특별한 위로와 용기를 얻기 때문이다. 환자에게 죄가 있다면 환자는 그 죄를 용서받음으로써 내적인 기쁨과 안도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하느님께 합당하도록 정화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3. 병자성사의 대상

- 선악을 판단 할 수 있는 죽음에 임박한 신자
- 병자가 이 성사를 받은 후에 건강을 회복하였다가 다시 병들었을 경우든지, 동일한 증세가 계속되다가 중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병자성사를 반복해서 받을 수 있다.
- 대 수술을 앞두고 있는 병자
- 노환으로 기력이 많이 쇠진한 노인들

- 과거에는 병자성사라는 용어 대신에 ‘종부성사’ 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기에 꼭 죽을 사람만이 받는 성사라는 잘못된 인식이 있어왔지만 현재에는 필요에 따라 여러 번 받을 수 있는 성사이므로 주변에서 병자성사를 받아야 할 병자들이 있다면 본당 사무실 이나 수녀원, 사제관에 연락을 드리면 된다.

4. 병자 성사를 받는 자세

- 항상 ‘마지막 은혜’ 라고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죽음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 하다.

5. 병자 성사의 효과

- 병자에게 성령의 은총을 받게 해줌으로서 죄 중에 있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며,
- 하느님께 대한 신뢰로써 자신의 고통을 이겨내게 하고,
- 악마의 유혹과 죽음의 번민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며,
- 영신적인 구원에 도움이 될 만한 건강을 회복시켜 주며,
- 필요한 경우에는 죄의 용서와 그리스도인적인 참회의 완성으로 이끌어준다. (병자성사 예식서 17면)

6. 병자성사 청할 때

- 환자의 상태를 신부님께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 성체를 모실 수 있는지...
- 고해성사를 받을 수 있는지...
- 병자성사를 받을 교우의 의식 상태와 마음 상태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기.
- 준비사항은 병자 영성체와 같음.

7. 병자 영성체(전에는 ‘뫼성체’ 라고 함)

- 공동 미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신자들, 특히 거동이 불편한 환자라도 집에서 성체를 모시도록 하는 것을 말함.
- 본당에서는 병자 영성체 날을 정해 놓고 사제가 환자들을 직접 방문해 고해성사를 베풀고 성체를 영해 준다. 활천 성당에서는 매월 첫째 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있음. 그러므로 병자 영성체 대상자의 명단을 사무실에 알려 주시면 됩니다.

※ **병자 영성체 위한 준비**

- 환자의 방을 깨끗이 청소하기.
- 작은 상에 흰 보나 종이를 씌운 뒤, 그 위에 십자고상, 초와 촛대, 작은 종지와 손가락(환자의 입안이 말랐을 때 성체를 모시기 쉬게 하기 위함)
- 사제가 도착해 고해 성사를 줄 때는 모두 방에서 나가 있다가 끝나면 들어가 예절에 참석한다.

8. 대세(라틴어 ‘Baptismus simplex’): 단순한 세례

- 세례 성사의 정식 집전자인 사제나 부제를 대신해서 평신도가 주는 세례로서, 죽음 등의 긴박한 상황 속에서만 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예식은 생략한 채 세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물로 씻기는 예식’ 만을 거행한다.

※ **대세를 베푸는 방법**

- 대세를 베푸는 이는 대세를 받는 이의 이마에 세 번 물을 부으면서
“ 나는 성부와 (첫 번째 물을 붓고) 성자와 (두 번째 물을 붓고) 성령의 이름으로(세 번째 물을 붓고) (아무)에게 세례를 줍니다.”
- **조건부 대세:** 병자가 의식을 잃어서 세례를 받겠다는 원의가 분명치 않을 때나 생사가 의심스러운 경우에 주는 세례일 경우
- 대세를 베푸는 이는 대세를 받는 이의 이마에 세 번 물을 부으면서
“만일 당신이 세례를 받을 만하면 나는 성부와 (첫 번째 물을 붓고) 성자와 (두 번째 물을 붓고) 성령의 이름으로(세 번째 물을 붓고) (아무)에게 세례를 줍니다.”
- **대세 때 사용하는 물은 깨끗한 물이면 어느 것이나 가능함.**
- **세례명은** 가능하면 대세 받을 본인이 원하는 것이 좋겠지만,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
대세를 준 후 반드시 본당 주임 신부님께 알려야 한다. 그 이유는 대세를 준 후 건강이 다시 회복하게 되었을 때 그가 대세를 보충하는 교육을 받고 **보례(대세를 보충 한다는 의미)**를 받는 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나중에 고해성사와 성체성사, 견진성사, 병자성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대세받은 이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대세의 사실을 알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대세를 받은 이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에도 장례 절차상 대세 사실의 확인은 꼭 필요하다.

11

연도

▣ 진행자 ◎ 함께

- ☞ 분위기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 기도 상을 차려놓고 초를 켜놓는다.
- ☞ 사람들이 모이면 따뜻한 환대와 인사한 후 성호경으로 시작을 한다.
- ☞ 준비물- 책: 이기정 지음, 「새 영세자를 위한 신앙생활 길잡이」, 2006년, 성바오로
기도상, 초, 십자가, 성경 (야고 5, 7-20), 불펜,
- ☞ 도입은 10분으로 한다.
- ☞ 참고서적: 가톨릭 교리 신학원, 「초대받은 당신」, 가톨릭 출판사
김웅태 신부, 「현대 성인 구도자들을 위한 가톨릭 교리」, 도서출판 만남
함께하는 여정, 통합사목연구소
「위령기도서」, 천주교 부산교구 전례위원회

도입

▣ 성호경

▣ 주님, 저희를 부르시는 당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한 분씩 주님을 초대해 주십시오.

- ☞ 각 사람이 돌아가면서 초대의 기도를 드린다. 기도의 화답은 아멘으로 한다.
처음에는 진행자가 먼저 모범을 보이는 것도 좋을 것 같음.

예) 오소서 성령님!..... 오늘 모든 일정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 아멘.

주님! _____ ◎ 아멘.

예수님! _____ ◎ 아멘.

- ☞ 기도가 끝나면 성경을 읽는다. 진행자는 성경구절을 미리 찾아놓는다.
- ☞ 함께하는 여정 제 21과 참조

▣ 어느 분이 야고 5,7-20를 큰 소리로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 성경 말씀 중에서 단어나 짧은 구절을 선택하여 기도하듯이 세 번씩 읽어 주십시오. 읽는 사이사이(약5초 간격)에 묵상을 위해 잠시 침묵을 지켜 주십시오.

- ☞ 같은 구절을 세 번 외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침묵을 지킨다.
- ▣ 어느 분이 성경 본문을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 ☞ 참석자 모두가 함께 성경 본문을 읽을 수도 있다.
- ▣ 2분 동안 침묵을 지키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 ☞ 진행자는 시계를 보면서 시간을 쟀다. 침묵 시간이 너무 짧거나 길지 않도록 주의 한다.
- ▣ 개인적으로 마음에 와 닿은 단어나 짧은 구절을 통해 자신의 마음속에 들려온 말씀을 자신의 생활과 연결시켜 함께 나눕시다.
- ☞ 진행자는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이 어떻게 자신에게 와 닿았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느낌을 서로 나누도록 제안 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본문을 해설하더라도 토론하지 않도록 한다.
- ☞ 한 사람의 이야기가 끝나면 “잘 들었습니다.” 혹은 “감사합니다.” 등 공동체가 화답을 해준다.

전 개

- ☞ 전개는 30분.
- ▣ 교우라면 그 어느 때보다도 이웃이 상(喪)을 당했을 때 꼭 찾아가 기도해 주고 유가족을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초상을 당한 집에 방문 하는 것은 자신의 영적 생활에도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전교의 효과도 매우 큼니다. 그리고 자기 집 안에서 상을 당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를 미리 배우는 기회도 됩니다.
- ▣ 그러므로 환자의 병세가 심각해지면 소속 구역의 반장에게 우선 연락해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반장은 교우나 본당과 연령회에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많은 교우들의 기도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 임종은 죽는 이에게 뿐만 아니라 살아 있는 사람들에게도 매우 엄숙하고 중요합니다. 임종자에게는 불안과 평화, 절망과 희망 등이 교차되는 가운데 일생을 마무리하는 시간이며,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과 일치하면서 자신의 죽음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 ▣ 죽음을 앞둔 병자는 죽음에 대한 본능적인 공포로 용기를 잃거나 믿음이 흔들리기 쉬우므로 가족, 친지 교우 공동체는 기도와 사랑의 표시로 임종자가 십자가상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고통과 공포를 극복하고, 저지른 모든 잘못을 뉘우치며, 부활과 천상 생명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 ▣ 혹시 가까운 친척이나 가족 중에서 돌아가신 분이 계시다면 장례 때의 경험을 간단히 나누어 주십시오.
- ☞ 진행자는 총 나눔이 10분을 초과되지 않도록 한다. 나눌 수 없는 분위기 일 때는 진행자의 경험이나 연도를 드리러 갔을 때의 느낌 등을 간단히 나눈다.
- ▣ 진솔한 나눔에 감사드립니다. 죽음을 잘 맞이하고 또 임종을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도와 드려야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진행자는 임종 준비 및 장례절차에 관한 유인물을 나누어 준다.
- ☞ 진행자는 유인물을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한다. 설명 후 질문 및 보충 설명을 하게 한다.
- ☞ 진행자는 시편 130편을 함께 노래한다. 모르는 부분은 한 소절씩 끊어서 가르친다.(위령기도서 18쪽-21쪽)

종합 심화

☞ 종합 심화는 5분

- ▣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가족과 친지의 죽음에 우리는 허둥댔 수밖에 없고 이러한 이유로 소홀해 지기 쉬운 장례에 관한 것들을 알아보았습니다.
- ▣ 이제 우리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죽음을 맞이한 것과는 다른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상에서 유가족들과 고인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다시 보지 못한다는 생각에 슬퍼하면서 보내지만 신앙인들은 천국에서는 많은 천사들과 성인 성녀들과 그동안 지상에서 연도와 장례미사를 통해서 사귀었던 영혼의 친구들이 ‘어서 오라’ 고 하면서 북과 장구와 팽과리를 치면서 고인을 반갑게 맞이하여 천상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 ▣ **마더 씨튼 성녀께서는 죽음에 관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음의 침묵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줄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수증기에 지나지 않으며, 이 세상은 지나치는 한 장면이요,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소망은 환상일 뿐이며, 하느님과 영원만이 우리의 전부, 영원히 전부라는 것을...”** 우리의 생명은 수증기이며 없어질 찰나의 순간이며 지금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들 즉 사람이 나 일, 가족, 명예 등등은 지나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진정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은 하느님과 영원임을 말씀하시면서 매 순간 깨어 살라고 우리를 재촉하고 계십니다.
- ▣ 모든 것이 찰나인 이 세상의 것에 너무 마음을 쓰느라 몸과 마음이 지치고 행복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불행한 삶일까요?...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이 소풍을 나오듯이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게 살다가 다시 되돌아 오기를 바라십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장소 이 사람들을 만나는 매일의 삶 안에서 나의 뜻, 생각, 사람, 물건, 등등...을 자주 내려놓으면서 순간순간 죽는 작은 죽음을 연습하라고 오늘도 나의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훗날 지상의 삶을 접고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고 말씀하시는 진짜 죽음이 왔을 때 작은 죽음을 연습을 잘 하였으므로 두려워하지 않고 기쁘게 하느님 품에 안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죽음들과 영원을 향한 믿음 안에서 임종자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유가족들을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잘 도와 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 ▣ 또한 이러한 죽음이 언제 다가올지 모르므로 우리는 교적정리를 잘 하고, 연도나 장례미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아멘.

마무리 및 실천사항

☞ 진행자는 실천사항을 실천하도록 과제를 내준다.

▣ 이번 주간의 실천사항:

1. 나의 친척과 가족들 중 돌아가신 영혼들을 위해 연도 드리기.
2. 나의 뜻, 생각 등등을 내려놓는 작은 죽음을 하루에 한 번 이상씩 연습하기.

▣ 자유기도를 바치면서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도가 끝나면 “아멘.” 하고 응답합니다.

주님! _____ ◎ 아멘.

예수님! _____ ◎ 아멘.

진행자는 모든 기도가 끝나면....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 진행자는 자유기도가 끝나면 성가를 부른다.

▣ 마침 성가는 _____ 번입니다.

임종 준비 및 장례절차

1. 임종이 가까운 환자가 있는 가정은 미리 본당 연도회 회장과 장례일정 등에 관해 의논을 한다.
2. 임종이 가까워 오면 집 안팎을 깨끗이 청소하고, 병자에게 깨끗한 옷을 갈아 입히며 필요하다면 임종 장소로 옮긴다.
3. 가능하다면 임종자는 가족들에게 유언을 하며 마지막 축복을 한다. 유언을 받기 전에 녹음기나, 필기구를 미리 준비한다.
4. 임종이 가까워 오면 가족들은 임종자의 손에 십자가나 묵주를 쥐어주기를 권하며, 연도회 회장이나 구역장을 통해 성당에 연락하여 병자성사와 노자성체를 신부님께 청한다.
5. 신부님이 방문하실 때 환자가 고해성사를 원하면 다른 이들은 잠시 물러난다. 고해성사 후 노자성체를 영할 수 있는 상황이면 영하도록 한다.
6. 병자성사 때 십자가와 초, 작은 그릇에 물과 수저를 준비한다.
7. 모든 임종 기도는 사제나 부제, 또는 평신도의 지도로 거행 할 수 있다.
임종기도 시작 전 병자가 스스로 십자성호를 그을 수 없을 때에는 가족중의 한 사람이 병자의 이마에 십자표를 그어준다.

☞ 임종기도(위령기도서 7쪽, 참조)

○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주님께서는 삶의 여정에서나 죽음의 순간에서나 언제나 저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십니다. 저희는 이제 이 세상살이를 마치고 주님께서 준비하신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려는(아무)를 위하여 기도하며 주님께 맡겨 드리하고자 합니다. 주님, 지상의 삶을 마감하는 (아무)를 자비로이 지켜 주시어 그가 사는 동안에 저지른 모든 잘못을 깨끗이 씻어 주시고, 주님 품에 고이 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8. 의식이 있을 때는 모든 기도문, 시편, 독서 등을 바치며, 임종자의 상태에 따라 취사선택하거나 다른 기도를 보탬 수 있다. 예를 들면 수난 호칭 기도, 묵주기도, 임종자가 평소에 즐겨 부르는 성가 등을 보탬 수 있다.

☞ 병자가 견딜 수 있으면 성인 호칭기도를 바치되 임종이 임박하면 중간이라도 끝맺는다. 호칭기도 대신에 묵주의 기도를 바치는 것도 좋다.

☞ **성인 호칭기도 (위령기도서 9쪽-13쪽, 가톨릭 기도서 56쪽-63쪽)**

9. 병자가 오래도록 혼자 있을 경우 성가곡 테이프를 잔잔히 틀어주는 것도 좋다.

10. 기도와 독서는 천천히, 가끔 침묵을 동반 하며 바치거나 봉독한다.

☞ **독서(위령기도서 8쪽 참조)**

- * 이사 55, 6-9 너그러우신 하느님께 돌아오라.
- * 묵시 21, 1-5, 6-7 새 하늘과 새 땅
- * 루카 23, 42-43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 * 요한 6, 37-40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11. 화살기도는 환자와 함께 바치는 것이 좋고, 필요하다면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다.

☞ **화살기도(위령기도서 7쪽 참조)**

- 주님께서는 저의 빛이시오, 저의 구원이시로다.
- 제 영혼이 생명의 하느님을 목말라 하나이다.
- 죽음의 그늘진 골짜기를 간다 해도 주님 함께 계시오니, 무서울 것 없나이다.
- “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저를 기억하소서.
- 주님, 제 영혼을 주님 손에 맡기나이다.
- 성 마리아, 저를 위하여 빌으소서.
- 성 요셉, 저를 위하여 빌으소서.
- 성(병자의 후보 성인), 저를 위하여 빌으소서.
- 예수, 마리아, 요셉, 마지막 고통 중에 저를 도와주소서.

12. 운명의 시간이 가까우면 아래의 기도를 다 바치거나 한 두가지를 선택하여 바친다.

☞ **기도(위령기도서 13쪽 참조)**

- 하느님, 그리스도를 믿는 (아무)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려 하나이다. (아무)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주 하느님, (아무)를 받아들이소서. (아무)를 위해 수난하신 주 성자 예수 그리스도님, (아무)를 받아들이소서. (아무)를 찾아오신 성령이여, (아무)를 받아들이소서. 오늘 (아무)에게 평화를 주시고, 거룩한

시온에서 당신을 우러러 뵈오며 길이 살게 하소서. 하느님의 모친 동정녀 성모 마리아님과 성 요셉과 모든 천사와 성인 성녀와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 아멘.

○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가 사랑하는 (아무)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창조주이신 주님께 돌려보내오니, 일찍이 흙으로 만들어 주신(아무)를 주님께 돌아가게 하소서. 성모님과 모든 천사와 성인 성녀들이 세상을 떠나 주님께 돌아가는 (아무)를 즐겨 맞아들이게 하소서. (아무)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님, (아무)를 구원해 주소서. (아무)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리스도님, (아무)를 구원해 주소서. 생명을 주시는 주 성자 그리스도님, (아무)를 낙원에 불러들이시고 착하신 목자로서 주님의 양임을 인정해 주소서. 그리스도님, (아무)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뽀힌 이들 대열에 들게 하시어, 구세주이신 주님과 하느님을 영원히 마주 뵈옵게 하소서.

◎ 아멘.

○ 주님, 주님의 종(아무)를 받아들이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기다리게 하신 그 구원의 나라로 받아들이소서.

◎ 아멘.

○ 주님, 온갖 고통에서 주님의 종을 구하여 주소서.

◎ 아멘.

○ 주님, 일찍이 홍수에서 노아를 구하여 주셨듯이, (아무)도 구하여 주소서.

◎ 아멘.

○ 주님, 저희를 이하하여 혹독한 죽음을 당하시고,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어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주님의 종을 구해주소서.

◎ 아멘.

○ 주님, 주님의 종 (아무)를 맡겨드리나이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님, (아무)를 위하여 사랑으로 이 세상에 내려오셨으니, (아무)를 주님의 행복한 나라에 받아들이소서. (아무)가 비록 나약하여 죄를 지었으나, 천주 성부 성자 성령을 굳게 믿고 열심히 공경하였나이다.

◎ 아멘.

☞ **성모찬가(위령기도서 15쪽 참조)**

성모찬가를 외든지 노래할 수 있다. (가톨릭 성가 278번)

◎ 여왕이시며, 사랑에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당신 우러러 예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여,
 불쌍한 우리,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귀양살이 끝날 그때
 당신의 아드님 우리 주 예수를 뵈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

13. 운명 직후 기도

☞ 병자가 운명을 하면 모두 무릎을 꿇고 아래의 기도를 바친다.

○ 하느님의 성인들이여, 오소서. 주님의 천사들이여, 마주오소서. 이 영혼을 받아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 대전에 바치소서.

● 이 영혼을 부르신 그리스도님, 이 영혼을 받아들이소서.
 천사들이여, 이 영혼을 아브라함 품 안으로 데려가소서.

○ 이 영혼을 받아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 대전에 바치소서.

● 주님, 그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영원한 빛을 그에게 비추소서.
 이 영혼을 받아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 대전에 바치소서.

○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주님의 종 (아무)를 맡겨드리오니, 세상을 하직한 그를 주님 안에 살게 하소서. 인간의 나약함 때문에 저지른 모든 죄를 자비로이 용서하시고 씻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 운명 직후 기도 후 차례로 시신에 성수를 뿌리면 “주님(아무)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아멘” 하고 기도를 한다.

14. **연도**는 일반 문상객을 위하여 한 옆으로 비켜서서 바친다.

☞ 위령기도서 제 2장 죽은 이를 위한 기도 제 1양식이나 제 2양식을 선택 할 수 있다.

☞ 제 1양식 (위령기도서 17쪽-53쪽)

제 2양식 (위령기도서 54쪽-72쪽)

☞ 가톨릭 기도서(위령기도 74쪽-79쪽)-위령기도서가 없을 때 사용한다.

15. 염습기도는 죽은 이를 위한 기도 제 1 양식의 시편(위령 기도서 18쪽-31쪽)을 노래하거나 묵주기도(고통의 신비)를 이어서 할 수 있다.
 16. 입관기도 (위령기도서 75쪽-85쪽 참조)
 17. 출관기도 (위령기도서 86쪽-93쪽 참조)
 18. 장지 행렬 기도 (위령기도서 95쪽-100쪽)
- ☞ 묘지로 가면서 시편을 노래하거나 죽은 이를 위한 기도(제 1양식, 제 2양식)를 할 수 있다. 시간이 남으면 시편 130편이나 51편을 바치거나 가톨릭 성가(27번, 34번, 50번, 51번, 54번, 59번, 65번, 151번, 210번, 211번, 218번, 227번, 228번, 229번, 230번, 231번, 232번, 233번, 236번, 251번, 278번, 423번, 436번, 452번, 462번, 463번, 519번, 520번, 521번 중에서 선택)를 노래한다.

※ 장례절차

14. 임종 후에는 손에 묵주나 십자가를 쥐어주고 다리를 곧게 펴서 모은다. 턱이 벌어지지 않게 수건을 말아 받쳐두고 흠이불로 덮어두는 수시(시신을 거둔다)를 한 후 가정에 빈소를 마련한다면 본당 연도회에 연락한다.

15. 성당 영안실 또는 병원이나 전문 장례예식장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사체 운구 차량을 이용하여야 한다.(119 구급 차량은 사체를 이송하지 않음)
사체 운구 차량의 호출은 연도 회장님이나, 사회사목국 선종사업부에 연락한다. (051-513-2370)
16. **임종 후 준비**
 - 1) 빈소 정하기
 - 2) 장례기간 정하기(삼일장 혹은 오일장)
 - 3) 사망 원인 확인(병사. 사고사)
 - 4) 세례여부 확인
 - 5) 입관. 출관 장례미사 시간 확인
 - ☞ 장례미사 예물 준비 및 기타 준비할 것은 본당 연도회 회장과 논의하기.
 - 6) 매장 혹은 화장의 여부
 - 7) 매장일 경우 탈관여부
 - 8) 장례용품(관, 수의, 상복)구입과 영구 차량 예약.
 - 9) 본당 신부 및 신자들에게 알림
 - 10) 문상객 접대 음식 계획

11) 영정사진 준비

12) 행정적인 절차에 따른 서류와 예약

- **사망진단서:** 일반적으로 사망 24시간 경과 후 발급되며 고인의 입원했던 병원에 문의하여 입관 전에 받는다.
- **사체검안서:** 입원하지 않고 집 또는 다른 장소에서 사망한 경우 공의 (경찰에서 인정한 의사)가 시신 검안 후 발부한다.
 - ☞ 사망진단서는 기본적으로 동사무소 사망 신고, 의료 보험 조합, 장지 (화장장, 묘지관리사무실) 제출 용으로 3통이 필요하다. 그 외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은 원본을 요구 하므로 여유 있게 발부 받도록 한다.
- **변사나 사고사일 경우:** 공의가 발부하는 시체검안서와 법원에서 발부하는 검사지휘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검사지휘 없이 입관하지 못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제비 신청:** 1588-1125.www.nhic.or.kr
- **국민연금관리공단 유족 연금신청:** 국번 없이1355.www.nPC.or.kr
- **기초 생활 대상자 장제비 신청:** 동사무소
- **기타 예금 및 보험 확인:** www.kfb.or(은행 연합회).
www.klia.or.kr(생명 보험협회)
- ☞ 기도, 연도, 장례미사 등은 본당 연도회 회장님과 상의한다.
- ☞ 장례용품 및 절차문의: 사회사목국 선종사업부 051-513-2370
- ☞ 하늘공원(양산석계)에 모셔진 분들에 영원한 안식을 위해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미사를 봉헌함.)

12

교회내 여러 단체들

▣ 진행자 ◎ 함께

- ☞ 분위기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 기도 상을 차려놓고 초를 켜놓는다.
- ☞ 사람들이 모이면 따뜻한 환대와 인사한 후 성호경으로 시작을 한다.
- ☞ 준비물- 책: 이기정 지음, 「새 영세자를 위한 신앙생활 길잡이」, 2006년, 성바오로 기도상, 초, 십자가, 성경 (마르코 1,9-20), 불펜,
- ☞ 도입은 10분으로 한다.
- ☞ 참고서적: 가톨릭 교리 신학원, 「초대받은 당신」, 가톨릭 출판사
김웅태 신부, 「현대 성인 구도자들을 위한 가톨릭 교리」, 도서출판 만남
함께하는 여정, 통합사목연구소
최경용 신부, 「교본 목차에 따른 레지오 마리아 훈화집」, 가톨릭출판사

도입

▣ 성호경

- ▣ 주님, 저희를 부르시는 당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한 분씩 주님을 초대해 주십시오.

- ☞ 각 사람이 돌아가면서 초대의 기도를 드린다. 기도의 화답은 아멘으로 한다.
처음에는 진행자가 먼저 모범을 보이는 것도 좋을 것 같음.

예) 오소서 성령님!..... 오늘 모든 일정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 아멘.

주님! _____ ◎ 아멘.

예수님! _____ ◎ 아멘.

- ☞ 기도가 끝나면 성경을 읽는다. 진행자는 성경구절을 미리 찾아놓는다.
- ☞ 함께하는 여정 제 21과 참조

- ▣ 어느 분이 마르코 1,9-20를 큰 소리로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 ▣ 성경 말씀 중에서 단어나 짧은 구절을 선택하여 기도하듯이 세 번씩 읽어 주십시오. 읽는 사이사이(약5초 간격)에 묵상을 위해 잠시 침묵을 지켜 주십시오.

- ☞ 같은 구절을 세 번 외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침묵을 지킨다.
- ▣ 어느 분이 성경 본문을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 ☞ 참석자 모두가 함께 성경 본문을 읽을 수도 있다.
- ▣ 2분 동안 침묵을 지키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 ☞ 진행자는 시계를 보면서 시간을 쟀다. 침묵 시간이 너무 짧거나 길지 않도록 주의 한다.
- ▣ 개인적으로 마음에 와 닿은 단어나 짧은 구절을 통해 자신의 마음속에 들려온 말씀을 자신의 생활과 연결시켜 함께 나눕시다.
- ☞ 진행자는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이 어떻게 자신에게 와 닿았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느낌을 서로 나누도록 제안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본문을 해설하더라도 토론하지 않도록 한다.
- ☞ 한 사람의 이야기가 끝나면 “잘 들었습니다.” 혹은 “감사합니다.” 등 공동체가 화답을 해준다.

전 개

☞ 전개는 30분.

▣ **교회의 구성은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로 이루어집니다.** 이 세 구성원은 상호 협조하는 가운데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수행합니다. **평신도란 성세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일치된 사람으로 교회 안의 사제직과 예언직, 사목직(공동체직)에 참여하여 자기 직분에 따라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행하는 신자를** 말합니다.

▣ 평신자라고도 하는 이 말은 본래 **백성이란** 뜻을 가진 **희랍어 라오스(Laos)**에서 유래했습니다. 구약성서에서는 ‘하느님 백성’을 지칭하는 말로 **이교도와 구분하는 뜻으로** 사용하였고 신약성서에서는 단순히 **평민이란** 의미로 나타나는데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특별히 간택되었다는 뜻에서 ‘성도’ 또는 ‘형제’**라고 불렸습니다. 따라서 성서에서는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이 없었는데 **3세기 중엽부터 확실히 구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계급적인 구분이 아니라 **직무에 따른** 구분을 의미합니다. 즉 성직자는 **교회로부터 서품되어 전적으로 봉헌된 사람**을 뜻하고 평신도는 **사회의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소명을 받은 사람**을 뜻합니다.

사도직이란 세상 사람들의 구원과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 구성원 각자가 자신이 속해 있는 직장이나 가정 등지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며 하느님 나라 건설을 위해 자신과 온 세상의 성화를 위해 활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 **평신도 사도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인이나 단체, 협회에 가입하여 각자의 처지에 따라 주어진 환경 속에서 사도적 사명감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의 가르침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조직적으로 사도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 본당에 조직되어 있는 단체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본당과 교구안에 어떤 단체들이

있는지 유인물을 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 진행자는 유인물을 나누어 준다.

종합 심화

☞ 종합 심화는 5분

▣ 조직적으로 사도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앞에서 살펴본 많은 단체들 안에서 나에게 알맞은 단체를 찾아 가입하는 것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참으로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 단체에 입회(입단)하기 위해서는 대개 별다른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선 어떤 단체들이 있는지 알아보려면 본당 사무실이나 본당수녀, 단체장들, 본당 신부님께 문의하시면 됩니다. 듣고 싶은 단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 단체의 회원을 만나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단체의 성격에 따라 입단 조건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잘 알아 보아야 하며, 너무 많은 단체에 가입하기 보다는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의 조화를 생각하면서 기도단체와 실천하는 단체 등을 보면서 한두 가지를 선택하여 입회(입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단체에 가입을 해서 공동체 안에서 평신도 사도직을 잘 수행하면서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도록 노력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아멘.

마무리 및 실천사항

☞ 진행자는 실천사항을 실천하도록 과제를 내준다.

▣ 이번 주간의 실천사항:

1. 나에게 알맞은 단체를 찾아 알아보고 가입하기

▣ 자유기도를 바치면서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도가 끝나면 “아멘.” 하고 응답합니다.

주님! _____ ◎ 아멘.

예수님! _____ ◎ 아멘.

진행자는 모든 기도가 끝나면....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 진행자는 자유기도가 끝나면 성가를 부른다.

▣ 마침 성가는 _____ 번입니다.

유인물

*** 본당의 기본단체들**

1. 사목 협의회:

- 본당의 회장단으로 본당 일 전반에 걸쳐 협조하고 자문에 응하는 단체임.
- 주임 신부님의 사목 활동을 도와주는 평신도 단체로 주임 신부님의 임명을 받아야 함.

2. 반장단:

- 본당의 구역을 반으로 나누어서, 신자들은 신앙생활의 유지와 발전을 위하여 반 모임을 갖습니다. 이때 각 반의 봉사자로 활동하는 분을 반장이라 하며, 본당 신부가 임명합니다. 반장은 반원들의 신앙생활을 돕고 본당의 사무행정 업무에 협조합니다.

*** 성사 집행을 돕는 단체들**

1. 제대회:

- 제대와 미사성제에 필요한 준비를 도와주는 단체임. 꽃꽂이, 제구, 제의관리 및 미사차림, 제대빨래, 제대청소, 사제 수도자를 위한 기도를 바치면서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게 모든 일들을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느님께 찬미와 봉사를 드리는 단체임. 매월 3째주 수요일 12시 유아방모임.

2. 복사(服事)단:

- 미사나 그 밖의 성사를 집행할 때 주례 사제 옆에서 돕는 이들을 말한다. 활천 성당에는 초. 중. 고 . 성인 복사단이 있음.

3. 해설단:

- 미사나 그 밖의 성사를 집행할 때 진행을 알리고 참여자들을 돕는 이들의 단체를 가리킨다. 주변에서 목소리가 좋은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주고 또한 본인의 목소리를 하느님과 공동체에 봉사하는 마음이 계신 분들이 선택하는 것도 자신의 달란트를 가지고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3. 독서단:

- 미사 때 독서를 봉독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매 미사와 전례 때마다 선포하기에 발음연습과 마이크 사용법, 전례에 대해 공부하면서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공동체에 봉사하는 단체입니다.

4. 성가대:

전례에서 음악을 담당하는 단체로, 지휘자와 반주자, 성가를 부르는 대원으로 구성됩니다. 이들을 성가대원 또는 성가단원이라고 부르며 매주 일요일 9시 30분부터 미사 전까지 성가연습이 있습니다. 대축일에는 매일 나와서 성가연습을 합니다. 음악은 주님이 주신 큰 선물입니다. 음악은 언어가 달라도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듭니다.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공동체에 봉사하면서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도로 바치면서 찬미와 영광을 드리고 전례를 풍요롭게 하는 것도 나의 신앙을 키워가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5. 헌금 봉사단:

주일 미사의 봉헌 예절을 돕는 이들을 말하며, 헌금 봉사자 또는 헌금 위원이라고 부릅니다. 활천성당에는 매주 일요일마다 봉헌금 상품권을 사무실 앞에서 바꾸고 있으며, 매 미사 때마다 봉헌금을 정리하는 일들을 재정분과 위원들이 봉사해주고 있습니다.

* 종교 교육을 위한 단체들

1. 주일학교:

유치부, 초등부, 중. 고등부, 청년부 등이 있다. 종교 교육을 위한 조직이며 본당에 속한 교우들 중 각 연령에 해당되는 이들은 모두 참가해야 합니다. 주일학교의 운영을 위해서는 **교사단과 초, 중, 고 자모회**가 있습니다. 활천성당의 초, 중등부 주일학교 운영은 2008년 9월부터 소년 레지오로 대신하고 있으며 고등부는 셀모임으로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3시와 6시 30분 미사 전후에 레지오와 셀모임을 합니다. 해당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신앙 안에서 올바른 인성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주일학교에 적극적으로 보내도록 노력했으면 합니다.

- **자모회(초등부, 중등부):** 자녀들의 종교교육과 인성교육을 위해 뒤에서 영적, 물질적, 몸으로 도와주는 어머니 후원 단체입니다. 활천성당에 다니는 초, 중, 고등부 학생들이 있는 모든 어머님들은 자모회에 가입하도록 해야 합니다.

- **기타반: 중, 고등부 자모회에서 운영하는 기타반**은 매주 금요일에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교리실에서 있으며, 한 달에 한 번씩 첫 주 금요일 성시간 때 기타 연주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2. 예비신자 교리반:

가톨릭의 기본 교리를 가르칩니다. 세례를 준비시키는 과정으로, 예비 신자는 이 반을 꼭 거쳐야 합니다. 전교부, 선교부, 성가 지도부, 면담부 등이 예비신자 교리반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봉사하는데 활천성당에서는 그 일들을 매주 선교분과에서 수고해 주고 계십니다.

3. 엠마오 교리반: 여정회에서 교육함.

선교분과 소속된 여정회는 세례를 받은 후 6개월 동안 심화 교리 교육을 담당하며, 새 영세자들의 믿음이 성숙해 지고 굳세어 지도록 기도하면서 엠마오 교리 봉사단들은 매주 모여 교리 교수법 교육과 평가를 통해 실천안에서 믿음이 키워지고 신앙공동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엠마오 교리반에 다니는 새 영세자들은 수료를 해야만 다른 단체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 위한 단체

1. 예암노인대학:

65세 이상 남. 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니는 대학임.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3시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오전 미사 후 11시-12시까지 본당 주임 신부님의 성경공부가 있습니다.

- 한글반: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10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미처 한글을 배우지 못하는 분이나 한글을 알지만 더 자세히 알고자 하는 신자와 비신자 모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 까리따스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나 시설에 물질적 경제적 원조를 베푸는 목적으로 자선을 실천하는 신자 봉사 공동체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소외된 이웃을 찾아 청소, 집안일 돕기, 말벗 되어주기, 소년 소녀 가장 생활비, 학비, 식품지원, 독거노인 도시락 봉사, 동계 김장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 본당을 초월해 조직되어 사목 활동을 돕는 단체들

1. 레지오 마리에(Legio Marie):

프랭크 더프(Frank Duff)가 선교와 복음화를 위한 신심 활동 단체로서 레지오 마리아를 창설하였다. “마리아의 군대” 라는 뜻의 라틴어 이름으로, 군대

조직의 방식으로 활동할 봉사에 관한 체적인 지시를 받고 보고하는 신심단체이다. 성모님의 군사인 레지오 마리아 단원들이 기도와 함께 교본 공부로서 정신을 무장하여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다니며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활동한다. 대개 본당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본당 활성화와 선교에 크게 이바지 하고 있다.

- 레지오 마리아 조직:

① **쁘레시디움 (Praesidium):**

제일 아래 조직, 마리아 조직의 심장입니다.

레지오의 기본 단위체로서 본당이나 특수 기관에서 조직되는 지단입니다.

약어(약어)로 **Pr.이라 표기**하며 복수는 **쁘레시디아(Praesidia)**입니다.

이 **라틴어 명칭은 고대 로마 군대에서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파견대나 분대를 의미**했습니다. **쁘레시디움**은 반드시 정기적인 주 회합을 가져야 하며 격주 회합이나 월례회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레지오 회합의 주요 내용은 단원들이 희생정신으로 매주 함께 모여 기도와 공부를 하고 활동 보고와 활동 배당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쁘레시디움**은 영적지도자와 간부인 단장, 부단장, 서기, 회계가 있습니다. 간부들은 꾸리아에서 임명합니다.

※ 레지오 마리아가 수많은 **쁘레시디움**을 평가, 심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 **단계별로 다섯 개의 평의회**를 두고 있습니다. 단계별 평의회 명칭은 다음과 같습니다.

꾸리아 (Curia), 꼬미시움(Comitium), 레지아(Regia), 세나투스 (Senatus), 콘칠리움 레지오니스 마리아(Concilium Legionis Mariae)

평의회의 임무는 레지오 마리아의 일치를 확립하고 본래의 이념을 수호하며 레지오의 정신과 규칙 및 관례를 보존하고 레지오의 조직을 확장하는 일입니다. 평의회는 으뜸가는 의무는 바로 위의 상급 평의회에 충성을 바치는 것입니다. 모든 평의회는 한 달에 한 번 정기 월례회를 가지며 회합 시간은 2시간-3시간입니다. 자체 업무와 문제들에 대해 솔직하고 자유롭게 논의하는 자리이고 토의를 통함 간부들이 레지오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방법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② **꾸리아 (Curia) : 꼬미시움(Comitium)과 레지아(Regia)에 속함**

2개 이상의쁘레시디움을 관리하는 **하급 평의회**입니다. 꾸리아의 평의원은 소속 **쁘레시디움** 간부 전원으로 구성됩니다. 꾸리아는 적어도 1년에 두 번씩 **쁘레시디움**을 방문하여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살피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꾸리아의 주된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 브레시디움 간부들이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지키고 브레시디움을 올바르게 운영하도록 교육, 감독하는 일.
- ☞ 각 브레시디움으로 부터 일 년에 적어도 한 번씩 사업 보고를 받는 일.
- ☞ 브레시디움의 활동 경험과 특기사항을 서로 교환하도록 주선하는 일.
- ☞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검토하는 일.
- ☞ 레지오 단원의 자질을 높이는 일.
- ☞ 행동 단원의 활동 의무를 완수하도록 독려하고 확인 하는 일.
- ☞ 브레시디움 확장과 협조 단원 모집에 힘쓰도록 격려하는 일.

③ 꼬미씨움(Comitium):

한 꾸리아에 고유한 직능 이외에 일정 지역 내 몇 개의 꾸리아를 관리하는 상급 꾸리아를 말합니다. 꼬미씨움은 본부 성당의 1개 꾸리아를 승격시킴으로써 성립되는데, 승격된 꾸리아의 간부가 꼬미씨움 간부로 그 직책을 자동 승계하며, 승격된 꾸리아 산하에 있던 브레시디움은 꼬미씨움 직속 브레시디움으로 편입됩니다. 따라서 꼬미씨움은 결코 새로운 평의회가 아닙니다.

④ 레지아(Regia):

꼬미씨움으로서는 너무 크고 세나투스로서는 조금 작은 지역을 관장하기 위해 창설된 평의회입니다. 교구 평의회 또는 관구 평의회라 부르기도 합니다. 기존 평의회가 레지아로 승격되면 레지아로서의 새로운 직무 이외에 본래의 기능을 계속 수행해야 합니다.

⑤ 세나투스(Senatus):

한 관구 이상이나 한 국가에 관할권을 행사하는 평의회입니다. 세나투스(Senatus)는 세계중앙 평의회로 연결됩니다. 국가 평의회 또는 전국 평의회라고도 합니다. 한 나라에 여러 개의 세나투스가 있을 경우에도 각 세나투스는 중앙 평의회에 직속됩니다. 세나투스는 소속된 하급 평의회와 직속 브레시디움에 대하여 중앙 평의회가 위임한 모든 권한과 직무를 수행하고 산하 단원들을 지도, 교육하여 감독을 합니다.

⑥ 콘칠리움 레지오니스 마리아에(Concilium Legionis Mariae):

레지오의 최고관리권이 주어진 중앙 평의회입니다. 본부는 아일랜드의 더블린(Dublin)에 있습니다. 이 평의회는 레지오 규율의 제정, 개정, 해석, 교본의 개정, 지역을 불문한 레지오 조직의 설립 및 해체, 레지오 방침의

결정, 분쟁의 중재와 제소, 단원 자격 심사 및 활동, 활동 수행 방법의 적합성 등에 대하여 결정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2. 꾸르실료(Cursillo):

“단기교육 과정” “작은 여정” 이라는 뜻의 스페인어 이름이며, **교회의 활동** 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하려는 정신을 지닌 단체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교의 참된 정신과 생활을 사회 속에 구현하려는 목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회심의 여정입니다.

이 운동의 시작은 1931년 스페인에서입니다. 전쟁으로 혼란과 무신론이 팽배한 당시 스페인 사회를 복음화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활동 단체부터 활성화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몇몇 평신도들이 모여 10일간의 성지순례를 마련하고 이를 “꾸르실료” 라고 부른 것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 뒤 꾸르실료는 성지순례를 겸한 단기교육으로 진행되다가 1949년 스페인의 후한 에르바스 주교가 이를 교회 신심운동으로 발전시켜 꾸르실료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며, 교황 요한 바오로 6세는 1963년 이를 교회의 공식 신심운동으로 인정했습니다. 한국에 꾸르실료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67년 주한 미 평화봉사단장으로 한국에 머물던 케빈 오도넬씨와 필리핀 꾸르실료 운동에 깊이 참여하고 있던 에드문도 카이모씨가 우연히 만나 한국에 꾸르실료 운동을 도입할 필요성을 공감하고, 서울 성수동성당에서 21명(신부 4명, 평신도 17명)이 모여 첫 꾸르실료를 개최한 것이 시작입니다. 이후 한국교회 전역에 꾸르실료 운동이 널리 확산되고 있으며, 전국 각 교구에서 매년 5000~6000여명의 새로운 꾸르실리스트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부산교구에서는 특별히 제1회 청년꾸르실리스트들을 배출했습니다. 이렇게 특별교육을 받은 꾸르실리스트들은 소속 본당의 울뜨레야라는 모임에 속하게 됩니다.

* 본당 내에서 형성된 단체들

친목, 봉사, 취미, 신심 등을 목적으로, 본당 신자들로 구성된 단체들이 많습니다. 다른 본당과 조직상의 연결이 일체 없으며 그 본당 단체로서의 특성을 유지합니다.

1. 연도회:

환자를 위한 문병과 쾌유를 위해 기도하며, 중환자에게는 편안한 임종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로 함께하며, 죽은 이들을 위해 상가에서 연도(위령기도)를

바치며, 망자를 위한 장례협조를 합니다.

- 선종봉사회: 교육을 통해 망자의 입관을 도와 드리는 단체.

2. 성모회:

예암 노인대학에 물질적이나 몸으로 봉사하는 단체.

3. 향심기도회:

관상으로 하느님과 일치하며, 기도와 공부를 통해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기도회 모임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4시모임.

4. 선교 축구회:

축구 동호인(신자, 비신자)으로 구성된 운동을 통한 친목으로 선교하는 단체.

5. 한울 봉사대:

본당안의 남자들의 봉사단체. 본당의 구석구석 필요한 부분을 수리 보수하는 등 몸으로 봉사하는 단체

6. 크리스토폴회:

멀리 사시는 어르신들과 아프신 분들을 위해 주말에 차량을 봉사하는 단체

7. 청년회:

본당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청년들의 활성화를 위해 미혼 남녀 교우로 구성된 모임입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미사 후 모임.

8. 성소 후원회:

성직자 수도자, 신학생, 예비신학생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기도해 주며,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단체.

*** 가톨릭 신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종교 활동 단체들**

1. 가톨릭 성서모임:

성서를 읽고 연구함으로써 자신과 인류의 복음화를 위한 “평신도 말씀의 봉사자” 양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월요일 저녁 8시와 화요일 오전 10시에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사도행전 공부가 있습니다.

2. 군중후원회:

가톨릭 선교 활동과 사목활동을 위해 물질과 기도로 지원하여 신앙이 없는 장병들에게, 하느님을 알게 하여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신자 장병들에게는 그들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게 하여 전역 후 우리 교회의 훌륭한 일꾼이 되도록 지켜주고, 크리스찬으로서 몸과 마음이 건강한 군인이 되도록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는 단체입니다.

3. 교정후원회:

수감된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위로와 삶의 의미를 전하고, 출감후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의 인권보호와 그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위한 활동에 도움을 주는 단체입니다.

4. 성령기도회:

영적인 삶을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 성령쇄신을 통하여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생활 안에서 체험하고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의 성장을 돕는 기도회. 매주 월요일 저녁 8시 지하식당에서 모임을합니다.

- 성령 쇄신 봉사회

5. M.E: 매리지엔 카운터(Marriage Encounter of Korea)

부부의 만남으로 얻어지는 기쁨을 찾기 위하여 가브리엘 칼보 신부와 몇몇 뜻 있는 부부에 의해 스페인에서 시작된 **평신도 단체**입니다.

1958년 가브리엘 칼보(Gabriel Calvo) 신부는 청소년을 위한 부모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가정에서 저녁에 이 프로그램을 실시해본 결과 좋은 효과를 보게 되었으므로 확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베네주엘라와 멕시코를 거쳐 미국으로 전파되기 시작했으며, 미국에서는 1967년 8월에 노틀담 대학에서 처음으로 주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주말에 참여했던 예수회의 척갤러거(Chuck Gallagher, S. J)신부는 부부들이 놀랍도록 변화하는 것을 목격했고, 또 사제들도 사제 생활에 대해 새로운 열의가 솟아나는 것을 체험하고 이것을 널리 보급해야겠다는 사명감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이 운동을 전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부부간의 진정한 만남으로 통하여 성가정(聖家庭)을 이루고 혼인성사의 참 뜻을 재인식코자 하는 이 모임은 **결혼한지 2년이상 된 부부이면 회원**으로서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고, 지도신부 1명과 세 쌍의 부부가 한 팀이 되어 2박 3일, 일반적으로 주말 동안 어떤 주제에 대하여 발표하고 질문을 하면서 대화의 내용을 더욱 진지하게 하고 이를 통하여 일치할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ME가 한국에서 처음 실시된 것은 1976년 2월 개최된 영어 주말이 서울 분도회관에서 개최된 뒤, 우리말로로는 1977년 3월에 첫 주말이 있었으며, 현재까지 수원 '말씀의 집' 에서 모임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ME운동을 국내에 뿌리 내리게 한 분은 메리놀회 마진학 신부(Fr. Donald MacInnis M. M.)와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이를 한국에서 실시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김진헌(클레멘스) 송호전(데레사)부부, 박희동(미카엘) 문정자(마리안나)부부, 홍성훈(아오스딩) 이화숙(안젤라)부부 등입니다. 또 모

임 이외에 **미혼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ME는 카톨릭 교회에서 시작된 운동이지만 종교, 학력, 지위, 빈부의 차별을 두지 않고 누구나 신청을 하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습니다.

6.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평신도들의 형제, 자매적 단체로서 회원들은 곤경에 처해 있는 자기 이웃 안에서 하느님을 섬김으로서, 그리스도 사랑을 증거 합니다. 세계 141개국에 남녀회원으로 구성된 국제적인 조직체이며 회원들은 매주 시간을 할애하여 이웃을 도움으로서 주님의 증인이 되고 있습니다. 교황청의 인가와 교권으로서 운영을 합니다.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는 프레드릭 오자남과 소르본 대학교의 5~6명의 학생들에 의해 1833년 블란서 파리에서 창설되었습니다.** 그들은 당시의 “그리스도 사랑이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는 시대적 사조에 대한 응답에 도전함으로 시작했습니다. 자선사업에 일생을 바치신 빈첸시오 아 바오로 성인을 주보성인으로 모십니다. 애덕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은 누구나 입회할 수 있으며, 동회원이 되거나 혹은 명예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활천성당에는 아직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가 없지만 까리따스회에서 이와 비슷한 활동들을 하고 있으므로 까리따스회에 몸으로 봉사를 못하시는 분들은 명예회원으로 봉사하는 것도 좋은 봉사가 될 것입니다.

7. 국제 마리아 사업회(포콜라레 Focolare):

1943년 이탈리아 트렌토에서 키아라 루빅에 의해 시작된 평신도 사도직 운동 단체입니다. 1969년 한국에 진출하였으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 13, 34)는 가르침을 따라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사업회’ 라고 부르는 포콜라레 운동은 항상 마리아의 모습으로 살아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성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낳아 주셨듯이, 마리아를 닮은 사랑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이웃에게 그리스도를 낳아주는 삶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포콜라레의 뜻은 불(火)을 가리키며, 남성 회원을 포콜라레노, 여성회원을 포콜라레나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한 활동은 젠(Gen, New Generation)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매년 마리아 폴리(마리아의 도시)라는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포콜라레 운동은 전 세계로 퍼져 나갔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많은 다른 종교인들과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종교를 통해 보다 나은 세계를 이룩할 수 있도록 그들은 기꺼이 포콜라레 운동에 함께하여 이슬람교도, 불교도, 힌두교도 평신도 회원으로서, 아니면 불교, 힌두교 승려로서 이 집회와 여러 부문의 생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직능별 가톨릭 일반 단체들

평신도사도직 협회, 여성연합회, 전교수녀 연합회, 유치원 연합회, 본당사무직원 연합회, 의사회, 치과의사회, 간호사협회, 약사회, 직장별 모임, 연극인회, 운전기사사도회, 농민회, 노동 청년회(J.O.C), 평신도선교사회, 노인대학연합회, 연도회연합회, 가톨릭스카우드연합회,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연합회, 사진가협회, 가톨릭간병인회, 가톨릭선교마라톤회, 선교축구연합회, 상인연합회, 가톨릭커뮤니케이션협회, 건축사회, 경제인회, 교수회, 국악실내악단, 등대회, 문인협회, 미술인회, 법조인회, 부산가톨릭합창단, 부산교통공사가톨릭성지회, 부산세무인회, 전례꽃꽂이연구회, 등등 매우 다양합니다.

* 가톨릭 단체와 그 속성

모든 가톨릭 단체는 활동과 정관에 관해 교구장 주교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교구장은 지도 신부 또는 지도 수녀를 임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톨릭 단체로서 공식적인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각 단체는 나름대로의 발전과 더불어 교회의 발전을 꾀해야 합니다. 또 이웃 단체들과 유기적 교류를 맺는 것도 중요합니다.

* 단체의 활성화는 개인의 신앙 증진과 교회 발전을 위한 것

모든 단체 활동은 개인의 성화를 중시하며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성체를 중심으로 일치하는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실제로 일치하지 않으면서 활동에만 전념한다면 내실이 없거나 비 가톨릭적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성당의 시설 및 장소 사용

성당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책임자는 주임 신부님 이십니다. 어떤 단체든지 성당내의 시설이나 공간을 일시적 또는 고정적으로 사용하려면 사전에 주임 신부님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임 신부님은 각 단체의 성격을 참작해 필요한 단체에 일정한 공간을 전용 회합실로 쓸 수 있도록 배려 해야 합니다. 다만, 전용 회합실 역시 교회의 공적 시설이므로 교회가 그 단체에 허락한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 밖에 여러 단체들이 회합실을 사용할 때도 본당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일정한 날 정한 시간에 회합을 함으로써 다른 단체나 본당 내 모든 시설은 사목자와 공동체가 지향하는 목표아래, 본당의 운영 원칙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13

선교활동

▣ 진행자 ◎ 함께

- ☞ 분위기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 기도 상을 차려놓고 초를 켜놓는다.
- ☞ 사람들이 모이면 따뜻한 환대와 인사한 후 성호경으로 시작을 한다.
- ☞ 준비물- 책: 이기정 지음, 「새 영세자를 위한 신앙생활 길잡이」, 2006년, 성바오로
기도상, 초, 십자가, 성경 (마르코 2,1-12), 유인물(창틀 채우기, 병자성사), 불펜,
- ☞ 도입은 10분으로 한다.
- ☞ 참고서적: 가톨릭 교리 신학원, 「초대받은 당신」, 가톨릭 출판사
김웅태 신부, 「현대 성인 구도자들을 위한 가톨릭 교리」, 도서출판 만남
함께하는 여정, 통합사목연구소
존 포엘/로레타 브래디 정홍규 옮김, 「대화 길잡이 25」, 분도출판사

도입

▣ 성호경

- ▣ 주님, 저희를 부르시는 당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한 분씩 주님을 초대해 주십시오.

- ☞ 각 사람이 돌아가면서 초대의 기도를 드린다. 기도의 화답은 아멘으로 한다.
처음에는 진행자가 먼저 모범을 보이는 것도 좋을 것 같음.

예) 오소서 성령님!..... 오늘 모든 일정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 아멘.

주님! _____ ◎ 아멘.

예수님! _____ ◎ 아멘.

- ☞ 기도가 끝나면 성경을 읽는다. 진행자는 성경구절을 미리 찾아놓는다.
- ☞ 함께하는 여정 제 21과 참조

- ▣ 어느 분이 **1티모4,6-10**를 큰 소리로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 ▣ 성경 말씀 중에서 단어나 짧은 구절을 선택하여 기도하듯이 세 번씩 읽어 주십시오. 읽는 사이사이(약5초 간격)에 묵상을 위해 잠시 **침묵**을 지켜 주십시오.

- ☞ 같은 구절을 세 번 외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침묵을 지킨다.
- ▣ 어느 분이 성경 본문을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 ☞ 참석자 모두가 함께 성경 본문을 읽을 수도 있다.
- ▣ 2분 동안 침묵을 지키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 ☞ 진행자는 시계를 보면서 시간을 쟀다. 침묵 시간이 너무 짧거나 길지 않도록 주의 한다.
- ▣ 개인적으로 마음에 와 닿은 단어나 짧은 구절을 통해 자신의 마음속에 들려온 말씀을 자신의 생활과 연결시켜 함께 나눕시다.
- ☞ 진행자는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이 어떻게 자신에게 와 닿았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느낌을 서로 나누도록 제안 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본문을 해설하더라도 토론하지 않도록 한다.
- ☞ 한 사람의 이야기가 끝나면 “잘 들었습니다.” 혹은 “감사합니다.” 등 공동체가 화답을 해준다.

전 개

- ☞ 전개는 30분.
- ▣ 우리는 미사 끝에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라는 권고를 받습니다. 이 세상에 교회가 있는 까닭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적인 삶이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하여라, 용서하여라, 도와주어라, 기뻐하여라” 고 하신 말씀처럼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남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면서, 지금 이 시간, 이 장소, 이 상황, 이 사람 안에서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고, 가장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겸손한 모습으로 봉사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 나와 함께 하는 이웃들에게 그리스도를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현재 가톨릭을 종교로 택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대부분 친구의 권유나 신자들의 생활 태도를 보고서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나와 같은 종교를 강요하기 보다는 성실하고 믿음 깊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솔한 삶을 나눌 때 이웃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 ▣ 그러므로 선교를 할 때 우리들이 지녀야 할 태도나 지식들에 대해 유인물을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진행자는 유인물을 나누어 준다.

종합 심화

☞ 종합 심화는 5분

- ▣ 선교를 할 때 우리들이 지녀야 할 태도와 대화를 위한 방법들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먼저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 분처럼 생각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선교가 시작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나는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고 있는지?...또한 성경말씀과 교리지식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서 지금 있는 이 장소, 이 사람, 상황 안에서 충실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삶을 살때 우리는 선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공짜로 주어지는 하느님의 은총이며 나의 선교의 장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250명을 만난 듯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 봉사하고, 오늘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에 감사하면서 믿음과 사랑을 키워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무리 및 실천사항

☞ 진행자는 실천사항을 실천하도록 과제를 내준다.

▣ 이번 주간의 실천사항:

1. 선교를 위한 기도 바치기

▣ 자유기도를 바치면서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도가 끝나면 “아멘.” 하고 응답합니다.

주님! _____ ◎ 아멘.

예수님! _____ ◎ 아멘.

진행자는 모든 기도가 끝나면....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 진행자는 자유기도가 끝나면 성가를 부른다.

▣ 마침 성가는 _____ 번입니다.

선교를 위한 자세

1. 선교란 이웃에게 예수님을 모셔다 드리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지식을 습득하는게 아니라 새로운 삶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며 나 자신을 먼저 변화시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30년 동안 집안에서 부모님을 도와 일상생활을 하면서 선교를 위한 준비를 하셨습니다. 또한 공생활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를 하십니다. **선교를 위한 준비는 가정생활에 충실하고 봉사를 하면서 기도하는 자세가 먼저 되어야 함을 보여주십니다.** 지금 나의 생활에 사랑과 봉사의 삶이 묻어 날 때 비로소 그 사랑이 이웃에게까지 전파가 될 것입니다. 매순간 내 힘과 의지로 하는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시간과 달란트, 만물의 선물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일을 하느님께 의탁하고 말기면서 봉헌할 때 진정 그리스도를 닮은 신앙인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비춰져 그 삶이 변화를 가져왔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삶을 이웃에게 모셔다 드리는 것입니다.

2. 2인 1조 선교

예수님의 제자들도 2인 1조로 파견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의 제자를 사칭해서 집집이 돌아다니면서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서는 2인 1조로 가서 한집에 머물라고 말씀 하십니다. 혼자서는 쑥스러워서 말을 못하지만 둘이 가면 용감해 지기도 합니다. 직접적으로 외인을 방문을 해야 할 때는 혼자보다는 함께 가는것이 선교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3. 250명의 법칙

미국 사람 1인당 250명과 인간관계를 맺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나와 관계를 맺는 사람 또한 250명이 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대방 또한 그러하리라 생각하면서 한 사람을 대하더라도 250명을 대하듯이 그렇게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나의 말 한마디와 친절 하나가 250명을 감동시킨다고 생각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고 존중하면서 만남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4. 대화 길잡이 25

선교를 잘 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과 상대방과의 통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실한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위한 기본적인 화술 9가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대화기술방법들이 있지만 신앙인이기에 본질적으로 인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대화 길잡이를 통해 자신과 이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 25가지를 소개 합니다.

1) 대화에 전념하기

- 나의 희.노.애.락과 대화를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더라도 대화를 하려고 온 힘을 기울이기

2) 서로는 선물이다.

- 우리는 우리 자신이 곧 남에게 주어야 할 선물이며 다른 사람들 역시 자기 개방을 통해 그들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나눌 때 내가 가보지 못한 계곡과 산꼭대기로 나를 데려갈 것이며 내가 겪지 못한 경험들의 비밀 세계로 나를 끌어들이습니다. 내가 가져보지 못한 정서와 희망, 꿈을 소개할 때 나의 지성과 감성의 폭을 넓혀 준 나눔의 덕택으로 계속해서 풍요로워져 나의 경험 세계는 상대방이 내게 베푼 선물로 인해 무한히 확대된 나의 모습을 바라 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나누는 것은 상대방에게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3) 자신에게 정직하기

- 대화의 첫째 장애는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내가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을 속이는 것이 됩니다. 가면을 쓰고 있는 나의 연기는 안전과 성공을 위해, 내가 상처받지 않으려는 갑옷이지만 이것이 나의 성숙을 가로막는 장애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가면과 위선을 벗어 버리고 지금 있는 나의 그대로의 감정에 정직할 때 비로소 나의 참다운 모습을 알게 되어 나와 상대방을 성숙하게 만들어 갑니다.

4) 나-전달법 사용

- 나의 정서적, 행동적 반응을 결정짓는 것은 나 자신의 태도나 나의 개인적인 관점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무시했을 때 내가 나 자신을 긍정적으로 여긴다면 상대방의 행동을 보고 측은지심을 느낄 것이며, 반대로 변변치 못한 사람으로 느낀다면 상대방에게 무시당하는 이유를 찾을 것입니다. 나의 반응은 외부의 자극 요인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어떤

원인에 의한 것임을 마음속으로 인정하므로 나는 내 반응에 대해 책임을 짐을 표현하는 것이 나-전달법입니다.

5) 나의 생각만을 말하기

- 대화중에 내가 말하는 것은 진리 그 자체가 아니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임을 알면서 **나의 생각만을 말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각자의 개별적인 경험을 일반화하려는 유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은 나와 다른 사람임을 잊어버리게 되어 상대방의 말을 듣고 나의 반응을 상대방에게 투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사람은 개별성을 지닌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이므로 나의 생각이나 사건에 반응하는 방법 등이 다를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나의 경험과 나의 반응만을 상대방에게 말을 할 때 거부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6) 나의 소중한 느낌 나누기.

- 느낌은 어렸을 적 경험 즉 “부모 테이프” (어린 시절에 부모나 다른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은 메시지)에서 자라나온 것입니다. 또한 나는 부모와 형제의 정서적 반응을 모델로 하여 나 자신의 정서적 반응을 만들어 왔기에 나만의 고유한 경험인 것입니다. **느낌을 말한다는 것은 나의 전 인생, 즉 나에게 영향을 끼쳤던 많은 사람과 경험을 상대방과 나누는 것입니다.** 수면이나 음식 혹은 그날의 기분에 따라 한쪽으로 기울어 질수도 있지만 **느낌을 나눈다는 것은 최고의 자기 개방입니다.** 사랑의 진실한 선물은 자기개방을 통해 자신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는 이들과 나의 느낌을 나누어야 합니다.

7) 개인적인 약점을 서로 나누기

열등감은 어릴 때 물려받은 나의 일부인데 **5살 때 확고하게 생긴다고** 합니다. **어린이는 생후 5년 동안 하루에 평균 431개의 부정적인 메시지를** 듣는다고 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메시지로 인해 **자기 방어**의 본능을 발전시키고 나 자신을 더 이상 상처입지 않기 위해서 자아를 감추거나 자아에다 완충장치를 댄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자신을 보호하려는 것을 “**자아 방어 기제**”라고 부릅니다. 자기방어에는 **보상, 대치, 투사, 내투사, 합리화** 등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참된 대화의 장애물**이 됩니다. 자기 방어는 진실성을 가로막는 장벽입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하기 마련이며, 나 또한 그들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연필에 지우개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며 자신의 나약한 인간의 조건을 받아들이며 자신

의 좋은 점뿐 아니라 나약한 부분까지 나눕니다. 그럴 때 마음안의 평화가 찾아오며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 푸근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나의 가면을 벗고서 내적 자아를 솔직하게 개방 할 때 그들에게도 나와 같이 개방할 수 있는 기회와 용기를 주기 때문입니다.

8) 고마움을 표현하기.

대화는 선물을 자유롭게 주고받는 것입니다. 말하는 이는 자기 개방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선물하고, 듣는 이는 부드럽고 이해심 있는 손길로 그 선물을 받습니다. 듣는 이의 이러한 귀 기울임은 그 자체가 바로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우리에게 너무도 큰 힘과 자신감을 주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해야 합니다. **“행위의 긍정적인 강화 이론”**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보상을 받거나 고맙다는 말을 듣게 되면 그 행위를 반복하려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경청이라는 선물은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기 위해 나의 삶을 잠시 옆으로 치워두는 것입니다.** 나의 관심사와 일을 제쳐두고 상대방의 문제에 모든 주위를 기울이고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은 마음에서 관심을 보인 것이므로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시해야** 합니다. 훌륭한 경청자는 공감이라는 선물을 주는데 이는 혼자가 아님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자신을 벗어나 나와 함께 해준다는 것은 너무나도 값진 선물입니다.

9) 함께하기.

인격적인 의미에서 함께 있는 것은 내가 오로지 상대방에게 전념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때에는 다른 모든 것은 잠시 동안 나의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렌즈는 오로지 상대방과 상대방이 나누고자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시간을 내준다는 것은 함께 있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것을 함께 나누고자 찾아왔을 때 아무런 응답이 없거나 통화가 되지 않을 때 외로움으로 인해 인생을 포기할 마음을 갖습니다. 인디언 속담에 **“어떤 사람을 참으로 이해하려면 우선 그 사람의 신을 신고 일 마일을 걸어 보아야 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에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인다면 더 마음을 울릴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의 신발을 벗지 않고는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고 걸을 수 없다.’**

10) 다른 사람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 그대로 받아들이기.

삶은 과정이며, 우리 모두는 **“과정 중에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모

두 성숙으로 향하는 도중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과정 중에 있으므로 서로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삶의 가정 중에 있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면, 그 사람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난 당신이나 당신의 선물을 받지 않겠습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그린 당신의 모습은 지금의 당신과는 다른 모습, 지금보다 더 낫고 더 발전한 모습입니다. 난 도저히 지금 이대로의 당신을 인정하거나 용납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우리의 표정에는 화남과 실망의 빛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대방이 청하지도 않은 충고를 퍼부어대는데 이럴 때의 대부분의 충고는 상대방의 변화와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장차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모습만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남에게 거부당하거나 인정받지 못할 때 어떤 단계에 고착되어 자기 발전과 성장에 쏟을 힘과 의욕이 메말라 버린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실망의 빛을 보이고,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끊임없이 충고를 늘어놓을수록 우리는 점점 기력을 잃어갑니다. 인격적인 성숙에 필요한 자양분은 사랑으로 충만한 수용과 격려입니다. 상대방이 지금 내 모습을 개의치 않고 받아들여 준다고 나를 안심시켜 준다면 지금의 나보다 더 발전하려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또한 나 자신을 개방했다가 오히려 벌을 받거나, 솔직함 때문에 거부당하는 일 없이 진실하게 대화에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11) 내적 일관성에 귀를 기울이기

누군가가 내 말을 들어 주고 또 이해해 준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나 자신에게 큰 힘이 됩니다. 훌륭한 경청자는 나눔의 “내용” 만을 이해하는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 “전후 상황” 을 알고자 귀를 기울입니다. 이것은 경청자 에게, 경청자가 있는 곳을 떠나서 내가 있는 곳으로 옮겨올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값진 선물입니다.

12) 상대방의 의도와 동기를 캐내려고 탐색하지 않기

솔직하고 개방적인 대화가 없는 곳에는 상상이나 환상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그 숨은 의도를 어림잡는 일은 상상력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해로운 결과를 가져오므로 판단을 해서는 안됩니다.

인간은 너무도 복잡하고 서로 다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13) 경청 때 공감과 확신감을 주는 반응 보이기

공감은 상대방의 생각, 느낌, 태도까지 나누는 것입니다. 공감을 통해 우리는 상대방의 신을 신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성과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상대방이 생각하는 바를 생각해 보고, 그가 원하는 것을 우리도 바라고, 그가 느끼는 것을 우리도 느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이 겪고 있는 것을 우리도 겪는 것입니다. **공감을 방해하는 것은 모든 이들이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사물을 보고, 또 우리와 똑같은 반응을 보이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공감의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의 개별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고의 틀과 성향에서 벗어나 다른 이의 것을 수용할 여유를 지녀야 합니다.** 공감은 대화에 있어서 듣는 이의 기본 기술이라 하겠습니다. 진정한 공감을 했을 때는 다른 사람의 인격과 세계를 경험한 후 다시 우리의 삶으로 되돌아올 때, 우리는 이전과 똑같은 사람일 수 없습니다. 공감이 가지는 치유와 변화의 힘은 항상 상호적인 것이어서 받는 이와 베푸는 이 모두를 치유하고 변화시킵니다. 상대방을 공감의 세계로 초대할때 **“지금 당신의 처지와 심정은 어떤지요?”** 만일 내가 진정으로 상대방을 생각해서 이렇게 묻는다면, 상대방은 이 질문에 담긴 **“나의 관심”** 을 읽어낼 것입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외톨이로 있기는 힘든 일입니다. 다른 이의 공감적인 반응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확신과 위안을 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그건 내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14) 정확한 메시지 이해하기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서 내가 참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확신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를 요구하기’** , **‘날말의 의미 확인하기’** , **‘상대방의 경험에 대한 나의 이해가 정확한지 확인해 보기’** 입니다.

- **‘많은 정보를 요구하기’** : 내가 전해들은 정보가 간접적이거나 불충분해 보일 때 빠트린 부분을 찾는 것임.
- **‘날말의 의미 확인하기’** : 상대방의 어떤 날말에 부여하는 의미와 내가 그것에 대해 이해하는 바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상대방에게 그 용어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 **‘상대방의 경험에 대한 나의 이해가 정확한지 확인해 보기’** : 내가 분명히 상대방의 말과 내용을 파악했다는 느낌이 들더라도, 경험의 전체적인 성격이나 그것이 감정에 미치는 영향을 내가 제대로

파악했는지 확인 할 수 있도록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이해한 바를 상대방에게 다시 말해 주도록 부탁드립니다. 만약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상대방에게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차원에서 명료화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상대방에게 우리의 의도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도란 ‘말하는 이에 대한 관심’, ‘말하는 과정 동안의 부드럽고 참을성 있는 태도’, ‘상대방의 나눔을 충분히 이해하고 싶어하는 바람’** 입니다.

15) 경청자는 제안만 할 수 있으며 지시는 절대 금물

어린이들에게는 제외됩니다. 어린이에게겐 지시가 필요하고, 또 부모의 지시를 강화해 줄 애정 어린 규율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인격의 성숙은 이성과 의지의 훈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는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이 되는 데에는 실수할 권리가 꼭 필요합니다. 시행착오는 인간의 삶의 이야기이고, 또 우리가 성숙해가는 방식입니다. 스스로 해야 할 생각과 선택을 남에게 맡긴다면, 우리는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에게 그가 처한 현실을 해석해 주고, 생각해야 할 바를 말해 주는 것은 그의 성장을 가로막는 일과 같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에게 해야 할 바를 말해 주는 것도 미성숙과 유아적 의존심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경청자는 제안만 해야 합니다.

16) 듣는 이의 대화에 방해되는 태도는 삼가기

우리가 장벽을 쌓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너무나 자신의 일에 정신이 팔려 있을 수도 있고, 당신에게 온통 관심을 쏟으면 나 자신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남을 받아들이려고 나를 여는 일은 항상 위험이 뒤따릅니다. 우리가 장벽을 세우는 동기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은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마음속으로는 그것을 갈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접촉이 가져올 수 있는 결과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런 장벽을 제거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모든 인간이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대화는 선물을 나누는 행위입니다. 내가 만일 선물을 나누는 중에 장벽을 세운다면, 그것은 다른 이들이 너그러이 건네주려는 선물을 물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즉 “선물 같은 것으로 날 괴롭히지 마십시오, 난 받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그 대신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이토록 나를 믿고 당신

자신을 나누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대화의 걸림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충고하기**: “당신이 해야 할 일은...” ,
- **겨루기**: “...보다는 내가 더 잘났지.” ,
- **컴퓨터식 처리**: “연구 결과에 의하면...” ,
- **주의 분산시키기**: “야, 여기 아주 좋은데...” ,
- **몽상하기**: “뭐?...아, 그래...알겠어.”
- **여과시키기**: “그건 이 다음 기회에....”
- **수집하기**: “그래, 하지만 넌”
- **동일시하기**: “그래, 그건 내 경우와 같군.”
- **무시하기**: “.....”
- **분류하기**: “저런, 자넨....정말 편집광이로군.”
- **비위맞추기**: “그래, 그건 사실이야.....네 말이 맞아.”
- **대답 준비하기**: “저 사람 말이 끝나면 바로 요렇게 말해야지...”
- **빈정거리기(상처입히기)**: “서둘지 마세요. 당신 이미지에 금이 가겠어요.” 이렇게 대화의 걸림돌을 자주 사용할 경우 상대방의 감정을 해치기에 인간관계가 소원해지는 지름길입니다.

17) 상대방의 진솔한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그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기.

말하기 힘든 속 이야기를 남에게 털어놓는 일은 훨씬 모험적이고 두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떤 이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분명하게 고마움을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순간 막, 중요하고 귀중한 선물, 즉 다른 사람의 일부분과 그 사람의 삶을 전해 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이가 자신을 열어 보이고 도 우리를 믿어준 데 대해서 감사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18) 참된 대화는 특별한 시간을 함께 가질 것을 요구합니다.

특별한 시간에는 시간의 촉박함도 없고, 당신 주위에 대화를 방해할 만한 군중도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때 에라야만 우리는 마음 놓고 우리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해 줄 적절한 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깊숙히 묻혀 있는 것들을 찾아내어 음미해 볼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특별한 시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19) 접촉은 대화의 중요한 한 가지 형태입니다.

신체적 접촉에서 오는 애정을 경험하지 못한 신생아는 대개 병이 들거나, 심지어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접촉의 결핍은 알레르**

기, 습진, 언어장애, 학습장애 등의 문제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감정을 자유로이 표현하는 과정에서 자란 이들은 손잡기, 포옹하기, 신체적 접촉을 통한 사랑의 표시가 의사를 전달하는 중요한 방식임을 잘 압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각을 하느님이 주신 선물로, 또한 배움의 촉수로 여겨야 합니다. 학습원리로 인정된 것 중의 하나는 감각이 많이 개입될수록 더욱 심화된 수준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며, 더 오래 기억에 남는다는 것입니다.

20) 나 자신의 안주지대에서 벗어나기.

안주지대는 우리의 옷 입는 스타일과 우리의 전반적인 모습을 지배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결정짓고, 우리가 사람들을 다루는 방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의 문제는 우리가 이런 안주 지대로 조심스럽게 몸을 웅크린다는 것입니다. 이 지대가 좁다면 우리는 그만큼 좁은 세계에 갇혀 지내는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불안감을 안고서 안주지대를 박차고 나가기 보다는 차라리 이 감옥에 갇혀 있는 편을 택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탐험하지 않으면 자신이 얼마만한 능력을 지니고 있는지조차 알지못할 것입니다.

21) 즉시 사과하기

실패를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은 참된 대화를 가로막는 많은 장애물을 제거하는 기적에 가까운 방법입니다. 진지한 사과는 즉시 대화의 생명을 앗아가는 방어적인 책략들을 격퇴시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약점은 이 사과를 통해서 나누어집니다. 우리의 내면에는 실수를 정직하게 고백하는 일을 어렵게 만드는 어떤 두려움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과를 잘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의 실패와 한계에 대해 솔직해야 합니다. 합리화를 할 때 우리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유는 자기 정당화의 구실을 마련하는데 여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잘못을 은폐시킬 목적으로 이런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때 참으로 정직하고 진실해 질 수 있습니다.

22) 긴장의 축적을 피하기

배고픔, 분노, 외로움, 피로는 우리의 균형을 깨트립니다. 이것은 정서적, 행동적 반응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긴장의 축적은 우리에게 적신호입니다. 이것은 위험이 임박하다는 것을 경고하는 신

호입니다. 이때 우리는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쉬운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할 위험에 빠집니다. 이것은 우리의 대화의 통로를 막아 버리고, 가장 귀중한 관계를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불균형 상태로 몰고 갈 수 있는 압력을 모두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과도한 긴장은 현실을 왜곡합니다. 운동과 균형 잡힌 식생활, 느낌을 표현하기, 친구에게 전화하거나 좋아하는 이들과 함께 하기, 독서하기, 게임하기, 아름다움을 음미하고, 음악을 듣고, 매일 묵상과 기도하기 등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어야 합니다.

23) 대화의 위기의 순간에 분위기 바꾸기

대화의 실패가 반드시 관계의 종말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저 **대화의 위기일 뿐**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다른 사람, 혹은 우리 내면의 어떤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압도당하게 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효율적으로 대화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좌절감과 무력감을 느끼게 되며, 때로는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대화의 위기를 정상적이고 불가피한 대화의 일부로 받아들일 때 불행을 피할 수 있습니다. **대화란 각기 독특한 개성을 지닌 두 사람이 극히 개별화되고 서로 다른 현실관을 나누려고 애쓰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종종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대대로 일어나는 대화의 위기보다도 더욱 놀라운 일입니다. 또한 불가피한 위기를 실패로 보지 않는 일입니다. 대화의 위기를 나 자신이 벗어나기를 실천하고, 도 변화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위기를 본다면, 내 안에서 긍정적인 정서의 에너지가 솟아날 것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을 서로 인정하고 자신을 성장시키는 여정중의 하나임을 받아들이는 것임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기에 “타임아웃”을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간의 시간과 거리를 가지는 것이 새로운 인식의 눈을 뜨는 데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또한 나-전달법을 사용하여 ‘사랑의 편지’를 쓰는 것도 좋습니다.

24) 대화의 동기는 항상 사랑이어야 합니다.

정신과 의사인 해리 스택 설리반(Harry Stack Sullivan)은 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이의 만족과 행복 그리고 안전이 당신 자신의 것 만큼이나 생생하게 느껴질 때, 당신은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든 대화의 동기가 되어야 할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다. 내 동기가 사랑 이라면 맨 먼저 해야 할 일은 나를 관찰하는 일, 즉 사랑의 혜안으로 나를 살펴보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눈에는 결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봅니다. 나는 당신의 기분을 읽어내고, 당신의 요구를 알아차리기 위해서 이렇게 당신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내 동기가 사랑이라면 나는 당신의 만족과 행복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말하고 행동할 것이며, 또 그러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참된 사랑의 선물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솔직한 자기 개방을 통해 줄 수 있는 나 자신이라는 선물이며, 둘째는 상대방의 고유한 선함과 재능을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 줌으로써 내가 줄 수 있는 당신 자신이라는 선물, 이것으로써 나는 상대방이 자기 존중감을 높이도록 도와줍니다.

25) 하느님께 간구하기.

하느님은 콘센트와 같습니다. 콘센트 뒤에는 전력이라는 신비한 힘이 있어 방을 밝히고, 집을 따뜻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원을 연결시키지 않으면 콘센트는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하느님의 권능은 우리의 어둠을 밝히고, 상처를 치유하며, 공허를 메우고, 용기를 북돋우며, 비뚤어진 것을 바르게 하고, 우리의 가슴에 사랑을 심어 주십니다. 우리를 이런 모든 권능에 연결시켜 주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사랑의 삶으로 살고자 할 때에는 주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사랑은 우리들이 공을 들여 만들어야 할 미완성품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을 위한 노력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대화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랑은 대화입니다. 사랑과 대화 둘 다 우리에게 각자의 고유한 선함과 재능을 서로 아낌없이 나누도록 요구합니다. 나약한 인간이기에 자주 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느님의 도움이 꼭 필요하기에 서로의 사랑을 키워가기 위해 필요한 은총과 깨달음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5. 360° 토탈 어필 광고전략

PR이란 옛날에는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만 알려야 하는 것으로 통했지만 현대에는 피할 것 없이 모든 것을 알리는 360° 토탈 어필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교리나 마리아, 전례가 까다로움 등 먼저 부정적인 것들을 알려준 후 긍정적인면을 알려주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렇게 부정적인면과 긍정적인 면을 모두 함께 공개할 때 더 신뢰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가톨릭 교리지식과 전례에 대해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6. 개신교 신자들과 대화할 때의 요령

- ☞ 상대방이 인품을 갖추어 대화가 가능한 사람인지를 구분하기.
- ☞ 그들이 갈라져 나간 형제들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교회의 일치와 발전을 바라면서 상대하기.
- ☞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들어 대화하기
- ☞ 질문에 답하는 응답자의 자세보다는 질문을 던질 줄 아는 입장에 서도록 하기.

7. 개신교 신자들이 묻는 몇 가지 질문과 답

- ☞ 신부들은 왜 결혼을 못하는가?
 -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공동체에 대한 봉사와 하느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 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자발적 맹세로 이루어진다.
- ☞ 천주교는 왜 마리아를 믿는가?
 - 천주교 신자들은 오직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믿는다. 성모 마리아께는 최고의 존경을 드릴 뿐이다.
- ☞ 하느님께 죄를 직접 고백하지 않고 인간인 신부에게 고백하는데, 인간이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가?
 - 고백성사란 하느님 앞에서 자기 죄를 알아내고, 통회하고, 결심한 다음에 이를 고백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그리스도의 명을 따라 사도로부터 이어받은 성사 집행에 의해 이루어진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마태 16, 19)

8. 개신교 신자에게 던질 수 있는 질문

- ☞ 개신교가 가톨릭에서 갈라져 나간 이유는 아는가?
- ☞ 왜 성경이 가톨릭 보다 숫자가 적은가?
(가톨릭: 구약 46권, 신약 27권/ 개신교: 구약 39권, 신약 27권)
- ☞ 예수님을 낳아 기르시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사신 성모님을 왜 존경하지 않는가?
- ☞ 개신교에서는 왜 종교적 예술품들을 소홀히 여기며 종교적 심성 유발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가?

- ☞ “믿기만 하면 천당에 간다.” 는 말은 인간의 자유 의지를 무시하는 말이 아닌가? 다시 말해 덕행과 선행을 실천하고 인품을 기르며 하느님의 자녀가 되려는 인간적 노력의 가치는 무슨 의미를 갖는가?
- ☞ 인간으로서 지은 잘못을 인간의 조건에 맞게 회개하지 않고 초월적 신에게 감성적으로 고백한다고 하는데, 이는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수치심을 미화하려는 것이 아닌가? 회개하는 용기가 사람에게 고백하는 경우와 신에게만 고백하는 경우 중 어느 때 더 강하다고 보는가?
- ☞ 예수님의 형상을 빼 버린 십자가는 로마 시대의 사형틀에 불과하지 않은가?
- ☞ 개신교의 교회 재정은 누구의 소유인가? 한 목사가 목회하던 교회를 다른 목사에게 양도할 때 신도들의 수에 따라 프리미엄을 붙여서 넘기는 것은 거룩한 교회의 태도 같지는 않은데...어떻게 생각하는가?

14

전례(典禮)생활

▣ 진행자 ◎ 함께

- ☞ 분위기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 기도 상을 차려놓고 초를 켜놓는다.
- ☞ 사람들이 모이면 따뜻한 환대와 인사한 후 성호경으로 시작을 한다.
- ☞ 준비물- 책: 이기정 지음, 「새 영세자를 위한 신앙생활 길잡이」, 2006년, 성바오로
기도상, 초, 십자가, 성경 (1티모 2,8-15),
- ☞ 도입은 10분으로 한다.
- ☞ 참고서적: 가톨릭 교리 신학원, 「초대받은 당신」, 가톨릭 출판사
김웅태 신부, 「현대 성인 구도자들을 위한 가톨릭 교리」, 도서출판 만남
「함께하는 여정, 통합사목연구소」
「신앙생활 안내서 미사전례를 중심으로」, 천주교 청주교구청 사목국
김지영 신부, 「PD 하느님 DJ 예수님」, 바오로딸
최윤환, 말씀의 전례, 「사목」 제 22호, 78면

도입

▣ 성호경

▣ 주님, 저희를 부르시는 당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한 분씩 주님을 초대해 주십시오.

- ☞ 각 사람이 돌아가면서 초대의 기도를 드린다. 기도의 화답은 아멘으로 한다.
처음에는 진행자가 먼저 모범을 보이는 것도 좋을 것 같음.

예) 오소서 성령님!..... 오늘 모든 일정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 아멘.

주님! _____ ◎ 아멘.

예수님! _____ ◎ 아멘.

- ☞ 기도가 끝나면 성경을 읽는다. 진행자는 성경구절을 미리 찾아놓는다.
- ☞ 함께하는 여정 제 21과 참조

▣ 어느 분이 1티모 2,8-15를 큰 소리로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 ▣ 성경 말씀 중에서 단어나 짧은 구절을 선택하여 기도하듯이 세 번씩 읽어 주십시오. 읽는 사이사이(약5초 간격)에 묵상을 위해 잠시 **침묵**을 지켜 주십시오.
 - ☞ 같은 구절을 세 번 외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침묵을 지킨다.
- ▣ 어느 분이 성경 본문을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 ☞ 참석자 모두가 함께 성경 본문을 읽을 수도 있다.
- ▣ 2분 동안 침묵을 지키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 ☞ 진행자는 시계를 보면서 시간을 잼다. 침묵 시간이 너무 짧거나 길지 않도록 주의 한다.
- ▣ 개인적으로 마음에 와 닿은 단어나 짧은 구절을 통해 자신의 마음속에 들려온 말씀을 자신의 생활과 연결시켜 함께 나눕시다.
 - ☞ 진행자는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이 어떻게 자신에게 와 닿았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느낌을 서로 나누도록 제안 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본문을 해설하더라도 토론하지 않도록 한다.
 - ☞ 한 사람의 이야기가 끝나면 **“잘 들었습니다.”** 혹은 **“감사합니다.”** 등 공동체가 화답을 해준다.

전 개

☞ 전개는 30분.

- ▣ **오늘은 전례생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 우리는 가정에 아기가 태어나면 가족과 친지들은 함께 기뻐하며 축하해 줍니다. 신생아기를 무사히 넘긴 것을 기념하여 백일잔치를 하고 첫 생일을 맞아 돌잔치를 베풁니다. 또한 입학이나, 졸업, 승진, 합격, 결혼, 회갑 등을 축하하는 예식이나 잔치를 갖기도 하며, 또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지냅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인생살이의 중대한 순간이나 사건을 맞아 그 기쁨과 슬픔을 함께 모여 나누며, 그 표현으로 잔치나 일정한 예절을 갖춘 기념식을 올립니다.
- ▣ 이와 같이 하느님께서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당신 은혜를 베푸시려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하느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하고자 모인 신앙인들은 이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정을 표하는 예식을 거행합니다. 이러한 종교적인 잔치나 예식들을 전례(典禮)라고 합니다. 예(禮)의 본래의 뜻은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하늘의 계시를 받아 이를 실천한다.’ 라는 글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동양의 예와 우리 교회의 전례의 근본정신은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경신행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 ▣ 교회는 1년을 한 주기로 하여 그리스도의 신비를 기념합니다. **전례에서의 기념이란 재현(再現)한다는 뜻입니다.** 2천 년 전의 그리스도의 신비를 오늘의 현실로 거행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 현존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애 각 부분을 전례로써 재현하

고 전례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만남 안에서 무한한 은총을 얻고 하느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 진행자는 아래의 전례현장은 참조하십시오.

- ▣ 거룩한 어머니인 교회는 한 해의 흐름을 통하여 지정된 날들에 하느님이신 자기 신랑의 구원 활동을 거룩한 기억으로 경축하는 것을 자기 임무라고 여깁니다(중략)한 해를 주기로 하여, 강생과 성탄에서부터 승천, 성령강림날까지, 또 복된 희망을 품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까지 그리스도의 신비전체를 펼칩니다. 이렇게 구속의 신비들을 기억하며, 자기 주님의 풍요로운 힘과 공로가 모든 시기에 어떻게든 현존하도록 그 보고를 신자들에게 열어, 신자들이 거기에 다가가 구원의 은총으로 충만해지도록 합니다.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전례현장’ 102항 -

- ▣ **전례와 축일, 전례주기와 의무대축일에 대해 유인물을 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 진행자는 유인물을 나누어 준다.

종합 심화

☞ 종합 심화는 5분

- ▣ **전례는 하느님 백성이 함께 모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 아버지께 공동으로 드리는 공적인 경배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과의 만남의 잔치이며 예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 하느님께서서는 전례 중에 말씀과 은혜를 베푸시고, 인간은 이에 대한 응답으로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받아들이고 감사와 찬미를 드리는 것이므로 신앙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공동기도가 중요하다고 해서 개인기도를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개인기도는 우리가 숨을 쉬는 것처럼 신앙생활의 기초를 이루는데 중요한 것이므로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 ▣ **전례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적 준비를 위해 자기반성을 한 후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여 경건한 자세로 하느님 대전에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전례의식의 본뜻을 바로 알고서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전례에 참여해서는 집전자를 따라가는 수동적인 자세보다는 집전자와 함께 그 의식을 지내는 **능동적인 자세**여야 합니다.
- ▣ 전례는 개인행동이 아니라 공동으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이므로 전례 해설자의 안내와 지시, 공동기도와 예절에 따라가지 않고 개인행동을 하면 공동예배의 분위기를 깨뜨릴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합니다.

마무리 및 실천사항

☞ 진행자는 실천사항을 실천하도록 과제를 내준다.

▣ 이번 주간의 실천사항:

1. 미사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 자유기도를 바치면서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도가 끝나면 “아멘.” 하고 응답합니다.

주님! _____ ◎ 아멘.

예수님! _____ ◎ 아멘.

진행자는 모든 기도가 끝나면....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 진행자는 자유기도가 끝나면 성가를 부른다.

▣ 마침 성가는 _____ 번입니다.

전례(典禮)

- ▣ 전례란 교회의 모든 공적 경신 예배를 말합니다. 즉 하느님의 백성이 함께 모여 하느님이 주시는 은총을 받아들이며, 이에 대해 감사와 찬미를 드리는 공적인 예배와 경신 행위를 일컫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내리셨습니다.
- ▣ 전례에는 미사, 성사(성례전) 및 준성사(축성·축복, 구마 즉 악령추방 여기에 포함됨), 성무일도, 성스런 행렬, 성체 강복식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스어로 liturgia는 ‘민중에 대한 봉사’ 나 ‘교회의 구제사업’ 을 가리켰는데, 나중에 교회의 의식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 ▣ 전례서에는
 미사 경본 Missale Romanum, 성무일도서 breviarium Romanum, 로마예식서 rituale Romanum, 주교용예식서 Pontificale Romanum, 순교성인론 martyrologium Romanum, 약식서 memoriale rituum, 성가집 liber antiphonalis 및 성사관계집 등이 포함됩니다.
- ▣ 전례 양식은 크게 가톨릭 전례양식과 16가지의 동방정교회 전례양식으로 나누어지는데, 가톨릭 전례양식으로는 로마 전례, 안티오크 전례, 알렉산드리아 전례, 갈리아 전례가 있습니다.
- ▣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종래의 전례 용어와 형식 등에서 전통적인 것을 대폭 개혁하여 1963년 12월 4일 교황 바오로 6세에 의해 《전례헌장》(典禮憲章)을 반포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각 국민의 독창성을 받아들여, 종래에는 라틴어로 행하던 전례부분에 모국어를 쓰도록 한 것은 획기적인 개혁이었습니다. “미사를 올리고 성사를 주는데 있어 그리고 또 전례의 다른 분야에서 각기 그 나라의 국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대단히 유익한 경우가 많으므로 널리 국어를 쓸 수 있다.” (전례헌장 36)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회 후 10년도 못 되어 로마 전례의 교회에서는 모국어의 사용이 보급되고 라틴어 사용은 예외로 되었습니다. 전례에는 사제와 더불어 평신도가 적극 참여하는 일이 강조되었습니다.

* 전례주년

☞ 전례주년 표는 신앙길잡이 97쪽 참조하십시오.

▣ 교회는 1년을 한 주기로 하여 그리스도의 신비를 기념하는데 이를 전례주년이라고 합니다. 교회 전례주년은 성탄과 부활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성탄은 부활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부활이 교회 전례의 중심**이요 정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전례주년은 **대림시기 · 성탄시기 · 사순시기 · 부활시기 · 연중시기**로 구분됩니다.

▣ **대림시기**: 주님의 성탄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기간

성탄시기: 주님 성탄대축일부터 8일 축제를 지나 주님 공현 대축일 후 토요일까지

사순시기: 재의 수요일부터 40일 동안이며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을 묵상

부활시기: 부활 대축일부터 주님 승천 대축일까지의 시기

연중시기: 성탄시기 이후 사순 시기 이전의 기간과 부활 시기 이후 대림시기 이전의 기간

▣ **교회 전례 주기의 매해 첫 출발은 대림 제1주일부터 마치 새해를 시작**하듯 예수님의 생애와 그 신비를 해마다 반복해 새롭게 되새기며 신자 생활을 합니다.

▣ 이러한 전례주기는 세월이 흐르면서 엮어진 것입니다.

초창기 교회: 가장 큰 축일인 예수님의 부활을 특히 성대하게 지냈으며 그 축일을 중심으로 부활 시기가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4세기 중엽: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관심이 새롭게 부각되면서 성탄을 성대하게 지내는 풍습이 생기기 시작해, 그 축일을 중심으로 성탄시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부활과 성탄 시기에 속하지 않은 연중 시기에 예수님의 다른 축일들과 성인들의 축일들이 첨가되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 **1년 주기의 교회력이 구성된 것은 12세기부터입니다.**

* 전례력

▣ 전례주년에 따라 예수 성탄과 부활, 성령강림의 날짜를 정하고 고정적으로 정해진 성모님의 축일, 성인들의 축일을 날짜별로 기록하여 만든 **1년 동안의 교회 달력을 전례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전례력을 보면서 교회

전례상의 축일들을 지켜 나가면 매우 편리합니다. 요즘은 대부분 본당에서 만든 달력에 축일이나 미사의 독서와 복음 장절이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 매일의 축일을 안내하고 미사의 독서와 복음의 본문을 수록한 「매일미사」 등의 책자들도 다달이 나옵니다. 전례력을 따로 보기를 원하신 분은 연초에 일반용과 사제용중에서 일반용 전례력을 성물 판매소에서 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전례력 전체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살아 계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 활동하시는 성령을 통해 성부께 최고의 흠송을 드리기 위한 교회의 시간 계획입니다.

*** 전례주기에 따른 제의색깔**

- ▣ 사제가 입는 제의(祭衣)는 전례주기에 따라 색깔이 바뀝니다. 제의의 색깔은 흰색, 붉은색, 녹색, 보라색, 검정색, 장미색, 황금색 모두 7가지입니다.

- ▣ 백색: 영광·결백·기쁨을 상징하기 때문에 부활절과 성탄절, 성모 마리아와 천사의 축일 그리고 순교자가 아닌 성인 축일에 입습니다.

홍색: 뜨거운 사랑과 승리와 피를 상징하며 주님 수난 주일 성금요일, 성령강림일, 십자가 현양일, 순교자 축일에 입습니다.

녹색: 생명의 희열과 희망을 상징하며 연중 주일과 그 주간에 입습니다.

자색: 참회와 보속을 상징하며 대림시기와 사순시기, 그리고 위령미사 때 입습니다.

장미색: 참회와 보속을 상징하는 대림시기와 사순시기 중간에 성탄과 부활의 서광을 앞두고 기뻐하며 휴식한다는 의미로 ‘기뻐하라 주일’ (대림 3주일)과 ‘즐거워하라 주일’ (사순 4주일)에 입습니다.

검정색: 슬픔과 죽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장례미사와 연미사에 입습니다.

황금색: 환희와 성대함을 나타내는 색으로 대축일에 입습니다.

- ▣ 우리는 제의의 색깔에서 그날 미사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교회와 함께 우리의 마음이 일치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제가 예복을 갖추어 입듯이 우리들도 미사에 맞는 몸단장으로 미사에 대한 존경을 표시해야 합니다.

*** 성월(聖月)**

- ▣ 가톨릭교회는 특별히 어느 달을 정해 집중적으로 신심이나 덕을 쌓고자 노

■ 력하는데, 그러한 달을 **성월(聖月)**이라고 합니다. 한국교회는 해마다 다음과 같은 성월을 지냅니다.

■ **3월: 성 요셉 성월**

구세주 예수님의 양아버지이고, 성모 마리아의 배필이신 성 요셉을 특별히 공경하는 달입니다. 성 요셉은 목수일을 하셨기에 **노동자의 주보 성인**이며(5월 1일은 노동자 성 요셉 축일), 예수님과 성모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복되게 운명하였으므로 **임종자의 주보 성인**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 **5월: 성모 성월**

계절의 여왕인 이 시기에 하느님의 어머니이며 우리 신앙의 어머니인 성모님을 특별히 공경합니다. 이 달에는 성모의 밤 행사를 비롯하여 성모님의 삶을 본받으려는 각종 신심행사를 거행합니다. 특히 **한국교회는 원죄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을 주보성인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 **6월: 예수 성심 성월**

십자가 위에서 한 병사의 창에 찔려 당신의 심장을 열어 보임으로써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한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성심을 특별히 공경하는 달입니다. 이 달에는 성시간을 비롯한 예수 성심을 공경하는 신심행사를 통하여 예수 성심의 신비를 묵상합니다. 예수 성심의 사랑은 특별히 성체성사에 담겨 있으므로 성체 앞에서 자주 기도드려야 합니다.

■ **9월: 순교자 성월**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기묘하게 전파하도록 하신 하느님의 은총과 그 섭리에 대해 감사드리며, 생명을 바쳐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낸 우리 순교 선열들의 행적을 기리며 본받는 달입니다. 교회가 9월을 순교자 성월로 지내는 것은 **한국 순교 성인 103위 중 33명이 9월에 순교**하였으며, **성 안드레아 김대건과 성 바오로 정하상과 동료 순교자 대축일을 9월 20일에 지내기 때문**입니다. 성지 순례 등을 통하여 순교 선열들을 본받고 우리의 삶이 순교 정신으로 충만해지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 **10월: 묵주기도 성월**

이 시기는 단순한 묵주기도만이 아니라 한평생 예수님을 위해 봉헌하신 성모 마리아의 삶에 보다 깊이 동참하는 성월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사업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성모님이 함께 계셨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구원사업에 동참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정성껏 묵주기도를 하며 성모님께 더욱 깊이, 더욱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10월 7

일 묵주기도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은 부산교구의 주보성인으로 모셨기에 대축일로 지내고 있으므로 묵주기도를 자주 드리도록 노력하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 11월: 위령 성월

낙엽이 하나 둘씩 떨어지는 이 시기에 우리는 먼저 세상을 떠난 이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위령의 달에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성화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부모나 친지, 특히 연옥 영혼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와 희생을 바치는 달입니다.**

* 여러 축일들

▣ 교회의 전례 축일 외에도 신앙생활 중 특별히 지내는 축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나 자녀, 대부.모, 본당 신부의 영명 축일을 비롯해, 본당의 주보성인 축일과 각 가정의 결혼기념일 및 생일 등이 있습니다. 이런날이 다가오면 무엇을 해야 할지 혼자 걱정하지 말고 되도록 축일의 당사자나 이웃 신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면 좋습니다. 물질적 선물이나 영적선물 등으로 무엇인가를 주고받는 것도 물론 좋지만 서로 신앙 안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이웃과 공감대를 형성하면 더 큰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 한국 교회의 의무 축일

▣ **주일과 대축일은 중요한 날이므로** 모든 신자들은 미사에 참례해야 합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느님께 큰 예를 올리며 그 날을 거룩하게 지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축일은 주일인 날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날도 있습니다. 가톨릭 국가인 경우에는 대축일이 국경일로 지정되기도 합니다.

▣ **모든 주일과 부활대축일(부활주일), 예수성탄 대축일(12월 25일), 천주의 모친 성 마리아 대축일(1월 1일), 성모 승천 대축일(8월 15일)**

▣ **보편 교회와는 달리 한국교회는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의 원죄 없으신 잉태 대축일(12월 8일), 성요셉 대축일(3월 19일), 성 베드로와 바오로 사도 대축일(6월 29일), 모든 성인의 날 대축일(11월 1일)을 의무축일로 지내지는 않지만 가능하면 미사에 참례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 성년(聖年)

- ▣ **성년(聖年)**은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회개하여 자기 생활을 쇠신하고 교회가 특별히 베푸는 대사의 은총을 받아 거룩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해입니다.
- ▣ 성년은 하느님께서 특별히 축복하신 해로 받아들여, 죄를 뉘우치고 거룩히 지내며 빛을 탕감해 주고 노예들을 모두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해방 정신을 실천하는 해입니다.(레위 25, 8-10 참조)
- ▣ 교회는 **교황 보니파시오 8세 이래로 100년에 한 번씩 성년**을 지내다가 **교황 클레멘스 6세에 이르러(1343년)** 구약성경의 희년(禧年)주기와 같은 50년에 한 번씩 지내게 되었고, **교황 바오로 5세는 1500년에 25년에 한번씩 성년**을 지내도록 제정. 발표했습니다.
- ▣ 정기적인 성년 외에 **특별성년이 있습니다.**
 - 1945년: 성모의 원죄 없으신 잉태 공포 100주년을 맞아 성년으로 선포
 - 1983년: 예수님의 사신 나이를 33년으로 계산하여 예수님의 구원사업 1950주년을 맞아 성년으로 선포
- ▣ **정기 성년이나 특별 성년**은 은총의 해이고 구원의 해입니다. 교회는 성년을 맞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무한한 공로를 구원의 선물로 더욱 풍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대사(大赦)를 허락합니다.

* 전례 동작과 자세의 의미

- ▣ 전례 동작과 자세의 의미를 알아두면 미사에 더욱 능동적으로 참례할 수 있게 됩니다. 전례에는 여러 동작과 자세들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상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상징적인 행위들은 그 자체로 기도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들 각각의 의미를 알아 두는 것은 전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미사를 드릴 때 자주 취하는 동작과 자세들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서 있는 자세: 존경을 표현하는 자세**

일반적으로 윗사람이나 존경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일어나서 그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듯이 사제나 부제가 복음을 봉독할 때에는 하느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과 같기 때문에, 존경의 표시로 일어서서 경청합니다. 또한 **기도하는 자세**이며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일어나 부활하셨음을 상징하는 **부활과 기쁨의 표지**입니다. 나아가 **깨어 있고 준비하는 자세, 활동에 임하는 자세, 감사의 자세, 믿음과 희망으로 종말을 기다리는 자세**를 의미 하기도 합니다.

▣ 무릎 꿇는 자세(장궤):

누군가에게 용서를 청할 때 또는 무엇인가 간청할 일이 있을 때 무릎을 꿇거나 엎드립니다. 따라서 무릎 꿇는 자세는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낮음을 인정하고 그에게 자비를 구할 때 취하는 자세**입니다. 무릎을 꿇음으로써 하느님 앞에 자신의 미약함을 드러내고 참회와 흠송의 마음을 드리며, 애절하게 간구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 고개를 숙이거나 허리를 굽히는 자세:

이 동작은 일반적으로 무릎을 꿇는 동작과 비슷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하느님께 대한 공경과 겸손한 탄원, 인간이나 성물(聖物)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합니다. 또한 참회의 마음을 표현하거나 무엇을 청하는 기도를 드릴 때도 이 자세를 취합니다. 미사 중에 특히 이 예절이 자주 나옵니다. 이 예절은 **주일 미사에서는 사도신경을 바칠 때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시고”**에서 **한 번**, 성찬 전례에서 예수님의 몸과 피가 올려질때, 즉 **성체 거양때 각 한 번씩** (사제가 신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성체를 올렸다가 내린 후 사제가 인사를 할 때 머리를 숙여 함께 인사 함)성체 모시기에 앞서 **한 번**, 이렇게 **네 번** 하게 되고, **평일 미사 때는 사도신경을 바치지 않기 때문에 세 번 절을 합니다.**

▣ 앉는 자세:

올바른 자세로 앉는 것은 바른 몸가짐을 나타낼 뿐 아니라 정성이 담긴 기대와 주의력으로 가득 차 있음을 의미합니다. 편하게 앉아 있으면 말씀을 듣고 새기기에 좋고 성가에도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묵상과 관상에 효과를 더해 줍니다.

15

순교성인

▣ 진행자 ◎ 함께

- ☞ 분위기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 기도 상을 차려놓고 초를 켜놓는다.
- ☞ 사람들이 모이면 따뜻한 환대와 인사한 후 성호경으로 시작을 한다.
- ☞ 준비물- 책: 이기정 지음, 「새 영세자를 위한 신앙생활 길잡이」, 2006년, 성바오로 기도상, 초, 십자가, 성경 (필리 1,27-30),
- ☞ 도입은 10분으로 한다.
- ☞ 참고서적: 가톨릭 교리 신학원, 「초대받은 당신」, 가톨릭 출판사
김웅태 신부, 「현대 성인 구도자들을 위한 가톨릭 교리」, 도서출판 만남
「함께하는 여정」, 통합사목연구소
김지영 신부, 「PD 하느님 DJ 예수님」, 바오로딸
<http://www.paxkorea.co.kr>,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도 입

▣ 성호경

- ▣ 주님, 저희를 부르시는 당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한 분씩 주님을 초대해 주십시오.

- ☞ 각 사람이 돌아가면서 초대의 기도를 드린다. 기도의 화답은 아멘으로 한다.

처음에는 진행자가 먼저 모범을 보이는 것도 좋을 것 같음.

예) 오소서 성령님!..... 오늘 모든 일정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 아멘.

주님! _____ ◎ 아멘.

예수님! _____ ◎ 아멘.

- ☞ 기도가 끝나면 성경을 읽는다. 진행자는 성경구절을 미리 찾아놓는다.

- ☞ 함께하는 여정 제 21과 참조

- ▣ 어느 분이 필리 1,27-30를 큰 소리로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 ▣ 성경 말씀 중에서 단어나 짧은 구절을 선택하여 기도하듯이 세 번씩 읽어 주십시오. 읽는 사이사이(약5초 간격)에 묵상을 위해 잠시 침묵을 지켜 주십시오.

- ☞ 같은 구절을 세 번 외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침묵을 지킨다.
- ▣ 어느 분이 성경 본문을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 ☞ 참석자 모두가 함께 성경 본문을 읽을 수도 있다.
- ▣ 2분 동안 침묵을 지키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 ☞ 진행자는 시계를 보면서 시간을 쟀다. 침묵 시간이 너무 짧거나 길지 않도록 주의 한다.
- ▣ 개인적으로 마음에 와 닿은 단어나 짧은 구절을 통해 자신의 마음속에 들려온 말씀을 자신의 생활과 연결시켜 함께 나눕시다.
- ☞ 진행자는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이 어떻게 자신에게 와 닿았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느낌을 서로 나누도록 제안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본문을 해설하더라도 토론하지 않도록 한다.
- ☞ 한 사람의 이야기가 끝나면 “잘 들었습니다.” 혹은 “감사합니다.” 등 공동체가 화답을 해준다.

전 개

- ☞ 전개는 30분.
- ▣ 한국 순교자들의 전기를 살펴보면 순교자들은 어느 날 갑자기 영웅적으로 목숨을 바쳐 순교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믿기 시작한 날부터 순교하는 날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한결같은 순교정신 속에서 살았습니다.
- ▣ 순교자들이 살던 시대에는 나라에서 천주교를 사악한 가르침(사교)으로 단정해 믿지 못하게 함은 물론, **천주교와 관련된 것은 모두 없애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천주교 교리를 배우고 세례를 받는 그 자체가 곧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순교성인들은 이 사실을 잘 알면서도 하느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세례를 받는 순간 믿음을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를 했으므로 **삶이 곧 순교의 나날**이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연약한 육체와 마음을 가다듬고 폭력의 두려움을 극복할 훈련을 쌓으면서 순교할 정신으로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마음속으로 순교를 준비했으므로, 체포되어 가산을 몰수당하거나 무자비한 고문을 당해도 당당하고 기쁘게 순교를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 ▣ 한국 천주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사실 오랜 준비 기간이 필요하였는데, 이 준비 기간에 비축한 힘은 당시 사회의 요청에 힘입어 스스로의 힘으로 교회를 세우는 원동력이 됩니다. 선교사의 도움 없이 교회를 창설한 사건은 기적이라기보다는, 18세기 후반 한국 사회의 요청이었습니다. 한국교회의 역사에 대해 유인물을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진행자는 유인물을 나누어 준다.
- ☞ 진행자는 유인물을 보면서 설명만 하기보다는 대상자 스스로 읽고 요약하면서 서로 나누는 방법을 사용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 질 것 같으면 전체 흐름과 우리 신앙선조들의 신앙에 대해 언급한 후 마무리를 지어도 좋습니다.

종합 심화

☞ 종합 심화는 5분

- ▣ **한국 순교 성인들은** 복음의 증인이었습니다. 구원에 대한 희망과 열정을 가지고 이웃과 나누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천주교 박해가 심할 때 이웃에 천주교 신앙을 전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앙의 기쁨으로 죽음의 공포를 잊을 수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한 형제가 되기를 이웃에 권하였습니다. 박해시대의 신자들이 미사에 참여한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에 속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일과 축일이면 신자들은 공동 집회를 비밀리에 열었으며, 여기에 참여하는 신자들의 숫자도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 갔습니다. 초기 교회의 신자들은 주일과 대축일뿐만 아니라 일반 축일에도 수시로 모여 공동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집회에 참여하지 못한 신자들은 대송(代誦)으로 성로신공(聖路神功, 십자가의 길)을 하거나, 주님의 기도 66번 또는 성모송 99번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박해 시대의 신자들은 기도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현세의 가치를 거부하고 내세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도 하였습니다.
- ▣ 그들의 순교에는 다른 역사적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 실천과 순교는 자의식 여부와는 상관없이 당시의 사상과 체제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들의 순교는 **하느님을 통한 자기 존재의 확인**이었습니다. **조선 왕조의 전근대적 사상 통제와 신분제적 사회 질서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인간의 양심과 인격에 대한 위대한 깨달음의 표현**이기도 하였습니다. 신분제 질서 안에 매몰되어 있는 **개인의 존엄성과 가치에 대한 발견**이었습니다. 순교자의 죽음은 우리 역사 발전 과정에서 출현한 **사상과 양심의 자유에 대한 갈망의 결과**입니다. 그들은 신앙과 사상의 자유를 얻기 위한 전선에서 산화한 전사자이기도 한데, 그들의 순교는 신앙 행위였을 뿐 아니라 사회·역사 행위로, 우리 역사에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게 되었습니다. 이 역사행위를 한 박해 시대의 신자들은 오늘날의 우리처럼 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실망과 희망을 번갈아 가지며 고뇌하기도 하였지만 참다운 생명의 길, 희망의 길을 걷고자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평범한 이 사람들이 실천한 이러한 일들은 오늘날의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 ▣ 오랜 박해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사에서는 **부정적 측면**이 나타나기도 하였는데, 박해에 시달린 신자들 가운데 일부는 이 세상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내세에만 안주해 보려는 **도피적 신앙 태도**를 갖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박해의 여파로 일부 신자들이 **복음화에 소극적인 자세**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날 처음으로 성당을 찾는 예비신자들에게는 차갑고 개인적인 신자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 박해의 순간에도 어려운 이들을 돌보면서 초대 그리스도 공동체의 모습으로 기도하는 일에 열심이셨던 우리 선조 신앙인들의 모습을 닮도록 우리 또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마무리 및 실천사항

☞ 진행자는 실천사항을 실천하도록 과제를 내준다.

▣ 이번 주간의 실천사항:

- 1. 순교자들을 위한 기도드리기

▣ 자유기도를 바치면서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도가 끝나면 “아멘.” 하고 응답합니다.

주님! _____ ◎ 아멘.

예수님! _____ ◎ 아멘.

진행자는 모든 기도가 끝나면....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 진행자는 자유기도가 끝나면 성가를 부른다.

▣ 마침 성가는 _____ 번입니다.

한국 교회사

* 교회 창설의 배경

1. 조선 후기의 정치적 배경

조선 후기 사회는 당쟁으로 인하여 정치 질서가 문란해진 시대입니다. 16세기 말부터 시작된 당쟁은 17세기와 18세기 초에 걸쳐 절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2. 조선 후기의 경제적 배경

1) 농업

당시 농민은 양반들의 토지 겸병으로 점차 소작농으로 전락하였고, 삼정(전정, 군정, 환곡)의 문란으로 경제적 부담이 어려워 노비 신분으로 전락하는 수가 많아졌습니다.

2) 상업

정조 15년부터 상행위의 자유화 정책이 시행되어 상행위가 자유러워지고 정기 시장인 장시가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물물 교환에서 화폐경제로 발달됨하게 되었으나 빈부의 격차는 오히려 심해졌습니다.

3. 조선 후기의 사회적 배경

▣ 양반, 상인의 양천제(兩賤制)가 무너지고 **양반, 중인, 상인, 노비의 네 신분으로 세분화**되었고, 18세기 후반에는 양반이 전체 인구의 40-50퍼센트에 달했습니다. 이들 양반 중에는 경제적으로 몹시 빈궁해 사회적 지체를 지키기 어려운 이들도 있었습니다. **양반층의 분화는 사회적으로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게** 되었습니다.

▣ 수공업과 상업의 발달은 인구의 도시 이동을 가져왔고 이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문화가 움트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처럼 천주교가 신앙화되기 시작하던 조선후기는 현실의 지배 체제 통치 능력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던 때였고 변화의 물결이 일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4. 성리학적 지배 질서의 한계와 천주 신앙

- ▣ 조선의 지배 이념인 성리학(性理學) 또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조선의 소장학자들은 허(虛)의 학문이 된 성리학적 유학에 대하여 실(實)의 유학을 찾게 됩니다. 즉 실학운동이 벌어집니다. **‘실(實)의 학이란 실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실리(實利), 실정(實定), 실증(實證)의 학문을 뜻합니다.** 성호 이익 좌파계의 서학자들은 성리학과 훈고학, 즉 후대의 유학을 불신하고서 근본 유학의 입장에서 다시 유학을 인식하고자 했고, 공자나 맹자 단계의 원초 유학(原初儒學)으로 돌아가 진정한 실재를 찾고자 하였습니다.
- ▣ 실학자들은 중국의 유교 철학을 깊이 연구하는 과정에서 원초 유학에는 **천(天), 또는 상제(上帝)에 대한 관념이 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실학사상이 가지고 있었던 성리학에 대한 비판의 분위기와 그들이 원초 유학으로써 이해했던 상제 등에 대한 관념은 **유일신 사상인 천주교 신앙을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5. 조선 후기의 대외적인 배경

- ▣ **천주교회의 동양 선교**를 들 수 있습니다. 서양에서 종교개혁을 체험한 천주교는 자신의 쇄신을 다지는 한편 동양과 신대륙에 대한 선교를 시도하였습니다. 특히 **예수회를 중심으로 한 선교 단체들은 일본과 중국 선교에** 착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진왜란(1592~ 1598년)이 발생**하여 조선을 침략한 일본군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위하여 **외국인 선교사가 조선에 입국**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잡혀 간 조선인 가운데 몇몇이 일본에서 그리스도교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되었으며, 일본의 박해 과정에서 순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입교와 순교는 한국사와는 무관하게 전개된 일본 교회사의 한 부분일 뿐, 한국 교회 창설과 직접 연결될 수는 없습니다.
- ▣ 한편 **중국에 진출한 선교사들은 각종 천주교 서적을 한문으로 간행**하였는데, 이 한문 서학서(西學書)가 조선에 전래되면서 **한국 교회 창설에 직접계기로 작용**합니다. 당시 예수회 선교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천주실의**」(天主實義)를 지은 **마테오 리치(Mateo Ricci, 利瑪竇)**였습니다. 그리고 판토하(Pantoja, 龐迪我, 1571~1618년)의 「**칠극**」(七克)과 같은 책도 비교적 널리 읽혔습니다.
- ▣ **중국에 온 선교사들은 포교에 앞서 중국의 말과 풍습을 깊이 연구**하고, **중국**

의 문화를 존중하며 천주교 신앙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들은 중국의 대표 종교인 유교를 연구하였고, 그 결과 천주교 신앙은 유교의 부족한점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이를 **보유론(補儒論)**이라 합니다. 「**천주실의**」는 천주교 교리를 설명하고 천주교 신앙과 유교 불교 도교의 관계를 밝히고, 중국 지식인들에게 천주교 신앙을 알리는 데에 큰 구실을 하였습니다. 그 밖에 17세기에 들어와서 여러 선교사가 천주교 신앙을 소개하는 많은 종류의 책을 저술하였습니다.

- ▣ 당시 조선과 중국은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매우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조선 왕조 조정에서는 해마다 정기적으로 중국에 사신을 파견하였습니다. 이 사신 편을 통해서 「천주실의」를 비롯한 한문 서학서(漢文西學書)들이 조선에 전래되었는데, 조선의 지식인들은 거의 150년 넘게 천주교 서적들을 읽고 그 내용을 검토해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천주교 서적에 대한 비판도 있었으나,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지식인들도 점차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천주교를 새로운 인생철학으로 이해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얼마 되지 않아 천주교를 새롭고 참다운 종교로 믿고 실천하기에 이릅니다. 이와 같이 중국에 전파된 천주교를 통하여 또한 중국에서 간행된 한문 서학서를 읽고 연구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가 이 땅에 우리 자신의 힘으로 세워지게 된 외적 요인이 되었습니다.
- ▣ 이와 같이 한국 교회는 당시 조선 사회가 직면해 있던 대내외적 조건에 많은 영향을 받으며 스스로의 힘으로 창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워진 교회는 수용 초기부터 신앙에 대한 주체적 인식의 양상을 드러내며 크게 발전해 나갑니다.
- ▣ 조선 후기 사회의 이러한 실학적 분위기는 지식인들이 천주교 신앙에 접근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 주었으나, 1791년에 일어난 **조상 제사 문제로 상당수의 유교 지식인들이 천주교 신앙을 포기하면서 그 한계를 드러내는데**, 실학사상은 천주교를 수용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지만, 천주교를 전파하는데에는 큰 역할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 교회 창설과 전교 그리고 박해

1. 신앙 공동체의 탄생(1784)

- ▣ 조선 왕조에 한문 천주교 서적이 전래된 이후, 18세기 후반기에 이르러서는

천주교 신앙을 실천해 보려는 시도가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대표적 인물은 **홍유한(洪儒漢)**이었습니다. 1770년경 천주교 서적을 읽고 감동한 홍유한은, 천주교 교리서에 나타나 있는 대로 날짜를 7일씩 계산하여 일곱째 날을 주일로 삼아 기도에 전념하였습니다. 그는 금욕 생활과 기도생활을 실천했을 뿐 아니라, 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날마다 소재(小齋)를 지켰으며, 불쌍한 사람들을 기꺼이 도왔습니다. 그는 비록 **세례를 받지 못했지만 이와 같이 책을 통해 터득한 천주교 신앙을 혼자서 실천해 나갔습니다.**

▣ 그 뒤 천주교 교리에 대한 깊은 연구가 시작되었는데, 이 연구를 주도하는 지식인들은 정치적으로는 **기호(畿湖) 남인(南人) 계통**에 속하고, 학문전통으로는 **성호 학파(星湖學派)**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당시 **성호(星湖) 이익(李瀾, 1681~1763년)**의 학문을 이어받아 연구하던 **권철신(權哲身, 1736~1801년)**, **정약전(丁若銓, 1758~1816년)** 등 일단의 지식인들은 1777년에 이르러 서울 부근에 있는 주어사(走魚寺)에 모여 유교 경전을 강학(講學)하고 있었습니다. **주어사에서 강학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된 이벽(李磔, 1754~1786년)**도 여기에 합류하게 됩니다.

▣ 그들은 주어사에서 유교 경전을 강학하면서 중국에서 간행된 각종 서적을 참조했고, 서학서에 언급된 내용들도 검토하였습니다. 이들이 검토하는 서적 가운데는 「**천주실의**」와 「**칠극**」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강학의 참여자 가운데 몇몇은 천주교 서적에서 인생에 대한 해답을 얻고 천주교를 신앙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결심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자 했던 **대표적 인물은 이벽**이었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결심이 곧 교회창설을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 창설 과정을 이해하는 데에 아주 중요한 전제가 됩니다.

▣ 이벽은 교리를 연구하는 일에만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천주교에 관한 지식을 좀 더 많이 얻고자 하였습니다. 마침 그때 이벽의 동료 이승훈(李承薰, 1756~1801년)이 부연사(赴燕使) 일원으로 중국 북경(北京)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벽은 곧 이승훈을 만나 북경에 가거든 선교사를 만나 천주교 교리를 배우고 천주교 책들을 구입해 올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이 부탁을 받은 **이승훈은 북경에 간 후 선교사를 만나서 교리를 배우고 베드로라는 세례명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세례를 받고 나서 천주교 책들과 성물을 가지고 **1784년 봄에 귀국**하였습니다.

▣ 이승훈은 가져온 서적의 일부를 이벽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벽은 몇 개월 동안 이 책들을 깊이 연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승훈과 함께 친척과 친

지들에게 천주교 신앙을 전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벽은 **정약용**(丁若鏞, 1762~1836년) 형제들을 찾아가 복음 전파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당시 지식인들 사이에 덕망이 높은 **권일신**(權日身, 1742~1792년) 등을 입교시키는 한편, **김범우**(金範禹, ?~1786년)를 비롯한 중인(中人)들에게도 전교하였습니다.

- ▣ **1784년 9월(음력) 이승훈**은 서울의 수표교 부근에 있던 이벽의 집에서 **그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여기에서 **한국 교회의 출발점**이 마련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례를 통하여 결속된 복음 선포 기능을 수행하는 신앙공동체가기 때문입니다. 초기 세례받은 이들의 공동체 신자로는 권철신, 권일신 두 형제, 정약전, 정약종, 정약용 형제들, 그리고 내포의 사도라고 불리는 이존창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나라 교회 또는 그리스도교 신앙공동체가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2. 첫 번째 탄압과 순교(1785)

- ▣ 교회 창설 직후 복음 선교에 앞장선 인물로는 이승훈, 이벽, 권일신이 있습니다. 권일신의 제자인 이존창(李存昌, 1752~1801년)은 충청도 내포(內浦) 지방에서 복음을 선포하였고, 전주에서는 유항검(柳恒儉)이 신앙을 전파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신자들이 새로운 신앙을 받아들여 이를 기쁘게 실천하면서 교회 발전을 위하여 자신의 힘을 바쳤습니다.
- ▣ 이렇게 출발한 우리나라 천주교회는 창설 직후부터 탄압에 직면하게 됩니다. **1785년 봄**, 형조(刑曹)의 관리들은 서울 **명례방 김범우의 집에서 종교적 모임을 하고 있던 신자들을 검거**하였으나 당시 형조는 체포된 사람들 대부분이 양반이었는데 그들은 양반의 범죄를 다스릴 수 없었기에 함께 체포된 신자 가운데 **중인 출신인 김범우만 고문을 하고 유배**를 보냈습니다. 귀양을 살던 김범우는 고문 받은 상처가 악화되어 죽었습니다.

3. 가성직 제도에 의한 자치적 조선 교회(1786-1788)

- ▣ 이러한 탄압에도 당시 교회 지도자들은 오히려 조직을 다져 나갔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1786년 **가성직 제도(假聖職制度)**를 설정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가성직 제도는 성품성사를 받지 아니한 신자들이 성직자의 고유한 업무까지 수행하던 비합법적 제도를 말합니다. 이를 가성무집행 제도(假聖務執行制度)라 하기도 합니다. 고해성사와 견진성사 그리고 미사 집전은 성직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이를 미처 알지 못한 당시 신자들은 미사와 고해성사 등을

집전하였습니다. 이 가성직 제도 아래에서 이승훈은 교회의 으뜸가는 지도자가 되었고, 모두 10여 명의 신자가 신부로 추대되었습니다. 가성직 제도는 교회법으로는 올바른 일이 아니나, 교회 조직을 갖추어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고 선교를 강화해 보려는 소박한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었습니다. 이 제도는 1789년경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천주교 교리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 나가면서 가성직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게 되었고 이에 관해 북경 주교에게 문의합니다. 1790년에 도착한 답변에서 북경 주교는 가성직 제도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조선에 선교사 파견을 약속하는 한편, 조상에 대한 제사를 금지 하였습니다. 이로써 조선 교회는 선교사를 맞이하는 기쁨과 조상 제사 문제로 벌어질 상황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갖게 되었습니다.

- ▣ 조상 제사는 당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인정되던 효심의 자연스런 표현으로, **사대 봉사는 양반 신분의 상징**이었습니다. 조상 제사는 양반 가문의 사회적 결속과 존립의 기반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 때문에 조상 제사 금지는 양반 사족 출신 신자들에게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조상 제사 포기는 양반으로서 명망과 특권을 버리고, 가문을 존립시키는 사회적 기반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때문에 천주교 신자에 대한 정부의 탄압에 앞서서 양반 문종의 박해가 심각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때 양반층 신도 가운데 많은 사람이 천주교 신앙을 버리게 되어 1790년대 이후에는 교회를 이끄는 지도급 신자들도 바뀌었습니다.

4. 조상 제사 문제로 인한 순교(1791)

- ▣ 전라도 진산에서 일어났습니다. 진산의 양반 **윤지충(尹持忠)**과 그의 외종형 **권상연(權尙然)**이 천주교의 뜻에 따라 **조상의 제사를 폐하고 신주를 불살라 버린 사건**으로 인해 **1791년에 순교**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 교회사에서 **첫 순교자들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보류론적 입장에 있던 일부 신도들은 천주교에 회의를 품고 배교하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진산 사건은 신앙 운동을 중인층 중심으로, 민중 종교운동으로 향하게 하는 구실도** 하였습니다.

5. 주문모 신부의 입국과 활동(1794)

- ▣ 북경의 주교는 조선 신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1794년 주문모(周文謨, 1752~1801년) 신부를 파견**하였습니다. 중국인 성직자로서 조선에 파견된 그

는 조선의 신생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였습니다. 그는 명도회라는 **평신도 단체를 조직**하여 교리를 익히고 복음을 전파하게 했고, **명도회의 초대 회장은 정약종(丁若鍾, 1760~1801년)**이었습니다. 그는 신자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순수한 **한글 교리서 「주교요지」(主教要旨)**를 저술하였습니다. 정약종은 **1801년의 박해 때에 순교**하였습니다. 주문모 신부의 전교 활동에 힘입어 입국 시 4000명의 신도가 1800년에는 신자수가 1만여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신자들은 주로 **경기와 충청도, 전라도 지방에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 주문모 신부가 전교 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된 조정에서는 그를 체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때에 주문모 신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했던 **윤유일(尹有一, 1760~1795년), 최인길(崔仁吉, 1764~1795년), 지황(池璜, 1766~1795년)과 같은 신자들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러나 강완숙 골롬바(姜完淑, 1760~1801년)를 비롯한 신자들의 보호로 주문모 신부는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 초기 교회는 조직적으로는 차츰 안정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최창현(崔昌顯, 1754~1801년)은 ‘총회장’으로 활동하면서 교회 조직과 발전에 초석**을 놓았으며, **강완숙과 윤점혜(尹占惠, 1776~1801년)는 천주교 신앙을 실천**하기 위한 **여성 결사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들은 당시 교회에서 ‘여회장’(女會長)으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충청도 지방에서 활동하던 **정산필(鄭山弼, ?~1801년)이나 ‘김승정’의 경우처럼 지방에서도 ‘회장’을 임명**하였습니다. 이 회장들은 주문모 신부가 교회 조직을 정비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임명하였습니다.

6. 신유교난(1801)

▣ 신자들은 대부분 정치적 특권이 없고 경제적으로 가난한 힘없는 민중들이었으며, 여성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비약적으로 발전하자 천주교를 **반왕조적(反王朝的) 종교로 규정**한 집권층에서는 천주교에 대한 일대 탄압을 단행했습니다. **이 박해의 배경은 시파와 벽파의 정치적 갈등**이었습니다. 벽파는 **사학 엄금 교서와 함께 오가작통법을 실시**하여 신도들을 색출, 고발하게 하였습니다. 1801년에 단행된 박해로 말미암아 **주문모 신부가 순교**하였으며, 교회의 지도자들이었던 **총회장 최창현과 명도회 회장 정약종**, 그리고 충청도와 전라도 신앙 공동체의 지도자 **이존창과 유항검이 이때 순교**하였으며, **강완숙, 이순이(李順伊)** 등과 같은 여성 신자들도 이때 순교

하였습니다. 또한 이 박해에서는 앞서 배교를 선언했던 **이승훈, 김건순(金建淳), 이희영(李喜英)**과 같은 인물들도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을 비롯하여 배교를 선언한 대부분의 신자들은 사형을 면하고 귀양을 떠나거나 방면되었습니다.

- ▣ 이때 **황사영(黃嗣永, 1775~1801년)** 백서 사건이 발생합니다. 초기 교회에서 중요한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인 황사영은 박해가 발생하자 이를 피하여 **제천**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북경의 주교에게 조선의 박해상황을 알리고 구원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려 하였습니다. 이 편지는 도중에 발각되어 체포되었습니다. 편지 내용에는 조선 왕조의 존재를 부인하고 외국 세력의 개입을 요청하는 강경한 말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때문에 조정은 천주교의 파급에 대해 더욱 긴장하게 되었으며 이로인해 황사영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 ▣ 1801년의 박해로 말미암아 교회는 큰 타격을 받았으나, 이 박해는 **천주교 신앙을 더욱 널리 전파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박해를 피해 각처로 흩어진 신자들은 피난처에서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형성해 나갔습니다. 경상도나 강원도로 이주한 내포 지방 신자들은 비밀리에 신앙을 실천하면서 그 지역에 천주교 신앙의 씨를 뿌렸습니다.

7. 조선교구 설정(1831)

- ▣ 박해가 끝난 이후 신자들은 **교회 재건을 위하여 온 힘을 쏟았습니다**. 당시 교회 재건에 힘쓴 신자들 가운데는 순교자 **정약종의 아들 정하상(丁夏祥, 1795~1839년)** 등이 있었습니다. 1801년의 박해 때 배교를 하고 귀양을 살던 **정약용도 1811년 이후 교회 재건 운동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주문모 신부 순교 후 33년 동안 목자 없는 교회 속에서 신자들은 성직자 영입 운동에 힘썼습니다**. 1816년 정약전의 아들 정하상은 유진길과 조신철의 도움을 받아 로마 교황청에 자신들의 사정을 호소하며 선교사 파견을 요청합니다.
- ▣ **1831년 9월 9일에 조선교구가 설정됨**으로써 우리나라 교회는 북경교구의 관할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발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선교구가 설정된 것은 조선인 신자들의 꾸준한 청원과 파리 외방 전교회의 응답에 따른 결과**였습니다. 조선인 신자들의 청원을 받은 로마 교황청에서는 조선에 교구를 설정하고자 했고, **파리 외방 전교회에 소속된 브뤼기에르 주교는 조선 선교를 자원**하였습니다. 그는 **조선교구 제1대 교구장**이 되어 조선에 입국하기 위

하여 많은 노력을 했으나 새로운 사목지를 눈앞에 두고 **중국 땅에서 병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뜻을 이은 파리 외방 전교회 선교사들이 **1835년 이후 조선에 입국**하였습니다. 조선에 입국한 이들은 신자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였으며 조선 교회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신자들의 숫자가 늘어 갔으며, 그들의 신앙도 깊이를 더하게 되었습니다.

8. 기해교난(1839)

▣ **안동 김씨에 이은 풍향 조씨의 세도권 쟁취는 천주교에 또 한 차례의 박해**를 가져왔습니다. 1839년 다시 박해를 일으키어 **앵베르(Imbert, 范世亨, 1796~1839년)** 주교를 비롯한 **모방과 샤스탕 신부, 유진길(劉進吉, 1791~1839년), 정하상, 조신철 등 많은 이들이 참수형과 옥사로 순교**했습니다. 이 탄압 때 정하상은 우의정 이지연에게 「상재상서」(上宰相書)를 지어 천주교 교리를 설명하고, 유학자들의 오해, 비난하고 있는 점들을 설명하며 천주교 신앙을 옹호하면서 최초로 호교론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3명의 프랑스 선교사들의 순교**는 조정의 천주교 탄압이 국내 문제에만 그치지 않고 **국제 문제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9. 김대건 신부의 활동과 병오박해(1845-1846)

▣ 조선에 들어온 파리 외방 전교회 선교사들은 조선인 성직자를 양성을 위하여 1836년 **김대건(金大建, 1821~1846년), 최양업(崔良業, 1821~1861년)** 등을 선발하여 **중국의 마카오에서 신학을 공부**하게 하였습니다. 김대건 신부는 1845년 **한국인 최초로 사제로 수품되어 국내에 돌아와 활동**하였습니다. 김대건 신부는 몇몇 신자와 함께 선교사를 맞이할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하고자 노력하다가 체포되어 **1846년에 순교**하였습니다. 그는 관리들의 신문에 태연하게 천주의 존재, 천지 만물의 창조, 영혼의 불멸 등에 대해 논리를 전개하여 취조 관리들을 감동 시켰습니다. 죽음에 임하면서도 **“천주를 위하여 나는 죽어 간다. 바야흐로 나를 통하여 영원한 삶이 시작된다.”** 고 하면서 순교하였습니다.

▣ 그의 순교를 전후하여 **프랑스 선교사들이 계속해서 조선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최양업도 사제가 되어 귀국**하였습니다. **최양업 신부**는 산간에 흩어져 있는 신자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에게 교리를 가르치고, 성사를 집전하면서 교우들의 용기를 북돋워 주었습니다. 또한 교리 내용을 쉽게 알려주기 위하여

「사향가」(思鄉歌)를 비롯한 천주교 가사를 지어 부르게 하였는데, 이러한 천주교 가사는 신자들의 묵상 자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선교 과정에서 과로로 병을 얻어 죽었습니다.**

10. 대원군과 병인박해(1866)

- ▣ 위정척사라는 미명하에 전개된 병인교난은 흥선 대원군의 정권 연장욕과 비타협적인 독단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 ▣ 1860년대 초의 교회는 거듭된 박해에도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에 고종의 후견인으로 정권을 장악한 흥선 대원군 이하응은 천주교가 성행하는 것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대원군은 정권을 장악한 직후 왕실을 중심으로 한 유교적 국가 체제를 한층 강화하고자 일련의 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그는 사상을 정비하여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고자 하였습니다. 그는 지방 유림들의 본거지인 서원을 철폐하기에 앞서, 이단으로 지목되던 천주교부터 없애고자 하였습니다.
- ▣ 대원군은 1866년부터 1874년 그가 물러날 때까지 천주교를 탄압하였습니다. 대원군 집권기에 천주교 박해가 심했던 기간은 **1866년 이후 3년** 동안이었습니다. 이 박해 과정에서 조선에서 선교하던 12명의 프랑스인 가운데 베르뇌(Berneux, 張敬一, 1814~1866년)주교, 다블뤼(Daveluy, 安, 1818~1866년)주교를 비롯하여 **아홉 명의 선교사가 순교**하였습니다. 이에 **1866년 프랑스 해군은 병인양요(丙寅洋擾)를 도발하여 강화도를 침략하고 약탈**을 감행하였습니다.
- ▣ 1868년에는 흥선 대원군의 생부(生父)인 **남연군(南延君) 묘를 파묘**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에는 박해를 피해서 **중국에 피신해 있던 페롱(Felon, 1827~1903년) 신부가 개입**되었습니다. 이 도굴 미수 사건의 여파로 천주교에 대한 탄압은 더욱 혹독하게 전개되어, **충청도 해미에서는 많은 신자들을 생매장 학살**하기까지 하였습니다.
- ▣ 1866년에 시작되어 3년여에 걸쳐 집중적으로 진행된 이 박해 과정에서 **남종삼(南鍾三, 1817~1866년), 홍봉주(洪鳳周, ?~1866년)** 등 많은 신자가 순교하였습니다. 또 제너럴 셔먼 호(號) 사건을 빌미로 삼아 1871년 **미국 해병대가 강화도를 침략**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신미양요(辛未洋擾)로 외세와 결탁된 것으로 간주되던 천주교는 또다시 탄압을 받았습니다.
-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회사에 기록된 **큰 박해로는 1801년의 신유박**

해(辛酉迫害), 1839년의 기해박해(己亥迫害), 1846년의 병오박해(丙午迫害), 1866년의 병인박해(丙寅迫害)를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100여 년동안 이어진 박해 과정에서 순교한 사람 가운데 오늘날 그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대략 1,800여 명에 이릅니다. 물론 이들 외에도 무명의 순교자들이 많았지만 조선 왕조의 천주교 박해과정에서 순교한 사람의 숫자가 얼마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 신앙생활

- ▣ 박해 시대 신앙의 핵심은 **유일신 하느님에 대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사회에서 절대적 존재였던 **왕권(王權)과 성리학적 윤리 규범의 권위에 도전**하였습니다. 그들은 국가의 부당한 명령보다는 하느님의 가르침과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천주교를 금하는 국법을 어긴 죄인이 되어 **“양반 사대부에게 벌을 받을 지언정 하느님께 죄짓기를 바라지 않는다.”**며 죽음의 길을 택하였습니다.
- ▣ 박해 시대의 신자들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존중되던 충효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사육신이나 심청이 처럼 죽을 수도 있음을 강조해 왔던 풍습을 발전시켜 그들은 **하느님을 대군대부로 섬기는 충효의 영성을 개발**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섬김의 생활을 통해서 사주구령(事主救靈: 주를 받들고 자신의 영혼을 구함)의 영성을 실천**하였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준비하는 **믿음살이와 살림살이를 통해서 종말론적 영성을 표현**하였습니다.
- ▣ 당시 집권층에서는 천주교를 **불충불효의 종교로 규정**했고, **무부무군(無父無君)이라 매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박해 시대의 천주교자들은 충효라는 전통적 가치를 하느님께 적용했고, **하느님의 충신이 되고 효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선비와 열녀가 되어서 하느님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조선의 **전통적 가치와 그리스도교 신앙을 창조적으로 조화**시켜 나갔습니다.
- ▣ 그들이 하느님을 섬기는 데에 실천한 충효는 **유교적 가치일 뿐 아니라 불교적·무교적(巫教的) 가치**이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조선 문화는 불교나 도교, 민간 신앙 등 여러 종교 문화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종교 문화 전통에서 논하는 **천당이나 지옥, 무소유나 해탈, 무위(無爲)나 해원(解冤)** 등의 개념은 초기 교회의 신자들이 자신의 교리를 이해하는 데에 배경적 사상이

로 작용하였습니다.

- ▣ 교회가 창설된 직후부터 조정에서는 천주교 신앙을 금지하였습니다. 따라서 초기 교회의 신도들은 조정의 탄압 속에서도 자신들의 신앙을 실천해 갔고 신심 생활을 계속해 갔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신앙의 실천과 신심 생활의 바탕이 되어 준 것은 **교회 서적이었습니다. 조선 교회는 창설 직후부터 일반 민중을 위하여 한글로 교리서를 번역**하였습니다. 교리서 번역에 가장 앞장선 인물은 **최창현(崔昌顯)**이었습니다. 원래 중인 출신인 그는 일반 신자들을 위하여 **한문 교리서를 한글로 번역**하는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 ▣ 당시 신자들에게 널리 읽힌 책으로는 「**성경직해광익**」(聖經直解廣益)을 들 수 있습니다. **일요일과 주요 축일 때에 읽는 성서**가 이 책에 간추려져 있었고, 여기에 부분으로 발췌되어 수록된 성경은 **4복음서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분량이었습니다. 당시 신자들은 이와 같이 **한글로 번역된 복음서를 읽고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 ▣ 또한 당시 교회에서는 「**성교일과**」(聖敎日課), 「**천주성교공과**」(天主聖敎功課)를 비롯한 여러 기도서가 번역되어 신자들에게 읽히고 있었습니다. 기도는 신자들에게 중요한 일과 가운데 하나였으며 영적 활동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아침저녁으로 기도를 드리도록 배웠으며, 교회 창설 초기부터 삼종경과 묵주의 기도를 바쳤습니다. 그들은 천주 십계를 기도처럼 외우며 날마다 자신의 생활을 점검하였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기도 생활은 성사의 은총을 받기 어려웠고 성직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드물던 당시 사회에서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지속시켜 주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 ▣ 또한 박해 시대의 교회에서는 「**성녀 아가타**」, 「**성녀 빅토리아**」와 같은 로마 시대 순교자들의 전기를 읽으며 신앙을 증언할 용기를 길렀으며, 「**성녀 데레사**」와 같은 성인전을 통하여 종교적 열정을 본받고자 자신을 불태우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의 수난을 묵상하며 예수 성심에 관한 깊은 신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 그들은 **윤지충을 비롯한 한국 순교자들의 기록을 소중히 간직하며 순교자들을 자신의 모범으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1801년에 순교한 **이순이 ‘누갈다’ (Lutgarda)의 애절한 편지를 필사하여 서로 돌려 보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초기 교회의 신자들은 **성모 신심, 예수 성심 신심, 순교자 신심** 등을 특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심은 박해의 고통을 이기게하여 주었으며,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순교자가 될 수 있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 신앙과 사회의식

- ▣ 신자들은 유일신이며 삼위일체적인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터득하고 실천하였습니다. 이들이 터득한 이와 같은 하느님의 존재는 조선의 사상계에 종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가르침이었습니다. 물론 선교의 초기에는 보유론적 관점에서 ‘천주’, 곧 하느님을 설명하며, 유교와 천주교의 조화로운 관계를 설정하려는 노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유론의 입장과는 전혀 다르게 천주교의 천주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신자들이 초기 교회부터 출현하고 있습니다.
- ▣ 교회 창설 당시의 신자들은 ‘창조주 천주’의 존재를 중심으로 하여 신관(神觀)을 인식하였습니다. 그들은 인간을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평등한 존재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창설 초기부터 신자들은 인간관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인간이 하느님의 모습에 따라 태어난 존귀한 존재라는 가르침에 감격하였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마음에 하느님께서 부여해주신 ‘마음법’ [良心法]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으며, 모든 사람은 ‘사람된 위(位)’, 곧 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느님 앞에 모든 이가 평등함을 행동으로 드러냈습니다.**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되면 그들은 서로가 한 형제로 뭉쳐 나아갔으며, 신앙 공동체 안에는 양반도 중인도 없었습니다. **양인이나 노비, 백정들도 양반과 함께 서로를 ‘신앙의 벗’ [教友]으로 부르며 평등하게 지냈습니다.** 남성과 여성, 남편과 아내가 상하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임을 알았고, 서로가 인간으로 존중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 1790년대에 영세 입교한 백정 출신 황일광(黃日光, 1756~1802년)은 입교 후 교우들한테 받은 평등한 대우에 감격하여, 자신은 지상 천국에 살고 있다고 고백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유군명’ 등과 같은 신자들은 천주교에서 ‘인간 평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해석하여 영세 직후 자신이 거느리던 노비들을 해방시켰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노비가 해방된 때는 1894년 갑오경장(甲午更張) 때인데 이보다 1백 년을 앞서 천주교 신앙은 노비를 해방시키는 힘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당시의 천주교 신앙은 ‘종교적 복음’ 입과 동시에 일종의 ‘사회적 복음’으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 복음에 대한 인식 때문에 1790년대 이후의 교회에서는 신

분이 낮은 민중들이 신자의 주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 ▣ 박해 시대의 신자들은 **교우촌을 형성하여 모듬살이를 시작**하였는데, 이는 1791년의 박해를 피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신자들이 모여 살게 됨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1801년의 박해 때에 **황사영이 피신했던 배론**의 경우에도 **내포의 신자들이 박해를 피해서 모여들면서 형성된 곳**입니다. 이것이 **교우촌의 초기 형태**로 배론 이외에 **전라도 차돌백이, 경상도 신나무골** 등은 **대표적 교우촌**입니다. 교우촌은 **회장의 지도 아래 생산과 소비를 공동으로 영위**하기도 하였습니다. 박해 시대 교우촌에서 재산을 공유하였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개항 직후 신앙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은 시기에 조선에 들어왔던 **한 프랑스 선교사**는 이 **교우촌을 사도 시대의 신앙 공동체에 비유**하였습니다.
- ▣ “신입 교우들의 협동심은 감탄스럽습니다. 그중에서 뛰어난 미덕은 그들 서로가 사랑과 정성을 베푸는 일입니다. 현세의 재물이 궁핍하지만, 사람이나 신분의 차별 없이 조금 있는 재물을 가지고도 서로 나누며 살아갑니다. 이 공소를 돌아보노라면 마치 제가 초대 교회에 와 있는 듯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때의 신도들은 자기의 전 재산을 사도들에게 바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청빈과 형제적인 애찬을 함께 나누는 것 외에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이곳의 예비자들도 선배 형제들의 표양을 본받고 있습니다.” (1889. 4. 22. 보두네 신부의 편지).
- ▣ 신자들은 박해 때에도 **어려운 이웃과 부모 잃은 어린이를 힘써 돌보았**습니다. 또한 죽을 위험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힘써 대세(代洗)를 주어 그들의 영혼을 구제**하고자 하였습니다. 1852년 이래 **성영회(聖營會)**를 조직하여 **고아들을 위탁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선의 중요함을 터득한 조건 없는 사랑의 실천자였습니다. 초기의 신자들이 **천주교 신앙을 갖게 된 배경**에는 이와 같은 사회적 특성도 작용하였습니다.

* 박해의 원인

1. 성리학의 교조성

- ▣ 조선 왕조는 유교의 한 갈래인 성리학을 받들던 사회입니다. 당시 **성리학은 정치사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구실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성리학적 사상의 순수성을 수호하는 것은 집권층의 주요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던 당시에는 성리학이 여러 방면에 걸쳐 도전을 받고 있었

습니다. 이는 집권층의 정치사상과 통치 능력이 부인되고 있다는 말도 되는데, 당시 집권층은 이런 현상에 위기감을 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에 천주교 신앙이 들어오면서 성리학에서 주장하는 각종 사회 원리를 부인하고 새로운 가르침을 펴 나가고 있었습니다.

- ▣ 천주교에서는 성리학에서 강조하는 양반의 신분적 특권을 부인하였으며, 당시 사회 풍습과는 달리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천주교는 성리학에서 강조하는 조상에 대한 제사마저 일종의 미신 행위로 간주하며 조상 제사의 가치를 전면 부정하였습니다. 이는 조상 제사로 상징되던 일체의 구제도에 대한 거부이기도 하여, 당시의 집권자들은 천주교가 성행하면 양반들이 존중하는 유교가 무너지고, 양반의 권위도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당시의 집권층에서는 전통 가치를 보존하고 양반의 정치적 권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천주교를 박해하게 되었습니다.

2. 가족 질서의 문제

- ▣ 신자들은 하느님을 왕보다 더 높임으로써 가장 높은 존재로 여기던 왕의 지위를 하느님 아래에 놓았습니다. 그들은 양심법이 양반 사대부의 법보다 더 존귀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집권층은 천주교인들이 왕과 양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교회에 대한 박해를 강화하였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는 남녀 7세 부동석, 부부유별, 내외, 여필종부 등이 강조 되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회에서는 모든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 여성도 남성과 다름없는 인격체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성리학적 가치 체계에서 강조되던 수직적 관계를 수평적인 관계로 전환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당시 교회에서는 과부의 재혼을 부당하다고 보지 않고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며, 결혼에 있어서도 당사자의 의사에 반대되는 강제 혼인을 금지하였습니다. 이 같은 천주교도들의 행동 양식은 곧 전통 질서의 파괴로 인식되었습니다.

3. 불완전한 사회- 당파 싸움의 제물

- ▣ 당시의 정치적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 되는 가운데 천주교가 희생이 되었습니다. 정권의 쟁탈 및 정권의 연장을 위한 투쟁이 박해의 배경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패한 관리들은 교회 탄압을 가중시키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니, 이들은 천주교인들을 체포한 뒤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여 자신의

소유로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정의 정식 명령을 받지 않고서도 관리들은 천주교인들에게 사사로이 박해를 가하였습니다.** 또한 박해시대 신자들은 **집안의 형제 친척과 이웃들한테서도 박해를** 당하였습니다. 당시 신자들은 **일종의 정치범이며 사회 풍속을 혼란시킨 풍속 사범, 이질적인 사상을 가진 사상범으로 처벌**되었습니다. **연좌제 적용**을 받고 있던 당시 사람들은 자신의 주변에 천주교를 믿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를 심하게 탄압함으로써 자신과 가문을 지키려고 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천주교 박해는 조선왕조의 독특한 정치 문화와 가족 제도 때문에 더욱 심화**되어 갔습니다.

- ▣ 박해가 진행되자 신자들은 관원의 눈을 피해서 깊은 산속으로 피신하여 신앙 공동체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부패한 관리의 탄압에 견디지 못한 많은 사람이 고향을 떠나 산속으로 피신하였는데, 이들은 틈을타서 민중 봉기를 일으키기도 했으며 때로는 도적이 되어 관리들과 토호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박해를 피하려고 숨어 사는 천주교 신자들도 이들과처럼 비밀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비쳤으며, 관리들은 천주교 신자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민중 봉기에 동조할 것을 우려**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집권층에서는 천주교 신자들을 도둑 떼와 같이 여겨 천주교를 탄압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불안정한 사회상은 천주교에 대한 탄압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주고 있었습니다.

4. 조상 제사의 문제

- ▣ 당시 교회에도 일부 책임이 있습니다. 동양에 천주교가 선교되던 초기와는 달리, 교회는 **18세기에 들어와서 동양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 너무도 인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동양의 미풍양속에 속하는 조상 제사마저 미신으로 여겼습니다. 교회 당국의 이와 같은 생각은 동양의 기존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부정으로까지 해석되었으며, 이에 대한 반발이 천주교 박해라는 형식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회는 **1930년대에 이르러 조상 제사에 관한 문제를 다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조상 제사가 지닌 부모에 대한 효성만을 올바로 평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의 천주교인들은 조상 제사를 떳떳이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시성식

▣ 1984년 5월 6일은 한국 교회에 매우 영광스러운 날이었습니다.

한국 순교 성인 103명이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의 성인으로 선포되는 날입니다. 1839년의 박해와 1846년의 박해 때에 순교한 김대건 신부 이하 79명은 1925년 로마에서 복자로 선포되었습니다. 또한 1866년의 박해때에 순교한 이들 가운데 24명도 1968년 로마에서 시복되었습니다. 이들 **103명의 복자들은 1984년에 성인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이로써 세계 교회는 103명으로 대표되는 수많은 한국 순교자를 확실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1대 교황 성 베드로 사도를 잇는 **264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한국 순교자들 중 103명을 성인품에 올리는 시성식**이 거행되었습니다.

16

103위 순교성인

▣ 진행자 ◎ 함께

- ☞ 분위기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 기도 상을 차려놓고 초를 켜놓는다.
- ☞ 사람들이 모이면 따뜻한 환대와 인사한 후 성호경으로 시작을 한다.
- ☞ 준비물- 책: 이기정 지음, 「새 영세자를 위한 신앙생활 길잡이」, 2006년, 성바오로 기도상, 초, 십자가, 성경 (사도 7,54-60),
- ☞ 도입은 10분으로 한다.
- ☞ 참고서적: 가톨릭 교리 신학원, 「초대받은 당신」, 가톨릭 출판사
김웅태 신부, 「현대 성인 구도자들을 위한 가톨릭 교리」, 도서출판 만남
「함께하는 여정」, 통합사목연구소
김지영 신부, 「PD 하느님 DJ 예수님」, 바오로딸
김영장 신부, 논문 「자신보다 하느님을 더 사랑한 사람들-103위 성인들을 중심으로-」, 수원가톨릭대학교
구중서외7명 「한국천주교회가 낳은 103위 순교성인들의 생애」, 성 황석두 루카서원

도입

- ▣ 성호경
- ▣ 주님, 저희를 부르시는 당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한 분씩 주님을 초대해 주십시오.
- ☞ 각 사람이 돌아가면서 초대의 기도를 드린다. 기도의 화답은 아멘으로 한다.
처음에는 진행자가 먼저 모범을 보이는 것도 좋을 것 같음.
예) 오소서 성령님!..... 오늘 모든 일정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 아멘.
주님! _____ ◎ 아멘.
예수님! _____ ◎ 아멘.
- ☞ 기도가 끝나면 성경을 읽는다. 진행자는 성경구절을 미리 찾아놓는다.
- ☞ 함께하는 여정 제 21과 참조

- ▣ 어느 분이 사도 7,54-60를 큰 소리로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 ▣ 성경 말씀 중에서 단어나 짧은 구절을 선택하여 기도하듯이 세 번씩 읽어 주십시오. 읽는 사이사이(약5초 간격)에 묵상을 위해 잠시 **침묵**을 지켜 주십시오.
 - ☞ 같은 구절을 세 번 외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침묵을 지킨다.
- ▣ 어느 분이 성경 본문을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 ☞ 참석자 모두가 함께 성경 본문을 읽을 수도 있다.
- ▣ 2분 동안 침묵을 지키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 ☞ 진행자는 시계를 보면서 시간을 잔다. 침묵 시간이 너무 짧거나 길지 않도록 주의 한다.
- ▣ 개인적으로 마음에 와 닿은 단어나 짧은 구절을 통해 자신의 마음속에 들려온 말씀을 자신의 생활과 연결시켜 함께 나눕시다.
 - ☞ 진행자는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이 어떻게 자신에게 와 닿았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느낌을 서로 나누도록 제안 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본문을 해설하더라도 토론하지 않도록 한다.
 - ☞ 한 사람의 이야기가 끝나면 “잘 들었습니다.” 혹은 “감사합니다.” 등 공동체가 **화답**을 해준다.

전 개

☞ 전개는 30분.

- ▣ **한국 가톨릭**은 선교사들에 의해 가톨릭이 전파된게 아니라 천주교 책자를 통해서 전파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이 거의 없었던 상황에서 교리나 성사생활이 거의 불가능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이 순교를 하게 된 점은 놀라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 ▣ 또한 성인들의 삶을 살펴볼 때, 순교자들은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혹독한 시련이 뒤따른다는 것을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 인간으로서 자신들의 나약함을 익히 잘 알고 있었기에, 하느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느님의 섭리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또 그들은 스승 예수를 닮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마태 16,24) 예수님께서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먼발치로나마 따라가려고 하였습니다. 고문과 형벌 중에서, 또 혹독한 감옥생활 중에서 끊임없이 예수의 십자가와 수난을 묵상하는 가운데, 또 “예수, 마리아!”를 부르는 가운데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현존하심을 체험하였습니다. **“예수, 마리아!”** 하고 바치는 이 **짧막한 기도는 한국 교회 초기 때부터 신앙의 선조들이 즐겨 바쳤던 화살기도**입니다. 순교자들은 박해 중에 형조에서 고문을 받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용기와 힘을 얻으며 고통을 극복하기 위하여, 이 화살기도를 자주 바쳤습니다. 이처럼 순교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공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도기 바오로는 “만일 내가 나약한 대로 버려진다면 굳세게 있을 수가 없겠지마는, 예수 마리아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니 아무 것도 무섭지 않소”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 ▣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느님 나라에 받아들여졌다는 확신! 이러한 체험은 대단한 힘을 지닌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교사회는 가족이나, 가문을 중요시한 사회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느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커다란 것이었으며, 죽음에 이르는 참혹한 박해의 어려움들을 극복해 낼 수 있었고, 더 나아가 하느님의 사랑에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순교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하느님의 자녀라는 깊은 체험, 하느님 나라에 받아들여졌다는 확신은 죽음도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 ▣ 103위 순교 성인 모두 훌륭한 믿음을 보여 주신 분들이지만 한분 한분을 다알기에는 시간이 적기에 순교자들의 믿음과 생활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나 다른 사람들의 편지나 증언을 통해서 순교 성인들의 삶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 ☞ 진행자는 유인물을 나누어 준다.
 - ☞ 진행자는 유인물을 보면서 설명만 하기보다는 대상자 스스로 읽고 요약하면서 서로 나누는 방법을 사용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 질 것 같으면 전체 흐름과 우리 신앙선조들의 신앙에 대해 언급한 후 마무리를 지어도 좋습니다.

종합 심화

- ☞ 종합 심화는 5분
- ▣ 이 세상에 태어나고 죽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섭리에 속하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은 하느님의 섭리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시고 인간을 위해서 당신 자신을 죽음에 붙이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순교를 더 없는 영광이요 기쁨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죽음에 이르는 순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에 순교자들은 순교를 하느님의 큰 은총이며 초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고문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그 고통에서 탈피하기보다는 오히려 순교를 통한 하느님의 부르심이 있기를 고대하였습니다. 하느님을 고백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순교의 영광을 누렸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최경환 성인은 순교를 간절히 원하였지만 옥사를 하게 되었어도 이를 하느님의 뜻으로 순수히 받아들였습니다.
- ▣ 순교자들은 순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생활하였습니다. **유중철 이순이 부부와 이윤일 요한은 ‘용기는 기도에서 얻은 것’ 이었으며 “항상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고 고백하였습니다. 순교자들은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고문에 의해서 초죽음이 되었다가도 다시 힘을 회복하면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은 기도가 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옥에서도, 처형장으로 가면서도, 처형장에서조차도 “항상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 ▣ 신앙의 선조들의 삶을 보면 박해를 피해 이곳저곳으로 이사를 자주 다녀야만 하였습니다.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는 산골 교우촌에서 살았기에 경제적으로 무척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주위 사람들과 포졸들에게 약탈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은 없는 가운데에서도 자신들보다 더 가난한 이웃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 ▣ 또한 배교자인 전지수에게 감옥 생활 중에도 먹을 것을 주고 옷까지 주는 등 자신들을 고발한 원수에게까지 사랑을 베푸는 것을 보면 당시 신자들은 하느님께 대한 사랑 못지않게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을 대단히 중요시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 오늘날 우리들 또한 하느님을 온 마음과 정신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열정적으로 사셨던 우리 선조들이 계심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그 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아멘.

마무리 및 실천사항

☞ 진행자는 실천사항을 실천하도록 과제를 내준다.

▣ 이번 주간의 실천사항:

1. 순교자들을 위한 기도드리기

▣ 자유기도를 바치면서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도가 끝나면 “아멘.” 하고 응답합니다.

주님! _____ ◎ 아멘.

예수님! _____ ◎ 아멘.

진행자는 모든 기도가 끝나면....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 진행자는 자유기도가 끝나면 성가를 부른다.

▣ 마침 성가는 _____ 번입니다.

103위 순교성인

* 대군대부(大君大父)이신 하느님

신앙의 선조들은 감영이나 포청에서 취조를 당하던 중에 하느님은 천지의 창조주이므로 가장 높은 임금(大君)이며, 인류의 아버지이므로 가장 높은 아버지라는 뜻으로 “대군대부” (大君大父)이시라고 신앙고백 한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신자들은 하느님에 대한 이와 비슷한 용어로서 “만물의 대부” (大父), “만인의 아버지” (公父), “대부모” (大父母)라는 표현도 함께 사용하였습니다. 이 단어들은 신앙의 선조들의 신앙고백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중요한 단어입니다. 취조과정에서 나온 몇 가지 사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윤지충 바오로(1759-1791)

한국에서 두 번째로 박해를 당한 윤지충 바오로가 1791년 감영에 불려나가 포도 대장의 신문에 대해 고백한 내용입니다.

“어찌하여 미신에 빠지는 거냐.”

“저는 결코 미신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 천주교라는 종교가 미신이 아니란 말이나.”

“천주는 가장 높으신 아버지시오, 하늘과 땅과 천신과 사람과 만물의 창조주이신데, 그분을 섬기는 것을 미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천주를 내 아버지로 일단 알아본 뒤에는, 그 분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 정약중(1760-1801)은 문초를 받으면서

“천주님을 높이 받들고 섬기는 일은 옳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 천주님은 천지의 큰 임금이요 큰 아버지(大君大父)입니다. 천주님을 섬기는 도리를 알지 못한다면, 이는 천지의 죄인이며, 살아 있어도 죽은 것과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정약중은 大君大父에게 ‘대효’ (大孝)를 드러내기 위해 형장에서 “땅을 내려다보면서 죽는 것보다 하늘을 쳐다보며 죽는 것이 낫다” 며 하늘을 보면서 목에 칼을 맞고 순교하였습니다.

▣ 김광옥 안드레아(?-1801)는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습니다.

“사또의 모든 언약도 모든 위협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시는 제게 물어보지 마십시오. 총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烈女는 두 지아비를 따르지 않습니다. 사또께서는 임금님의 명령을 어길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또는 감히 임금님을 배반하시겠습니까. 저도 천주의 명령을 거역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제 大君大父를 배반할 수 없습니다. 만 번 안 됩니다.”

■ **성 최경환 프란치스코(1805-1839)**

배교를 강요하는 재판관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나더러 먹지 않고 살라고 하시면 비록 대단히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천주를 배반한다는 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도 자기가 섬기는 주인과 대감을 배반할 수 없거늘 하물며 천지와 만물의 대군 대주를 어떻게 배반하라 하십니까? 나는 결단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 **성 이문우 요한(1809-1840)**의 대답은 이러했다.

“삶을 사랑하고 죽음을 두려워함은 인지상정이거늘 어찌 즐거운 마음으로 죽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국법에 복종하려면 우리의 대군 대부시요, 하늘과 땅과 천사와 사람과 만물을 만드신 무상의 창조주를 배반해야 할 것이니 죽어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순교하기 몇새 전에 쓴 옥중서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예수의 오상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천주께 사랑을 사랑으로 갚고 목숨을 목숨으로 갚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하더라도 여러분의 본분을 온전히 다 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오주께서는 온전히 당신 자의로 우리 죄를 위해 천 가지 괴로움과 만 가지 근심을 참아 받으셨으니 어떻게 이 은혜를 갚을 길이 있겠습니까?” “선달 열흘날 재판관은 나를 불러내 보통 이상으로 곤장을 때리게 했습니다. 내 힘 만으로야 어떻게 그것을 견딜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천주의 도우심에 힘입고, 성모 마리아와 천사, 성인과 우리 모든 순교자의 전달하심에 힘입어 거의 괴로운 줄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는 도저히 갚을 길이 없으며 따라서 내 목숨을 바쳐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 행동은 이렇게도 규율이 없고 내 힘은 이다지도 약하므로 나는 부끄럽고 두려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 또한 성녀 이영희 막달레나, 성녀 이매임 데레사, 성녀 김성임 마르타, 성녀 김 루치아 등 여교우 네 명과 성녀 김 루치아, 성녀 전경협 아가타, 성녀 김효주 아네스, 이경천 요한 등이 한 신앙고백에서도 대군대부에 관

한 증언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 **성 이광헌 아우구스티노(1787-1839)**

1839년 기해박해 초 어떤 예비 교우가 체포된 자기 아내를 석방시키는 조건으로 이광헌을 포함한 53명의 교우 명단을 포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광헌은 4월 7일 전 가족과 함께 체포되어 포청으로 끌려갔습니다. 형조는 이광헌에게 배교하면 가족들과 함께 석방시켜 주겠다고 유혹하였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너와 처자와 동생을 모두 놓아주고 재산도 도로 찾게 해주마.” 그러나 이광헌은 다음과 같이 확고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중히 여기는 것이 제 종교니 차라리 모든 것을 잃을지언정 천주교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너는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구나. 그러나 아내와 아이들이 불쌍하지 않느냐?” “저는 아내와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마음 약한 표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 **성 박후재 요한(1799-1839)**

재판관이 에게 물었다. “국왕이 이 교를 금하시니 너는 그 금령을 어긴 것이다.” “천주는 저의 창조주시고 당신을 사랑하기를 명하십니다. 저는 국왕께 보다는 천주께 더 복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 “살고 싶거든 네 교를 배반해라.” “제 교는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니 배교하느니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순교자들은 순교는 하느님의 부르심이며, 고통도 은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고통에 털끝만큼이나마 동참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순교로의 초대를 통해서 하느님의 은혜에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하려고 하였습니다. 순교자 박종원은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며, 하느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나도 하느님을 위해 괴로움을 받고 죽는 것이 마땅하다 고 말하였습니다.

■ **성녀 정정혜 엘리사벳(1797-1839)**

“천주와 성모의 특별한 안배로 나같이 가난하고 하찮은 것이 오늘까지 무사히 살아 온 것은 오주 예수의 수고하심의 만분의 일 가닥이라도 이해하게 하시려 함이니 적어도 즐거운 마음으로 내 괴로움을 참아 받아야 한다.”

■ **김대권 베드로(?-1839)**

고문을 당하는 중에도 전과 다름없이 깨끗한 의지와 평온한 기색을 잃지 않고, 주(主)의 이름을 끊임없이 부르며 말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의 은혜를 다만 머리털 한 가닥만큼이라도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 **성 박종원 아우구스티노(1792-1840)**

교우와 외교인들을 가르치고 격려하면서 이웃에게 늘 이렇게 말하였다. “그는 가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말하였다. 우리 주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셨으니, 불쌍한 죄인인 나도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괴로움을 당하고 죽으셨으니, 나도 그분을 위하여 괴로움을 받고 죽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순교하고 싶은 욕망이 그의 마음에 불길같이 일어났다.

■ **성녀 고순이 바르바라(1798-1839)**

남편 박종원 아우구스티노(1792-1840)가 체포되어 갔을 때 남편과 괴로움을 같이 당하기 위해 포청에 자수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박해자들은 바로 이튿날인 10월 27일에 그녀를 체포하였다. “이러한 은혜를 어떻게 갚을꼬? 나는 천주를 위해 치명함으로써 그분께 감사하련다.” 이 부부는 옥에서 만나 자기네 처지를 서로 축하하며 끝까지 서로 격려했다.

■ **성 권득인 베드로(1805-1839)**

백절불굴의 용기를 드러냈다. “어찌하여 천주교를 믿느냐?” 포장이 물었다. “천주는 천사와 사람과 만물의 왕이시요,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며 이 모든 물건을 사용하고 천주께 무한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 천주께 감사할 생각을 두지 않는 것이 어찌 옳은 일이라 하겠습니까? 따라서 사람은 누구나 다 천주를 공경하고 섬길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성이 난 포장은 혹독하게 매질을 하라고 명령하였다.

■ 순교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분의 십자가의 고통에 동참하려고 하였던 부분을 여러 곳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순교의 중요성을 깨우치게 한 노래인 <옥중제성가>(獄中提醒歌)**의 일부분입니다. 저자는 1840년 순교한 **성 이문우 요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세속괴롭 어떠하냐	지옥고통 그림자라
예수수난 생각하면	만분지일 다뭇되네...
열심사주(事主) 예비하여	엄형고초 달게받소
예수고상 성교도리	많이많이 생각하소

죽기까지 매맞아도 오천사백 다못맞네
 전능천주 대부모를 한사(限死)하고 공경하소.
 이런 때는 열심신공 많을수록 힘이나네
 성경도리 못들으면 냉담하기 쉬우리라…
 보배세월 허송말고 좋은기회 잃지말게
 수고없이 복을받나 예수고상 본을받소.
 군난중에 더욱열심 주모인자 사랑하리
 열심열심 열심하면 성신은총 도우시리…”

■ 그는 혹독한 고통을 받았고 순교에 이른 만큼 이 가사의 내용은 그의 장렬한 신앙 고백이기도 하며, **마음이 약해져 가는 자신과 다른 교우들을 각성시키고자 부른 노래입니다.** 그는 여기에서 자신의 고통을 예수의 수난과 비교해 보면 만분의 일도 안 될 정도로 미미하며, 아무리 매를 맞아도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맞으신 오천사백 대 만큼은 맞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예수의 고통을 생각하며 견디어 내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 **성녀 박희순 루치아(1801-1839)**

형조에서 재판관들 앞에 세 번 출두해 그 때마다 곤장 30도씩 도합 90대를 맞았다. 그리하여 **한 쪽 다리뼈가 부러져서 골수가 나오는 것을 머리채로 닦아 내며 말했다. “이제야 오주 예수와 성모 마리아의 괴로움이 어떠했는지를 조금 깨닫게 되었다.”**

■ **성녀 박아기 안나(1783-1839)**

19세에 교우인 태문행(프란치스코)과 혼인하여 2남 3녀를 낳아 신덕으로 자식을 가르치며 열심히 양육하였다. 집이 부유한편은 아니지만 세상 재물을 탐내는 마음이 적어 오직 착하고 바르게 살기에만 힘썼다. 특히 안나 성녀는 **우리 주 예수의 수난에 대하여 특별한 신심을 가지고 있어 구세주의 오상을 생각하며 자주 눈물을 흘리곤 하였다. 기억력이 둔해서 교리 문답(敎理問答)과 경문을 배우기가 매우 힘들었다. 그러나 “나는 천주를 내가 원하는 대로 알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마음껏 사랑하기로 힘을 쓰겠다”** 고 말하면서 스스로 위로했다. 박해가 일어났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녀의 눈은 빛났고 순교하기를 열렬히 원하는 빛이 얼굴에 가득했다. 그녀는 남편과 맏아들과 함께 체포되었다. 그러나 남편과 맏아들은 포청의 혹독한 형벌과 고문에 못 이기어 배교하였다. 그렇지만 그녀는 곳곳이 신앙을 증거하여, 다리뼈가 허영게 드러나고 몸에 쇠눈만큼씩이나 구멍이 나도록 혹독한 매를 맞아야 했다. 그러

나 살을 가르고 뼈를 깎는 이 육체적 고통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은 함께 붙잡혔다 배교하여 석방된 남편 프란치스코와 맏아들이 날마다 찾아와 그녀에게 배교하기를 호소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이 무서운 유혹을 용감히 물리쳤다. 그녀는 마음으로는 끝없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배교를 호소하는 남편과 자녀들과의 육친의 정을 매정히 일축했을 뿐 아니라 도리어 그들에게 배교한 자신의 행위를 뉘우치라고 타이르기까지 했다. “아니, 며칠 더 살아 보려고 영원한 죽음을 당한 위험을 무릅쓴단 말이에요. 나보고 배교하라고 권하기는 커녕 끝까지 항구하라고 격려해야 되지 않겠어요? 당신들이야말로 어서 천주께 회두하십시오. 그리고 내 행복을 부러워하십시오.” 라고 말하였다. “나의 남편과 아들이 배교한 것은 그들의 일입니다. 제 남편과 아들이 배교한 것이 제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신앙을 보존하고 신앙을 위하여 죽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비록 살이 떨어지고 뼈가 드러났을지라도 그녀는 무릎을 꿇고 기도드리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녀가 배교하지 않을 것을 안 포장은 결국 안나를 형조로 보냈다. 안나는 형조에서도 갖은 고문을 받으며 고통을 견디어내야했다. 그녀는 3년이라는 길고 괴로운 옥중생활 끝에 1839년 5월 10일, 형조로부터 ‘사학의 책을 읽고, 사악한 그림을 모셨다’ 는 죄목으로 사형의 판결을 받고, 5월 24일에는 마침내 그녀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져 서소문 밖에서 참수 치명을 입게 되니, 그녀의 나이 57세였다.

■ 성녀 한아기 바르바라(1792-1839)

그녀는 어려서 교우인 어머니에게 교리를 배웠으나 성장하면서 세속의 일에 마음이 빠져 어머니의 모범과 권면을 무시하고 외교인과 결혼했다. 그러나 우연히 친정에서 만난 김업이(막달레나)로부터 교리를 다시 배우게 되었고, 30세에 남편과 세 자녀를 모두 여의고 친정으로 돌아와 신앙생활에 전념했다. 그러던 중 1836년 10월 김아기(아가다), 김업이(막달레나)등과 함께 **천주교 서적을 숨긴 죄로 체포**되었다. 포청과 형조에서 혹형과 고문을 당하면서도 형관에게 **천주십계를 강론하고 의연히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형집행의 유예로 3년을 옥살이한 후 1839년 5월 24일 7명 의 교우와 함께 서소문 밖 형장에서 **참수형을 받아 순교**했다. 그때 나이 48세였다.

* 잔혹한 형벌 - 순교자들의 신앙고백

곤장이나 태장 등 매를 얼마나 맞으면 살이 터지고 흐트러지기 시작할까? 곤장(치도곤)에 대하여 **달레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이 곤장은 길이가 너댓 자(120-150cm), 너비가 예닐곱 치(18-21cm), 두께가 한치 가웃(5cm) 이고, 한 쪽 끝은 다듬어서 손잡이로 만들었다. 몇 대만 때리면 피가 솟아오르고 살점이 떨어져 산산이 나르며, 열두어 대 때리면 곤장은 드러난 뼈에 부딪쳐 울린다. 단 한 차례의 신문에서 곤장을 60대 까지 맞은 천주교인들이 여럿 있다.” 사람에게 따라 다르겠지만 곤장 대 여섯 대에 살이 떨어져 나가고 열두어 대를 맞으면 벌써 뼈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실제로 순교자들은 법에 정해진 매 60대만 맞은 것은 아니었다.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매를 맞았다. 또한 압슬(壓膝), 불에 단 쇠로 몸을 지지는 단근질, 장딴지 위쪽 뼈를 통그러지게 하는 등의 고문은 이미 1776년 영종 때 금지 되었지만, 그러나 1839년 기해박해 때에는 천주교인들에게 사용되었다.

<한국 순교자 103위전>에 기록된 103위 한국 성인들 가운데 곤장, 태장 등 매를 맞으신 많은 순교자들은 형조와 포청에서 여러 번 잔혹한 형벌과 잔인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성 정국보 프로타시오(1799-1839)는 기록된 숫자상으로는 “곤장 25도를 맞아 거의 죽게 되어 옥으로 돌아온 지 몇 시간 후에 숨을 거두었다.” 고 기록 되어있다. 그러나 그는 그 이전에 형조에서 혹독한 형벌을 받은 후 배교를 하였으나 곧 뉘우치고 자수를 하였다. 따라서 그는 곤장 25도만 맞고 죽은 것이 아니라, 이전에 형조에서 받은 잔혹한 형벌과 고문의 영향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놀라운 것은 이 아가타, 정정혜 엘리사벳, 또 79세로 나이가 가장 많았던 유소사 체칠리아는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혹독한 매를 맞았다.

- ▣ 103위 성인들 가운데는 **성 정국보 프로다시오, 성 유정를 베드로, 성 조윤호 요셉 세분**은 장사(杖死), 즉 포청옥에서 매를 맞아 순교하신 분들이십니다. 또한 옥에서 순교하신 분들은 **성 최경환 프란치스코**를 비롯하여 모두 9분은 매의 여독과 힘든 옥중 생활 때문에 옥사(獄死)하셨습니다.
- ▣ **달레**는 천주교 신자들이 받는 고문이 어느 정도로 심했는지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종교사건으로 투옥된 천주교인인 경우에는, 재판관들이 지나치게 맹렬해져서 몸이 오싹해지는 갖은 야만적인 짓을 생각해낸다. 신문을 받고 이런 고문을 당한 뒤에는 수형자가 다리를 질질 끌면서라도 걸을 수 있는 일이 드물고, 집행인들이 몽둥이 두개 위에 그를 얹어 가지고 팔다리가

축 늘어진 수형자를 감방으로 운반한다.”

■ **성녀 정정혜 엘리사벳(1797-1839)**

1839년 7월 11일에 어머니 유소사 세실리아(1761-1839)와 오라비 정하상과 같이 체포되었다. 두 모녀는 정하상의 출처를 밝혀내려는 형리들에 의하여 더욱 혹독한 고문을 당하였다. 형리는 그녀의 저항을 꺾으려고 극도로 잔학 무도한 형벌을 가했으니 그녀는 문초당할 때마다 곤장을 맞아 일곱 번 문초에 도합 320도를 맞아 결국 옥사(獄死)하셨다. 그러나 그녀는 이렇게 대답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천주와 성모의 특별한 안배로 나같이 가난하고 하찮은 것이 오늘까지 무사히 살아 온 것은 오주 예수의 수고하심의 만분의 일 가닥이라도 이해하게 하시려 함이니 적어도 즐거운 마음으로 내 괴로움을 참아 받아야 한다.”** 11월 7일에 형조로 이송되어 여섯 차례나 법정에서 출두해 문초를 당하고 곤장을 세 차례나 맞았으나 그녀는 안색조차 변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그녀가 무감각한 것을 이상히 생각해 그 연유를 물으니 이렇게 대답했다. **“천주의 특별한 은혜로 장하(校下)의 죽음을 면했습니다. 그래서 구세주께서 받으신 괴로움이 얼마나 컸던가를 다소간 깨달았다.”**

■ **성녀 조증이 바르바라(1782-1839)**

7월에 체포되었는데 포장이 남편의 잠복소를 대고 배교하라고 했으나 단언 거절하였다. **“만 번 죽어도 나의 천주를 배반할 수 없고 또 내 남편이 어디 숨어 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몇 주일 동안에 조증이는 다섯 번이나 같은 문초를 당했다. **“죽든지 그렇지 않으면 네 교를 배반하고 교우들을 대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해야 할 터이니 잘 생각해 보아라.”** **“잘 생각해 보았습니다. 차라리 만 번 죽을지언정 죄를 하나라도 범할 수는 없습니다.”** 하느님께 대한 충성과 비밀을 지킨 것 때문에 그녀는 주뢰를 틀리고 곤장을 180도나 맞았으며 형조로 이송된 후에도 세 차례나 곤장을 맞았다.

■ **성 임치백 요셉(1804-1846)**

형벌을 받고 주뢰를 당했다. 그리고 형리는 임치백이 신음소리를 한두 마디 내는 것을 보고 말했다. **“다만 한두 마디라도 소리를 내면 배교한 것으로 여기겠다.”** 이에 임치백은 신음소리를 그쳤다. 자세히 보니 까무러친 것 같았으므로 밖으로 끌어냈다. 옥으로 돌아와서는 그는 마치 유쾌히 산보하고 돌아온 것같이 웃으며 말했다. **“나는 형벌을 당했는지 모르리만큼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태연하게 땅바닥에 드러누웠다.

■ **성 이호영 베드로(1803-1838)**

“만일 네가 말로 천주를 배반하기 싫거든 커다란 글자 하나를 써 줄 터이니 거기에다 점 하나만 찍든지 침을 뱉든지 하라. 그러면 그것을 배교하는 표로 인정하고 너를 놓아주겠다.” “만 번 죽어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재판관이 말했다. “조금이라도 신음한다면 그것을 배교하는 것으로 인정하겠다.” 이호영의 살점이 헤어져 떨어지고 뼈가 드러나고 팔이 부러질 때까지 매질을 계속했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신음도 하지 않았다.

■ **성 허협 바오로(1795-1840)**

주뢰를 틀리고 치도곤 70도를 맞는 혹형을 당하고 배교하였다. 그러나 곧 뉘우치고 그 즉시 재판관을 찾아가서 배교를 취소한다고 말하였다. 옥쇄장들이 그를 괴롭히며 말했다. “말로 취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니 네가 뉘우친다는 표를 우리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그리고 대소변이 가득한 통을 가리키며 말했다. “네가 참으로 뉘우친다면 여기 사발이 있으니 저 통에 있는 걸 퍼서 먹고 마셔라.” 허협은 서슴없이 그것을 한 사발 듬뿍 퍼서 단숨에 삼켜 버리고 다시 뜨려고 하니 옥쇄장들이 소리를 질렀다. “그만뉘라, 그만뉘. 그렇지만 여기 십자가가 있으니 네 교를 배반하기 싫거든 십자가 앞에 엎드려라.” 허협은 꿇어서 이마를 땅에 조아리며 잠시 배반했던 예수를 온 마음으로 경배하였다.

■ **성녀 김효임 콜롬바(1814-1839)와 성녀 김유리대 올리에타(1787-1839)**

두 여교우는 옥으로 끌려가 옷을 벗기고 매를 몹시 맞는 등 모욕을 당했다. 김효임은 붉게 단 솜으로 열두 번이나 몸을 지지는 혹독한 형벌을 당했으나 안색조차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형리들이 지쳐서 물러났다.

■ **성 손자선 토마스(1844-1866)**

그는 충청도 홍주 거더리 마을의 3대째 천주교를 신봉하는 집안에서 태어나 신리에서 살고 있었다. 태중 교우로서 어려서부터 열심히 수계하였고 나이가 젊은 관계로 교회의 직무를 맡아 본 일은 없었다. 그는 점잖고 침착한 사람이었고 놀랄 만한 독실한 교우이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또, **아무리 바빠도 온 가족이 함께 저녁기도 드리는 것을 거른 적이 없었으며, 더빨리 끝내려고 기도를 혼자서 하는 일이 결코 없었다고 한다.** 주위 사람들은 그의 규칙적인 생활과 좋은 행실을 칭찬하였지만 그가 그의 신앙 증거때 보여 주게 될 영웅적인 용기를 가지고 있다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었다. 매일의 일과에

충실해서 모범을 보이기는 했지만 단호한 성격을 가진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1866년 3월 11일 다블뤼 주교가 체포되고 그 후 며칠이 지난 일이다. 덕산 관가에서 기별이 오기를 다블뤼 주교를 체포할 때 압수했던 돈과 물건을 찾아가는 것이었다. 이 때 교우들 중 아무도 무서워서 가려고 하지 않았으나 손자선 토마스는 겁남을 무릎쓰고 포졸들이 빼앗아 간 주교의 돈을 찾으러 덕산으로 갔다. 그러나 관가에서는 그가 교우인 것을 알자 돈을 내주기는커녕 손자선을 옥에 가두었다. 관장은 배교라고 간주할 수 있을 만한 어떤 표도 얻어내지 못하자 독특한 술책을 썼다. “말만 가지고는 네가 배교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기에 불충분하다. 만일 네가 네 이빨로 네 살을 한 점 물어서 뜯어내지 않으면 네가 배교한 것으로 치고 돌려보내 주겠다.” 손 토마스는 양팔에서 살을 한 점씩 물어서 뜯어냈다. 그러자 관장이 말했다. “그만 됐다. 사형에 처하게 너를 감사께로 보내겠다.”

■ **정약중 아우구스티노(1760-1801)**

죽는 순간까지도 그리스도를 닮으려 하였다. 처형장으로 향하면서 수레 끄는 사람을 불러 ‘목마르다’ 고 하였다. 곁에 있던 사람들이 나무라자 그는 “내가 물을 청한 것은 나의 위대하신 분(그리스도)의 모범을 본받기 위함이요” 라고 대답하였다. … 그리고 그를 비웃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당신들이 수치와 모욕으로 생각하는 것이 내게는 곧 영원한 영광이 될 것이요.”

■ **성 손자선 토마스(1844-1866)**

매일 곤장을 맞았고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포박을 당했다. 몇 번씩이나 거꾸로 매달고 오물을 얼굴에 붓고 입에 넣었다. 이런 더러운 모욕을 당하면서도 그는 다만 “잘됐다” 라는 한마디 말밖에는 하지 않았다. “무엇이 잘됐단 말이냐?” “며칠째 세수를 못했는데 당신들이 이렇게 세수시켜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피땀을 흘리게 해드린 죄인에게는 잘된 일이고, 게다가 목이 말랐는데 당신들이 제 입에 넣어 준 것은 제가 지은죄 때문에 예수께서 마시신 쓸개와 초 대신이 되는 것이니 꽤 잘됐단 말입니다.”

■ **이경언 바오로(이순이 루갈다의 남동생 1792-1827)**

마음속으로 항상 천주를 위하여 순교하려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순교라도 하면 내 모든 죄가 만족하게 보상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자주 품었습니다.” 그래서 올리브 동산에서 당하신 예수의 수난과 십자가의 길을 묵상자료로 삼았으며, 고통 중에 큰 용기를 얻었다고 증언을 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고 길을 가셨는데 내가 왜 이 길을 걷기를 두려워한 단 말인가. 아니, 나는 예수를 한발 한발 따라 가겠다.’ 이렇게 결심하니 기운이 솟아났습니다.”

이 누갈다의 남동생인 그는 순교하기 전에 신앙 고백서이기도 한 귀중한 **옥중수기**에 글을 남겼다. “상처의 괴로움으로 말하자면, 나의 너무나 연약한 육체만으로는 그것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천주의 은총과 성모의 도우심이 아니라면 어찌 한시인들 이를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천주께서 지금까지 내게 무수한 은혜를 내려주신 것으로 볼 때, 분명히 나를 저버리려고 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내가 먼저 천국에 올라가게 되면, 누구든지 이 큰집에 올라오실 때에 내가 마중 나가 우리의 공변된 아버지에게로 함께 가서 그분을 찬미할 것입니다.” 또한 그는 “한편으로 내 죄가무수하다면 또 한편으로는 천주의 자비도 끝이 없으니 이것이 내 오직 하나의 희망이요. 내 힘만 가지고는 한 순간이라도 곳곳이 견디지 못했을거요. 참말이지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 힘은 아무것도 아니고 천주의 보호하심이 모든 것을 이룬다는 것을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 때 보다는 인정하오.” “아아, 나는 도무지 열심도 없고 체질도 약합니다. 그러나 비상한 특은으로 이 형들 위에 놓여 있는 동안 구세주의 매 맞으심과 십자가에 못박히신 것만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매질할 때마다 나는 ‘예수 마리아’ 를 불렀습니다. 20여 차례 매를 맞고 나서 정신이 아득하여지는 것을 깨닫고 나는, ‘천주여, 내 영혼을 당신 손에 맡기 나이다.’ 하였습니니다.”

■ **성 최경환 프란치스코(1805-1839)**

그를 비롯하여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하여 40여명의 신자들은 1839년 7월 31일 뜨거운 퇴약별아래 순교의 길을 걸어갔다. 찌는 더위 때문에 일행은 빨리 걸지도 못했고 어린아이들은 울부짖기까지 하였다. 도중에는 이들의 행진을 보고 악담과 저주를 퍼붓는 사람도 있었고 불쌍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최경환은 큰 목소리로 외치며 일행을 격려했다. “**형제들, 용기를 내시오. 주의 천사가 손에 금으로 된 자를 쥐고 당신들의 모든 발걸음을 재고 세고 하는 것을 보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들 앞장을 서서 십자가를 지고 갈바리아로 나아가시는 것을 보시오.**”

■ **성 한이형 라우렌시오(1799-1846)**

1846년 7월 말 포졸들이 은이 마을을 습격하리라는 소문을 듣고 가족들을 피신시킨 후 혼자 집을 지키다가 체포되어, 그 자리에서 심한 매를 맞고 서

울로 압송되었다. 압송될 때 이미 상처투성이의 몸이어서 포졸들은 한이형을 말에 태워 가려 했으나 그는 거절하였다. 또 상처 때문에 신발을 신을 수가 없었으므로 100리가 넘는 길을 맨발로 걸어갔다. 그것은 십자가를 지고 갈 바리아로 올라가시는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였다.

■ 성 조신철 가를로(1795-1839)

평상시 순교를 염원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이런 말을 하였다. “나는 목숨을 바치고 갖은 고통을 당해서 오주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야 한다.”

■ 박보록 바오로(?- 1839)

71세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혹독하고 끔찍스런 고문을 여러 번 받아 기운이 빠지자 “내 육신은 관장의 손에 맡기고, 영혼은 주의 손에 맡기나이다” 하고 기도하였다. 형리들은 그의 뺨을 치고 수염을 잡아 뽑고 천만가지 욕설을 퍼부었다. 그래도 박 바오로는 “이 고통은 은혜이니 천주께 감사한다” 고 말하며 항구심을 보여 주었다. 아마도 이러한 행동은 감옥에 갇힌 동료 신자들에게 많은 용기를 주었는가 보다. 그래서 감사는 “이 수많은 죄수들이 너로 인해 현혹되었으니 너는 마땅히 더 중한 형벌을 받아야 한다” 고 말하며 훨씬 더 무거운 고문을 시켰다.

■ 성 임치백 요셉(1804-1846)

친지였던 천주교 신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스스로 포졸이 되었으며, 감옥에서 김대건 신부에게 직접 교리를 배우고 세례를 받기는 하였지만 결코 신앙 생활에 있어서 충분한 시간은 아니었다. 관원들이 그를 불러내어 문초를 시작했다. “네가 천주교를 믿는다니 참말이냐?” “과연 옥에 갇힌 후부터 경문을 배우는 중입니다.” “천주십계(天主十誡)를 외 보아라” “아직 다 외지 못합니다.” “천주십계도 외지 못하면서 어떻게 천국엘 갈 수 있단 말이냐? 천국에 가려면 여기 있는 이 마리아처럼 유식해야 하느니라.” 이 말을 들은 임치백은 머리를 흔들며 목소리를 가다듬어 말했다. “그러면 자식이 무식하다고 해서 부모에게 효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식한 자식들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부모께 본분을 다할 수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나는 비록 무식하지만 천주께서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은 잘 압니다. 이만하면 족한 것입니다.”

그는 옥에 갇힌 지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재판관이 그를 법정으로 불러 사형을 선고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너무나 기뻐서 같이 있던 교우들에게 아래

와 같이 말했다. “오늘 법정에서 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다고 하오. 나는 아무 공도 없으나 천주의 특별한 은혜로 당신들보다 먼저 죽어 천국에 가게 되면 돌아와서 당신들 손을 이끌고 우리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해 드릴 테요. 그러니 무엇보다도 용맹히 싸우시오.”

■ **성녀 김업이 막달레나(1774-1839)**

외교인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오랫동안 남편을 따라 미신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다행히 교우인 언니가 그녀에게 우상의 헛됨과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의 무익함에 대해서 “그 귀신들은 모두 헛된 물건이니 믿지 말라” 고 자주 일러 주었다. 김 막달레나는 이 가르침을 따라 남편의 책망도 상관하지 않고 집에 꾸며 놓았던 우상과 그림을 불에 던져 버렸다. 그러나 열심히 하느님을 믿으려고 노력했지만 기억력이 약한 그녀는 끝내 아침기도와 저녁기도문을 외우지 못했다.

■ **성 김 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최초의 한국인 신부요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천주교 103위 성인 가운데 한사람, 세례명은 안드레아. 아명은 재복 보명은 지식. 관명은 대건. 본관은 김해.

모방 신부는 1836년 부활절(4월5일)을 전후하여 경기도와 충청도 일대의 공소를 순방하던 중 골배마실에 인접한 ‘은이 공소’를 방문하였다. 그는 여기서 김대건을 신학생 후보로 선발하고 세례를 주었다. 김대건에 앞서 두 소년이 신학생으로 선발 되었는데 최양업(토마스)은 2월 6일에, 최방제는 3월 14일에 각각 서울로 올라와 한문과 라틴어 등 외국으로 유학갈 공부를 하며 수련에 있었다. 그러나 김대건은 7월 11일에서야 이들과 합류하였다. 모방신부는 박해 때문에 국내에서는 조선인 성직자 양성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신학생들을 파리 외방전교회 동양 대표부가 있는 마카오에 보내기로 했다. 세 신학생들은 12월 2일 서울을 떠나기 전, 앞으로 공부하게 될 신학교 교장에게 순명할 것과 교구 신부가 되어 열심히 봉사할 것을 서약하였다. 그리고 12월 3일 중국으로 귀환하는 유방제 신부와 정하상, 조신철 등 신자들의 인도를 받으며 변문으로 떠났다. 이 때 조선인 신자들은 변문에서 새로 입국하는 샤스탕 신부를 맞아들여 귀경하였고, 세 신학생들은 샤스탕 신부를 안내한 중국인 안내원들을 따라 중국 대륙을 가로질러 남하하여 1837년 6월 7일 마카오에 도착하였다.

1. 옥중 서한

천주교는 내게 천주 공경하기를 가르치고 또 나를 영원한 행복으로 인도 합니다. 그들은 저를 잡아 가지고 상륙한 뒤에, 옷을 벗기고 다시 마구 때리며 온갖 능욕을 가하다가 관가로 압송했는데,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관장이 제게 묻기를 “네가 천주교인이냐?” “그렇소. 나는 천주교 인이요.” 라고 대답하였더니, “어찌하여 네가 임금의 명을 거역하여 그 교를 행하느냐? 배교하여라.” 하길래, “나는 천주교가 참된 종교이므로 받듭니다. 천주교는 내게 천주 공경하기를 가르치고, 또 나를 영원한 행복으로 인도합니다. 내게 배교하라는 것은 쓸데없는 말입니다.” 라고 대답했더니, 이런 대답을 하였다고 주리를 틀고서, 관장이 또 말하기를 “네가 배교하지 않으면 때려죽이겠다.” 하기에,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결코 나는 우리 천주를 배반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의 진리를 알려거든 들어 보십시오. 내가 공경하는 천주는 천지와 사람과 만물을 조성하신 이요, 착한 이를 상주시고 악한 자를 벌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그를 공경하여야 합니다. 관장께서 내가 천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형벌을 당하게 해주시니 관장께 감사 합니다. 그리고 우리 천주님이 이런 은공을 갚고자 당신을 더 높은 관직에 올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자, 이 말을 듣고는 관장과 모든 사람이 비웃었습니다.

그 후에 여덟 자나 되는 긴 칼을 가져오기에, 제가 즉시 그 칼을 잡아 제 손으로 제 목에 대니, 둘러섰던 모든 사람이 또한 다 크게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미 배교한 두 사람과 함께 옥에 가두는데, 저의 손, 발, 목, 허리를 어떻게나 몹시 결박 하였던지, 걸을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누울 수도 없었습니다. 또한 구경꾼들이 둘러쌌기에 매우 괴로웠습니다.

저는 밤이 이슥토록 저들에게 교회의 도리를 설명하였더니, 그들은 흥미있게 듣고 나서, 나라에서 금하지만 않으면 자기들도 봉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포졸 들이 저의 봇짐에서 중국 물건을 찾아내더니 이튿날 관장이 제게 중국인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니오, 나는 조선 사람이요.” 라고 대답 하였더니, 그는 저의 말을 믿지 않고 또 말하기를, “중국 어느 곳에서 사느냐?” 라고 묻기에 “나는 중국 광동현 마카오에서 공부하였소. 나는 교우이므로 구경도 하고 또한 교회의 도리를 전할 마음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저를 하옥하라고 명령 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 도적을 가두는 옥에 수감되었고 아전들은 저의 말하는 것을 들어보고는 분명히 조선 사람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이튿날 저를 관장 앞에 대령시켜 놓고 관장이 네가 누구냐고 문초하기, “나는 조선사람 으로서, 공부를 하기는 중국 가서 하였소.” 라고 대답하자 중국말을 하는 통역을 불러 저와 이야기를 시켜 보았습니다.

1839년 박해 때 배교자는 조선 소년 세 명이 서양말을 배우러 마카오로 떠났음을 고발하였을 뿐 아니라, 저와 함께 잡힌 교우들이 벌써 제가 누구라는 것을 실토하였으므로, 오랫동안 저의 신분을 감출 수 없음을 짐작하고, 관장에게 “나는 그 소년 셋 중의 하나인 김 안드레아” 라고 자백하는 동시에, 고국에 다시 들어오려고 고생하였던 것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을 들던 관장과 구경꾼들도 “가련한 소년, 어려서부터 허다한 고생을 많이 당하였구나.” 하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 후로는 임금의 명령에 의하여 배교하기를 독촉하기에 “임금 위에 또 천주께서 계시어 당신을 공경하라는 명령을 내리시니, 그를 배반함은 큰 죄악이라, 임금의 명령이라도 옳은 일이 될 수 없습니다.” 고 대답하였습니다. 다시 교우들을 대라고 위협하기에, 우리에게 는 애덕의 의무도 있고 천주께서 사람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내리신 까닭에 말할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교회의 도리를 묻기에, 저는 장황한 설명을 시작하여 천주의 존재, 만물의 조성, 영혼의 불멸, 지옥과 천당, 조물주를 숭배할 의무, 외교의 헛되고 거짓됨을 말하여 주었습니다. 관장들은 대답하기를 “너의 교도 좋거니와 우리 유교도 좋으니 우리는 유교를 한다.” 하기에 “당신들의 의견이 그러하다면 우리를 편히 지내도록 할 것이고 우리와 서로 화목해야 하지 않겠소. 그런데 그렇기는 고사하고 당신들은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가장 극악한 죄인과 같이 혹평을 하니, 우리 교를 옳고 좋은 교라고 인정하는 당신들로서 마치 극악한 교와 같이 박해하는 것은 당신들 자체에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라고 반박하였더니, 이 말을 들은 그 네들은 다만 어리석은 웃음을 띄울 뿐이었습니다. 관장은 제게 영어로 된 지구 전도를 번역 하라고 분부하기에, 여러 가지 채색으로 두 장을 그렸는데, 한 장은 임금께 드릴 것이며, 지금은 대신들의 부탁으로 간단한 지리서를 편술하기에 분주한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저를 위대한 학자로 인정합니다. 가련한 인생들, 저는 감히 주교 각하께 저의 어머니 우르술라를 부탁드리 옵니다. 저의 어머니는 10년 동안 못 본 아들을 불과 며칠 동안 만나 보았을 뿐 또다시 홀연 잃고 말았으니, 각하께 간절히 바라건데, 슬픔에 잠긴 저의 어머니를 잘 위로하여 주십시오. 이제 저는 진심으로 각하의 발아래 엎디어, 저희 사랑하올 부친이요 공경하올 주교님께 마지막 하직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베시 주교님과 안 신부님에게도 공손히 하직을 고 하옵니다. 이후 천당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옥에 갇힌 탁덕 김 안드레아.

2. 생애

김대건의 사목 활동 기간은 짧았다. 그는 입국하던 해 11월 12월 사이에 서울과 경기도 용인의 은이 공소 등을 방문했는데, 은이 공소에는 그의 동생 난식과 어머니가 살고 있었다. 이 두 달이 조선에서 있는 사목방문 활동의 전부였다. 그의 교회 활동은 선교사의 입국 통로를 개척하는 일에서 시작하여 그 사명을 수행하는 일에서 끝났으니, 말년의 직책은 조선 교구 부교구장 이었다. 그는 1846년 5월 14일 주교로부터 서해 해로를 통한 선교사 영입 방도를 개척하라는 지시를 받고 출범하여 백령도에서 중국 어선과 접촉하고 편지와 지도를 탁송한 후 순위도로 왔다. 거기서 6월 5일 관헌들에게 체포되고 10일에는 해주 감영으로 이송 되었다가 다음 날인 6월 21일 서울 포도청으로 압송되었다. 김대건은 포청에서 3개월 동안 40차의 문초를 받고, 9월 15일 반역죄로 사형이 선고되어 16일 새남터에서 군문 효수형으로 순교하였다. 그때 나이 26세 였다. 그의 시체는 모래사장에 가매장 되었는데 40일 후 이민식(빈첸시오)에 의하여 미리내에 안장되었고, 1901년에는 용산 성직자 묘지로 옮겨졌다가 1951년 그의 두개골을 혜화동 소재 가톨릭 대학으로 옮겨 보관하고 있다. 1857년에 가경자, 1925년 7월 5일에 복자로 되었다가 1984년 5월 6일 성인품에 올랐다.

김대건 신부는 25편의 편지를 남겼는데. 한글본 1편, 한문본 1편 나머지는 라틴어로 쓰여 졌다. 라틴어 편지는 23편으로 비망록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마카오 주재 파리 외방전교회 은사 신부님에게 보낸 편지들로서 조선 입국 통로를 답사할 때의 보고와 옥중 편지이다. 서두를 “신자들 보아라” 로 시작하는 한글 편지는 사형을 앞두고 옥중에서 조선 신자들에게 보낸 회유문이다. 한문 편지는 장문으로 되어 있으며 조선 입국 통로의 개척을 위한 네 번째 답사 여행 후 기록한 것인데 한문 진본은 없고 프랑스 번역본만이 남아 있다. 또한 그는 현재 파리 외방전교회 고문서고에 소장되어 있는 2통의 라틴어 작문과 <조선 전도>도 작성했다. 이 중 작문은 신학생 시절에 작성한 것이고, 지도는 선교사의 조선 입국 안내를 위한 일종의 행정 지도로 부제이던 1845년 초 잠시 귀국했을 때 작성한 것이다. 이 밖에도 교회 측 기록에

는 김대건 신부가 옥중에 있을때 정부 당국의 요청으로 세계 지도를 작성하고, 지리 개설서를 저술하였다고 하나 현재 전해지지 않고 있다.

*** 순교에 대한 열망: 순교의 은총을 청하며**

순교자들은 하느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순교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늘 순교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일부 순교자들은 꿈속에서도 십자가를 보았으며, 십자가를 순교의 의미로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마음의 준비를 하였다.

■ 성 조신철 가를로(1795-1839)

늘 “나는 목숨을 바치고 갓은 고통을 당해서 오주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 고 말했다. 그는 1839년 봄 어느 날 북경에서 돌아오는 중에 꿈을 꾸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와 바오로 두 사도와 함께 타볼산 위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는 것을 본 것 같았고, 또 ‘올해에 순교의 큰 은혜를 네게 주리라’ 는 예수의 말씀을 들은 듯도 해서 땅에 엎디어 감사했다.

■ 성 이호영 베드로(1803-1838)

그는 이런 꿈을 꾸었다. 어떤 친구가 그에게 과거보러 가라고 해서 가 보니 황홀한 음악이 들려왔다. 이호영은 잠에서 깨어나 꿈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문득 충동을 받아 ‘내가 아마 치명하려나 보다’ 라고 생각했다. 그의 예감은 어그러지지 않았다. 몇 달이 지난 1835년 2월 어느 날 저녁 때 집으로 돌아오니 포졸 한 떼가 문 앞에 지키고 있다가 그를 체포했다.

■ 성녀 유소사 세실리아(1761-1839)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남편 정약종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 “나는 천국에 방 여덟이 있는 집을 하나 지었는데 다섯은 벌써 차고 셋만 남아 있었소. 그러니 생활의 곤궁함을 잘 참아 받으시오. 그리고 꼭 우리를 만나러 오도록 하시오.” 과연 그녀의 가족 여덟 명 중에서 다섯 명이 죽었다. 이 꿈은 후에 꼭 들어맞았지만, 그 때 유소사의 가슴에 깊은 인상을 박아 주고 그의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 성녀 최영이 바르바라(1818-1840)

“부모와 남편과 베네딕타가 모두 순교했으니 내 마음이 어찌 안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천국을 생각하면 스스로 위로를 받고 이 은혜를 천주께 감사드리게 됩니다. 나는 기쁨이 넘쳐흐르고 마음이 흔히 작약합니다.”

■ **성녀 고순이 바르바라(1798-1839)**

남편 박종원 아우구스티노와 함께 형조에 끌려가 몹시 매를 맞아 살이 헤어져 떨어져 나가기까지 했다. 그녀는 순교하기를 간절히 원해 죽을 임시에 함께 갇혀 있던 사람들에게 아래와 같이 말했다. “그전에는 형벌하는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벌벌 떨었는데 성령께서 나와 같은 죄인에게도 많은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도무지 무섭지 않고 도리어 기쁩니다. 나는 죽는 것이 이다지도 쉬운 일인 줄을 몰랐습니다.”

■ **성 박종원 아우구스티노(1792-1840)**

그는 늘 이렇게 말했다. “오주 예수께서 나같이 불쌍한 죄인을 사랑하셨으니 나도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옳고, 또 예수께서는 나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으니 나도 그분을 위해 괴로움을 당하고 죽는 것이 옳다.” 그리하여 그는 순교하고자 하는 원의가 불타올랐다.

■ **성 유대철 베드로(1827-1839)**

유진길의 장남으로 서울에서 태어난 유대철은 어려서 아버지의 모범을 따라 입교한 후 열심한 신앙생활을 했다. 천주교를 미워하는 어머니와 누나에게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했으나 그때마다 항상 어머니와 누나의 회개를 위해 기도했다. 1839년 기해박해로 많은 교우들이 체포되어 감동적인 순교를 하자 유대철은 순교를 결심하고 자헌했다. 포청에서 13세의 어린 나이로는 견디기 힘든 형벌과 고문을 받았다. 허벅지의 살을 뜯어내며 “이래도 천주교를 믿겠느냐?” 하고 으름장을 놓는 형리에게 “믿고 말고요. 그렇게 한다고 제가 하느님을 버릴 줄 아세요?” 하고 대답하자 화가 난 형리는 다시 시뻘겋게 단 숯덩이를 입에 넣으려하니 “자요” 하고 입을 크게 벌려 형리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다. 포청에서 총 14회의 신문을 받고 100여 대의 매와 40여 대의 치도곤을 맞아온 유대철은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으나 항상 만족스럽고 평화롭고 기쁜 표정을 지었다. 형리들은 유대철을 배교시킬 수 없게 되자 10월 31일 포청옥에서 몰래 목을 졸라 죽였다. 그는 103위 성인 중 가장 어린 순교자이다.

■ **성녀 손소벽 막달레나(1801-1840)**

“만일 천주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 힘만 가지고는 다만 일각이라도 벼룩이나 이가 나를 뜯어먹는 것만이라도 참아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천주께서는 참아 받을 힘을 내게 주시는 것입니다.”

■ **윤지충 바오로(1759-1791)**

권상연보다 몸이 튼튼하여 마치 잔치에 나가는 사람처럼 즐거운 표정을 하였으며,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교리를 설명하였다. 사형장에 도착하여 윤지충은 사형선고문을 큰소리로 당당하게 읽었다. 그리고 나서 머리를 자르는 목침 위에 머리를 고이고는 여러 번 예수 마리아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며, 침착한 태도로 망나니에게 준비가 다 되었으니 치라는 신호를 하였다. 망나니는 단칼에 목을 쳤다. 한편 권상연 야고버는 모진 태형으로 몸이 허물어져 초죽음 상태로 “예수 마리아” 만 부르며 걸어갔다. 권상연도 예수 마리아를 부르며 윤지충처럼 목이 잘렸다.

■ 유 바오로

그는 “박춘오에게 자기가 임종을 당하는 것을 보거든 예수 마리아의 거룩한 이름을 일러 달라고 간청하였다. … 그런 다음 예수 마리아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나서 평온하게 숨을 거두었다. 그가 죽은 뒤 곧 바싹 마른 그의 얼굴엔 다시 생기가 돌았고 그를 파묻은 외교인들은 장례식 동안 환한 빛이 그의 시체를 둘러싸고 있었다고 말했다.”

■ 성녀 김아기 아가타(1787-1839)

포도대장과의 대화에서 “네가 천주교를 믿는다니 사실이냐?” “저는 예수 마리아 외에는 아무 것도 모릅니다.” 이리하여 혹형을 당했으나 그녀의 대답은 여전했으므로 포장은 그녀를 형조 옥으로 이송했다. 김아기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교우들은 웃으며 말했다. “예수 마리아 외에는 아무 것도 모르는 아가다가 왔군.”

■ 이도기 바오로

때로 자신의 나약함을 없애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를 청하기도 하였지만, 순교자 자신의 육체적인 편안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할 것을 부탁하였다.

■ 성녀 박희순 루치아와 성 남명혁 다미아노

마지막 휘광이의 칼에 목이 떨어질 때까지 기도하였다. 처형장으로 가는 길은 그들에게는 오히려 기쁨의 길이였다. 그 날은 “천국의 과거를 보러 가는 날”이었으며 “천주 곁으로 가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 성 정문호 바르톨로메오(1801-1866)

그는 12월 13일 처형되던 날 순교하러 가기 위해 옥에서 나올 때에도 열심히 기도문을 외고 있었다. 군사들은 그런 그를 조롱했다. “아니, 죽으러 가는데 그렇게도 좋으냐?” “오늘 우리는 천국의 과거를 보는 걸세. 기쁜 날

아닌가?” 이 말에 한결같은 용맹을 지니고 있던 조화서가 대답했다. “그래, 우리는 대단히 행복하다네. 우리는 풍성한 행복을 추수하게 될 걸세.”

▣ 성 이윤일 요한(1823-1867)

그는 대구에서 처형한다는 선고를 듣고 기뻐했다. 떠나면서 그는 아들들에게 말했다. “나는 순교하러 간다. 너희들은 집에 돌아가서 열심히 천주 계명을 지키고, 후에 나를 따르거라” 이러한 태도에서 볼 수 있는 이윤일의 용기는 기도에서 얻은 것이었으니 “그는 항상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라고 같이 잡혀 있던 일행이 증언하였다.

* 감옥에서의 생활

▣ 선교사들은 감옥에서의 생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전교 신부들의 서술에 의하면 한국의 감옥은 높은 담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담에 붙여서 죄수를 가두는 움막은 널빤지로 지은 것이었다. 복판에 남은 자리가 마당이 되고 움막에는 빛이 겨우 새어 들어갈 만한 작은 문 이외에는 뚫린 데라고는 도무지 없고 겨울에는 몹시 춥고 여름에는 무척이나 더웠다. 땅 바닥에는 거칠고 다 떨어진 자리가 깔려 있을 뿐이었다. 교우들은 도둑 모양으로 하루에 아침과 저녁 두 끼씩 반찬 없는 쌀밥이나 조밥을 한 공기 받아 먹을 따름이었다. 이렇게 몇 주일이 지나면 아무리 건강하던 사람이라도 가죽과 뼈밖에 남지 않았다. 50년 전 서울 옥에 갇힌일이 있었던 리델(Ridel, Felix Clair, 1830-1884) 주교가 저들의 이런 불행한 모습을 아래와 같이 서술했다. ‘하루는 기아에 희생된 사람들을 보았다. 아! 이 얼마나 참혹한 광경이냐! 나는 놀라서 뒤로 물러섰다.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고통과 주림과 옴과 나창(癩瘡)으로 얼굴 모습이 완전히 변해 버린 송장이 걸어 다니는 것 같았다.’ ”

▣ 성 다블뤼(Daveluy, Marie Antoine Nicolas, 1818-1866) 주교는 “벌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주림이요, 그보다도 심한 것은 목마름” 이라고 말하였다. 군에서 죄수들을 위하여 쌀이 배급되지만 포졸들을 비롯하여 관리들이 횡령하는 바람에 죄수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거의 없었다. 그래서 “감옥에서 생활하는 것은 이교도나 천주교인을 막론하고 모든 피고인이 감옥을 고문보다 더 두려워한다” 고 달레는 기록하였다.

그는 1839년 대 박해 때에 신자들이 받은 감옥생활의 어려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 “우리 교우들은 이런 옥중에 어떻게나 뻘뻘이 갇혀 있었

던지 잘 때는 다리도 뺄지 못할 지경이었다. 그들이 한결 같이 말한 것은 이 참혹한 옥중의 괴로움에 비하면 고문 같은 것은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이었다. 상처에서 흘러나오는 피와 고름으로 자리는 곧 썩어 버려 견딜 수 없는 악취를 풍겼으며 염병이 발생해 며칠 동안에 여러 사람이 죽어 나갔다. 그러나 벌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주림이요, 그보다도 심한 것은 목마름이었다. 다른 형벌을 받으면서는 옹맹히 신앙을 증거한 이들도 주림과 목마름에는 넘어가는 이들이 많았다. 하루에 두 번씩 주먹만한 조밥 한 공기밖에는 얻어먹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 후에는 자기들이 누워 자는 더러운 벧짚으로 만든 자리를 뜯어먹고 심지어는 옥 안을 기어다니는 이를 잡아먹기까지 했다.”

- ▣ 그래서 많은 경우 혹독한 고문을 당하고 굶주림과 추위에 옥사를 하는 경우도 많았다. 안타깝게도 목마름과 굶주림, 염병, 고문의 여독 등으로 103위 성인들 가운데 9분이, 시복시성을 위해 추서된 124위 가운데에서는 11분이 옥사하셨다.

*** 옥바라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 중에 중요한 것은 가장의 순교로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 순교자 집안을 돌보는 일과, 형벌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감옥에 갇힌 이들과, 병자들을 돌보는 일이었다. 감옥에서의 생활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주림이요, 그보다도 심한 것은 목마름” 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신자들은 감옥에 갇힌 이들에게 **옥바라지**를 해주기 위해서 돈을 모으거나, **교회의 돈을 사용**하였다.

▣ 성 김 루치아(1818-1839)

1839년 순교당시 22세였던 그녀는 길고 아름다운 머리채를 하고 있었다. 감옥에 함께 갇혀있던 4여인들은 사형 선고를 받은 후에도 여러 주일 동안 옥중의 간고와 주림과 목마름을 겪었다. **김 루치아는 아름다운 머리채 를 잘라 팔아 그 돈으로 죽을 사서 함께 갇혀 있는 이들과 나누어 먹었다.** 극심한 배고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머리채를 잘라 팔아야 할 정도로 감옥에서의 생활은 극단적인 것이었다. 당시 젊은 여인에게 있어서 머리카락을 자른다는 것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모두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 성녀 정정혜 엘리사벳(1797-1839)

그녀는 옥에 갇혀있는 동안 위험을 무릅쓰고 **교회의 돈으로 함께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의복과 음식을 대주었으며**, 꾀추 할머니 김 루치아는 일흔한 살의 노령이었지만 **옥중의 병자들을 도와주며 얼마 안 되는 자기 돈을 그들에게 나눠 주었다**. 또한 **최경환 프란치스코와 이문우 요한은 박해가 심했던 1839년에 헌신적으로 의연금을 거두어 옥에 갇힌 교우들에게 보내 주었다**.

*** 자선: 이웃사랑**

▣ **순교자들은 자신들이 매우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고 병든 자들을 돌보았다는 이야기를 여러 곳에서 자주 읽어볼 수 있다**. 초기 신자들이 가성직제도를 실시하여 고백성사를 베풀었을 때에 **희사(喜捨)**를 보속으로 주었던 것으로 보면, 신자들은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마르 12,31)는 성서의 말씀대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은 물론, 이웃에 대한 사랑도 하느님에 대한 사랑 못지않게 열심히 실천하였음을 알 수 있다.

▣ **박해시대 중 교회에서는 길에 버려진 고아들을 돌보기 위해서도 힘썼으며, 길에서 굶어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매장하는 데에 힘썼다**. 이웃사랑에 있어서 빼어 놓을 수 없는 활동은 **영해회의 활동이다**. 한국 천주교회는 **1855년 메스트르 신부**에 의하여 **영해회(嬰孩會)**를 결성하였다. 이 회의 주요활동은 **버림받은 아동들이나 죽을 위험에 처한 어린이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이 살아나면 신자 가정에서 맡아 키우는 어린이 구호사업**을 폈다. 1859년 보고서에 따르면, 미신자로서 **대세(代洗)**를 받고 죽은 아이가 701명, 프랑스의 고아원본부에서 보내온 경비로 양육하는 고아가 43명에 달하였다. 고아들을 돌보아주거나 대세를 준 분으로 **김아기 아가 타, 박종원 아우구스티노, 정의배 마르코, 조 막달레나, 한아기 바르바라, 현경련 베네딕타** 등의 예가 있다.

▣ **성 한이형 라우렌시오(1799-1846)**

그는 빈궁한 사람이면 누구를 막론하고 기꺼이 받아 들여 대접했고 **혹 옷이 남루한 사람을 만나면 자기 옷을 주기까지 했다**. 사람들이 애궁을 과도히 한다고 말하면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헐벗은 이를 입히고 굶주린이를 먹이는 것은 거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이르면 천주께서 이자를 듬뿍 붙여서 모든 것을 갚아 주실 테니까요.**”

▣ **성 최경환 프란치스코(1805-1839)**

그는 애궁시사를 위해 힘쓴 대표적인 분으로서 “**비록 자신이 몹시 가난하면**

서도 곤궁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애금시사를 베풀 방법을 찾았던” 인물로 묘사되어 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돈 문제로 격렬히 성을 내며 싸우는 것을 보고 그들을 말리려 했으나 아무 소용이 없자, 당신이 지니고 있는 돈을 채권자에게 주어 채무자와 화해시켰다. 또한 그는 박애심이 가득하여 사방으로 두루 다니며 불쌍한 사람들의 딱한 사정을 돌봐 주었다. **과일이나 추수할 때에는 그는 가장 좋은 것을 골라 가난한 사람들의 몫으로 남겨 놓았다.**

■ **성 민극기 스테파노(1787-1840)**

그는 “이리 저리 교우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을 격려하고 가르치고 자선사업에 힘쓰며 외교인들에게 포교하여 많은 사람을 입교시켰다. 그는 **종교서적을 베낌으로써 자기의 생활비와 애금에 충당하였다.**”

■ **성 임치백 요셉(1804-1846)**

그는 교우들을 형제와 같이 사랑하고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즐겁게 여겼으며, 의지할 곳도 없고 재산도 없는 사람 4-5명을 끊임없이 먹여 살리고 있었다.

■ **성녀 유소사 세실리아(1761-1839)**

정하상 성인의 어머니 유 세실리아 성녀는 조선 천주교회 개척기의 한 지도적 인물이었던 **정약종의 재취 부인**이었다. 남편이 천주교를 열심히 믿게되어 1800년에 마재마을을 떠나 가족이 한양으로 이사했을 때 **주문모 신부에게서 세례를 받아 입교**하였다. 다음 해 신유년에 천주교에 대한 큰 박해가 일어나고 남편이 잡힐 때 유 세실리아 성녀와 자녀들도 함께 감옥에 갇혔고, 남편과 첫 부인이 낳은 아들 철상이 순교하고, 세실리아는 어린 자녀들과 며느리, 손자와 함께 석방되어 마재마을로 돌아갔다.

이때부터 세실리아 성녀는 **아들 하상 바울로 성인과 딸 정혜 엘리사벳 성녀**를 데리고 **10여 년간의 곤궁한 생활**을 하였다. 그런 가운데서도 **비신자인 마을 사람들의 냉대를 무릅쓰고 자녀들이 신앙생활의 본분만은 잊지 않도록 훈계하고 보살폈다.** 그리하여 장성한 아들 하상이 교회 재건을 꿈꾸며 홀로 한양을 향해 떠날 때에도 세실리아 성녀는 기꺼운 마음으로 그를 떠나보냈다. 아들이 여러 해 동안 북경에 왕래하면서 동지들과 함께 로마 교황에게 편지를 올려 마침내 신부들과 주교가 잇달아 조선에 들어왔다. **세실리아 성녀는 칠십 대의 노령이었기 때문에 성직자들을 직접 시중 들지는 못하지만 매일 미사에 참례하고, 가난한 교우들을 만나면 자기몫의 밥을 내어주곤 하였다.** 그녀는 어떤 때에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 식사를 곁하기까지

했다. 1839년에 다시 박해가 일어났다. 조카가 시골로 피신하기를 권하였다. 그러나 세실리아 성녀는, “나는 늘 순교하는 것이 소원이었다. 이제 그 기회가 왔으니 아들과 함께 죽겠다” 고 말하며 피신하지 않았다. 세실리아는 딸 엘리사벳과 함께 포졸들이 들이닥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동안에 아들 하상도 앵베를 주교를 피신시키고 집으로 돌아왔다. 6월 1일에 마침내 포졸들이 들이닥쳐 한 가족이 함께 잡혀가 감옥에 갇혔다. 그리고 세실리아는 문초에 불려나갔다. “네가 천주학을 한다는 것이 사실이야?” “예, 사실입니다.” 세실리아는 태연히 대답하였다. 포도대장은 다시 으름장을 놓았다. “교를 버리고, 그 일당이 있는 곳을 대라!” 세실리아는 다시 다소곳이 대답하였다. “비록 죽더라도 배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저와 같이 나이 많은 늙은이가 무슨分別이 있어서 사람들을 알겠습니까. 정말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더 답변이 나올 것 같지 않아 세실리아를 다시 옥에 가두었다. 그 뒤에도 세실리아는 다섯 차례의 문초를 받았고, 그때마다 50여 대씩의 곤장을 맞아도 합 250여대의 곤장을 맞았다. 그래도 그녀는 죽지 않았다. 당시의 법률로는 어린아이와 고령의 늙은이는 칼로 목을 베는 것을 금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다섯 달 동안 옥에 갇혀 있으면서 열두 차례의 문초를 받고 매를 맞았다. 이 해 11월 23일, 그녀의 79세의 늙은 몸으로 마침내 옥안에서 숨을 거두었다.

■ **성 최경환 프란치스코(1805-1839)**

1839년 7월 31일 밤 서울에서 온 포졸들이 안양 수리산 최경환의 집을 덮쳤다. 그러나 최경환은 포졸들을 가장 친한 친구들을 맞이하거나 하듯 기쁜 어조로 말했다. “어째 이렇게 늦으셨소? 우리는 오랜 전부터 당신들을 고대하고 있었소이다. 우리는 준비가 다 되었으나 아직 날이 어두우니 좀 쉬고 요기를 해서 기운을 돌우도록 하시오.” … 해뜰 무렵 최경환은 포졸들을 깨워 음식을 대접하고 옷차림이 남루한 한 포졸에게 옷을 한 벌 내주기까지 했다. 그리고 교우 40여 명과 함께 무슨 잔치에 나가는 것처럼 즐겁게 길을 떠났다.

■ **성녀 박희순 루치아(1801-1839)**

그녀는 1839년 기해박해 때 전경협과 돌이서 박해를 피할 방도를 의논하고 있을 때 갑자기 포졸들이 들이닥쳤다. 그녀는 태연하게 “천주의 명령 없이는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 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너무 소리 지르지 말라고 청하고 엽전 몇 꾸러미와 술과 음식을 갖다 준 후 언니 박큰아기와 다른 여교우들과 함께 기쁜 얼굴로 법정으로 끌려갔다.

■ **배교자 전지수도 사랑한 분들**

자신을 붙잡으려 온 포졸들을 대접하는 일을 이해하는 것도 어렵지만, 교우들을 관가에 고발한 배교자를 도와주는 것은 일반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1814년에는 전국적으로 **무서운 기근**이 들어 모두가 **어렵게 생활**을 하였다. **전지수(전지손, 전지순)**라는 배교자가 있었다. 그는 **교우들의 등을 쳐먹을 생각**을 하였다. 그는 경상도의 이 마을 저 마을로 돌아다니면서 돈과 옷가지와 양식을 구걸하였을 때, 교우들은 할 수 있는 대로 그를 도와주었다. 그러나 전지수는 구걸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교우들을 밀고할 생각**을 하였다. 그것은 신자들의 재산을 약탈하여 빼앗으려는 의도에서였다. 이것이 원인이 되어 1815년 강원도와 경상도를 중심으로 **을해박해**가 일어났다. 이 박해는 경상도 청송 고을 노래산에서 시작하여, 진보 고을 머루산 등 산속에 형성된 교우촌을 중심으로 하여 일어났다.

그러다가 배교자 전지수도 어떤 큰 잘못을 저질러 감옥에 투옥되었다. 감사는 그를 굶겨 죽이라고 명을 내렸다. 그러나 옥에 갇혀 있는 신자들이 매일 매일 자신들의 얼마 안 되는 배급을 그에게 주어서 목숨을 건져 주었다. 그 후 그가 석방되어 거의 **알몸뚱이**로 옥 밖으로 쫓겨났을 때에도 신자들은 그에게 몸을 가릴 옷을 주어, 참다운 애덕이 원수를 어떻게 갚는지를 모든 외교인들에게 보여 주었다. 이것은 순교자들이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용서하여라” (마태 18,21)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한 것이며, 더 나아가 “원수를 사랑하라” (마태 5,44)는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것이다.

17

성지순례

▣ 진행자 ◎ 함께

- ☞ 성지순례를 가면서 차안에서 진행한다.
- ☞ 성지순례를 하고자 하는 곳을 미리 답사를 한다. 처음에는 가까운 곳에 있는 성지를 방문하는 것이 좋겠다.
- ☞ 차량에 모두 앉으면 진행자는 복잡한 거리를 지나면 따뜻한 인사한 후 성호경으로 시작을 한다.
- ☞ 준비물- 차량, 활천성당 기발, 점심, 물, 유인물, 볼펜,
- ☞ 참고서적: 가톨릭 교리 신학원, 「초대받은 당신」, 가톨릭 출판사
김웅태 신부, 「현대 성인 구도자들을 위한 가톨릭 교리」, 도서출판 만남
「함께하는 여정」, 통합사목연구소

차안프로그램

- ☞ 봉사자는 유인물을 나누어 준다.
- ▣ 성호경, 주모경
- ▣ 교리를 통해 하느님, 인간, 예수 그리스도, 성령, 교회, 교회사를 배운 후 교회 신앙의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던 여러 성지들을 순례하는 기회를 갖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성지(聖地)란 하느님과 관련된 거룩하고 성스러운 땅으로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의 배경이 된 장소를 말하며, 넓게는 성모 마리아가 발현한 곳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죽어간 사람들의 순교지 등을 일컫습니다. 요즘은 성인들의 탄생지, 유적지 등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 ▣ 성지순례(聖地巡禮)란 바로 이러한 성지를 찾아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지순례의 기원은 뚜렷하지는 않지만 유대교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등 매년 세 번씩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그들이 수확한 곡식을 바치던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전통이 그리스도교 시대에 들어오면서 하느님께 대한

흠승의 의미뿐 아니라 회개하는 행위나 성인들에 대한 존경의 행위, 영적인 은혜를 받기 위한 행위, 은혜에 대한 감사의 행위로 인식되었습니다.

- ▣ 일반적으로 성지순례는 순교의 장소나 순교자의 묘소 등 순교 사적지를 방문 해 순교자의 신앙 정신을 기리고 자신의 신앙을 강화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의 활동 중심지였던 팔레스티나를 찾아가 계시의 원천을 확인하고 신앙을 강화하는 성지(聖地 Holy Land)순례와 기적이거나 거룩한 일이 일어난 곳, 묘소 등을 방문하는 성지(聖趾, Saint Place)순례로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가나 동네, 성인의 집 등 구체적인 사적지는 그냥 사적지라고 불러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정확하게 구별해 사실을 알아두고 사용하되, 지나치게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종합 심화

☞ 종합 심화는 5분

- ▣ 오늘날 우리가 성지를 찾아 순례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동참하고 또한 그리스도를 증거 했던 성인들의 삶을 본받으려는 구체적인 시도입니다. 따라서 성지순례를 통해 우리는 오늘날의 그리스도 증거자가 될 다짐을 해야 하고 그로 인해 이제는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를 성지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 ▣ **국내의 여러 성지(聖趾)들**을 순례하며 순교자들의 믿음을 기리고 행적을 배우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 정신을 마음 깊이 새겨 믿음을 강화하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되도록 단체로 일정을 잘 짜서 참여한다면 성지 순례 자체가 피정일 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 ▣ **오늘은 우리나라의 순교사적지 중 _____**를 갑니다. 순례지침을 잘보면서 기도 안에서 순교성인들이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을 들으면서 나의 신앙을 키워가는 귀한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무리 및 실천사항

☞ 진행자는 실천사항을 실천하도록 과제를 내준다.

- ▣ **이번 주간의 실천사항:**
 1. 성지순례 후 느낀 점이나 소감문 쓰기.
 - 2.
- ▣ **마침성가는_____번입니다.**

성 지 순 례

1. 시작기도(성호경, 주모경)

2. 성지순례란?...

3. 한국 순교자들에게 바치는 기도(기도서 33쪽)

4. 묵주기도 (고통의 신비)

제 1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땀 흘리심을 묵상합니다.

제 2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매 맞으심을 묵상합니다.

제 3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 쓰심을 묵상합니다.

제 4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니다.

제 5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심을 묵상합니다.

5. 마침성가

* 성지 순례지침 *

- 순교 성인들의 사적지의 역사에 대해 미리 알아본다.
- 인들의 말씀을 듣는다는 마음으로 성지순례를 한다.
- 다른 사람들의 기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큰소리를 내거나 개인적인 이야기는 자제한다.
- 복장은 단정히 하며 묵주나 기도서, 성가책을 준비한다.
- 순교신앙사적지에 있는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며 쓰레기는 각자가 가지고 온다.

18

성직자와 수도자

19

신학교, 수도원 방문

▣ 진행자 ◎ 함께

- ☞ 분위기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 기도 상을 차려놓고 초를 켜놓는다.
- ☞ 사람들이 모이면 따뜻한 환대와 인사한 후 성호경으로 시작을 한다.
- ☞ 준비물- 책: 이기정 지음, 「새 영세자를 위한 신앙생활 길잡이」, 2006년, 성바오로 기도상, 초, 십자가, 성경 (2베드 1,3-11), 볼펜,
- ☞ 도입은 10분으로 한다.
- ☞ 참고서적: 가톨릭 교리 신학원, 「초대받은 당신」, 가톨릭 출판사
김웅태 신부, 「현대 성인 구도자들을 위한 가톨릭 교리」, 도서출판 만남
「함께하는 여정」, 통합사목연구소
인만희 신부, 「수도생활 신학」, 사랑의 씨튼 수녀회

도 입

▣ 성호경

▣ 주님, 저희를 부르시는 당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한 분씩 주님을 초대해 주십시오.

- ☞ 각 사람이 돌아가면서 초대의 기도를 드린다. 기도의 화답은 아멘으로 한다.
처음에는 진행자가 먼저 모범을 보이는 것도 좋을 것 같음.

예) 오소서 성령님!..... 오늘 모든 일정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 아멘.

주님! _____ ◎ 아멘.

예수님! _____ ◎ 아멘.

- ☞ 기도가 끝나면 성경을 읽는다. 진행자는 성경구절을 미리 찾아놓는다.

- ☞ 함께하는 여정 제 21과 참조

▣ 어느 분이 2베드 1,3-11를 큰 소리로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 ▣ 성경 말씀 중에서 단어나 짧은 구절을 선택하여 기도하듯이 세 번씩 읽어 주십시오. 읽는 사이사이(약5초 간격)에 묵상을 위해 잠시 침묵을 지켜 주십시오.

- ☞ 같은 구절을 세 번 외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침묵을 지킨다.
- ▣ 어느 분이 성경 본문을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 ☞ 참석자 모두가 함께 성경 본문을 읽을 수도 있다.
- ▣ 2분 동안 침묵을 지키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다.
- ☞ 진행자는 시계를 보면서 시간을 쟀다. 침묵 시간이 너무 짧거나 길지 않도록 주의 한다.
- ▣ 개인적으로 마음에 와 닿은 단어나 짧은 구절을 통해 자신의 마음속에 들려온 말씀을 자신의 생활과 연결시켜 함께 나눴다.
- ☞ 진행자는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이 어떻게 자신에게 와 닿았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느낌을 서로 나누도록 제안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본문을 해설하더라도 토론하지 않도록 한다.
- ☞ 한 사람의 이야기가 끝나면 “잘 들었습니다.” 혹은 “감사합니다.” 등 공동체가 화답을 해준다.

전 개

- ☞ 전개는 30분.
- ▣ 교회의 구성은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로 이루어집니다. 이 구성원들 중에서 오 늘은 사제와 수도자들의 개인생활 및 활동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 성직자

- ▣ 사제는 **공동체를 위해 활동**합니다. 사제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성사의 집행입니다. 고해성사와 미사는 일상적으로 사제들을 시간에 매이게 합니다. 그리고 미사나 그 밖의 성사를 집행하기 위해 성당을 드나들 때도 사제들은 마음의 준비는 물론이고, 성당의 전체적인 분위기 및 성당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한 책임감으로 인해 저절로 마음을 씁니다. 또한 사제들은 **신자들을 위해 사목활동**을 합니다. 이를 위해 시간을 정해 놓고 때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알아보고 정리하면서 준비를 하기도 합니다.
- ▣ 사제는 본당 관할에 속한 모든 신자들의 집을 방문하며, 혼인할 사람들을 상담하고 돕거나 장례와 관계되는 일들을 처리하며 환자들의 영적인 상태도 돌봅니다. 또 예비신자 교리나 신자 재교육, 본당과 교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모임 등 사목적 봉사도 합니다. 또한 개인적인 면담이나 각종 사목 구상을 추진하기도 합니다.
- ▣ 사제는 **교계 제도상의 업무도 수행**합니다. 즉 교구청이나 교회 기관으로부터 공문을 받고 이를 이행합니다. 그 내용은 교육, 피정, 행사, 이동, 모임, 회의 소집 등입니다. 본당에서 연구하고 실천해야 할 여러 가지 알림이나 지시사항, 의견 제안, 방침, 보고 등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 ▣ 일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사제도 개인 생활이 있습니다**. 취미생활이나 대인관계를 위해 기계나 음악, 그림, 조각, 사진, 정원 손질, 드라이브, 각종 운동 등을

즐기며 다양한 분야에서 다채로운 삶을 삽니다. 이처럼 인간적인 생활은 사회 친구들이나 동창들, 교우들, 이웃에 있는 사제들과 함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부모님을 찾아뵙거나 형제 친척을 만나기도 합니다. 기호 식품도 개성에 따라 좋아하는 것이 다릅니다. 이와 같이 일반 사람들과 같은 생활을 하면서 성직을 이행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한 인간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성직자를 대할 때는 일반 사람들과 다른 면 사람으로 대하기보다는 평신도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 애쓰시는 아버지와 같은 친근하면서도 교회의 어른으로서의 권위를 지켜 드리면서, 그분들을 위해 많은 격려와 사랑, 기도를 해드리는 신앙인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 ▣ 혹시 인간적인 잘못이 있을 때라도 훌륭한 성직자는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임을 믿으면서 주님께서 뽑으시고 택하신 하느님의 사람들을 앞에서나 뒤에서 좋지 않은 언행이나 행동을 하는 것은 삼가야 하겠습니다. 자매님들은 너무 늦은 시간에 사제관에 전화를 하여 면담을 신청한다든지 기도 방해가 되는 노출이 심한 옷들은 입지 않은 센스를 발휘해야 하겠습니다. 형제님들은 사제들과 함께 술을 마시더라도 성무에 방해되지 않도록 12시 이전에 들어가시도록 배려를 해주면서 세상의 많은 유혹들로부터 사제를 지켜드리는 하느님의 수호천사들과 같은 그런 신앙인들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 수도자

▣ 수도회의 3가지 목적

1. **하느님의 영광을 찾음, 하느님께 영광을 드림(to seek the glory of God)**
 - 매일 기도를 바치고, 사도직을 수행하는 수도자의 삶 전체는 이것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 정결, 청빈, 순명의 복음 삼덕을 사는 것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 매일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 자신을 봉헌합니다.
2. **개인성화(sanctification)**
 - 수도자는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복음 삼덕의 삶, 사도직에 열성으로 참여하는 삶, 공동생활 등 이 모든 삶은 개인성화에 필요한 삶입니다. 수도생활은 예수님께서 사시는 삶의 연장입니다.** 개인성화를 위해 나 자신을 비우고 교회의 거룩함에 참여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므로 어떤 모습으로든지 주님께서 교회 안에 활동하시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수도자는 교회 안에서 성사생활을 하고, 수도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3. **인간의 구원과 해방(salvation and liberation of the people)**
 - 모든 사도직은 인간의 구원과 해방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창설자는 그 시대의 시대적 상황에 필요한 방법으로 인간 구원과 해방을 위해 활동하였습니다. 인간 구원은 통합적인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신 삶 즉 가난한 사람들과 불

쌍하고 소외된 사람들, 이 세상에 가장 손이 단지 않은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수도자는 이 세상의 복지를 넘어서 예수님의 구원 사업의 핵심인 십자가와 죽음이 수도자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섬길 때 아픔이 따라옵니다. 그들과 함께 할 때, 수도자는 마음과 육신이 함께 고통을 받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향한 연민 때문에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창설자의 카리스마와 일치시켜서 현 시대의 상황 안에서 인간 구원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면서 매일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자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 교회와의 일치

1. 교황과 교구장과 일치

- 교회의 인준을 받은 수도회는 교회 안에서 활동을 합니다. 성부로부터 파견을 받으신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구원사업을 위해 제자들을 부르셨고, 파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그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기 위해 수도자들은 교회 안에서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활동을 합니다. 그러므로 수도회는 교회와 교구의 방침에 따라 목표를 설정합니다. 수도자는 각 지역교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으므로, 교회와 교구장의 일치 속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 수도회 회원들 간의 긴밀한 친교

- 함께 부르심을 받았기에 회원들 간에 친교를 이루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로 한 형제. 자매가 되었기에 인간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수도자는 그 사람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갑니다.

3. 같은 정신, 같은 카리스마를 받은 수도회들과 일치

- 수도자의 상호협력을 보면 장상연합회, 프란치스칸 가족모임, 빈첸시오 정신을 가진 수도회 모임 등등 각 수도회들의 창설자의 정신이 비슷하거나 같은 카리스마를 받은 수도회들의 모임이 1년에 한번이나 2년, 4년 등 수도회의 장상들이 함께 모여 창설자의 정신을 이 시대 상황에 비추면서 서로 영적인것들을 나누는 모임들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창설자

수도회의 창설자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면서 그 시대 안에서 주님을 따른 삶을 몸과 마음으로 모범을 보여주신 분을 말합니다. 기도와 전례를 통해서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는 관상수도회, 반관상수도회가 있으며, 병원이나 사회복지, 장애자 유치부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학교, 피정집, 미디어 선교, 본당 등의 사도직을 하는 활동수도회가 있습니다. 사도직의 성격에 따라 옷의 모양

도 다양합니다. 관상수도회는 전례와 기도에 전념하기 위한 수도복을 입으며, 활동 수도회는 활동하기 편한 복장을 입습니다.

▣ 3가지 서원(복음 삼덕)

수도자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을 초월하는 삶을 사셨던 것을 본받고자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정결, 청빈, 순명을 서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수도자는 서원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선포하고 그분을 특별한 방법으로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전존재, 즉 사람들과 관계하시고 치유하시고 선포하시는 모든 일들은 아버지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시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1. 정결서원

-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 대신에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온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정결서원은 사랑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작은 약속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해 하는 서원입니다. 창설자의 정신에 따라 전통에 충실하고 진정한 존경과 희생적인 사랑으로 파견된 모든 이들에게 봉사합니다. 또한 수도자는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 정결한 사랑이 자라나게 하여, 사랑의 서원으로 묶인 참된 형제, 자매들로서 서로를 아끼고 존경하며 완전한 일치로 나아가도록 매일 노력합니다.

2. 청빈서원

-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자신과 가난한 사람을 동일시 하셨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을 성체조배를 한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성체 앞에서 주님을 만나고, 밖에 나가서 가난한 사람 안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체조배로 비유한 것입니다. 수도자는 예수님처럼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 축성이 되었습니다. 자기주장, 권력과시, 세속적인 부에 대한 유혹 등을 포기하는 가난입니다. 복음적 가난은 하느님 나라를 위해 전적으로 투신하여 봉사 할 수 있게 합니다. 수도자는 하느님을 찾고 예수님께서 걸으신 길을 함께 걷고자 모든 것을 버리고 가난하고 단순한 삶을 살고자 서원을 합니다. 수도자의 복음적 가난은 겸손함과 봉사의 삶, 하느님 섭리에 의탁하는 삶과 공동체의 일치로 이끌어 줍니다.

예수님의 가난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1) 케노시스(Kenosis)

- 코린토 후서 8,9 “ 그 분께서 부유하시면서도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어, 여러분이 그 가난으로 부유하게 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늘에서 풍부히 누리시던 신적 영광을 포기하시고 가난을 선택하셨고, 가난한 신분의 사람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별거승이의 아기로 태어난 모습에서부터 육신이 마지막으로 겪어야 하는 죽음이라는 순간까지 예수님은 가난 그 자체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이 구유에서부터 인생사의 모든 면에 이르기까지 드러내신 케노시스입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당신 자신을 비우시는 것이 예수님의 케노시스입니다.

2) 복음 선포방식의 예수님의 가난

- 예수님은 의식적으로 자기주장을 포기하셨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거나 부자들을 유혹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복음을 선포하실 때 가족과 집과 모든 재산과 직업을 버리고, 순회의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도록 인도되었습니다. 루카에 의하면 그분의 유일한 목표는 예루살렘을 향한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루카 9,51) 예수님은 쉼 곳도, 주무실 곳도, 가정도 집도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히 떠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억압받는 사람들 착취당하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분은 자신이 선포하는 것을 삶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선교 활동은 자신의 전존재적 표현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렸기에 더 이상 내어 줄 것이 없으셔서 당신의 몸과 피를 내놓으셨습니다.

3. 순명 서원

- 수도자는 장상에게 순명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하느님의 부르심을 듣고 기꺼이 응답을 합니다. 이것은 수도자가 자기 성소를 받아들인데 있어서 첫 번째로 하느님께 드리는 순명입니다. 순명서원은 내 뜻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회헌의 내용을 지키는 것은 수도규칙에 순명하는 것입니다. 성숙하고 스스로 결정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순명을 할 수 있습니다. 케노시스의 특징은 자기 비움입니다. 그 빈자리에 예수님을 모시면 자유로워지며 자아의 욕구도 없게 되어 사랑이 그 사람의 중심에 놓이게 됩니다. 그로 인해 하느님께 대한 사랑이 장상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연결 됩니다.

▣ 수도자는 사도직 안에서 각 수도회의 기본 규칙을 지키면서 본당이나 단체에서 공동생활을 합니다. 본당에서의 수도자는 주임사제의 사목에 협조하면서 성사집행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여러 가지를 도와드리며, 본당 신자들의 신앙이 자라나도록 교리나 각 단체의 지도 등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을 도와 주기위해 노력합니다.

▣ 수도자의 개인생활은 하루나 일주일 중에서 먼저 공동체 생활과 기도의 시간, 사도직 준비를 위한 시간을 우선에 두면서 나머지 시간에 자신의 개인적인 성향

에 따라 미술이나, 음악, 운동 등을 합니다. 수도자의 하루일과는 사도직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거의 비슷한 생활을 합니다. 일반적인 수도자의 하루일과(활동 수도회)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상 5시 30분, 아침성무일도 6시 30분, 미사 7시, 아침식사 8시, 공동실 청소 후 묵상 1시간(9시-10시), 사도직 활동 (10시- 오후5시) , 삼종 및 묵주기도, 낮 성무일도 12시, 점심식사 12시 30분, 성체조배 오후 5시, 저녁준비 5시 30분, 저녁 성무일도 6시, 저녁식사 6시 30분, 내일을 위한 사도직 준비 및 공동체 전례연습 7시 30분, 끝기도 8시 기도 후 침묵 안에서 성찰 및 개인기도, 10시 30분 취침. 사도직의 상황에 따라 미사와 저녁성찰 시간이 변경이 되며 수도회의 특성에 따라 기상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무일도는 활동수도회의 경우 낮기도를 생략하는 대신에 묵주기도나 십자가의 길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본당은 저녁에 모임 등이 많아서 취침시간이나 성찰시간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10시 30분 전에는 공동체에 들어와야 성찰과 다음날 묵상준비를 할 수 있으므로 수도자는 깨어서 자신의 시간을 잘 관리해야 하며, 일반 평신도들과 사제는 수도자들의 하루 일과를 알아서 기도와 공동체 시간 등을 배려하면서 전화를 할 때에도 기도 시간을 피해서 하는 등 수도자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기도와 활동이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갈 때 영과 육의 건강을 지킬 수 있으며, 파견된 곳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수도자가 될 것입니다.

☞ 진행자는 유인물을 나누어 준다.

종합 심화

☞ 종합 심화는 5분

- ▣ 사제나 수도자는 혼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이기에 겪어야 하는 아픔이 있으며, 심리적으로 약하게 될 때 외롭거나 고독을 느끼기도 하며, 많은 일을 하다보면 마음안의 여유가 없어서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며 고집을 피울 때도 있습니다. 만약 취미나 성격이 비슷하거나 통한다면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사제와 수도자가 본연의 위치를 지키면서 인간적으로 성숙 하도록 도와주며, 인간적인 잘못이 있을 때는 감싸주고 기도해 줄때 성직자와 수도자는 큰 용기와 힘을 얻어 많은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쁘게 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사제나 수도자를 만나고자 할 때는 본당과 교구의 여러 가지 바쁜 일로 인해 전화 할 때마다 연결이 안 될 수도 있기에 직접 문의하기 보다는 본당 사무실에 알아본 후에 찾아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 또한 갑자기 찾아가기 보다는 미리 면담 신청

을 해서 약속 시간을 정해 놓고 만난다면 사제나 수도자가 자신의 시간을 조정하여 영적으로 보다 깊은 만남을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만남은** 서로의 성장을 위해 기도하면서 도와주라고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선물이라 생각합니다. 귀한 선물을 받기 위해 서로를 배려해주고 준비하면서 만난다면 더욱더 풍요롭고 은총이 충만한 시간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 **존경과 사랑의 뜻으로 격려와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사목 활동을 하면서 많은 일들과 만남으로 인해 지치거나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는 차갑거나 사무적인 태도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비판하기 보다는 기도하면서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도록 휴식을 취하거나 격려를 통한 인간적인 배려 또한 필요합니다. 이렇게 공동체의 기도와 사랑을 받은 성직자와 수도자와 평신도들이 서로 일치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하느님 나라를 지금 이곳, 이 장소, 이 사람들, 이 상황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면서 서로의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마무리 및 실천사항

☞ 진행자는 실천사항을 실천하도록 과제를 내준다.

▣ **이번 주간의 실천사항:**

1. 성직자 수도자들을 위한 기도드리기.
2. 신학교, 수도원을 방문한다.

▣ **자유기도를 바치면서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도가 끝나면 “아멘.” 하고 응답합니다.

주님! _____ ◎ 아멘.

예수님! _____ ◎ 아멘.

진행자는 모든 기도가 끝나면....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 진행자는 자유기도가 끝나면 성가를 부른다.

▣ **마침 성가는 _____ 번입니다.**

성직자와 수도자

* 성직자

- ▣ 성품성사에 의해 축성되며, 주교와 사제와 부제를 성직자라고 합니다. 사제는 주교와 협력하여 복음을 선포하고 성사를 집전하며 신자들을 사목합니다.

* 수도자

- ▣ 남, 여 수도회가 있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정결, 청빈, 순명의 복음 삼덕을 서원하면서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고자 교회 안에서 공적으로 봉헌하는 사람들입니다.

▣ 수도회의 3가지 목적

1. 하느님의 영광을 찾음, 하느님께 영광을 드림
(to seek the glory of God)
2. 개인성화(sanctification)
3. 인간의 구원과 해방(salvation and liberation of the people)

▣ 교회와의 일치

1. 교황과 교구장과 일치
2. 수도회 회원들 간의 긴밀한 친교
3. 같은 정신, 같은 카리스마를 받은 수도회들과 일치

▣ 3가지 서원(복음 삼덕)

1. 정결서원
2. 청빈서원
3. 순명서원

20

피정 (신앙생활 재충전)

▣ 진행자 ◎ 함께

- ☞ 분위기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 기도 상을 차려놓고 초를 켜놓는다.
- ☞ 사람들이 모이면 따뜻한 환대와 인사한 후 성호경으로 시작을 한다.
- ☞ 준비물- 책: 이기정 지음, 「새 영세자를 위한 신앙생활 길잡이」, 2006년, 성바오로 기도상, 초, 십자가, 성경 (시편 139편)
- ☞ 도입은 10분으로 한다.
- ☞ 참고서적: 가톨릭 교리 신학원, 「초대받은 당신」, 가톨릭 출판사
김웅태 신부, 「현대 성인 구도자들을 위한 가톨릭 교리」, 도서출판 만남
「함께하는 여정」, 통합사목연구소

도입

▣ 성호경

▣ 주님, 저희를 부르시는 당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한 분씩 주님을 초대해 주십시오.

- ☞ 각 사람이 돌아가면서 초대의 기도를 드린다. 기도의 화답은 아멘으로 한다.
처음에는 진행자가 먼저 모범을 보이는 것도 좋을 것 같음.

예) 오소서 성령님!..... 오늘 모든 일정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 아멘.

주님! _____ ◎ 아멘.

예수님! _____ ◎ 아멘.

- ☞ 기도가 끝나면 성경을 읽는다. 진행자는 성경구절을 미리 찾아놓는다.
- ☞ 함께하는 여정 제 21과 참조

▣ 어느 분이 **시편 139편**를 큰 소리로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 성경 말씀 중에서 단어나 짧은 구절을 선택하여 기도하듯이 세 번씩 읽어 주십시오. 읽는 사이사이(약5초 간격)에 묵상을 위해 잠시 **침묵**을 지켜 주십시오.

- ☞ 같은 구절을 세 번 외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침묵을 지킨다.
- ▣ 어느 분이 성경 본문을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 ☞ 참석자 모두가 함께 성경 본문을 읽을 수도 있다.
- ▣ 2분 동안 침묵을 지키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 ☞ 진행자는 시계를 보면서 시간을 쟀다. 침묵 시간이 너무 짧거나 길지 않도록 주의 한다.
- ▣ 개인적으로 마음에 와 닿은 단어나 짧은 구절을 통해 자신의 마음속에 들려온 말씀을 자신의 생활과 연결시켜 함께 나눕시다.
- ☞ 진행자는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이 어떻게 자신에게 와 닿았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느낌을 서로 나누도록 제안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본문을 해설하더라도 토론하지 않도록 한다.
- ☞ 한 사람의 이야기가 끝나면 “잘 들었습니다.” 혹은 “감사합니다.” 등 공동체가 화답을 해준다.

전 개

- ☞ 전개는 30분.
- ▣ **피정이란** 카톨릭 신자들이 영성 생활에 필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신앙을 쇠신하기 위해서 특별한 기회를 갖는 신앙생활의 한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 일정한 기간 동안 모든 일상을 떠나 묵상과 자기 성찰, 기도 등의 신앙 수련에만 몰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련 중에 들려오는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용한 장소가 적당하므로 대개는 복잡한 도심을 떠나 성당이나 수도원 또는 특별히 꾸며진 피정의 집들을 찾아갑니다.
- ▣ 우리는 살면서 집 안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대청소를 하거나 도배를 새로하는 등 집수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집을 잘 보존하고 관리하려면 이런 일들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내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해 주말에 온 가족이 함께 수도원을 찾아가 피정하는 것은 신앙이 자라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하루를 잡아서 친구들과 함께 피정의 집에서 지도자의 도움을 받아 명상하고 묵상에 잠기는 시간도 좋습니다. 또한 단체로 피정을 하는 것도 좋지만 1년이나 아니면 분기별로 1번씩이나 하루나 주말을 이용한 1박 2일 동안 하느님 안에서 조용히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인 개인 피정도 권장합니다.
- ▣ **피정의 유래**는 초세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이스라엘 성지를 순례했습니다. 그때 좀 더 풍요로운 영성 생활이 펼쳐지도록 순례의 양상을 점차 다양하게 변화 시키려고 노력한 데서 오늘날의 피정이 생겼습니다. 단순히 신앙생활의 쇠신을 피한다는 뜻으로 발전하면서 12세기경까지 내려왔습니다. 성 이냐시오 데 로올라는 「영신수련」이라는 책을 펴내 구체적인 피정 방법을 발전시켰습니다. 이에 **교황 비오 11세는 이냐시오 성인을 피정하는 사람들의 수호성인으로 선포**했습니다. 그 밖에 수많은 성인들도 영성 수련을 위해 유익하고 도움이 되

는 방법들을 제시했고, 그러면서 수련이나 피정은 더 뚜렷하고 짜임새 있는 형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17세기에는 지도자들을 통해 그의 지도에 따라 수련하는 피정 장소들이 등장했으며, 19세기에 들어오면서 성직자들이나 수도자들은 연례 피정을 하도록 교회법으로 정했습니다. 20세기에는 수도자나 성직자들의 영신 수련 생활이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깊은 관상 속에서 하느님과 함께하는 영성 생활의 즐거움을 일반 신자들도 맛보기 위해 스스로 수도원을 방문해 수도 생활에 동참해 보는 예가 많아졌습니다. 또 수도원에서는 이를 조직화해 피정 계획을 세우고 희망자를 모집해 공동으로 피정을 지도하거나 본당으로부터 위탁을 받는 경우도 요즘은 보편화되었습니다.

▣ **피정의 집은 대부분 수도원이나 교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순교 성지를 찾아오는 순례자들을 위한 피정의 집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개인이 교구와 연관 없이 영리 목적으로 피정의 집을 운영 할 수는 없습니다. 피정의 집들은 교회 발전을 위해 교회 사목 활동의 일환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요즘은 공동 피정이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대화, 그룹 토의 및 작업, 강의, 연구, 활동 등 상호 협조 아래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본당이나 피정의 집 등에는 신자들을 위한 피정 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번 정도는 의무적으로라도 이러한 피정에 꼭 참여하면 신앙을 키우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피정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놀러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시간을 함께하기 위한 것이므로 주님을 만나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변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정 중에 갑자기 해야할 일이 생각나 걱정하게 될 만한 것은 미리 정리하는 편이 좋으며, 화려한 옷이나 화장, 부담스러운 의복은 피하고 편안하고 수수한 차림이 좋습니다. 1박이나 오랜 시간 피정을 할 경우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세면도구, 잠옷, 기도서, 성가책, 성경이나 영적독서를 위한 책, 그리고 피정 지도자가 요청한 준비물들을 챙깁니다.

▣ 피정이 시작되면 먼저 고해성사의 전반부인 성찰, 통회, 정개의 정신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알아내고 그 잘못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결심하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조용하고 잔잔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피정 첫 날 저녁 고요할 때 고백성사를 받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먼저 정화를 한 다음 나의 생각을 버리고 피정의 계획과 머물고 있는 환경과 시간표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면서 하느님이 이끄시는 데로 온전히 자신을 내놓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 **피정을 마친 후에는 감사하는 마음을 열고 계속 노력할 것을 결심합니다.** 단체로 피정을 갔다 돌아왔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성당에 들러 주임신부나 보좌 신부 또는 수녀에게 보고를 하고 돌아갑니다.

종합 심화

☞ 종합 심화는 5분

- ▣ 자신을 정돈하고 올바른과 선을 지닌 채 살아가는 삶은 언제나 평온하며 삶속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하느님의 섭리하심을 깨달아 알수 있는 지혜가 열릴 것입니다. 흙탕물을 오랜 시간 동안 놓아두면 흙은 아래로 가라앉아 맑은 물이 남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여러 가지일로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들어 질 때는 잠시 재충전하는 마음으로 피정을 떠나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성직자와 수도자들 또한 의무적으로 1년에 한번은 연 피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 피정을 통해 1년의 양식을 얻으며 한 달에 한 번씩은 월 피정을 합니다. 피정을 통해 받은 은총을 만나는 모든 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리스도를 닮은 성직자와 수도자가 되도록 노력합니다. 참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자신의 있는 곳을 잠시 떠나 하느님 안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간을 자주 갖으면서 영성이 깊어가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무리 및 실천사항

☞ 진행자는 실천사항을 실천하도록 과제를 내준다.

▣ 이번 주간의 실천사항:

1. 1주일에 하루나 한 시간 주님과 함께 침묵 안에 머물기

▣ 자유기도를 바치면서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도가 끝나면 “아멘.” 하고 응답합니다.

주님! _____ ◎ 아멘.

예수님! _____ ◎ 아멘.

진행자는 모든 기도가 끝나면....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 진행자는 자유기도가 끝나면 성가를 부른다.

▣ 마침 성가는 _____ 번입니다.

21

신앙의 발전과 유지

▣ 진행자 ◎ 함께

- ☞ 분위기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 기도 상을 차려놓고 초를 켜놓는다.
- ☞ 사람들이 모이면 따뜻한 환대와 인사한 후 성호경으로 시작을 한다.
- ☞ 준비물- 책: 이기정 지음, 「새 영세자를 위한 신앙생활 길잡이」, 2006년, 성바오로
기도상, 초, 십자가, 성경 (에페 5,6-20)
- ☞ 도입은 10분으로 한다.
- ☞ 참고서적: 가톨릭 교리 신학원, 「초대받은 당신」, 가톨릭 출판사
김웅태 신부, 「현대 성인 구도자들을 위한 가톨릭 교리」, 도서출판 만남
「함께하는 여정」, 통합사목연구소

도입

▣ 성호경

▣ 주님, 저희를 부르시는 당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한 분씩 주님을 초대해 주십시오.

- ☞ 각 사람이 돌아가면서 초대의 기도를 드린다. 기도의 화답은 아멘으로 한다.
처음에는 진행자가 먼저 모범을 보이는 것도 좋을 것 같음.

예) 오소서 성령님!..... 오늘 모든 일정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 아멘.

주님! _____ ◎ 아멘.

예수님! _____ ◎ 아멘.

- ☞ 기도가 끝나면 성경을 읽는다. 진행자는 성경구절을 미리 찾아놓는다.
- ☞ 함께하는 여정 제 21과 참조

▣ 어느 분이 **에페 5,6-20**를 큰 소리로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 성경 말씀 중에서 단어나 짧은 구절을 선택하여 기도하듯이 세 번씩 읽어 주십시오. 읽는 사이사이(약5초 간격)에 묵상을 위해 잠시 **침묵**을 지켜 주십시오.

- ☞ 같은 구절을 세 번 외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침묵을 지킨다.
- ▣ 어느 분이 성경 본문을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 ☞ 참석자 모두가 함께 성경 본문을 읽을 수도 있다.
- ▣ 2분 동안 침묵을 지키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 ☞ 진행자는 시계를 보면서 시간을 쟀다. 침묵 시간이 너무 짧거나 길지 않도록 주의 한다.
- ▣ 개인적으로 마음에 와 닿은 단어나 짧은 구절을 통해 자신의 마음속에 들려온 말씀을 자신의 생활과 연결시켜 함께 나눕시다.
- ☞ 진행자는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이 어떻게 자신에게 와 닿았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느낌을 서로 나누도록 제안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본문을 해설하더라도 토론하지 않도록 한다.
- ☞ 한 사람의 이야기가 끝나면 “잘 들었습니다.” 혹은 “감사합니다.” 등 공동체가 화답을 해준다.

전 개

- ☞ 전개는 30분.
- ▣ 세례를 받고 나면 저절로 신앙이 자라나는 것은 아닙니다.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것이 많음을 확인한다는 말이 있듯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정말 모르는 것이 많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나 자신의 신앙을 유지하고 믿음을 키워 가기 위해서는 미사와 매일 아침 저녁기도 필요하지만 신앙의 선조들의 이야기가 담긴 교회서적을 읽거나 봉사활동을 하는 것 또한 나의 신심을 키우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재교육이나 교육기관등 공부하면 좋을 분야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 여러 가지 재교육

- ▣ **견진성사:** 세례를 받은 후 1-3년 정도가 지나면 견진성사를 받습니다. 대개는 본당에서 견진성사를 위한 교육이 있을 때를 이용합니다. 그러나 여의치 않을 때는 이웃 본당에서 견진성사를 준비시킬 때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 **특강 및 단기 교육:** 본당이나 이웃 본당 또는 교구 차원에서 각종 특강이나 단기 교육 등을 실시합니다. 이는 고정적으로 개설되거나 흔히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또 내용도 매우 다채롭고 유익하므로 기회가 왔을때 꼭 참여하면 좋습니다. 이러한 소식들은주보나 게시판에 소개되므로 평소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 ▣ **교회서적:** 가톨릭교회의 발전을 위해 많은 출판사들이 생겨나 신자들에게 유익한

책들을 계속 펴내고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을 다루는 회 서적들을 자주 구해서 읽는 것도 좋습니다.

▣ **정기 간행물 및 신문 구독:** 교회 내에서 발행되는 주간, 월간, 계간, 연간 정기 간행물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전문적인 것도 있고 잡지다운 것도 있습니다. 또한 가톨릭 신문이나 평화신문 중 하나를 선택해서 구독을 하는 등 한 가정에 최소한 세 가지 정도는 받아 보길 권장합니다.

▣ **교육 기관의 개설 과정:** 신학교나 교리 신학원, 교구청이나 평신도 조직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기간은 몇 달에서 1년 내지 2년 정도거나 그 이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본당 주보나 그 밖의 홍보물에 이러한 교육에 관한 안내가 수시로 나오므로 참고하면 좋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교회의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해 줄 것이며 좀 더 깊은 차원의 종교 생활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 **성경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공부:** 성경 해설, 성경 묵상 등이 있습니다. 신학에 대한 제반 사항들을 좀 더 깊이 알아보고 싶다면 그리스도론, 성사론, 교회론, 마리아론, 종말론, 윤리신학 등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역사에 취미가 있으면 한국 교회사나 세계 교회사를 공부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 밖에도 영성, 교회법, 성인의 전기, 수필, 시, 묵상, 자서전이나 제 2차 바티칸공의회문헌 등을 교회 서점에 들러 구입해서 읽어 보는 것도 나의 신앙을 키워가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종합 심화

☞ 종합 심화는 5분

▣ 나의 신앙의 발전과 유지를 위해서 시간이나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 카톨릭 신학원을 다니거나 성경공부를 하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활천성당에서는 매주 성서 40주간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혼자 성경을 읽는 것도 좋지만 공동체와 함께 성경을 통독하거나 제시된 진도에 맞추어 성경을 꾸준히 읽으면서 성경에 대한 전반적인 입문이나 해설들을 들으면서 읽게 되면 하느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주 본당 신부님께서 강의를 해주고 계시므로 주보에 기재되는 시간이나 날짜들을 잘 확인해서 본당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합시다. 또한 시간이 허락한다면 다양한 기도모임이나 성시간에 참여하는 것도 나의 신심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는 이렇게 다양한 교회서적을 읽거나 평화방송이나 신학원 등을 다니는 방법과, 본당이나 교구에서 실시하는 교육 등에 열심히 참여하면서 꾸준히 하느님을 아는 공부를 하여 나의 신앙과 믿음을 키워가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마무리 및 실천사항

☞ 진행자는 실천사항을 실천하도록 과제를 내준다.

▣ 이번 주간의 실천사항:

1. 교회서적 1권 읽기.
2. 성경공부나 기도모임에 참석하기

▣ 자유기도를 바치면서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도가 끝나면 “아멘.” 하고 응답합니다.

주님! _____ ◎ 아멘.

예수님! _____ ◎ 아멘.

진행자는 모든 기도가 끝나면....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 진행자는 자유기도가 끝나면 성가를 부른다.

▣ 마침 성가는 _____ 번입니다.

수원교구

(신비교육 프로그램)

신비교육 프로그램

제 1 주제 : **하느님은 사랑이시다.(1요한 4,17)**

1. 사람은 절대자를 갈망한다.
2. 사람은 종교가 필요하다.
 - 1) 자연종교와 계시종교
 - 2) 종교인과 신앙인
 - 3) 인생의 대전환
3. 사랑으로 부르시는 하느님.

제 2 주제 :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신다.(요한6, 44)**

1. “나는 믿나이다(Credo in Deum).”
 - 1) 사도신경의 유래
 - 2) 사도신경에 다 있다.
 - 3) 올인 하는 믿음.
2. 예수님이 가르쳐 준 이름 ‘아빠(Abba)’
 - 1) 전능하신 아버지
 - 전능, 영원, 전지, 편재, 전선, 하느님의 정의,
 - 2) 당신이 먼저 부르셨다.
 - 3) 언제나 기다리시는 하느님.

제 3 주제 :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시나이다.**

(성경봉사자회 자료 ; 4개 주제로 세분 가능)

1. 성경이란 무엇인가?
 - 1) 성경이란, 저자, 형성 과정
 - 2) 성경의 분류
 - 3) 성경을 통해 지혜의 샘 찾기
 - 4) 성경을 통해 하느님을 만난 사람의 공통점
2. 구약 입문 (모세오경 인물 중심)
 - 1) 모세오경이란?
 - 2) 하느님의 축복 약속과 아브라함의 신앙
 - 3) 이사악, 야곱, 요셉, 모세
3. 복음(기쁜 소식)
 - 1) 복음서 형성과정

- 2) 공관 복음
- 3) 예수님 전승과 네 복음서의 자료 관계
- 4) 각 복음서의 특징
- 5) 복음서의 중요 내용
- 6) 복음을 어떻게 살아갈까?
4. 바오로 서간(말씀의 산 증인 바오로)
 - 1) 사도 바오로의 생애와 이방인 선교
 - 2) 말씀으로 의화된 삶은?
 - 3) 주님과 함께 하는 은총의 삶
 - 4) 시련을 극복하고 참 평화를 얻는 방법
 - 5)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힘

제 4 주제 : 어떻게 살 것인가? (생활교리)

1. 신자가정에 비치해야 할 성물
2. 그리스도인의 하루 생활
(기상과 몸단장, 인사와 대화, 대인관계, 일과 직무, 휴식과 오락, 하루의 반성, 기도생활)
3. 성가정 운동
4.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
5. 사회정의 활동

제 5 주제 : 사랑의 계명, 십계명

1. 가나안 땅으로 가는 축복의 길
 - 1) 법
 - 2) 법 중의 법
 - 3) 유대인의 십계명 교육(서문에 있다.)
 - 4) 분류법
 - 5) 축복의 길을 가려면.
2. 십계명 바로 알고 누리자.(생활 속의 십계명)

제 6 주제 : 그리스도인의 고통관

1. 그리스도인 고통의 이해
 - 1) 하느님은 벌하시는 분이신가?
 - 2) 왜, 하필이면 나인가?
 - 3) 고통은 은총이다.

2. 고해성사는 짐이 아니라 은총
 - 1) 인간이 인간에게 죄를 고백한다?
 - 2) 고해성사는 의무가 아니라 천주교 신자의 권리
 - 3) 어떻게 누리는가?

제 7 주제 : 전례의 중요로움

1. 전례란?
 - 1) 전례의 여러 형태
 - 2) 전례의 요건
2. 미사란?
3. 미사를 통해 어떤 은혜를 받는가?
 - 1) 말씀의 전례
 - 2) 성찬의 전례
 - 3) 성당을 통해 받는 은총
4. 미사의 구조
5. 미사에 신나게 참여하려면

제 8 주제 : 타종교의 이해

1. 비 그리스도교 종교
 - 1) 불교
 - 2) 이슬람교
 - 3) 개신교
 - 4) 무속신앙
2. 신흥영성운동이란?
 - 1) 신흥영성의 정체.
 - 신흥영성운동이란.
 - 신흥영성의 계보.
 - 포지셔닝(positioning)의 힘.
 - 신흥영성이 어필하는 이유.
 - 2) 왜 위험한가?
 - 신흥영성운동의 반 그리스도교적 성격.
 - 신흥영성운동이 미치는 부작용.
 - 3) 나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 베드로와 사울의 증언.
 - 순교자들의 후예.

- 답은 여기에.
- 3. 가톨릭교회는 그리스도교의 종가

제 9 주제 : 소공동체 활동

(소공동체 봉사자회 자료 ; 2-4개 주제로 세분 가능)

1. 소공동체로 이루어진 본당 공동체
 - 1) 본당 공동체(공동체로서의 본당의 의미, 공소사목 배경 등)
 - 2) 소공동체(소공동체의 의미, 소공동체 사목의 목적)
 - 3) 소공동체와 단체와의 관계
(현안 문제에 대한 올바른 재이해)
 - 4) 소공동체로 이루어진 본당 공동체(본당성장 5단계)
2. 소공동체 사목
 - 1) 소공동체 중심 사목 구조(통합사목적 구조)
 - 2) 소공동체 의식 전환 교육(사제, 평신도 등)
 - 3) 소공동체 사목의 중점 목표(내적 성장 및 외적 활동)
 - 4) 소공동체 사목의 실행
(복음나누기와 본당활동 및 대사회 선교 등)
 - 5) 소공동체 사목의 결실(복음화된 교회와 사회)

제 10 주제 : 자랑스러운 한국천주교회

1. 한국 천주교회는 어떻게 전래 되었나?
 - 1) 자랑스러운 평신도의 자발적 신앙
 - 2) 성직자들의 입국과 활동
2. 박해시대
 - 1) 박해의 원인
 - 2) 박해의 과정(4대 박해를 중심으로)
3. 오늘의 한국 천주교회
 - 1) 종교자유와 일제시대
 - 2) 한국 천주교회의 현재
3. 기리자 순교영성
 - 1) 빛나는 순교신앙(순교성인 소개)
 - 2) 생활 속의 순교영성

제 11 주제 : 사랑의 울타리, 교회법

1. 성사생활

- 1) 성사의 참 의미
- 2) 성사의 은총
2. 그리스도인의 의무(6대 의무)
 - 1) 미사참여의 의무
 - 2) 속죄행위를 할 의무.
 - 3) 고해성사의 의무.
 - 4) 영성체의 의무.
 - 5) 혼인법을 지킬 의무.
 - 6) 경제적 의무
3. 혼인법
 - 1) 혼인의 성사성
 - 2) 혼인장애
 - 3) 관면(관면혼, 바오로 특전, 베드로 특전)

제 12 주제 : 은혜로운 교회생활

1. 사랑의 계명
2. 새로운 계명
3. 하느님 백성의 거룩한 생활
 - 1) 산상수훈
 - 2) 복음삼덕

제 13 주제 : 교회의 어머니, 마리아

1. 마리아는 우상인가?
2. 예수님의 어머니.
3. 교회의 어머니.
 - 1) 왜, 하느님의 어머니인가?
 - 2) 평생 동정
 - 3)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
 - 4) 몽소승천
4. 믿는 이들의 도움이신 어머니.

제 14 주제 : 교계제도

1. 교계제도는 축복의 통로
 - 1) 교계제도의 설정.
 - 2) 교계제도의 구성

- (세계교회와 교황, 교구와 주교, 본당과 사제)
2. 교구, 대리구 조직 및 운영
 3. 사회복지시설 소개
 4. 본당생활
 - 1) 사목평의회 조직
 - 2) 교적업무
 - 3) 구역, 반 모임

제 15 주제 : 기도하는 신앙인

1. 기도의 힘.
2.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란?
3. 내용에 따른 기도
4. 형식에 따른 기도
5.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는가?
6. 이렇게 기도하라(응답 받는 기도)

제 16 주제 : 창조주 하느님

1. 창조주 하느님
 - 1) 유일하시고 전능하시며 사랑이 넘치는 하느님.
 - 2) 혼돈에서 질서(창조 이야기)
2. 창조의 절정(인간의 창조)
 - 1) 창조주 하느님 안에서 누리는 인간의 행복
 - 2) 하느님의 뜻을 거스른 인간
3. 사랑의 하느님
 - 1) 하느님 구원 약속
 - 2) 세상과 인간 구원의 역사

제 17 주제 : 예수님의 일생

1. 예수와 그리스도
2. 예수는 '외아들' '주님' 이시다.
3. 역사상의 예수와 인간 예수
4. 예수님의 공생활
 - 1) 예수님의 가르침
 - 2)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제 18 주제 : 성령의 불꽃

1. 하느님의 영
2. 예수그리스도의 성령
3. 성령이 오실 때.
4. 성령의 은사
 - 1) 성령칠은
 - 2) 성령의 아홉 가지 은사
- 3) 성령의 열매
5.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제 19 주제 : 그리스도교 이해

1. 그리스도교의 유래
2. 그리스도교회의 여러 교파
 - 1) 정교회
 - 2) 루터 교회
 - 3) 성공회
 - 4) 장로교회
3. 예수님이 원하시는 참 교회

